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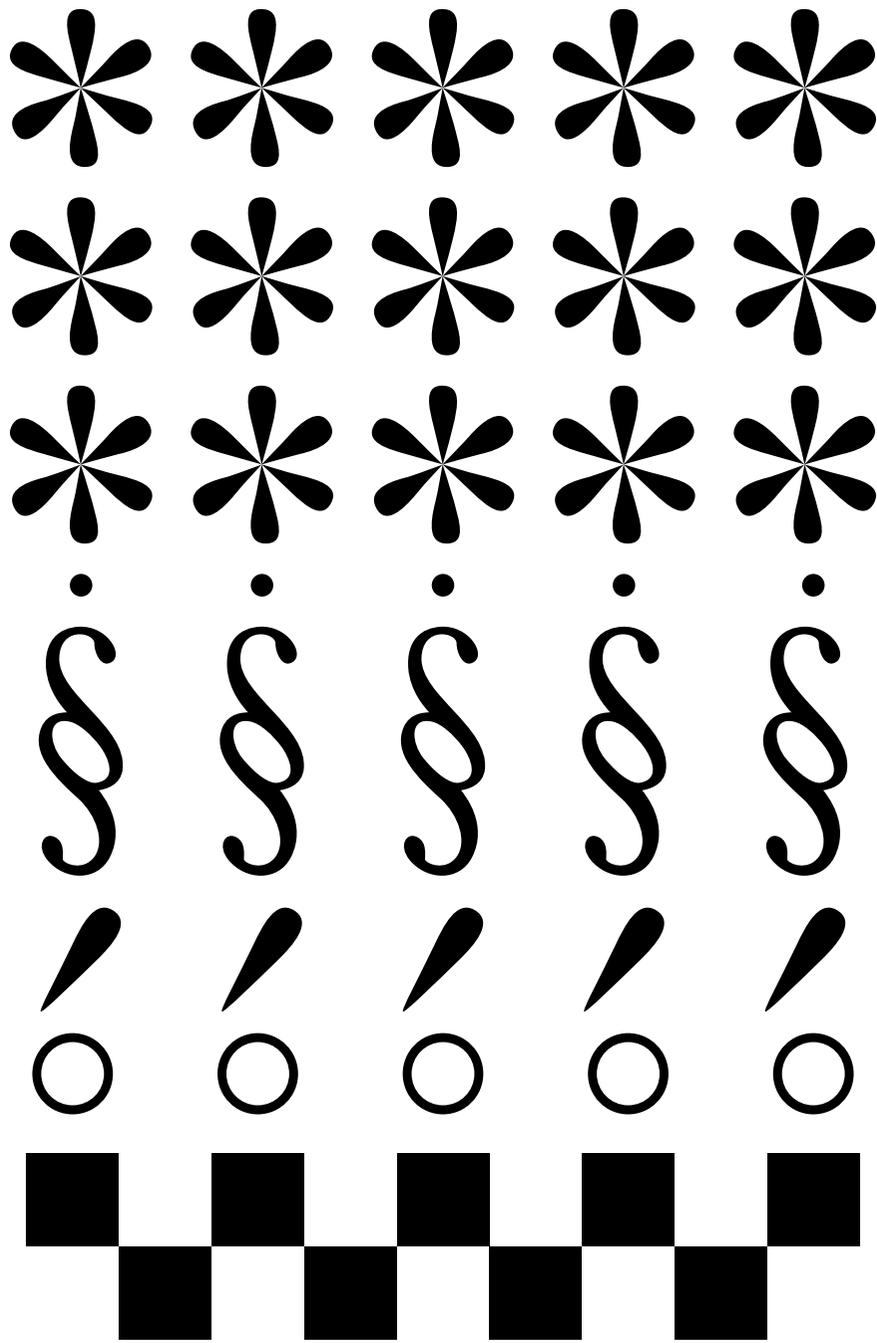
36

Ways



오
마
사
계
관
와
자
신
자
한





«생활을 바꾸는 예술»은 생활의 변화를 고민하는 서울 생활인에게 일상 속 문제의식에 대한 실천적 행동을 유도하는 과정을 지원하여, 문화주체로서의 성장을 돕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터뷰, 워크숍 등 실행 이전 단계 구상 및 준비과정을 진행하는 ‘탐색지원’ 20팀과 공연, 전시, 포럼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실행지원’ 16팀, 총 36팀이 선정되어 생활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생활 속 질문에 대한 탐색 및 실행을 통해 일상의 변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공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예술가, 기획자들의 다채롭고 의미 있는 활동들이 진행되었습니다.

36

Ways

질문에 인용된 문장은 참가 팀의 사업계획서에서 발췌된 것입니다.

INDEX	6
선정 프로젝트	8
GROUP 1	11
일상을 다양하게 가꾸다	12
라이프스타일에 가치관을 담다	40
취향의 감각을 깨우다	76
GROUP 2	105
반려의 범위를 넓히다	106
돌보는 존재에 주목하다	132
식생활로 사회를 바라보다	158
GROUP 3	181
사회현상을 분석하다	182
틈새를 비집다	236
새 몸짓으로 탐험하다	262
REVIEW	285

- 사업명: 생활밀착 문화예술 활동지원
«생활을 바꾸는 예술»
- 사업기간: 2021년 5월~12월
- 사업목적: 실천형 문화예술 활동의 탐색 및 실행지원을 통한 일상의 변화 도모
- 사업내용: 생활 속 문제의식에 대한 자유롭고 유연한 방식의 예술적실천을 통해 일상의 변화와 공공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업 지원
- 추진방법: 공모선정 지원방식

[1] 일상을 다양하게 가꾸다

- 13 지역의 일상놀이 생활백서: 우리동네에서 놀아볼까? 공간크크
- 21 틈: 일상의 틈 브리콜라주
- 27 hue letter(휴레터) - 일상 속 고민을 나누는 사진레터 김선영·문서진
- 33 일상스릴러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빈 테이블

[2] 라이프스타일에 가치관을 담다

- 41 봉제통신 김대홍
- 47 푸르른 일상을 위한, 더 편한 달력 좋아은경
- 55 변화를 만드는 플라스틱 이야기 장한나
- 63 페이스타임(Pace Time) 이정은
- 71 빈칸살롱 신현지

[3] 취향의 감각을 깨우다

- 77 말랑제작소 이주현
- 83 취미수집 김나리
- 89 비보이 흥텐 생애사 연구 (토크 콘서트: 한국에서 비보이로 살아간다는 것) 박은지
- 97 영상 기록으로 보는 재즈 1세대 오선지와 음표들

[4] 반려의 범위를 넓히다

- 107 세상에 나쁜 푸푸는 없다 그때그때
- 115 파키우기 갈무리
- 125 유랑정원 김형관

[5] 돌보는 존재에 주목하다

- 133 퓨처차일드 손윤원
- 139 자아, 예술가, 아빠 김다은

- 145 만성탈수 간병하기 이성직
- 151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최재연

[6] 식생활로 사회를 바라보다

- 159 <KOOC> 실험요리책 프로젝트 강채영
- 167 '먹고' 사는 문제 권효진
- 173 당신이 먹는 것, 그게 곧 당신입니다 (You are what you eat) 정안영

[7] 사회현상을 분석하다

- 183 포모 FOMO 박윤정
- 191 My Little Things! 만석프로젝트
- 197 絃垂幕(현수막) 프로젝트: 검게 드리운 막 나광호
- 203 걸레색 컨템포로컬
- 213 극장종말론: 입문편 제너럴콘서트
- 223 모던 그로테스크 타임스 Modern Grotesk Times Caligolite

- 231 예술의 가장자리: 예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신수연

[8] 틈새를 비집다

- 237 술(術) 내려온다 아차산아래
- 245 언니의 발견 콜렉티브 도래
- 253 마실이 타고 이야기 한 다발~!! 달다방프로젝트

[9] 새 몸짓으로 탐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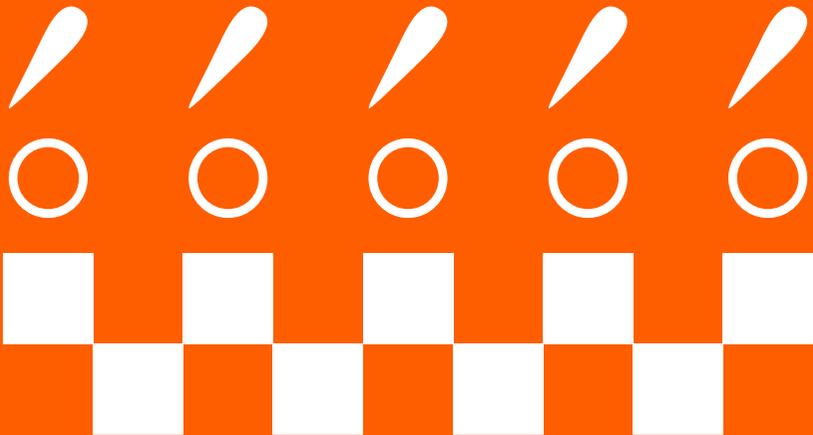
- 263 윤행하는 손 액체괴물
- 269 공장달리기(신용산) 김재민이
- 277 들숨날숨보따리와 춤을 전하경

신청자명	프로젝트명	평 가 자 원
1 박정경	세상에 나쁜 푸푸는 없다	
2 김대홍	봉제 통신	
3 이정은	페이스타임(Pace Time)	
4 김판중	틈: 일상의 틈	
5 정안영	당신이 먹는 것, 그게 곧 당신입니다. (You are what you eat.)	
6 장한나	변화를 만드는 플라스틱이야기	
7 강채영	‘KOOO’ 실험요리책 프로젝트	
8 김재민이	공장달리기(신용산)	
9 손윤원	퓨처차일드	
10 전하경	들숨날숨보따리와 춤을	
11 박은지	비보이 흥텐 생애사 연구(토크 콘서트: 한국에서 비보이로 살아간다는 것)	
12 최재연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13 이주현	말랑제작소	
14 액체괴물	유영하는 손	
15 신수연	예술의 가장자리: 예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16 김민지	일상스릴러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17 유옥란	영상 기록으로 보는 재즈 1세대	
18 문서진	hue letter(휴레터) - 일상 속 고민을 나누는 사진레터	
19 나광호	玄垂幕(현수막) 프로젝트 : 검게 드리운 막	
20 차혜림	파키우기	

신청자명	프로젝트명	진 행 자 원
21 아차산아래	술(術)내려온다	
22 김도화	언니의 발견	
23 이해원	모던 그로테스크 타임스 Modern Grotesque Times	
24 이성직	만성탈수 간병하기	
25 달다방프로젝트	마실이타고이야기한다발~!!	
26 박윤정	포모 FOMO	
27 만석프로젝트	My Little Things!	
28 신현지	빈칸 살롱	
29 좋아은경	푸르른 일상을 위한, 더 편한 달력	
30 김형관	유랑정원	
31 김다은	자아, 예술가, 아빠	
32 김나리	취미수집	
33 권효진	‘먹고’ 사는 문제	
34 컨템포컬	걸레색	
35 공간크크	지역의 일상놀이 생활백서 : 우리동네에서 놀아볼까?	
36 제너럴쿤스트	극장종말론-입문편	



GROUP 1



구조물들이 아이의 신체에 부딪히고 깨지는 것을 천지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겼어요. 그게 제 교육철학과 맞지 않아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마음 편했어요.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월에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 적응하라 육아하라 쉽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밖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시각과 사고가 제 상황을 더 힘들게 했죠. 이외에도 육아하면서 저마다의 상황에 따라 힘든 순간이 참 많을 것 같더라고요. 집 주변만 해도 아이와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놀이터는 만 3세 이하 영유아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요. 놀이 기구의 보폭도 문제였지만 만 5세 이상 아이들이 이미 접거하고 있을 때가 많았는데, 큰아이들이 저희 아이와 함께 놀기엔 신체적으로 발달 차이가 있다 보니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와 안전하게,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시작했고, 기존에 공유할 수 있는 유휴공간들을 활용해 보자고 생각했어요. 같은 산후조리원을 다녔거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같아서,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분들도 많지만, 워킹맘인 저처럼 시간도 만남도 자유롭게 못한 어머님들 또는 주도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활동을 만들고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로 예상했어요. 공간크크에 찾아오시는 보호자를 보면서 용기를 더 내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죠. 이걸 비단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 아이와 활동해 보면 좋겠다고 여겼고요.

Q 예술가의 작업은 ‘작업실’에서 이루어지고, 작업실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밀려 더 외부로 향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공간크크는 오프라인 공간을 운영하시는 거로 아는데, 성북구에 머물게 된 과정을 듣고 싶어요.

ALL 3년간 성북구 곳곳을 돌며 지역의 아이들을 만나 예술 활동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성북에서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죠. 마을 골목골목 깊숙이 관찰할 수 있는 데다, 제 호흡대로 걸고 만나며 정든 곳, 매력을 느끼게 된 곳도 참 많았어요. 발로 걸으며 마을을 탐색하다 보니 마을마다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세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중 몇 곳이 끌렸는데요, 이유는 다 사람이더라고요. 만났던 아이들이 좋아서, 보호자들이 좋아서, 만났던 사람들이 좋아서 말이죠. 그에 더해 이런 공간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가고 싶었어요. 지금 머무는 곳은 장위동인데요. 여기서 만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은 ‘쌤이 여기에 문화예술공간 좀 차려줘요’였어요. 당시 장위동은 재개발 예정이라 학원이 많이 사라진 상태에다 아이들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은 더더욱 많지 않았거든요.

Q 말씀하신 것처럼 장위동은 재개발이 활발한 지역이라 주민들 간에도 원주민과 유입민이 뚜렷해지며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셨어요. “재개발로 인해 사라져가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아카이빙한다”는 데서 예술가 개인에서 지역민이자 기록자의 역할을 더듬어보는 것으로 역할이 다양해져요. 내가 사는 지역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를 무엇으로 보시나요?

ALL 많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유입되는 시기라는 점에 주목했죠. 공간크크는 언제나 지역에 살아가고



▲ <잃어버린 감각을 찾아서>, 김중순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의 문화자원을 아카이빙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이미 그런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재개발지역에는 다양한 이야기와 매력적인 공간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역 내에서의 삶의 모습이 더욱 다양해지고 세대가 변하고 있으니깐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많아져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관심 두기 위해서, 더욱 눈여겨보기 위해서 이만한 게 없어요. 그건 우리 스스로 삶을 디자인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을이 변하고 형성되는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Q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놀이책(가이드)을 만들고, 지역 내에서 실행하며 지속적으로 일상을 축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목표가 눈에 띄어요. 인간을 '놀이하는 존재'로 볼 때, 일상에서 우리는 놀이란 소비에 기반하고, 남기보다는 휘발되는 성격으로 흐르고 있는 요즘, 이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공간크크가 제시하는 일상에서의 놀이 방법은 어떤 건가요?

ALL 공간크크가 생각하는 놀이는 '자율성'과 '주도성'이 발현될 수 있는 모든 활동이에요. 꼭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태만이 놀이가 아닌 거죠. 최근 몇 년간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모험 놀이터를 함께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어요. 참여한 아이 중에는 진흙탕에 들어가거나 못과 망치질하는 등의 활동보다는, 높은 구조물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던 친구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아이에게 가장 즐거웠던 경험을 물으니 “예쁜 석양이 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답하더군요. 그게 바로 그 친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놀이였던 거죠. ‘놀이’에 대한 정의는 광범위한데 보편적으로 ‘놀이’는 쓸모없는 것, ‘낭비되는 것’이라고 저평가된 시각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았어요. 인간은 놀면서 생각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정말 터무니없고 쓸데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는 일들도 ‘무목적성’이라는 비생산적인 활동 안에서 무한한 실험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놀이 활동들이



▲ <꿈 위로 걷기>, 최나현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님을 목격하곤 해요. 맘껏 놀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 전환과 더불어 놀이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 등의 환경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공간크크는 놀이하는 환경에 주목하며 활동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제도 언제나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대주제로부터 출발하고 있죠.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역에서 지속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예술가들과 발굴하고 시도해보고 있어요(웃음). 참여하는 작가가 총 다섯 분인데 각자의 생활 안에서 고민했던 것들도, 시도하고자 하는 활동들도 모두 달라, 대상도 제각각이에요. 저는 사생활과 밀접한 프로젝트를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에는 만 20개월 된 딸아이와 함께 공간 주변을 나들이하며 다양한 놀이를 시도해봤어요. 그 내용을 책서에 담은 예정이에요. 또 12월에는 만 0~3세 영유아와 어머님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놀이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어요.

Q 최근에는 당근마켓 앱, 지역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같은 지역에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움직임, 동네 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 <길>, 임광혁

갈망을 발견하곤 해요. 마침 공유워크숍에서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하려고 당근마켓을 이용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지역민을 만날 수 있는 루트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느낀 점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나눠주실래요?

ALL 그때 제가 예로 든 것은 다른 팀께 피드백을 드리기 위한 거로 기억해요. 아무래도 연령대마다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에 대한 체감온도가 모두 다른 것 같은데요.

20대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더욱더 쉽게 소통하는 듯해요. 예시로 든 프로젝트는 지역 선배로서 청년들의 프로젝트 협력파트너로 도움 드리는 자리였거든요. 기획 단계에서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했고 그에 적합하게 기획하였기에,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일이 조금 더 쉬웠고 반응이 좋았다고 봐요. 공간 주변에 사회초년생이 많이 거주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서로 소통하자는 움직임이 클 거라고 예상하진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지역민을 만날 기회가 온라인으로 옮겨갔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공간크크는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한 적이 없어도 오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공간이다 보니, 아이들 학교에 오셨다가 저희 공간을 접하고 궁금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이고, SNS를 팔로우하게 되면서 온라인으로 소식을 받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서 SNS 운영이 필요한 건 분명해요.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 <마을의 움직임>, 전홍렬

ALL 재개발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 마을, 코로나 시대임에도 접종하지 않은 취약체 아이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마을 아이들의 집단 확진 소식 등이 전해져 공간 및 행사 운영이 힘들었어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찾기란 참 어렵고 힘들었어요. 지난 2년간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 등 논의 방법도 많이 달라져 평소보다 피로해진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꼭꼭 눌러놓았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들뜨고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ALL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개방적인 커뮤니티를 지역 안에서 조성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장위동에서 거점 공간을 가지고 있고, 이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지역의 예술가들과 각자의 시각으로 작품을 만들어냈고, 그것들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양성'을 담보할 기회가 됐죠. 우리가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날 장이 되어서 좋았고, 우리가 장위동에서 문화예술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서 좋았어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ALL «생활을 바꾸는 예술»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율성'과 '주도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지원이 아니었나 싶어요. 처음 설정해 놓은 계획대로만 하지 않아도 되는 열린 구조가 예술가들에게 예술성을 발휘하고 지역을 더욱 면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했다고 봐요. 이런 열린 구조에서 구성원들과 많은 것을 논의할 시간도 만들어냈고 실험해

보고자 상상할 여유도 만들 수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 주체가 되어 길을 찾아갈 여유가 주어진 게 이 프로젝트의 메리트이자 장점이예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ALL 중간보고, 공유워크숍 등 기존 형식과 달랐던 열린 구조의 지원 방법은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다양한 시도를 해볼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생각해요.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ALL 공유워크숍 때도 말씀드렸듯, 제 어려움을 가족과 주변에 당당히 알릴 수 있는 시간이자 엄마로서 한 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찬찬히 들여다볼 여유가 있었을까 싶어요. 참여자분들도 각자 삶의 모양을 디자인할 수 있는 계기이기를, 그 안에서 질문이 싹트기를 바라요.

Q 공간크크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ALL '저거 내 이야기잖아?'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있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필요해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프로젝트를 기획한 사람 중 하나인 동시에 참여자이기도 하거든요. 이웃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 자주 만날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공간크크 프로젝트의 시작이에요. 살아가는 곳, 앞으로 살아갈 곳이 우리 마을임을 함께 인지하고 우리 스스로가 삶을 디자인하고 마을을 디자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해요.

틈: 일상의 틈

브리콜라주

- 김원익, 김판중, 배영은, 신현진, 임영주로 구성된 브리콜라주는, 아생의 사고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작업하는 창작집단입니다.

- Q 프로젝트 <틈: 일상의 틈>은 일상을 보내는 주체로 ‘청소년’에 주목해요. 어떤 계기로 청소년의 일상을 들여다보아야겠다는 기획을 하게 되었나요?
- PJ 모든 게 자연스럽게 진행했어요. 창작집단 브리콜라주에 모인 예술가들은 영상, 글, 연극, 음악, 기획 등 장르가 다 달라요. 반대로 공통점 역시 많죠. 작업 과정을 사랑하고, 새로움을 받아들일

- 수 있다는 면에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각기 다른 장르가 함께 모이는 건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해 봤고, 우리의 교집합인 청소년 교육을 떠올렸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인 마을배움터의 의미는 각별해요. 마을배움터의 정신은 청소년에게 실패할 권리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청소년이 아니지만, 청소년의 마음으로 도전해보자 하는 마음이었죠. 또, 마을배움터에서 수업하며 센터와 관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는 프로젝트를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우리도 센터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좋다고 생각했어요.
- Q 청소년이 관객이자 적극적으로 작품에 참여하는 방식을 택해요. 학교 안, 그러니까 정규 교과 안에서



해보기 힘든 과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해요.

PJ 저희가 추구하는 수업은 기술적인 부분보다 청소년이 사고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어요. 연극 수업을 할 때는 함께 해야 하는 장르의 특성과 더불어 '왜 함께해야 하는지'에 관해, 영상 수업을 할 때는 '본다는 게 도대체 뭔지', 음악 수업을 할 때는 '오감으로 들었을 때 하나의 음악이 어떻게 들리는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청소년과 어른을 떠나서 이런 교육은 항상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일단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잖아요. 기타 같은 악기나, 촬영, 편집처럼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자신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또 자신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느낄 수 있으니까요. 청소년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수업을 진행하고 나면 표정들이 달라져 있어요. 고민이 생기거나, 호기심이 생기거나, 무언가가 청소년들에게 심어졌다는 게 느껴져요.

Q 최근 유튜브에서 청소년이 직접 자신의 일상을 찍는 브이로그, 기획해서 제작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면서, 주어진 것만 취하는 게 아니라 없다면 내가 만든다는 태도를 감지해요. 브리콜라주는 청소년 대상 교육예술 프로그램화를 통한 새로운 예술콘텐츠 제작 및 대상 확대를 장기적인 목표로 두셨죠. 청소년에게 어떤 교육예술이 더해질길 바라나요?

PJ 우리 팀은 가르쳐 주는 수업에서 벗어나, 느끼게 해주는 수업을 하려고 노력해요. 길바닥에 비둘기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저게 죽은 모습이야'라고 하기보다는 '왜 죽었을까? 비둘기가 죽기까지의 삶은 어땠을까?'를 같이 이야기했을 때 그 죽음의 무게는 더 커지잖아요. 비둘기가 먹어온 먹이들과 봐야 했던 것들, 말았던 냄새들을 알면 알수록 길바닥에 죽은 비둘기를 치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생각해봐야 할 대상으로 볼 거예요. 결국 의미는 아는 일이죠.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보고 그에 대해 느꼈을 때, 자기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주체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각자가 생각하는 바는 다 다를 테니까 틀린 생각도 없고요.

Q 하나의 인격체로 청소년을 바라보고 스스로 질문을

찾는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는 내용이 참 반가워요. 성인의 전 단계, 문제를 일으킬 때만 두드러지는 존재, 학업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시기 등 청소년은 단조롭게 정의되었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청소년은 늘 주체적으로 목소리 내고 행동해왔어요. 굵직한 역사적 순간부터 최근에는 스쿨 미투, 학생인권법 등으로 이어지고 있죠. 브리콜라주가 청소년과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동안 청소년이란 말에 가려졌던 면, 또는 나에게도 있었지만 잊고 지낸 면을 발견하시지 않을까 짐작해봐요.

PJ 올해(2021년) 서울시가 마을배움터 예산을 70% 삭감한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이유 없는 조치에 모두 분개했죠.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마을배움터의 활동가들이 아닌, 청소년들이 시청에서 직접! 마칩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이라 브리콜라주도 도와주었어요. 영상 파트는 기자회견 라이브방송을 맡고, 음악 파트는 퍼포먼스의 BGM을, 연극 파트는 청소년들이 할 퍼포먼스를 만들었죠. 하지만 청소년들이 문구를 생각해 피켓을 만들고, 성명서를 써서 기자회견장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했어요. 우리는 서포터 역할이었죠.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마음껏 주장할 수 있는 디딤돌로써요. 기자회견장 안에서 청소년이 외치는 말에 어떤 분들은 눈물 흘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청소년들이었어요. 이로써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됐죠.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서포터해야 할 대상이라는 걸. 청소년들도 다 알아요. 자기에게 소중한 걸 지킬 줄 아는 존재죠.

Q 여러분의 청소년기는 어땠나요? 지금 청소년과 어떤 것이 비슷하고 어떤 것이 다르다고 느끼시나요?

PJ 자기 안에 있는 무언가를 발산하고 싶다는 생각은, 이 시대의 청소년들과 과거의 청소년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무언가가 무언지 모르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던 것도요. 다만 요즘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예전보다 무엇이든 손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은 이것저것 시도해볼 수 있는 듯해요. 이 시대의 혜택이겠죠. 학교에서도 교과목 이외에 예술교육을 시행하는 곳이 많고, 청소년센터, 학원, SNS 등 예전보다는 하고 싶은 걸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함께하는 작업을 보면 예전이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개인화가 심해진 지금, 개개인의 능력은 뛰어나도 생각과 의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은 부족하다고 느껴거든요. 연대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는 듯하고요. 거기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휴대폰이 없어서 누군가를 기다릴 땐 온전히 기다리기만 했어요. 그런 순간들은 솔했죠. 요즘은 기다리는 시간을 휴대폰 하는 시간으로 대체해요. 그럼 기다림을 언제 느껴 볼 수 있을까요? 청소년을 떠나서,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의미를 느끼는 일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PJ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작업을 이어가면서도 협업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협업은 언제나 큰 자극제가 되거든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다른 아티스트와 부딪히는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저 사람은 저걸 잘한다는 걸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느낄 수 있으니까요. 타인은 나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게다가 협업 과정이 좋다는 전제하에 결과물이 나올 때의 짜릿함은 개인 작업에서 느낄 수 없는 희열 같아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할 수 있다는 면에서 다음 협업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는 끈이 됐다고 느껴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면 대상자인 청소년이나, 팀원들을 대면으로 못 보는 일이겠죠(웃음).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PJ ‘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이예요. 청소년 7명과 처음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도, 틈이라는 표현의 느낌을 빠지는 곳, 매꾸야 하는 곳 등으로 다양하게 나왔어요. 것처럼 우리 팀 역시 틈에 관해 각자 다양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멈춤, 쉼, 여유, 빈 공간 등 틈의 이미지가 달랐죠. 그래서 각자의 생각을 꺼내고 그 생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힘들면서도 즐거웠어요. 이번 탐색이 끝나고 다음 작업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틈을 주제로 수업 프로그램 만드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머릿속에 있는 걸 이 세계에 구현하지 않으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같은 방향이어도 세밀한 부분들이 다르니까요. 그렇게 구현된 수업으로 청소년을 만나 쌓인 재료들을 모으면, 또 어떤 프로젝트로 청소년들과 만날지 기대돼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PJ «생활을 바꾸는 예술»은, 특히 탐색 지원은 지금까지 했던 지원 중 결과물에 대한 부담이 제일 적었어요. 담당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지원 목적부터 완벽한 결과물이 아닌, 작은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지원이잖아요? 공고문에 적힌 문구가 마음에 들었고, 그런 지원을 기다렸다는 느낌이었어요.

아마 거의 모든 예술가가 지원서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거예요. 그러나 할애한 시간만큼 작업할 시간이 많이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결과물에

대한 압박이 크니까요. 그래서 선정되면 고민할 시간이 사라져요. 이미 결과물이 이렇게 나올 것인지 지원서에 명시해버려서 결과물만을 위해 경주마가 되어버리는 듯해요. 그런 면에서 이 지원은 이미 이름부터 탐색이잖아요? 작은 변화와 탐색, 두 가지가 굉장한 메리트예요. 우리 팀처럼 처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싶은 단체가 있다면 꼭 추천하고 싶어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PJ 없어요.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PJ 사람은 좋은 걸 감각적으로

알잖아요. 좋은 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요. 예술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좋은 걸 느끼게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 팀원은 어렸을 때 사람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대요. 소극적인 성격이고, 눈이 무섭다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연극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눈을 보게 됐고, 처음 타인의 눈을 오래도록 마주했던 순간, 너무나 많은 감정과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지만 그게 뭔지 몰랐대요. 분명한 건 눈을 마주친 그 순간이 좋아서 연극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작은 흔적이란 결국 그 삶에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 아닐까요. 누구나 좋게 변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시작이 힘든 거죠. 그런 시작을 응원할 수 있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Q 브리콜라주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PJ 우리가 하는 탐색 작업의 결과물은 작은 시도예요. 청소년을 교육하는 예술 강사가 대상자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려는 노력이죠. 이걸 저희가 수업할 때 항상 생각하는 지점이에요. 가르치기보다 우리가 각자의 장르에서 느낀 좋은 것들을 나눠주려고 하죠. 예를 들어 연극을 올린다면,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연기해’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자’라는 방식으로 다가가요. 말뿐 아니라 대본 쓸 때부터 그 청소년의 성격과 잘 할 수 있는 지점을 대사로 준비해 다가가는 식이죠. 그러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청소년이 말하기 편한 대본이면 알아서 잘해요. 가르치지 않아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많은 청소년 교육예술 강사가 봤으면 해요. 관심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결과물은 아마 우리가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웃음).

hue letter(휴레터) — 일상 속 고민을 나누는 사진레터

김선영 · 문서진

● 그린(문서진), 파아랑(김선영)은 에디터이자 포토그래퍼로, <휴레터>를 위해 만났습니다.

☞ @hue.letter

☞ bit.ly/3iC38Sk(아카이빙 페이지)

Q 프로젝트 <hue letter(휴레터) - 일상 속 고민을 나누는 사진레터>는 에디터 그린과 파아랑이 함께 만들어가요. 사진레터 아카이빙 페이지에 사진, 카메라라는 공통 관심사를 써주셔서 이걸 매개로 관계가 시작되었을까 상상해보았어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ALL ‘사진, 카메라’라는 공통 관심사가 느껴졌더니 너무 좋네요. 맞아요, 저희는 대학생 연합 사진 동아리 인화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휴레터>를 구상하게 된 것은 동아리 활동 기간이 끝나고 1~2년이 지난 뒤였고요. 동아리가 끝나고도 계속 카메라를 잡고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제안하게 되었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진으로 뭘 해보자!’ 하고요.

Q <휴레터>는 구체적인 장소로 ‘서울’을 두고 있어요. 전국을 통틀어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자, 토박이보다 타지역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서울이란 공간은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하는 곳일 텐데요. 서울에서의 일상에 주목한 계기가 궁금해요.

ALL 말씀하신 대로 저희만



봐도 다양해요. 에디터 그린은 서울 토박이지만, 에디터 파아랑은 인천에서 살다가 20살 때 서울로 왔어요. 배경은 달라도 우리가 지금 도시적인 공간, 서울에서 살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이 있었죠. 당장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구독자분들과 생각 나누며 함께 고민하다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도 재밌게 살고 싶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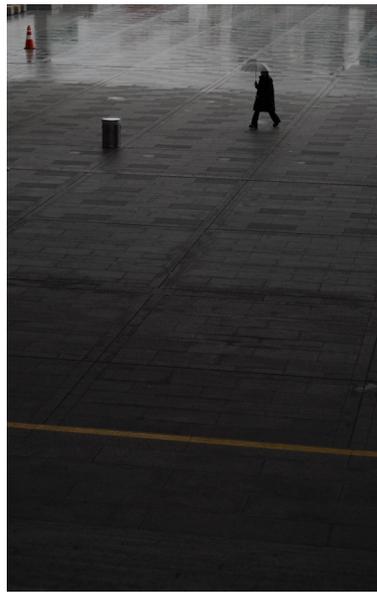
Q 최근 구독 모델로 뉴스레터가 각광 받고 있죠. <휴레터>는 뉴스 대신 '사진레터'라는 표현을 제시하는 점이 눈에 띄어요. 사진을 매개로 연결될 때 기존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LL 확실히 사진이 시선을 사로잡고, 그 잔상이 더 오래 남는 듯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전달된다고도 생각하고요. 우리가 기존에 말하는 '뉴스'레터는 정보성 글을 담고 있는 반면, '사진'레터는 정보성 글 외에 사진으로 이루어졌고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담고 있어요. 사진은 저희의 색이자 구독자분들과 더 가까워지는 매개이기도 하고, 레터 안에서 한 번쯤 생각을 환기해주는 심포 역할도

하고 있죠.

Q '마스크를 써도 예전처럼 소통할 수 있나요?', '퇴근하고 무엇을 해야 하나요?', '도시 산책도 산책인가요?'처럼 일상에 밀착한 질문들을 매개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구독자에게 질문을 던져요. 평소 두 분은 일상에서 어떤 질문을 곧잘 떠올리는 편인가요? 구독자의 반응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나눠주실래요?

ALL 확실히 궁금한 게 많은 편이에요. 레터에서 다뤘던 질문들도 여러 개 중에서 추천 거니까요! 보통 저희의 삶과 관련된 궁금증들, 그리고 포털사이트에 쳐봐도 아무도 알려주지 못하는 질문들이 기억에 남네요. 다뤄보고 싶은 주제로는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나요?', 최근에는 '사진 작업만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도 궁금해요. 사실 저희는 구독자분들께 항상 감사해요.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휴레터>를 발송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에피소드로는, '퇴근하고 뭘 해야 하나요?'라는 주제를 다룰 때 퇴근길에 재미를 주고 싶어서 저녁



▲ 그린의 사진

6시에 맞춰 퇴근길 추천곡을 <휴레터> 인스타그램스토리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구독자분이 "추석이라고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매운 새우깡을 먹으면서 노래를 들으니 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DM을 보내주셨죠. 저희와 마음이 통한 것 같아서 뿌듯하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의 후기가 늘 궁금해서 레터 끝에 매번 다른 방법으로 피드백을 받아보기도 했어요. 그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건 산책할 도시 산책길을 뽑아달라는 것이었어요. 쉽고 빠르게 투표할 수 있도록 구성해 봤거든요. 실제로

독자분이 뽑아주신 문래동으로 도시 산책을 다녀와서 그다음 주 레터를 발행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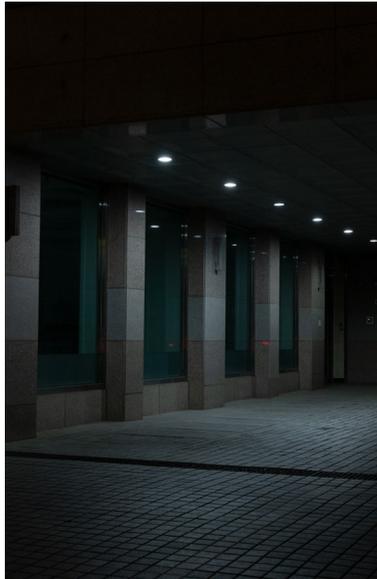
Q 두 분이 평소 뷰파인더를 통해 바라본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있다면 이와 함께 소개해주세요.

ALL <휴레터>로 함께 작업하는 동시에 각자의 작업도 이어가고 있어요.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고 의지가 되어주면서요. 그린은 빛과 그림자가 그려낸 거리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림자, 실루엣, 우산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은 식별되지 않는 스트리트 사진을 찍어보고 있죠. 파아랑도 그린과 마찬가지로 거리 위의 일상을 포착하는데요, 시선이 가는 곳은 달라요.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변화가 중 하나인 홍대에서 사진을 찍는데 사람은 등장하지 않아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숨겨진 저만의 시공간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ALL <휴레터>는 특정 오프라인

공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루어진 프로젝트였어요. 온라인 뉴스레터의 특성상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인터넷에서 서로를 만날 수 있었기에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크게 받지 않았어요. 물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구상 단계서부터 오프라인 모임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도 있지만, 온라인상에서의 만남이 또 다른 장점을 낳기도 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으로 편지를 보냈을 때 약속이라도 한 듯 바로 확인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꾸준히 계셨거든요. 어디서건 매주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고정 독자층이 생겼다는 사실은



▲ 파야랑의 사진

프로젝트를 지속할 이유가 되었어요. 또한 회의나 인터뷰 등 ‘휴레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온라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변화하는 상황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어요. 회의가 필요할 때는 ‘줌’ 프로그램, 각자 레터를 작성하고 편집할 땐 ‘노션’ 프로그램으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온라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언제 어디서든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았어요.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ALL 저희는 궁금했던 일상 속 질문들에 관한 실질적인 답변을 얻었고, 이를 사진의 형태로 표현했어요. 혼자 고민했다면 해결할 수 없던 문제였는데요. 고민을 함께 나누고 각자 나름의 해결책을 강구해나가고 있던 ‘휴레터’ 인터뷰이분들이 없었다면 찾지 못했을 거예요.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을 비롯해 같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본인만의 답, 즉 나만의 색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매주 월요일 밤 10시마다 ‘휴레터’를 보냈어요. 매주 레터를 보내면서 구독자는 작은

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가 매주 메일을 열어 보는 고정 독자층이 되었어요. 저희 이야기에 지속해서 관심 가져 주는 이들을 확보했다는 게 ‘휴레터’를 진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지 이유이기도 해요. 앞으로도 이들과 소식을 나누는 일을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할 생각이예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ALL 항상 가능성으로만 머물렀던 아이디어를 프로젝트 기간 내 차근차근 실현할 수 있었어요. 사진으로 뉴스레터를 만드는 일, 서로의 사진을 릴레이로 이어 가는 일을 현실로 이뤄낼 수 있었죠. 게다가 그 작업을 꾸준히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얻었고요. 진행되는 동안 저희의 사진이 ‘친절한 사진’으로 보일 수 있게끔 노력했어요. 어려운 용어와 멋진 단어들로 꾸미기보다, 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익숙한 단어를 쓰고 용어에는 하이퍼링크를 달아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죠. 구독자분들에게 사진이 어렵지 않은, 우리처럼 일상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예술이 되었길 바라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ALL «생활을 바꾸는 예술»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한 활동 지원서가 기억나요. ‘당신은 어떤 분이신가요?’, ‘요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신가요?’처럼 보통의 지원서에서 만나는 딱딱한 질문과 달랐어요. 개인적, 일상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도록 독려해 주신 덕에 부담 없이 즐겁게 프로젝트를 꾸릴 수 있었어요.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아니었다면 거대한 담론을 다뤄야 한다는 부담에 시작조차 어려웠을 거예요. ‘생활을 바꾸는’ 프로젝트들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좋겠어요. 보완하면 좋을 점으로는 공유워크숍 등 참여자 간 상황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길 희망해요. 특히나 서울문화재단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참여자분들이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서로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거든요. 다음 사업 때는 팬데믹 상황이 나아져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길 소망해요.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ALL 언제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획득+함께 공상할 수 있는 작은 시공간.jpg

Q 두 분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ALL 1차적으로는, 일상 속에서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답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휴레터>를 접하길 바라요. 마스크 때문에 의사소통이 불편하던 분, 퇴근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누워만 있던 분, 매일 오가는 차가운 도시를 낭만적인 경험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처럼요. <휴레터>로 인해 혼자서만 고민하는 게 아니었다는 위로를 받고, 각자만의 답을 찾을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면 만족해요. 나아가 사진을 좋아하고 자주 향유하는 사람들에게도 <휴레터>가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은, 사진을 좋아한다는 건 그다지 현실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종종 생각해요.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는 매개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사람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몇 시간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는 일은 생산성이 없거든요.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사진이 현실에 밝지 못한 일로 분류되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중요한' 일들에 치여 가장자리로 밀려난 예술로서의 사진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향유할 수 있길 바라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진으로 인해 잠깐이나마 사유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누리면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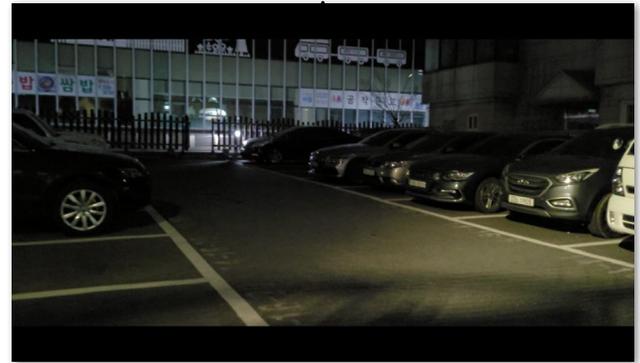
일상스릴러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빈 테이블

● 김민지, 원채연이 꾸린 빈 테이블은 연극, 뮤지컬 장르에서 주로 활동하는 작가와 연출가 팀입니다.

Q <일상스릴러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평온할 것 같은 일상이야말로 스릴러인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해요. 일상의 공포에 초점을 맞춘 계기는 무엇인가요?

ALL 서울문화재단의 «생활을 바꾸는 예술»을 접하고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현재 함께 하는 팀원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술은 과연 무엇일지에 관해 길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생활’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막연한 생각들만 들다가,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말고 말 그대로 우리네 ‘일상’과 연결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러다, 여성으로서 살아가다 느끼 불안감과 공포감에 관해 둘이 입을 모으기 시작했죠. 저희는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지만, 안전 문제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더라고요. 많은 이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긴 ‘강남역 살인 사건’¹이 일어난 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후



1 2016년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 표적 살인 사건. 피의자는 화장실 칸에서 여성이 오길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여성 인권 관련한 수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세상은 분명 조금씩 달라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직도 상가 건물의 개방 화장실을 갈 때면, 퇴근길 어둡한 골목길을 걸을 때면, 늦은 밤 택시를 탈 때면, 불안한 마음에 수없이 뒤돌아보고, 핸드폰에 112를 입력해두고, 택시 번호를 지인에게 전송하는 풍경은 지금까지 변함없어요.

몇 년 전, 스토킹 문제 때문에 위협을 느껴 경찰서에 찾아가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비슷한 문제로 경찰서를 찾았을 때도 들려오는 이야기는 같았어요, 슬프게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마음 편히 화장실 가고, 골목길을 걷고, 택시 타는 날이 오려면 우선 대다수가 이 불안에 공감하고, 초점을 맞추고, 이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시선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따뜻하고 평온한 일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스텔러로 변하는데, 그저 일상을 일상답게 보내고 싶다는 고민을 공유하면 때때로 유난스러운 취급을

받곤 해요.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잖아.”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좋은 곳도 없어.”

이런 말들이 씩씩하고 무책임하게 들려오는 건 왜일까요. 아직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불안감은 정말 ‘아무 일’도 아닐까요. 이 답변을 작성하는 지금도 저는 카페에 있어요. 건물 밖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죠.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며 잠시 무서운 상상을 해요. 쪽문을 조심스레 열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나올 땐 ‘어두운 복도에 누군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오싷한 두려움을 안고 문을 열 테고요. 오늘도,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매일, 모두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Q 참여 대상을 보면 일상 속에서 불안을 겪어 본 모든 이들로 열려있지만, 서울 내 개방화장실, 골목길, 택시 등에서 겪은 경험을 수집한다는 내용에서 대다수 여성이

공유하고 있는 공포감을 상상했어요. 빈 테이블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군요.

ALL 저희 팀 모두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요. 분명 다른 곳에 살고 다른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경험들은 동일했어요. 이 말인즉슨, 저희뿐 아니라 대다수 여성이 일상에서 안전 문제에 관해 비슷한 걱정과 고민을 안고 있다는 방증일 거예요. 인터뷰해본 결과,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비슷한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꼈거나, 자신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여성을 마주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따라서 이러한 안전 문제가 모두의 생활에 밀착되어 있고,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Q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해요. 차츰 그 사람의 행동반경을 좁히고 생각이 그쪽으로 흐른다는 데서 일상을 잠식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가시화하는 방식으로 희곡 창작을 택하고 풍경, 소리, 냄새, 오브제를 활용한 체험형 전시로 발전시킨다고요. 이 경험이 관객에게 어떤 걸 불러일으킬지 기대돼요. 관객, 참여자의 인상적인 반응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ALL 빈 테이블은 희곡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상연되지 않으면



관객들에게 닿을 길이 없다는 데 아쉬움이 컸어요. 또 공연 관람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을 느끼시지 못하는 분들도 희곡을 텍스트로 접할 때는 어렵거나 불편하게 느끼시는 경우를 종종 목도했어요. 평소 품고 있던 희곡의 대중화에 관한 고민을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에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현재는 저희만의 경험으로 국한하지 않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남녀노소 인터뷰이를 모집해 의견을 수집 중이에요. 일상에 만연해 당연하게 여겨지는, 혹은 인지하지 못했거나 스쳐 지났던 공포감에 대해서요.

한 인터뷰이는 “저도 제 불안이 끝나는 날은 제가 죽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응답했어요. 이처럼 저희만의 이야기로 국한되지 않고 다수의 경험을 수집하는 작업이기에, 관객들에게 경험으로 이를 다시 공유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저희가 창작하는 건 ‘희곡’이지만, 제삼자로서 관객이 장면을 목격하는 데 그치지 않기를 바랐으니까요.

게다가, ‘체험’은 말 그대로 몸소 겪는 일이에요. 저희가 치안 문제와 현 사회에서 크게 이슈화되는 젠더 갈등이나 세대 갈등에 관해 들을 때마다, 서로의 문제를 잘

안 들으려 한다고 느꼈어요. “내가 이러한 불안을 느꼈어”라고 말했을 때, 이해하려 하지 않고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라면 경험을 통해 쉽게 몰입하고 공감해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Q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는 말씀도 하셨죠. 흥미롭게도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경험한 사람보다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경우가 많다고 느껴요. 경험할 때 이전과 달라지는 감각이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LL 맞아요. ‘아무 일이 아니지 않다’라는 감각을 느낀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렇지 않지 않은 상황을 겪어본 사람들이고, ‘아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그런 상황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일 거예요. 이전까지는 타인의 불안함이나 두려움에 크게 공감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체험형 희곡 전시’를 통해 비슷한 환경을 경험해봄으로써,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짐작해요.

Q 희곡과 전시가 타인의 불안, 공포에 공감하게 하는 매개가 되리라 기대해봐요. 타인을 이해하는 건 어렵더라도 타인의 감정을 더듬고 상상해보는 건 필요한 자제일 테니까요. 장기적으로 전시를 관람하지 않은 관객들을 위한 2차 창작물(출판, 온라인콘텐츠) 편딩 사업 진행을 목표로 두셨어요. 이를 통해 빈 테이블이 제안하고 싶은 태도, 자세가 있다면요.

ALL 물론 전시 관람객분들이라면, 저희가 제시한 일상 속 스티러 상황이나 장면을 더 가까이 접하는 게 가능하겠죠. ‘체험형 희곡 전시’라는 장르적 특성과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상황으로 인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시 이후에도 아카이빙 도록 제작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 또는 출판으로 프로젝트를 꾸준히 이어 나가고 싶어요. 바로 저희 팀의 목표가 일상 구석구석에 만연한 안전 문제와 불안을 더 많은 이들이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개인 차원의 노력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생활 안전 문제에 관해 음식점이나 카페 등 업장, 기업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요. ‘기존처럼

화장실을 개방해두거나 공공 공간을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관리한다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공공을 위한 시선을 가지게 되는 것에서부터 지금보다 나은 일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ALL 장르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시각, 청각, 후각 등 감각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간당 모실 수 있는 관객의 수가 제한된다는 점이 어렵네요.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AL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사람이 그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번 작업을 통해 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인터뷰에 참여한 이들과 함께 안전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고, 인터뷰들과 단편 희곡들을 바탕으로 ‘체험형 희곡 전시’를 열어 더욱더 많은 이들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려 해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ALL 평소 창작해오면서, 정작 발 딛고 있는 서울과 생활 속 문제에는 크게 고민해볼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이번 기회로 일상 안전 문제에 집중해볼 수 있었고, 서울에 거주하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생활을 바꾸는 예술»을 통해 시민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이상하고도 기분 좋은 자부심이 생겼어요. 이 사업의 메리트는 결과물을 위한 '과정'에도 지원해준다는 지점 같아요. 대다수 지원사업은 보통 작업 과정보다는 '결과'를 선보일 수 있는 개인과 팀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요. 사실 모든 작업이 단시간에 결과물을 선보이기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탐색 지원의 경우 작업 과정을 중심으로 지원해주기에 부담이 적어요. 자료 조사할 때도 다수의 인터뷰이를 모집해 더 면밀히 훑아보고 살필 수 있고, 추후 작업 디벨롭을 생각했을 때도 기본 토대가 생기고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ALL 이 인터뷰처럼, 창작진들의 프로젝트를 재단에서 홍보해주는 지점이 굉장히 감사해요. 또 공유워크숍도 큰 도움이 됐어요. 현재 저희 팀의 작업이 이 정도로 진행되었는데, 다른 팀들의 작업 속도는 어떤지, 작업 방향은 어떤지 등 개인 작업을 한다면 알기 어려운 지점들을 볼 수 있어 좋았어요. 이 작업에 한창 몰두하느라 시야가 좁아졌을 때 다시 객관적인 시선으로 작업을 이끌 수 있게 해주시는 점도요.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은 크게 느낀 적은 없지만, 지원된다면 좋아질 지점일 것 같아 건의 드리는 부분은요. 저희 팀은 창작자 및



기술(작품집 디자이너, 사진/영상 촬영, 편집) 감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획 파트를 담당할 기획자를 따로 모집하기에는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했어요. «생활을 바꾸는 예술»에서 처음 서울문화예술 지원 시스템(SCAS)으로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고 통장 개설했을 때도, 기획자가 없어 초반에 예산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데 다소 난항을 겪었어요. 창작 파트와 기획 파트 모두 창작자가 담당해야 한다는 점이 아쉬웠달까요. 특히 통장 개설의 경우 서울문화재단 인근 지정 은행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역시 불편했고요. 다수의 은행에서 개설하기는 어렵더라도, 지역을 서울 동서남북 권역으로 늘려서 접근성을 고려해 주신다면 좋을 듯해요.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ALL 예술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한 느낌이라, 늘 어떠한 예술을 해야 할지 고민해요. 다만, 최근 들어 자주 하는 생각으로는,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삶을 위한 예술이 되어야 한다' 인데요. 예술은 결국 삶의 한 부분이기에, 삶이 안정적이고 안전해야 예술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Q 빈 테이블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ALL «생활을 바꾸는 예술»을 통해 서울 거주자 또는 서울을 작업 중심 활동지로 작업을 체계화해 나가고 있어요. 사실 이 작업은 대한민국에서 각 지역에서 생활하며 치안 문제를 한 번이라도 느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리라 생각해요. 모두의 일상 속 구석구석이 부디 안온해지길 바라요.

[2] 라이프스타일에 가치관을 담다

생활상에는 저마다의 가치관이 깃들어 있습니다. 소비재나 서비스, 구체적인 실천 등을 선택하는 행위를 통해 어떤 생활방식을 추구하는지 드러나지요.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에서 비롯된 용어 ‘라이프스타일’은 마케팅 분야로 넘어오며 일상을 표현하는 한 축이 되었습니다.

자급자족보다 구매하는 일이 일반적인 사회에서 라이프스타일은 가치 소비로 넘어갈 수밖에요. 다만 소비는 돈을 쓰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아서, 관심을 주거나 발화하는 일도 포함합니다. 누군가의 생각이나 행위에 관심을 두고, 그걸 주변에 말한다면 그 역시 가치 소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봉제통신〉은 대량생산 영역으로 빠르게 포섭된 의복 봉제인의 노동과 이야기를 축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푸르른 일상을 위한, 더 편한 달력〉은 컴퓨터나 핸드폰 앱이 대체하는 달력, 그중에서도 탁상달력에 주목해 자원 낭비가 아니라 순환의 길을 모색하고, 〈변화를 만드는 플라스틱 이야기〉는 만연한 일상품인 플라스틱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이유와 그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탐구합니다. 〈페이스타임(Pace Time)〉은 한 방향으로 달려가게끔 종용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페이스를 알아차리는 데 중점을 두고, 〈빈칸 살롱〉은 빈아웃 같은 강제 종료가 아니면 쉬지 못하는 구조에서 빈칸을 마련해보자며 시와 차를 제안합니다. 다방향으로 뻗은 곳에서 우리는 무얼 더 선택하게 될까요?

봉제통신

김대홍

● 복합문화 공간 파티션WSC를 운영하며, 하나의 생각을 손에 잡히는 물건부터 무형의 워크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는 일을 합니다.

☎ @partition_wsc

Q 최근 주식, 비트코인 등이 경제력을 갖추는 대중적인 수단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1차 산업,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시선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요. 〈봉제통신〉은 의식주 중 하나인 의복을 택해, 봉제인이라는 패션 1차 산업 종사자의 이야기를 남긴다는 기획이에요. 이는 노동의 가치에 집중한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패션디자인 일을 하고 일본 봉제공장에서 1년간 일해오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봉제인의 이야기를 담아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나요?

DH 제작자 1년간 일을

해보면서, 직접 만드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어요. 디자인하면서 매번 느끼는 점은, 실물을 만들어주는 누군가의 노고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들을 현실화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1차 산업 종사자거든요. 패션이라는 화려해 보이는 산업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담는 게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클릭 한 번으로 다 되는 시대에 조금이라도 과정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과정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선택하고 소비할 때 조금 더 생각하고 행동할 거라고 봐요.

Q 보이지 않으니 잊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노동이 특히 그러한데요. 〈봉제통신〉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노동의 진가란 무엇인가요?

DH 요즘은 SNS를 비롯해 걸로 드러나야만 그 진가를 이해하고 알아봐 주는 경향이 있다고 느껴요. 걸로 드러나는 부분도 분명 중요하지만,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일본에서 생활할 때 하루 만나질 재봉틀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하루가 그렇게 보람찼어요. 남들에게 보여준 적도 없고, 종일 묵묵히 재봉틀을 돌린 것뿐인데 말이예요. 요즘은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쉽게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찍기도 해요. 쉽게 생각하니 쉬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천천히 사유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관점에서 노동은

고귀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중요한 요소겠죠.

Q “제3국에서 생산된 값싼 옷들이 흔해지면서 일반 소비자는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지 못하고 가격으로만 판단하는 경향이 높다”고 파악하셨어요. 저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옷은 필수품이되 가격이 선택 기준에 큰 부분을 차지해요. 물론 이제는 재질, 브랜드, 가치 등을 고려해서 소비하는 분위기로 흐르지만, 여전히 패스트패션, SPA¹브랜드가 강세라고 느끼고요. 그런 점을 고려할 때 한 사람 맞춤옷을 제작하는 이야기가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정장이나 한복이 아닌 한 맞춤옷을 더는 보기 힘들어진 요즘, 맞춤옷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DH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개인의 취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술발전과 더불어

1 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백화점 등의 고비용 유통을 피해 대형 직영매장을 운영,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고, 동시에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하고 빠르게 캐치하여 상품에 반영시키는 새로운 유통업체, 다품종 대량공급이 가능하다.

과거보다 개인의 취향과 기호는 확실해졌어요. 하지만 소위 ‘가성비’²라는 단어로 다양성이 무시되고 쉽게 소비되는 세태를 마주하면 참 아쉬워요. ‘일상을 바꾸는 예술’을 내 삶을 조금 더 세심히 들여다보고 내게 맞는 것들을 삶과 하나씩 맞추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때, 온전히 나의 삶과 취향에 맞춘 옷은 그 자체로 의미 깊죠. 쉽게 구하고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Q 책 생활인과 봉제인을 1대1 연결해 각자의 삶을 의복에 담아 표현하고, 책을 발간한다고요. 옷과 책이라는 결과물은 과거부터 꾸준히 존재해왔지만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대개 보이지 않아요. 책 생활인과 봉제인이 그러하죠. 두 분야 사람들이 만나 시너지를 내는 모습 중에 기억에 남은 장면이 있나요?

DH 책의 중요한 요소는 ‘텍스트(text)’이고, 옷의 중요한 요소는 ‘텍스처(texture)’예요. 두 분야의 공통점은 그러한 다양한 요소를 한데 엮어낸다는 점이지요.

2 가격 대비 성능 비율의 줄임말.
3 엮다는 의미의 라틴어.

텍스트와 텍스처라는 단어의 유사성은 어원인 텍스툼(textum)³을 찾아보면 분명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또 책과 옷은 취향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 사람이 읽고 있는 책을 보든, 입고 있는 옷차림을 보든, 그 사람의 관심사와 취향을 대체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Q “잊혀 가는 사람과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기록하고 소개”하고 싶다고요. 기록자 입장에서 잊히는 사람과 그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마음은 어떤 건지 듣고 싶어요.

DH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당연하고 흔했던 그 당시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추억이 되어 버리듯 말이예요. 지금 잊혀 가는 것들을 기록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의미 있어요.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DH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많이 위축되어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펼치지 못해서 그런 듯한데요. 저희가 진행한 탐색 과정이 무언가를 묵묵히 꾸준히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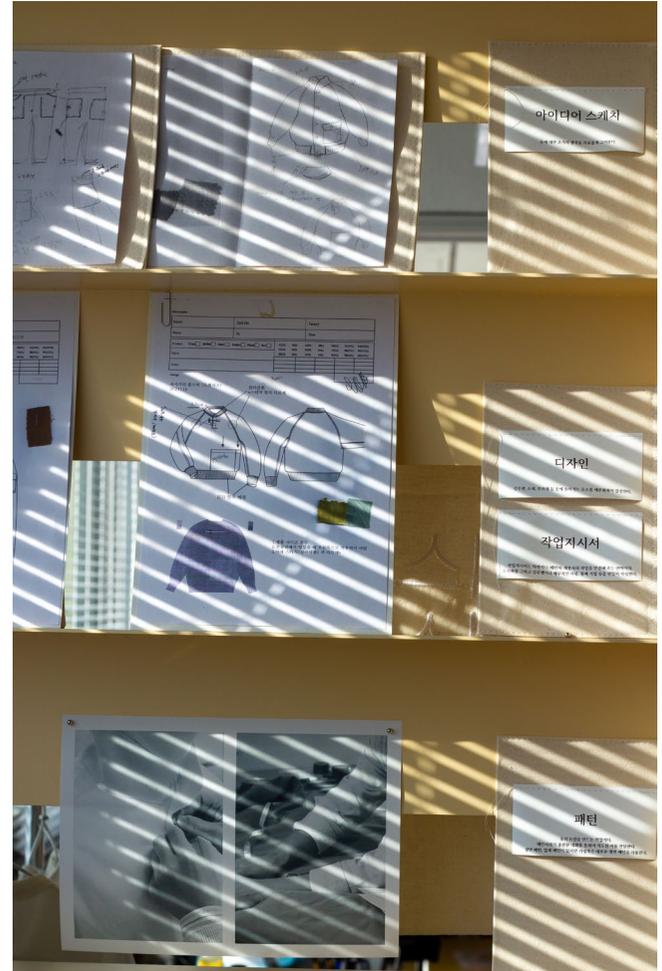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DH <봉제통신>을 통해 제작자에 대한 다양한 면들을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한 점들을 확장하고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책으로 엮어내고 싶어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DH 앞서 지역문화 기록집 <신촌통신>, <연희통신>을 연달아 책으로 냈어요. 그러면서 지역에 상관없이 내가 속해 있던 집단의

이야기를 담아내지 못해서 내심 아쉬웠어요. «생활을 바꾸는 예술»을 계기로 옷과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DH 동대문에서 원·부자재를 구입할 때,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어요. 원칙적으로 개인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데, 그러한 경우가 흔치 않아서 증빙하기가 어려웠어요.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DH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부분들에 의문을 품고 그 부분을 세심하게 탐색하는 과정 자체가 예술 아닐까요.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것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고,

세상을 더 이롭게 할 것으로 고민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 대홍 님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DH 패션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분들. 결과보다는 과정을 살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푸르른 일상을 위한, 더 편한 달력

좋아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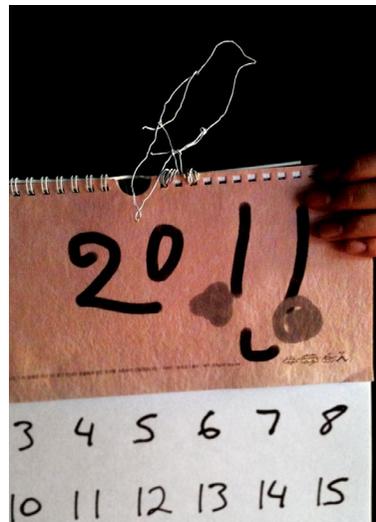
- 버려지는 철사를 수집해 작업하고, 전시, 워크숍, 강연 등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좋아은경입니다.

☞ blog.naver.com/yoaek_com
☞ yoaek.com

Q <푸르른 일상을 위한, 더 편한 달력>은 대다수 직장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탁상달력에 주목해요. 매년 어마어마한 양의 달력이 제작, 배포, 사용되는데도 분리, 배출에는 용이하지 않고 재활용 방식 또한 잘 모르는 현실을 짚으셨어요. 탁상달력에 주목한 계기가 궁금해요.

EK 우연한 계기로 달력 철사로 작업을 시작했고, 일상에서 버려지는 철사를 재료로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철사라는 재료에 큰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꼭 버려지는 것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던 것도 아닌데요. 탁상 작업을 시작하고 보니까 손쉽게 쓰고 버려지는 철사가 정말 많았어요. 새로 살 거를도 없을 만큼요. 달력 용수철 철사, 빵끈 철사, 야채 단 묶는 철사 등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전시하고, 워크숍도 하고, 강연도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에 너무 많이 둘러싸여 있다는 점이에요. 그 물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폐기되는지 과정을 모른 채 사고 쓰고 버리잖아요. 물론 쓰지 않고 사고 버리는 것도 상당하죠. 철사가 들어간 여러 물건 중에서 빵끈 철사 같이 묶기 위해 쓰는 철사는 그것을 안 쓰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기술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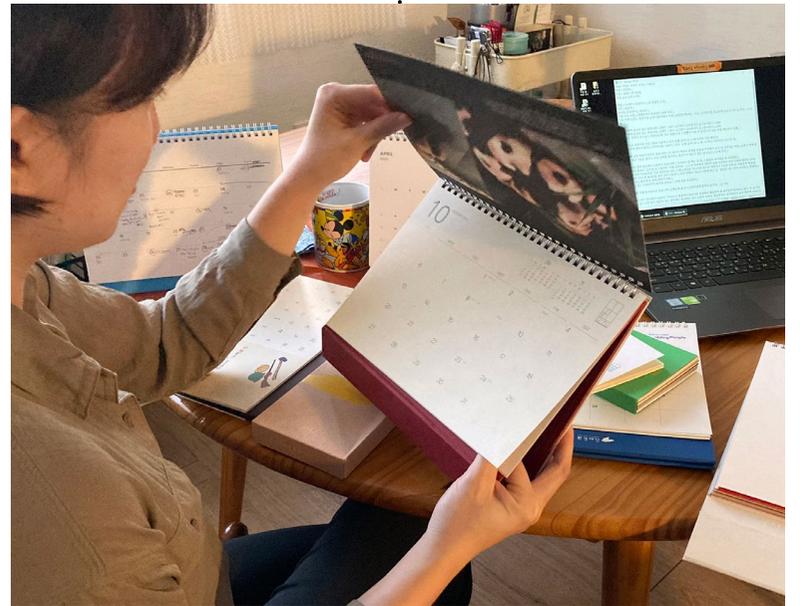
것들을 자료조사 하면서 되짚고,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반성을 계속하고 있어요. 모든 인쇄물을 봉기를 잉크로 찍는다고 떼떼하게 말하곤 했는데, 봉기를 인쇄라는 것이 솔벤트 용제를 봉기름으로 대체해서 그 유해성이 적어진 것이지, 안료 자체는 화학물질이니까 유독성 면에서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또 인쇄면적이 넓고 잉크색을 다양하게 쓸수록 재생지를 만들 때 잉크를 빼내기 위해 화학물질을 더 많이 써야 한다고 해요. 종이는 또 어떻고요. 색지는 종이 재활용을 어렵게 해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대요.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최고구나 싶은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탁상달력을 사용하는 직장인, 회사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대개 처음에는 사용자 입장에서 탁상달력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직장생활 필수품으로 이야기해요. 강경파라고 표현한 경우는 '무슨 소리냐!! 탁상달력 없으면 업무가 안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인데요. 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돌아보고, 일하는 방식도, 나아가 2021년 대한민국 k-직장생활을 돌아보게 된달까요. 업무상 필요한 이유는 직관적으로 빠르게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인데, 어쩌면 달력을 커서/퍼서 일정을 확인하는 5초의 여유도 없는 셈인 거죠. 일하는 동안 굉장히 급박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인터뷰 막바지에는 '아, 탁상달력 굳이 안 써도 되겠네' 하는 온건파가 되더라고요. 만약 달력이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냐고 물으면, 산다는 대답보다 안 쓴다는 쪽이 대부분이었어요. 필수품이 아닌 거죠. 업무 일정 관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중복해서 쓰고 있으니 정리가 필요한 시점 같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디지털로 가야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탁상달력이든 다이어리든 핸드폰 앱이든 자신에게 맞는 것을 하나 골라 쓰는 식으로요. 따지고 보면 이런 물건이 한둘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인터뷰 공통질문 중 하나가 '예전에는 필수품이었는데 사라진 물건' 또는 '예전에는 필수품이었는데 사라질 과도기의 물건'이 뭐냐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해당하는 질문이죠. 저한테는 벽걸이 시계, 탁상시계, 손전등, 전자레인지가 그렇거든요. 현재 집에 없고 앞으로도 들여놓지 않을 물건을 물었을 때 공통되는 답만큼 다양한 답이 나와서 다들 재미있어했어요. 평소 내가 물건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 생각해보자고 시작했는데, 인터뷰는

내가 시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탐구하는 자리도 겸하게 되더라고요.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이 생각 못 해본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 이 시간이 잊히더라도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겠죠?

Q 기억을 더듬어 보니, 벽걸이 달력은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나 잘라서 이면지로, 무언가의 포장지로 사용하는 등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탁상달력은

버려진다는 걸 이번에 인지했어요. 게다가 어떻게 재활용해야 하는지 몰라 스프링짜로 버리기 일쑤고요. 이 프로젝트는 재활용에 용이하도록 만들면 된다는 관점으로 제작 및 가이드북을 배포한다는 대목이 눈에 띄어요. 가이드북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몇 가지만 귀띔해주실래요?
EK 달력과 가이드북은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탁상달력 등을 제작해서 무상 제공하는 기업, 관공서



홍보팀에 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요즘은 기업들이 재치 있는 글즈도 많이 만들어서 파는 모습을 목격해요. ESG³, 그린뉴딜 등 기업에 친환경 마케팅 바람이 대대적으로 부는 것에 맞지 않게 '친환경' 하면 절로 생각나는 에코백 등 항상 하던 것, '친환경적으로 보이는 것'이 넘쳐난다고 느껴요. 그래서 조금은 근본적인 부분을 담으려고 해요. 내용으로는 기존 탁상달력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짚어요. 온라인 설문조사, 인터뷰를 토대로 실사용자들은 어떤 달력을 원하는지를 보여주고요. 탁상달력을 만든 기업의 물품을 사는 등 홍보 효과가 있었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부분 답을 해왔으니, 이 수치를 보면 '돈 들어서 왜 만들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고요(웃음). 제안하는 '더 편한 달력'이 어떤 종이에 어떻게 인쇄했는지, 기존 달력의 문제점을 어떻게 줄이려고 했는지에 관한 내용도 담길 거예요. 물론 제가 제안하는 형태가 정답이냐 앞으로 이렇게 제작하자는 건 아니에요. 보통 탁상달력을 만들 때 삽화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한다면, 앞으로는 형태에 대한 고민, 나아가

이 과도기의 물품을 언제까지 계속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Q 탁상달력을 시작으로, 일상품에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밖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일상품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K 현재는 탁상달력 생각뿐이에요(웃음).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EK 역시나 코로나19로 인해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들었어요. 거리두기 상황을 생각해서 일정을 넉넉하게 잡았다고 여겼음에도, 더 넉넉하게 잡았어야 했다 봐요. 다들 만남을 조심하는 분위기 속에서 거리두기 단계 지침이 수시로 바뀌어서 약속 잡는 일이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인터뷰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만남이 이어졌다는 점이 의미 있었어요.

3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EK 막연히 '이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부분이었는데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더 확실하게 확인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전체 예상치 못한 답들을 만나고 풀어나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제 주변에는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은 편이라,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실제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앞으로 작업할 때도 이렇게 해야겠다고 여겨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EK 첫 지원에 선정됐어요. 사실 지원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가 하는 일에 포부를 크게 갖는 편이 아니다 보니 지원서를 쓰는 것 자체로 어려웠어요. 마음먹고 작성하다가도 '이렇게 큰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포기하곤 했죠. «생활을 바꾸는 예술»은 공공문 자체에서 용기를 얻는 느낌이었달까요. 예술이 일상으로 들어오도록, 또는 되돌아오도록 하자는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EK 처음이라 허둥지둥하기도

하고 다소 긴장된 상태로 서류 작업과 진행에 임하고 있어요. 다행히 담당자분이 매번 친절하게 안내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에요. 아직 불편함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EK 인터뷰, 온라인 설문에 응하신 분들의 상당수가 <더 편한 달력>을 받아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생각하며 제작 의도를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을까 기대해요.

Q 좋아은경 님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EK 제가 좋아하는 윌리엄 모리스의 말을 소개하고 싶어요.

‘유용하지 않거나 아름답지 않은 것은 집에 두지 말라.’

제 공간에 무언가를 들일 때 항상 떠올리는 문장이예요. 이 아름다운 행성 지구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 만들어진 각종 자원을 어렵게 꺼내서

누군가의 무수한 수고를 들여 만든 것이 아름답지도 않고 유용하지도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버려질 때도 골치 아픈 일이 생기죠.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는 모두가 손을 써서 만들어 쓰는 사람이었고, 그런 보통 사람들의 보통 물건들이 박물관에 놓여있잖아요. 내가 내 주변의 물건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 탐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변화를 만드는 플라스틱 이야기

장한나

● <뉴 락(New Rock)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장한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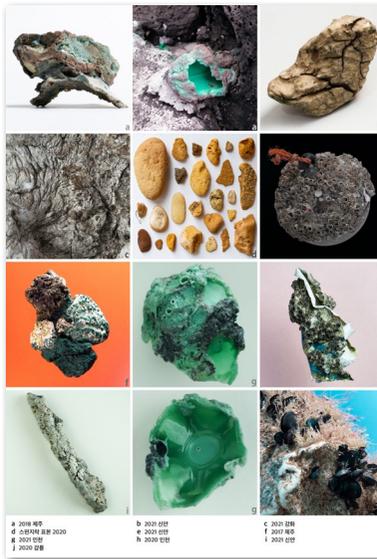
📧 @new__rock

Q 최근 기후변화, 제로웨이스트, 재활용 등 환경 이슈가 삶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특히 플라스틱은 배달 음식 용기 또는 제품 패키지에 비롯해 옷, 각종 생필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는데요. 한나 님이 플라스틱에 처음 관심 두신 계기를 알고 싶어요.



HN 플라스틱에 본격적으로 관심 두게 된 건 2017년 쓰레기를 추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부터예요. 보틀팩토리 정다운 대표님, 송수영 작가님 등과 함께, 쓰레기가 버려진 후 도대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집 앞, 골목에 버려진 쓰레기 중 ‘플라스틱 쓰레기’ 위주예요. 당시에 쓰레기 중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재활용이 되는지 등이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추적, 조사하며 ‘마이크로플라스틱카나페’라는 전시를 진행했는데 이때 플라스틱이라는 물질, 석유산업, 플라스틱이 현대 사회에서 갖는 의미 등에 관한 관심이 커진 듯해요.

Q <뉴 락(New Rock)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죠. 자연에 버려져 암석화된 플라스틱을 ‘뉴 락’이라 부르고 뉴 락을 수집, 전시하는 프로젝트로 알아요. 공유워크숍에서 플라스틱은 견고하고 사라지지 않고 쪼개져서 작아질 뿐이며, 조각난 플라스틱이 ‘인류세’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새로운 이름을 붙임으로써 다른 존재로 조명하시는 게 인상적이에요. 새로운 이름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어떤 것이었나요?

HN 제가 '뉴 락(New Rock)'이라고 칭하는 것들은 플라스틱이 자연 속에서 머물며 시간이 흘러, 자연과 인공의 경계가 사라진 것들이에요. 파도 혹은 바람의 영향으로 돌의 형상으로 마모되었거나, 열에 의해 녹고

- 1 Plastiglomerate, 플라스틱괴. 플라스틱이 녹아 모래, 조개껍질, 산호 등과 뒤엉켜 만들어진 돌덩어리
- 2 Pyroplastics, 플라스틱 자갈
- 3 Plastisphere, 플라스틱 생태 공간

자연물과 합쳐져 자갈의 형상을 띠게 되거나 암석에 달라붙게 되었거나, 생물들이 생태 공간으로 삼으며 플라스틱이 암석의 역할을 하는 등,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맨질맨질하고 오차 없이 찍혀 나온 플라스틱과는 다른 시간을 겪은 것들이죠. 현재 과학계에서는 다양한 이름을 붙여 플라스틱이 자연에 녹아든 것들을 명명하고 있어요. 플라스티글로머리트¹, 파이로플라스틱², 플라스틱스피어³ 등이 있는데요. 뉴 락은 이를 모두 포함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인공물과 자연물과의 경계가 사라진 플라스틱을 수집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새로 이름 붙이며 플라스틱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이들이 가진 새로운 정체성이 더 크게 느껴졌으면 해선펬요. 더 이상 '인공물'로 보이지 않고 자연에 녹아들어 자연물처럼 변모했다는 점, 지질학의 일부가 되어가고 인류세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이렇게 변화하며 가지게 된 새로운 모습에서 '플라스틱'이라는

정체성보다 더 큰 상징성을 느껴 새로운 돌, '뉴 락'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어요.

Q 인위적인 플라스틱은 용도를 다하면 쓰레기가 되고 사라질 거라는 예상과 달리, 실제로는 그 쓰레기가 자연 일부로 변모했다는 설명이 충격적이에요. 개미나 해양생태계를 예로 들며 이제는 생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 모습에서 개미나 토양, 해양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했고,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가를 만나 그걸 해소하는 시간을 가진 게 의미 있다고요. 한나 님의 개인적인 관심을,



또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느끼시나요?

HN 어떤 방식으로든 어느 정도이든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다양한 감정이 드는데요. 기쁨, 뿌듯함, 안도감, 불안함, 초조함, 책임감 등등 뭐, 항상 오만 감정이 교차해요. 다양한 생각을 하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이 프로젝트를 지속해야 할지 고민하면서도, 분명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있음을 느끼기에 지속하게 되는 듯해요.

Q 사람들에게 뉴 락 전시를 통해 경로나 훈계의 메시지보다는 관찰 형태로 덩뎡하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죠. 특히 전시할 때 자원 낭비가 필연적이고, 책 제작 권유를 받음에도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이셔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세세히 들여다보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한나 님의 태도 또한 그렇지 않을까 하고 짐작해봐요. 한나 님이 일상을 유지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HN 어떤 소비를 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고, 어떤 이야기를 다른 이에게 전하는 등 사소해 보이는

일상이 사실은 큰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플라스틱을 무조건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저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깊이와 넓이 안에서 조금 더 나은 선택들을 하려고 하죠. 구체적으로는, 소비는 줄이고자 하는 편이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이면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고민해요.

Q 환경 문제를 대할 때 으레 소비자 개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곤 해요. 반면 한나 님은 생산자의 책임을 강조하시죠. 각 분야의 전문가, 석유산업,



석유화학산업 관계자와 만나 정보를 전달한다는 목표를 세우셨는데요. 관계자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새로이 안 점 또는 확신을 얻은 점이 있나요?

HN 계획한 인터뷰를 모두 진행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조사하고 관계자분들과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된 점은 물론 많죠. 추측만 하고 있던 플라스틱 산업 전반에 관한 사실들, 경제 논리 아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 주체의 이해관계 속에 강조되는 부분과 감추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고요. 특히 석유산업과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더 공부할 필요성을 느껴요.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스틱 혹은 쓰레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소비자 개개인에게 많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여겨요. 오늘날 쓰레기 또는 플라스틱 문제는 분명 생산자가 바뀌어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문제거든요. 특히 플라스틱 산업은 플라스틱 생산량이 소비자의 플라스틱 수요량과 무관하게, 석유산업의 시스템 속에서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기에 더더욱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해요. 기업은 물론이고 기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 역시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 생각하고요.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HN 거의 1대1 인터뷰를 진행했고 예정 중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었어요.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역시 혼자 이곳저곳을 다니며 수집하는 행위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크게 바뀐 부분은 없었습니다. 단, 코로나 시국에 많은 분이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 인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 문제 전반의 관심도가 높아진 부분이 제게는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동시에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많은 분이 관심을 주시는 부분도 흥미로웠죠.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HN 영역의 변화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해 정확한 지식을 쌓아가고 있어요.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힘이 실리고 단단함이 생기고 있다 느껴요. 아직 인터뷰도 끝내지 못한 데다 조사하고 공부할 것도 많지만,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부분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 고민 중이에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HN 제게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매우 적절했던 것이,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조사, 특히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앞서 청년예술단 사업을 통해 쓰레기차를 추적하며 플라스틱 재활용 시스템 현장과 실태를 조사하고, <마이크로플라스틱카나페> 전시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대략 1년 이내에 특정 활동을 하고 결과물인 전시를 모두 완성도 높게 하는 일은 정말 어려워요. 본 사업은 조사하는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로 다가왔어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HN 저는 조사를 위해 인터뷰만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요청을 위해 연락드리는 것도 조심스러운 전문가분들, 권위자분들께서 프로젝트 내용을 보시고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 주셨어요. 그럴 때 지급해드릴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이



조금 송구스러웠어요. 더불어 사업 진행 기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요.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HN 더 넓게 접근해야 하며, 더 깊게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몸을 움직여 실천해야 한다는 부분이 다시금 느끼고 있는 요즘인데요. 사업 진행 후, 더 깊고 단단한 프로젝트가 되어있지 않을까 예상해요. 물론 이 내용을 작업으로 잘 풀어내는 일은

달리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Q 한나 님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HN 꼭 접했으면 하는 특정한 분들은 없고요. 그냥 누구라도 접하게 되면 좋겠어요. 물론 문화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이라면 뉴 략의 출현에 무관한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생산에 관여했던, 소비에 관여했던, 어떤 문제를 직감했으나 무관심으로 일조했던 말이에요. 요즘은 아기가 태어나면서도 수많은 플라스틱에 둘러싸여 태어나기에, 생애 전반에 걸쳐 현대 사회 인간은

플라스틱과 무관하기 어렵죠. 이윤 추구를 위해, 편하기 위해, 청결하기 위해, 때로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며 살아가요. 플라스틱은 생산과 소비 모두를 아주 쉽게 한 만능물질이고요. 만능이기에 인간의 욕망을 너무 적절히 충족시켜주며 이렇게 지구에 쌓이게 된 거예요. 많은 분이 이제는 플라스틱이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바다 쓰레기로 떠돌다가 먹이사슬을 타고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요. 물속의 미세플라스틱으로,

공기 중 먼지에도 미세플라스틱이 나오고 있으니, 우리는 숨을 쉬면서도 플라스틱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은 많은 이의 경각심 없이는 가속화되리라 생각하고요. 어떤 고민을 할지, 어떤 실천을 해야 할지는 각자의 몫이에요.

페이스 타임 (Pace Time)

쌀롱섬

● 서지혜, 이정은, 전장연으로 구성된 쌀롱섬은, 섬 같은 존재인 작가들이 연대하며 작업을 지속하고, 작업 세계가 확장되길 기대하는 모임입니다.

pacetime.net

Q 어떤 계기로 <페이스 타임(Pace Time)>을 기획하셨는지 듣고 싶어요.

ALL 지난겨울, 올해의 쌀롱섬은 어떻게 무엇을 할지 생각하다 <페이스 타임>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어요. 쌀롱섬은 매주 1회 줌에서 만나 서로의 작업 과정과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미팅 <수요쌀롱>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생활패턴도, 장소도 각기 다른 우리가, 주로 온라인 미팅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는 상황 속에서 작업을 지속시키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해봤죠. ‘정해진 주제가 어떤 방법으로 동력을 얻고 지속될까?’ ‘이를 통해 가시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까?’ ‘서로 따로 할 수 있으면서도 연결될 수 있고,

가시적이고 유형의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뭘까?’ 그다음에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생기는 동선, 움직임 그 자체를 활용해 작업에 적용해보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작업적 움직임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확장해보고자 ‘걷기’를 생각해냈죠. 인스타그램을 자주 들어가 보는데 종종 러닝 앱으로 찍은 사진을 올려서 이게 뭐냐 했어요. 게으름을 박차고 뛰었을 때 느꼈을 뿌듯함을 짐작할 수 있기에 공감됐고요. 한편으론 ‘창작력도 근육이지’라는 말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근육을 만들 듯, 하고 싶은 날도 하기 싫은 날도 꾸준히 창작하기 위해 무언가 한다는 것, 신체를





움직이는 달리기처럼 창작력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러기 위해선 혼자보다 같이 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앱이 가장 손쉬웠어요. 일단 걸었다/안 걸었다는 건 앱으로 기록하면 거짓말할 수도 없기도 했고요(웃음).

Q ‘페이스 타임’을 보자마자 아이폰끼리의 영상통화인 페이스 타임(Face Time)을 떠올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페이스는, 운동할 때 자신만의 속도를 가늠하는 단위더라고요. 운동에서 나아가 일, 삶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나의 페이스(Pace)를 알고 기록을 통해 타인과 페이스(Face)를

마주한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은 게 인상적이에요.

ALL 혼자 작업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페이스(Pace)를 찾는 게 가장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일 같아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 이전에도 원거리에서 꾸준히 줌 미팅을 해왔어요. 각자 따로 작업하지만, 수다일지라도 무언가 공유할 거리를 갖는다는 건 큰 용기와 원동력이 되는 듯해요. 하나의 미션으로 움직이고 걷는 일상적인 움직임이 예술적 행위로 연결되는 것도 마찬가지로요. 서로의 호흡, 속도, 보폭을 유지하며 움직이는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공유하며 ‘페이스 타임’이 만들어지니까요. 미션은 각자 자유로운 날짜와 시간, 장소에서 수행하고, 이후 모인 데이터는 앱, 드라이브, <수요살롱>에 공유되면서

서로의 페이스를 엿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연결되기도 하고, 자유롭게 독립적이지만 함께 움직이고 공유할 수도 있었어요. 명칭을 이렇게 정해야겠다, 생각하자마자 영상통화인 페이스 타임(Face Time)과 오버랩되니, 중의적 의미 또한 자연스럽게 담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공유워크숍에서도 어느 분은 이미 ‘당근마켓(당근)’ 앱을 통해서 등산도 다녀오고 산책도 다녀왔다고 해요. 저희 워크숍도 당근에 올린 걸 보고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처럼 타인과의 공유를 통해 각자 삶의 페이스를 찾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느꼈어요. 특히 저희는 마지막 미션을 라이브로 진행해봤는데요. 이전 미션과 달리 동시에 미션을 부여받은 뒤 동시간대 수행을 통해 페이스 타임(Face Time)에서 연결되며, 즉각적인 수행에 따라 각자 수집한 이미지를 동시에 함께 보게 되는 페이스 타임(Pace Time)은 또 다른 의미로 기억에 남는 미션이 될 듯해요.

Q 나이키 런 클럽, 아디다스 런타스틱, 런데이 등 다양한 러닝 앱을 통해 혼자 운동하는 동시에 앱 또는 SNS 인증으로 모르는 사람들과도 연결되는 모습이 자주 보여요.

‘페이스 타임’에서는 나이키 런 클럽 앱을 이용하셨다고 했는데, 그전에도 러닝 앱을 이용해보셨나요?
ALL 프로젝트 전에 친언니에게 “나 요즘 이거 하는데 너도 같이하자. 서로 볼 수 있어”라며 추천받았지만 실제로 하진 않았어요. 혼자 꾸준히 하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멀리서라도 누군가 자신을 봐주는 시선이 작은 원동력이 될 수 있겠구나 했죠. ‘페이스 타임’은 산책하는 동시에 미션 수행하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앱의 기능은 30% 비중을 차지해요. 미션은 비가시적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언어인데, 앱에서는 그날그날 수치로 정확하게 그날의 산책을 기록해주거든요.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해준달까요. 워크숍에서는 앱에서 만들어지는 루트 형태가 원형이 되도록 미션을 만들었어요. 참여한 모든 분이 앱을 처음 사용하셨는데, 다 걷고 나서 루트가 만들어지는 걸 신기하고 재밌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공유 수단뿐만 아니라 걷기를 유희적으로 접근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Q 점점 더 내 몸과 괴리되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보건대 몸이 단지 어떤 행위나 목표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곤 해요. 평범한 신체 활동에 주목하는 시도가 자주 보였으면 하고요. 몸을 움직이면 고여있던 생각이 트이고 감정이 전환되죠. 이런 쓸모는 거창한 '몸만들기'에 가리곤 하는데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내 몸'에 관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있나요?

ALL 몸과 정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크게 와닿곤 했어요. 프로젝트 덕분에 더 자주 걷게 되었는데요.

이젠 미션 수행이 아니더라도 뭔가 답답하거나 생각할 일이 있을 땐 '걸으러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설명 해결되지 않더라도 더 지루하지 않게 고민할 지구력을 다시 채우고 오는 느낌이에요. 창작력, 예술력, 작업에 대한 고민도 마찬가지로요. 걸으면서 많이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에서 미션 수행도 그렇고요. 걷는 것과 동시에 행해지는 작은 미션인데 하고 나면 운동하고 난 것처럼 평범했던 일상이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Q 나중에 시도해보고 싶은 다른

신체 활동이 있나요?
ALL 스트레칭이요(웃음). 다들 긴장하고 사는 감이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동시에 같이 스트레칭을 반강제로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했어요.

Q "일상 속에서 평범한 신체 활동을 예술적 접근으로 확장하는 루틴과 방법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공유하며, 제약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확장된 개념의 신체와 공간을 발견한다"는 목표를 세우셨죠. 일상이 예술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점은 스스로 예술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술'이란 무엇인가요?

ALL '예술가' 혹은 '예술을 한다'라는 것은 얼핏 일상의 반대편에 있는, 매우 특별한 것으로 여겨지기 쉬운 듯해요. 작품 설명에서도 심오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기대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어떤 것이라도 결국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해 발전 시켜 나가잖아요. 그게 곧 일상이 가진 힘 아닐까요. 우리가 절대 떠날 수 없는 것, 그 안에서 풍부한 발견이 가능한 것이요. 그래서

특별한 장소, 특별한 환경에서, 특별한 아이디어나 작품을 만들어 내기보다 내가 매일 몸담고 있는 삶, 생활 속에서 매일 사소하게 발견하고 변형해나가고자 했어요. <페이스 타임>을 통해 매일 평범한 작은 순간들이 조금 달라지는 순간이 있었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발전시킬 씨앗을 거둬들이는 과정이라고 봐요.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ALL 기획 당시에는 워크숍을 진행할 때 더 다양한 참여 인물과 장소를 생각했는데 여건상 다양한 시도를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데도 기존 팀 멤버 3명만 진행했을 때와 소수나마 모집 받아서 참여자들과 진행했을 때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기존 멤버는 하나의 미션이 떨어지면 각자 편한 날짜, 시간, 장소를 선택해 걸은 뒤, 일지와 수집된 데이터 공유로 미션 수행에 관해 이야기 나눠요. 이 경우 이미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라 현장감 있는 감상보다는 잔상과 간단한 느낌 위주의 의견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반면, 미션 참여 직후 바로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직전에 걸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감상과 감각, 느낌이 활발하고 다양하게 오간다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ALL 탐색 과정으로 함께 미션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그간 모아온 데이터를 아카이빙하는 사이트 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후 실행으로 이 프로젝트를 발전, 확장해 진행해볼 기회가 된다면, 정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판해보고 싶어요. 이는 세 명의 생각과 이미지, 워크숍을 통한 또 다른 인물의 생각들이 만나, 걷기에서 파생되는 감각과 이미지, 잔상들을 한 권으로 엮어 공유하는 일이죠.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ALL <수요살롱>을 통해서 저희 팀은 여러 가지 상상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중에는 실현되지 않은 기획들도 많았는데,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작업을 지속하고 서로 연대하는 일의 가치를 확인해봤어요. 각자의 일상

속에서 서로의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을지 실험해본다는 점이 좋았고, 주로 셋이서만 알고 진행한 저희 활동이 프로젝트가 되어서 공개 워크숍, 인터뷰(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아카이빙 웹(공유) 등을 통해 현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창작 결과물에 대해 과도하게 집중하기보다 그 과정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해주시는 점도 창작자로서 입장을 더 이해받는 느낌이었어요. 이를 통해 저희의 활동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정리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문화재단의 ‘온라인미디어지원사업(AMGO)’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때 ‘우리의 작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비대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과정은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비물질적인 매체인 웹을 활용해 작업했어요. 그에 비해 «생활을 바꾸는 예술»을 진행하면서는 각자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과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기적으로 실천하며, 참여자의 실제적인 경험과 아카이빙 웹사이트 구축을 통해 작업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움직임을 통해 신체적 근육이 작업적 근육으로 연결되면서

프로젝트의 실천과 동력을 얻고 유지하고 확장해나갈 수 있었죠. 비가시적인 작업에 대한 고민과 과정에 머물러 있던 것이 가시적인 형태와 데이터, 아카이빙을 활발히 구축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ALL ‘생활을 바꾼다’라는 건 일상 속 매우 작은 흔들림에서부터 앞으로의 생활 그 자체를 바꾸는 큰 움직임까지 포괄하는 듯해요. 저희 팀을 비롯한 다른 분들도 일상의 작은 호기심과 불편과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고 싶어서 시작하셨겠죠. 그런 점에서 «생활을 바꾸는 예술»에 참여하는 모든 팀은 비슷한 접점이나 서로 필요로 하고 궁금한 지점들이 맞닿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내년에 이 사업 진행이 올해보다 이르게 진행이 된다면 본래 각 팀의 사업 완료 후 번외처럼 두 팀 이상이 함께 만나 무언가를 함께 해보는 것도 기대해보요.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ALL 생활 속의 작은 흔적이란 눈에 확 띄일 만큼 확연한 것은 아니더라도, 매우 일상적인 생활의 한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거로 생각해요. 걷는다는 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내가 이 걸음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지점이었던 거예요. 나의 걸음을 감각하고, 걸음을 통해 마주하는 다양한 감각과 이미지, 느낌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 걷는 시간

속의 자신이 매우 능동적인 위치에서 활동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미션 이외에 걷기를 할 때 미션 수행 장소 또는 그와 비슷한 곳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김없이 그간의 ‘페이스 타임’이 연상될 듯해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각기 수행하지만 하나의 미션 안에서 공유되는 지점은 앞으로의 작업 행보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Q 쌀롱섬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ALL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혹은 변함없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라면, 집에서 넷플릭스 보느라 나뭇잎 색이 변하고 떨어진 걸 미처 못 본 분이라면, 저희의 <페이스타임>에 참여해서 같이 미션을 해보면 좋겠어요. 나아가 자신의 산책 미션을 만들어서 예술 걸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생활에는 매우 실용적이고 반복적이고 의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개인이기 때문에 매우 사적이고 특별하고 다양하고 개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하루하루가 쌓여가면서 의미가 생기고 의미를 만들고, 그걸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빈칸살롱

신현지

● 일상의 삶에서 조금 비껴나간 장면들, 개인의 삶의 풍경, 공상, 미시적인 사건들을 채집하는 시각예술가, 예술교육가 신현지입니다.

☞ binkansalon.com

☞ @binkansalon

Q <빈칸살롱>은 “빈칸처럼 비어있는 일상 속의 시간을 타인과 함께 예술로 공유하는 살롱”이라는 의미예요. 조합해보지 않았던 단어의 만남이라 호기심이 이는데요. ‘살롱’에 주목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HJ ‘살롱’은 상호교육의 장이고 누구나 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빈칸살롱>은 창작, 예술교육에서 뿌리가 시작된 프로젝트이지만 <빈칸살롱>에서의 시간이 참여자들에게 딱딱한 수업 시간으로 연상되지 않길 바랐어요. 참여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프로젝트 명칭에 ‘살롱’을 사용했죠.

Q 일상을 예술로 가꾸어가는 방식으로 다도와 시 쓰기를 제안하셨어요. 커피보다 차가, 에세이보다 시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느껴지곤 하는데, 둘을 고르신 이유가 궁금해요.
 HJ ‘차’는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반영된 요소인데요. 커피에는



카페인이 너무 많이 담겨있고 몸에 맞지 않아서 잘 즐기지 못해요. 차 한잔에 마음속에 정적인 공간, 쉼이 생기는 듯한 느낌을 받은 후, 이러한 순간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차마다 전통에 따라 만드는 방법이 다르고, 전해져오는 이야기들도 다양하더라고요. 차와 함께 전해져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차의 맛을 통해서, 오래된 과거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좋고 현실의 삶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쉼'에 관해 사유하기 좋은 매체라고 생각했어요. '시'는 개인사적인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서술 없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구축할 수 있는 작은 세계, 작은 고리가 되어주는 매체라고 생각했어요. 시라는 공간 안에서는 상상의 이야기도 가능하고 나의 마음을 무언가에 빚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에세이보다는 덜 부담스러우면서도 자신의 감정, 마음, 삶의 풍경을 말하고 타인과 나눌 수 있어 선택했어요.

Q 코로나19 이후 대면하기 어려워지자 모든 영역에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왔잖아요. 문화예술 영역 역시 온라인

전시, 온라인 공연으로 관객과 만난 것처럼요. <빈칸살롱>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리기 위해 온라인에 거점을 두고 만나다라는 특징이 있죠. 느슨하게 만나서 좋은 반면, 아쉬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HJ 처음에는 공간이 없어서 온라인으로 운영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들 하셨는데요(웃음). <빈칸살롱>에 직접 참여하고 나서는, 의외로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만큼이나 '차'나 '시'로 인해서 서로의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었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오프라인 만남에 대비해서 뒤지지 않았다는 평이죠. 또 어떤 참여자분은 강원도 강릉에서 접속해 주셨는데요. 서울에서만 이러한 문화예술 관련 모임이 많이 일어나서 아쉬웠는데, 함께하게 되어서 오히려 좋다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어요.

Q 청년과 중장년이 만나는 장으로 기획하신 점도 눈에 띄어요. 노인 외에 청년, 중장년 '고독사'가 증가하는 부분에 착안하셨다고요. 일을 매개로 만났다면 직급으로 서로를 보았겠지만,

살롱은 취향을 매개로 만나기에 평등한 관계 맺기가 가능하리라고 예상해봐요.

HJ 청년층과 중장년층 참여자분께서 함께 <빈칸살롱>에 접속하신 날이 있어요. 중장년 참여자분은 자신을 '주부'라고 소개했고, 청년 참여자분은 '음악'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빈칸살롱>에 참석한 계기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일상 속의 쉼이라는 주제 아래 서로의 생각이나 마음에 공감하게 된 거죠. 각자가 놓인 삶의 풍경, 하는 일은 다를지라도, 공유해주었던 생각이나 마음은 들으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후 함께 차를 맛보고 시를 적어보면서 중장년층 참여자분이 써주시 시에, 청년층 참여자가 깊이 감응을 하시는 듯 보였어요. 저 역시 진행자로서 중장년층 참여자분의 시를 감상하면서 약동하는 에너지를 느꼈고요. 중장년층 참여자분께서도 처음 적어보는 시에 다른 분들이 박수쳐 주시니 기분이 아주 좋다고 뿌듯해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진행하며 참여자분들께 나이를 묻지 않았고, 연령층을 나누어 모집하지 않았던 것이, 참여자들 간에 다양한 삶의 풍경을 서로가 접할 수 있어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Q 삶 속 '쉼'의 의미를 공유하며, 가속화되어가는 '일 중심 사회'에 대해 거리감을 두고 바라볼 수 있는 담론 형성을 장기적인 목표로 두셨어요. 머리로는 쉬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쉬는 방법을 모르거나, 쉬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껴요.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번아웃'도 이런 맥락인데요. 현직 님이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삶의 태도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HJ <빈칸살롱>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한 분 한 분께, '내 삶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제안하고 싶어요. 바쁘게 살 때는 바쁘게, 또 무언가 성취하고 싶을 때는 성취를 향해 달리더라도, 그게 언제나, 스스로가 선택한 속도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데서 기뻐하는 사람이지만, 삶의 속도가 제가 원하는 대로 조절되지 않을 때 잠시 멈추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신력으로 버티기에도 힘이 들고 각자의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내가 달릴 수 있을 때 신나게 달리고 또 쉬고자 할 때 느리게 걸을 수 있는, 각자가 삶을 돌볼 수 있는 태도에 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HJ 코로나19로 인해 참여자들과 만남에 제한이 생긴 근 2년 동안,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해왔어요.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온라인으로 모임을 열게 된 건 처음이에요. 이러한 기획이 처음인지라 걱정도 많이 되고, 가능할까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코로나 시대를 역활용하고 있는 듯해 다행이에요.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HJ <빈칸살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연령대와 삶의 풍경을 가진 사람들과 심이 있는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던 점이 큰 변화였어요. 특히 서울과 먼 지역에 사는 분들과 마주했던 기억이 재미있게 남아있어요. 처음에는 좀에서 타인을 마주하는 경험이 낯설기도 했죠. 점차 서로의 삶에서 '비어있는 공간', '빈칸'을 함께 만들어보며, 멀리 있어도, 연령대가 다양해도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발견으로 다가왔어요. 이후에는 해외에 계신 분들과도 진행해보면 좋을 듯해요.

또 이러한 상호작용들을 통해서 <빈칸살롱>에서 만들어진 '시'들을 모아 참여자들과 함께 작은 시집을 발간하고 싶어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HJ 예술적인 활동의 마지막은 항상 전시, 공연 등 결과발표로 귀결되는 사업이 많았는데요. 그런 사업들의 장점도 물론 많지만, <생활을 바꾸는 예술>의 경우는 특별히 어떤 결과발표를 강제하지 않고도 지원자가 자신의 사업을 의미 있게 갈무리할 수 있도록 열어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형태가 없는' 창작작업, '만남'이나 '관계'에 기반하여 창작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시도해 볼 가능성이 많은 것이 <생활을 바꾸는 예술>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봐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HJ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주셨는데요. 예술가의 생활 속 노동에 관한 가능성을 무한히 열어놓는다는 점에서, 하나의

브랜드를 기획하고 구축해 나갈 마중물 사업의 기능도 공식적으로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조심스레 생각해봐요. 지원금을 활용해 무리한 재산 증축을 하는 것은 금지로 하고, 예술이 조금 더 노동의 가치를 갖고 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초기지원해주시는 방향도 지혜롭게 고려해 봐주시면 좋겠어요.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HJ 서로의 마음에 감응하는 과정 그 자체. 지금 있는 곳에서 더 나은 곳을 바라보게 만드는 예술.

Q 현지 님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HJ 스케줄의 밀도에 관계없이, 현재 내가 '여유롭지 못하다', '쉬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께 <빈칸살롱>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삶 속에 작은 빈칸을 함께 만들어서, 스쳐 지나갔던 많은 마음, 장면, 심상들을 보듬어 보길 바라요.

질문으로도 시대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당신의 취미나 특기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보였습니다. 그래서 취미나 특기를 하나씩 갖춰야 한다고 여겼지요. 고만고만한 실력이라도 좋아한다면 취미로 둘 수 있었습니다. 잘하는 영역은 특기로 두면 되니까요. 이제는 질문이 다릅니다. “당신의 취향은 무엇인가요?” 관심을 두는 영역에 관해 빠삭해야 할 듯한 인상이라 막연해집니다. 무난함보다는 뽀족함이라는 인상도 주고요. 취향의 사전적 정의처럼 내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더 알아갈 수 있을까요?

〈말랑제작소〉는 아스라한 기억 속 최초의 감각을 더듬어보고, 〈취미수집〉은 생활반경의 물건들에서 취향을 끄집어냅니다. 〈비보이 흥텐 생애사 연구(토크 콘서트: 한국에서 비보이로 살아간다는 것)〉는 경계에 서 있는 정체성이 이끄는 대로 탐구하고, 〈영상 기록으로 보는 재즈 1세대〉는 애정하는 분야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 기록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취향이란 누가 대신 만들어줄 수 없는 길을 개척하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나라는 우주의 시공간을 유유히 탐험하는 일이란 그렇겠지요.

말랑제작소

이주현

● 어린 시절의 애착과 촉감을 주제로 작업하는 이주현입니다.

☞ zuhyunlee.com

☞ @craft.mallang

Q 주현님은 촉각으로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셨죠. 촉각 지각을 매개로 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추억해나가는 것에서부터 작업이 시작되었다고요. 기존에 천착한 ‘말랑’이라는 촉감과 ‘애착 물건’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궁금해요.

JH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Harry Harlow)의 ‘원숭이 애착 모형’이라는 심리학 실험이 있어요. 새끼 원숭이에게 우유가 붙어있는 철사 어미 모형과 아무것도 없는 헛겍 어미 모형 두 가지를 제공했을 때, 새끼원숭이는 철사 어미 모형에서 우유를 재빨리 먹고 헛겍 어미 모형에 안겨있으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었다고 해요. 그걸 ‘접촉 위안(Contact comfort)’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접촉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피부 간의 접촉, 위안은 안정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촉각은 어린 시절의 안정감에 기인하는 중요한 감각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엄마를 대신하여 안정감을 받는 애착 물건에서 촉감은 가장 큰 역할이에요. 이 부분에 착안해 표면 촉각과 두께 촉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말랑말랑한 재질을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Q ‘말랑제작소’는 도널드 위니콧(Winnicott, D.W.)의 저서인『Playing & Reality』에서 설명되는 전환기적 대상 이론을 토대로 하여 정신적 심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애착 물건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정신적 심터를

선사한다고요. '정신적 심터'란 무엇인가요?
 JH 유아기 아들은 일반적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단계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닌 그 중간영역 어딘가에서 정신적인 피난처를

찾아요. 어떤 대상을 그 피난처로 삼고 항상 옆에 지니고 다니는 경우인데요. 아기가 입으로 물고 만지던 담요라든지, 이름을 붙여주고 손에 들고 다니던 곰 인형이 그 예예요. 이 시기의 피난처였던 대상에 애착과 잊힘이 적절히 행해졌다면,



어른이 된 후에도 이 대상이 안정을 주었던 기억은 머릿속에 남아요. 훗날 스트레스받았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정신적인 심터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애착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어른에게 작은 심터를 줄 수 있는 추억을 모티브로 한 오브제를 선사하고자 했어요.

Q 최근 오랜 시간 곁에 둔 애착인형이나 장난감 등을 고쳐주는 병원이 눈에 띄어요. 생애 특정 시기에만 필요로 하는 물건이라 여겼던 인형이 다양한 연령대에 의미 있다는 방증 같아요. 애착 물건 하면 애착 인형이 자연스레 떠오르고요. 인터뷰이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던가요?

JH 가장 큰 공통점은 자신이 애착을 가졌던 물건에 관해 이야기할 때, 숨길 수 없는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는 점이었어요. 이야기에 막힘 없이, 자신의 어린 적 친구에 관해 열심히 말해주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구요. 아무래도 어린 적 기억이기 때문에 가족과 연관된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Q 어린 시절의 인형 또는 장난감, 강아지 등 추억할 수

있는 오브제를 제작하고 이를 전시하는 동안 참여자들이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주현 님은 이 과정을 '치유'라고 표현하셨어요. 치유의 과정에서 마주한 인상적인 모습이 있나요?

JH 어린 적 기억이라는 점에서, 나보다 나의 어린 시절을 더 잘 기억하고 있을 가족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인터뷰했다는 분이 많았어요. 덕분에 가족과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애착 물건이 인터뷰이 본인뿐만 아니라 아기였던 본인을 기억하는 가족들의 추억이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애착 물건을 못 버리는 사람은 과거의 자신과 연결되는 동시에, 지금까지 잘 보관해 주신 가족과의 추억에 관한 연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Q 책 『어린이라는 세계』, 채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가 화제예요. 아이를 통해 지금 자신을 돌아본다는 점에서, 아이보다는 어른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애착 물건을 돌이켜보는 프로젝트는 김소영 작가, 오은영 박사가 한때 어린이였던 어른에게 건네는

따스한 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듯해요. 주현 님이 어린 시절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JH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애착을 두고 있는 시기별 물건들이 있어요. 시기마다 애착 가진 물건이 바뀌 이유는, 매일 들고 다닌 인형이나 장난감, 지갑 등을 항상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부드럽고 말랑한 촉감을 가진 것들을 만드는 이유도 어쨌면 그때 잃어버렸던 것들을 보상받기 위한 것은 아닐까 싶어요. 잃어버렸을 때마다 안타깝고 초조해했던 그 감정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JH 아무래도 타인과 소통해야 하는 예술작업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통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어려웠어요. 온라인에서 1차 인터뷰 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요. 애착 물건은 워낙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물건이기에, 대부분

함께 찍은 사진이 없다는 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또한 «생활을 바꾸는 예술» 이후로 주변 사람들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설문을 돌리고 인터뷰를 실행해봤어요. 지인에게 인터뷰하던 작은 범위보다, 다양한 대상으로 조사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겨났죠. 대부분 줌으로 만나야 하는 점이 어느 면에서는 편리했지만, 대면하면서 볼 수 있는 표정과 태도를 면밀하게 관찰할 수 없는 점은 매우 아쉬웠어요. 게다가, 영상통화와 같은 매체는 녹화라는 기록이 남는다는 게 인터뷰를 꺼리게 하는 지점이 되었어요. 이러한 점들 때문에 시각 자료에 의존한 결과물 대신, 다른 방향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JH 생각보다 많은 이가 어린 시절에 애착을 가졌던 물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중에서도 3~4살, 아주 어린 날의 기억을 어제 일처럼 명확하게 떠올리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인터뷰 내내 물건에 얽힌 기쁜 기억, 버리게 되어 서운했던 기억 등을 떠올리는

표정들을 마주하면서 느꼈어요. 내가 작품을 만들어 주는 과정, 시간을 들여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과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심리적인 치유를 도울 수 있겠다고 말이에요. 저 역시 나만의 시각적 조형물을 만드는 과정보다, 타인과 더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예술작업을 할 수 있어 지원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JH 가장 큰 장점을 꼽자면, 꼭 자신이 속해있다고 생각하는 예술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그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의도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결과물에 부담 없이 다양한 탐색 과정을 거쳐볼 수 있는 점이 좋았어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JH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아쉬운 시즌이었어요. 장르를 벗어나는 예술에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부탁드립니다.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JH 제 작은 프로젝트가 과거에



NR ‘취미’는 뭔가 느슨하게 즐기는 뉘앙스가 강한데, ‘취향’은 취미보다는 내재적이면서 어딘가 좀 고집스럽고 묵직한 뉘앙스가 있죠. 취미는 언제나 바뀔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는 거라고 여기는 반면, 취향은 좀 더 신념이나 가치관과 연관되어있다고 여기곤 하고요. 그래서지 ‘취미가 뭐예요?’라고 물으면 쉽게 대답하지만, ‘취향이 뭐예요?’라고 물으면 쉽사리 대답하지 못하고 해요. 하지만 취미는 결국 어떤 면에서 취향의 발산이라고 생각해요. 취향이 아직 발산되지 않은 잠재태¹에 머물고 있다면, 그 실체를 확인하려면 발현태²인 취미를 먼저 살피는 게 첫 순서라고 생각했어요. 그 흔적들로, 운동, 음악 감상, 식물 기르기 등 다양한 취미가 있잖아요. 그러한 취미를 가지게 된 개인의 기질, 그 취미활동에 수반되는 다양한 기물들, 작업순서들에도 결국 취향이 묻어나는 법이니까요.

Q 취향은 경제적 여유, 사회적 경험부터 처한 시대와 문화 등 다양한 요소가 만들어내는 일면이기도 해요. 프로젝트에서는 한

1 아직 구현되지 않아 보이지 않는 상태
2 실제로 드러난 상태



사람에 집중해 예술품 외에 생활 기물이나 생필품까지 전시하면서, 자신도 미처 몰랐던 취향을 인식하고 삶의 궤적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알아보는데요. 전시자를 선별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었나요?

NR 우선 수집물이 많으나 특별하거나 거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위주로 선별했어요.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취향을 발굴하고 싶었거든요. 말하자면 확고한 자기 취향을 이미 가진 사람에게 이 프로젝트가 그다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수집품들에는 일관된 취향이 뚜렷이 보일 것이고, 본인도 자신의 취향을 명확히 알고 있을 테니까요.

Q 전시를 통해 전시자에게는 개인의 일상을 메우는 사물들을 돌아보며 취향을 정돈하고, 관람자는 소소한 취향에 공감하며 자신의 취향을 정돈하는 동력을 제공한다고 하셨어요.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대화 과정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나리 님이 포착한 장면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NR Part 1 전시품에 작은 접시들이 여럿 포함되어있었어요. 특별한 작품이 아니라 1960-70년대에는 매일 밥상에 오르던 작은 찬기들이예요. 전시자는 이걸 액자로 만들어두었다고요. 외형이 주는 소담한 멋뿐 아니라 추억을 간직하고 싶었던 거겠죠. 한 관람객이 이걸 보시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우리 집 창고에서 이 접시들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쓰지는 않는데 딱히 버리기엔 아까워서 계속 해두니 좋네요. 저도 이렇게 액자 제작해야겠어요.” 자칫 참고에 영원히

문힐 뻔했던 그 찬기들이 빛을 보게 되겠죠. 그릇들을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며, 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이 버리지 않았던 건지, 그 추억과 취향을 한번 돌아켜볼 수 있게 되었을 거라 믿어요.



Q 진행 과정에서 생긴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있나요?

NR Part 2 전시품에는 LP들이 있었어요. 실제 집에는 꽤 많은 양이 있었지만, 그중에 몇 장만 선별해서 전시장에 데려왔죠. 선별과정에서 전시자의 음악 취향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고 생각하던 찰나였어요. 전시자가 갑자기, “어, 이건 내 물건이 아닌데!”라고 하면서 양희은 한정판 LP를 꺼내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와이프 생일이 윤달³이야. 음력 윤팔월이면 생일이 평생 한두 번 돌아오는데 그래. 그러니 진짜 생일은 평생 거의 못 챙기는 셈이지. 그 진짜 생일이 나랑 결혼하기 전이었어. 와이프 아버지가 너의 처음이자 혹은 마지막 생일이니 무슨 선물을 받고 싶은지 얘기하면 사주겠다고 하셨던 모양이야. 그래서 와이프가 이 음반을 갖고 싶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거래. 그러니 이 음반이 평생 진짜 생일의 첫 선물이자, 어쩌면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다 세월이 지나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우리도 늙어가던 어느 날 이걸 이사 가면서 버리려고 내놨더라고.”

“그걸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서 얼른 주워봤어. 와이프는 아직도 모를 거야, 내가 이걸 주워놓은 줄(웃음). 결혼하고 꽤 오래 우리 집에 있던 물건이고, 그 사연이 뇌리에 박혀서 어느덧 내 물건처럼 느껴진 모양이야. 쓰레기장에 있는데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거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정돈되지 않은 또 다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평생을 같이 사는 배우자끼리는 취향이 교차하는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분명 결혼할 때는 완전 다른 취향이었는데, 어느 순간 취향이 닮아가기도 하잖아요. 취향의 교차, 취향의 닮음... 다음엔 이런 주제로도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3 음력으로 12달이 아닌 13달로 셀 때 추가로 생긴 달. 8월의 경우 1900년, 1957년, 1976년, 1995년에 있었고, 2052년에 돌아온다.

싶어요.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NR 사실 참여자가 북적이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보니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코로나 시대의 무리한 시간을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활용하길 바라며, 이 전시를 통해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꾸고 싶었어요.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NR 애초에 목표했듯, 가성비는 떨어지지만(웃음), 지나가던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전시를 보고 오래 묵혀뒀던 자신의 수집품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거로 예상해요. 그래서 시즌 2로 생각하게 된 게, 일반인들이 이 전시를 계기로 열어보게 된 사람들을 그대로 옮겨와 보고 싶어요. 또는 취미의 교차점, 점점 등을 전시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의 취향이 겹치는 지점을 물색해볼 수 있는 기획도 떠오르고요. 다양한 후속편 전시 아이디어들이 떠올라 의욕이 더 충만해졌어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NR 기존의 평가 기준으로는 가치를 인정받기 힘든 기획이었어요. 장르도 불분명하고 결과도 수치화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생활을 바꾸는 예술»에서는 거창한 전시가 아니라도 실제로 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거창한 결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에 억눌려서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오던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게 되었고, 생각하던 것보다 실제로 해보니 보완해야 할 점, 수정해야 할 점 등이 더 잘 보이는 듯했죠. 그게 이 사업의 메리트 아닐까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NR 결과 예측이 불투명하더라도, 계획이 아직은 엉성하더라도, 기획 의도가 양호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볼 수 있는 포인트는 아주 긍정적인 듯해요. 기획 단계에 불과한데 과도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할 때 부담에 짓눌려 아이디어가 진척되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이런 아쉬움을 잘 배려해주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재단으로는 선정기준을 설정하기 애매하니 자칫 곤혹스러우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프로니까 잘 선정해주실 거예요! 이번처럼요(웃음).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NR 취향은 인플루언서나 여유 있는 이들만 가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창한 것도 아니고 그저 일상에서 내 가치관과 신념 등이 더 캐주얼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표출,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게 되길 바라요.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보듬는 습관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습관이 점점 사람들의 몸에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Q 나리 님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NR 매일 SNS로 다른 사람의 일상을 엿보는 데에 중독된 사람들이요. 물론 저도 그랬어요. 아이를 낳고 내 정체성에 희의를 느끼던 때에, 다른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을 찾아보면서 부러워하곤 했죠. 그런데 나만의 라이프스타일을 가꾸고, 나만의 취향을 가꾸는 일은 다른 사람의 취향을 모방하거나 흠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봐요. 하루 24시간은 너무 짧잖아요. SNS를 하느니 차라리 거울을 보든지 내 서랍을 뒤지는 일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방치해둔 서랍을 열어보는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분들이 오랫동안 잊고지내던 자신의 창고나 서랍을 열어보게 되길 바라요.

비보이 흥텐 생애사 연구(토크콘서트: 한국에서 비보이로 살아간다는 것)

박은지

● 시각예술 전시기획자이자 미술비평가에서, 현재 브레이킹 연구자, 기획자, 비평가로 나아가고 있는 박은지입니다

Q 공유워크숍에서 비주류의 삶, 존재성을 얘기해주셨던 게 떠오르네요. 은지 님이 브레이킹 문화에 관심 두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EJ 저는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곳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가장자리에 위치하지만 각 집단의 경계가 맞물리는 지점에서 있죠. 그래서인지 '소수 문화', '주류 문화'의 외부에

있는 것에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되었어요. 저와 동일시하거나 동질감을 느끼면서요.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조각, 미학, 미술교육학, 신문방송학이라는 넓고 얇은 이론적 바탕과 조각가, 미술 교사, 미술비평가, 전시기획자 등 다양한 삶의 경험은 '브레이킹과 만나기 위해 준비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요즘이에요. 앞서 2020년 유튜브와 인스타, 페이스북에서 영상자료를 수집해 <스포츠 한류로서 브레이킹의 현재적 의미: 비보이 흥텐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논문을 출간했는데요. 사실 흥텐¹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년간 활발하게 활동한 비보이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어요. 유튜브에서 그의 영상이 재생산되고 몇백만 이상의 조회 수를 올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 앞에는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비보이 흥텐을 보면서 그의 가치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슬펐고 억울했어요.

1 2010년 창단된 Red Bull BC One All Stars(레드불 비씨 원 올스타즈) 멤버이다. 세계 브레이킹 씬에서 영향력 있는 브레이크 댄서를 선정해서 성과에 따라 연봉 인상 등 매년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형태인데, 흥텐은 창단부터 현재까지 올스타즈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Red Bull BC One(레드불 비씨 원)에서는 작년부터 Under My Wiliings(언더 마이 윙스)를 기획해 기존의 레드불 올스타들이 젊고 가능성 있는 브레이크 댄서들을 직접 지도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Q 흥텐 말고도 비보이 후보가 있었을까요? 흥텐에 집중한 이유가 있다면요?
EJ 특별한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따로 없네요. 이전까지 TV, 라디오 등 매체와는 완전 담을 쌓고 살아서 유일하게 보는 거라곤 유튜브, 그중에서도 범죄 프로파일러 영상이었어요. 그러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흥텐의 영상을 추천해준 거죠. 영상을 클릭하자 더 알고 싶어졌고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그냥 처음 본 그 비보이 영상에 심장이 뛰는 저를 발견했고, 계속 심장이 뛰는 곳을 향해갔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Q 인터뷰를 위해 참여관찰 방식을 택하셨어요. 이를 통해 나에 관해 알게 된 점과 비보이 문화에 관해 알게 된 점을 소개해주세요.
EJ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각 커뮤니티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도 하고, 여러 커뮤니티의 접점에 있는 경계에서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듯해요.
 “비로소
 내가 있을 곳을 찾았다.”
 참여관찰 방식을 진행하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점이 있어요. “아…

브레이킹 현장에서 살아가려면 체력부터 길러야겠다.” 배틀을 주관하여 개최하고 해당 대회의 홍보영상 촬영 일정에 동행했는데, 제가 저질 체력이라 일정을 소화하기 쉽지 않았어요. 흥텐은 20년 넘게 비보이로 활동하고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기초체력 운동과 브레이킹 연습을 한다고 해요. 일반 비보이들도 따라가기 힘든 체력이라고.

Q 최근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로 비걸 엘(에리)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댄서가 주목받고 있어요. 그 여파는 자연히 ‘춤 배우고 싶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라는 호기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흥텐을 비롯해 비보이 신을 지켜본 입장에서 마이너, 비주류, 언더그라운드 영역이라 인식되는 부분에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시나요?
EJ 비걸 엘은 흥텐의 언더 마이닝에 속해 있어요. 2021년 11월 6일(폴란드 시간) 개최된 레드블 비씨 원 월드 파이널의 실시간 유튜브 중계를 보고 있는데, “스우파” 덕분에 엘을 알게 되었고, 브레이킹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라는 댓글이

· 많이 보이더라고요. 스트릿 댄스의
 · 여러 장르를 다루었던 프로그램이고,
 · 엘 이외에는 브레이크 댄서가
 · 없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비보이에
 · 비해서 비걸의 수가 상대적으로
 · 적고, 한국은 특히 심하거든요. 그런
 ·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로 유입되는
 · 사람들을 보면서, 댄스라는 영역도
 · ‘공공성’을 획득할 수 있겠구나 하는
 · 생각과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 마이너, 비주류, 언더그라운드
 · 영역이라 인식되는 부분에 가장
 · 필요한 것이라, 글썄요… 흥대에서
 · 거주할 즈음 주변 작가들과 자주 한
 · 이야기가 “과연 진짜 마이너, 비주류,
 · 언더그라운드라는 것이 있는가?
 ·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 포장되고 혹은 스스로 포장하고
 · 있는 것은 아닌가?”였어요. 성급한
 · 일반화입니다만, 자신의 행위와
 ·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 도달하고자 하는 곳은 메이저, 주류,
 · 오버그라운드가 아닐까 싶어요.
 · <스우파> 참여한들의 인터뷰를
 · 살펴보면 더 쉽게 이해될 거라는
 · 생각이 드네요.
 · 마이너, 비주류, 언더그라운드,
 · 결국은 ‘수’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향유하는가의
 · 문제요. <스우파>를 통해 더욱
 · 확실해진 것은 레거시 미디어²의

영향력과 역할이에요. 물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뉴미디어 플랫폼들의 영향력이 크죠. 해당 플랫폼의 인플루언서들이 되레 레거시 미디어에 역수입되곤 하니깐요.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들이 특정 문화를 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관심과 향유는 2차, 3차의 문제죠. 따라서 레거시 미디어에서 다양한 문화가 다루어져야 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Q 브레이킹 문화가 기록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탐색지원으로 개인의 삶이자 한국 브레이킹 역사를 기록하겠다고 하셨어요. 20년을 담아내기에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은 짧게 느껴지는데요. 진행해보니 기간이 촉박해 압박을 느끼진 않나요?

EJ 네, 많이 촉박해요. 1회 인터뷰 기준이 3시간인데, 인터뷰하는 데 온전히 그 시간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부 인사, 서로에 대한 근황 확인 등, 실제 녹음된 인터뷰 시간은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사이예요. 그런데도 옮겨 적어보면 그 양이 엄청나요. 공유워크숍 때도 언급했듯 10회 인터뷰가 끝났음에도 기억나는 어린 시절~2006년도까지 삶에 관해서만 들을 수 있었어요. 추가 인터뷰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데, 각자 하는 일이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고요. 홍텐은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하기에 해외 일정, 국내 CF 촬영 일정 등 인터뷰 일정을 잡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말 나온 김에 홍텐의 많은 업적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을 이야기하자면, 2020년 대만에서 개최된 홍텐과 헤리케인의 콜아웃 배틀이 있었어요. 보통 비보이 솔로 배틀의 경우, 3라운드, 길어야 7라운드로 진행돼요. 당시 독특한 대회 시스템이기도 했는데 홍텐은 총 32라운드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어요. 이것을 계기로 84년생, 한국 나이 39세 홍텐은 신체적 한계, 나이를 넘어서는 '살아있는 전설'임을 전 세계인에게 증명해냈죠, 모두에게 가능성이라는 씨앗을 심어주었고요. 같은 해 12월 텍사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대상을 포함해 3관왕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 결과로요. 짱이져(웃음)?

2 Legacy media, TV, 라디오, 신문 등 현재에도 사용되지만 과거에 개발된 전통 미디어.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EJ 대면으로 진행하긴 했지만, 소수라 딱히 어려움이랄 게 없었어요. 저는 현재 부산에 살고 있고 선정자 가운데 유일한 비수도권 거주자로 알고 있어요. 부천, 의정부 등으로 가는 얼마 안 되는 교통편인 시외버스는 없어졌지만, 서울, 부산은 항공이든 기차든 늘 교통편이 많았거든요. 오히려 코로나로 KTX 옆좌석이 비어있어 편하게 이동했어요.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EJ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1월 비보이 홍텐의 존재를 유튜브에서 알게 되고 1월 15일 브레이킹 분야에 저라는 존재가 개입한 것만으로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고 봐요. 네, 제 자랑 맞아요(웃음).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기존 브레이킹 현장에도 팬덤은 존재했고 아이돌 문화와 유사하게 팬들의 서포트 문화도 있었어요. 그러나 기사를 모으고, 지금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 방식은 전혀 새로운 거더라고요.
· 또 각 크루들 역시 다양한 재단의
· 공모사업에 지원하고 있지만,
· 선정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
· 와중에 제가 '비보이 홍텐 전시
· 사전연구', '비보이 홍텐 생애사 연구',
· '2021 아시아 브레이킹 국제교류'를
· 진행하니 관심 아닌 관심을 받고
· 있죠. 개인적으로는 기존 시각예술
· 분야의 선정률에 비해 매우 떨어지고
· 적은 금액이지만요.
· 공유워크숍 진행자(김시원)님이
· 해주신 말씀처럼, 적어도 홍텐을
· 포함한 플로우엑셀(FLOWXL)에겐
· 제가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 공유워크숍 후에 홍텐과 만나 여러
· 대화를 나누었는데 기억에 남은 말이
· 있어요.

· '비보이가 아니라
· 아티스트로 기억되고 싶다.'
· '은인이라고 생각한다.'

· '비보이 홍텐 생애사 연구'
· 프로젝트는 저 자신의 변화와 함께
· 프로젝트를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 그 신에도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 생각해요. 지금은 아티스트 홍텐과
· 홍텐을 통해 알게 된 여러 아티스트와
·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어요.
· 물론 재정자립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선정되어야 진행할 수 있지만, 저희의 프로젝트를 사람들에게 내어 보일 기회가 있기를 바라요. 그야말로 '다원예술'이라는 정의가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닐까 싶어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EJ 2021년에 신설된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여러 재단 공모사업에 참여한 바 있어요. 앞선 6월 «비보이 댄스 전시 사전연구»가 (재)부산문화재단 창작활동지원사업의 창작역량강화 분야에 선정되었는데, 이유를 추측하기로 그의 역사를 추적하고 시각화하여 전달하는 전시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은 게 아닐까 해요. 그와 비교하면 «생활을 바꾸는 예술»은 좀 이상하달까요? 지원서를 작성하면서도 '이런 이상한 걸 뽑아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고요. 그런데 공유워크숍에서 '나보다 더 이상한 프로젝트들'을 만나면서 나름의 위안도 되었고, 이런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사업을 신설한 재단 관계자와 심의위원들에 대한 '존경심' 같은 것이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예술이 어떤 것인가?', '무엇이 예술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범주화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과 달리 «생활을 바꾸는 예술»은 지원자들이 정의 내리는 예술을 이해하고 또한 공감하는 프로젝트, 음... 좀 더 인간적이면서 감동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지원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2022년 사업은 예산이 증액되어 더 많은 프로젝트가 지원받고 실제 우리 삶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EJ 고마운 마음이 많아서 깔 것이 없네요(웃음). 아! 이건 다른 모든 기금과 관련된 것인데요. 문체부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화... 네 좋아요. 근데 그 업무 부담을 각 재단이나 예술가에게겐 짐이라고 생각해요.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EJ 글썽요, 딱 한 단어를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지금 생각나는 것을 줄줄이 나열해볼게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 '우리'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관계들, 새로운 시도가 이전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그 형태를 확정할 수 없어 두렵긴 하지만 '우리'이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보다는 기대와 가능성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술, 그 모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Q 은지 님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EJ 1차 대상은, 당연히 현재 브레이킹 현장에서 살아가는 댄서, 연출가 외 관계자들에게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의 삶은 특별해요. 특히 레드볼 비씨원 올스타즈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브레이크 댄서임을 인정받는 것이자, 고액 연봉을 받는, 안정된 직업으로 여겨지곤 해요(2010년 10인, 이후 계약이 종료되고 증원되면서 현재 17인). "홍텐이니까, 그는 특별하니까, 우리는 안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요. 장애물과 한계를 마주했을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넘어서고자 했는지, 그리고 넘어서지 못할 때는 어떻게 자신을 다독였는지 말이죠. 이를 통해 그들이 다시 한번 꿈꿀 수 있기를 바라요. 2차 대상은, 저처럼 브레이킹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마음 한편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장애물과 방해 세력에



저항할 수 없거나 지쳐서 주저앉은 사람들이요. 휘청거리는 제겐 얼굴 한 번 보지 않은 흥텐이라는 존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거든요. 상황이 꼭 같지는 않지만, 그의 삶 이야기와 그가 살아낸 시간이 제겐 위로가 되었고 새로운 가능성을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미 오래전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 '새로운 꿈'을 꾀요. 네, 그래서 보여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어요.

영상 기록으로 보는 재즈 1세대

오선지와 음표들

- 오선지와 음표들은 남무성, 유옥란, 이미경, 장유정, 정가람, 차정훈, 황은지가 재즈 1세대 원로 음악인들의 삶을 기록하기 위해 만든 팀입니다.

Q <영상 기록으로 보는 재즈 1세대>는 한국 재즈 1세대 원로들의 기록을 남기는 일이 역사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데서 시작해요. 역사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현재와 미래까지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때, 영상 기록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직접 그 가치를 체감한 순간도 있으신지 궁금해요.
OR 역사는 단순하게 '옛날이야기', '지나간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재를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바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의 이름이 '오선지와 음표들'인데요. 음표는 오선지 위에 있을 때, 오선지의 기준 아래 있을 때 존재감이 생기기 때문이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재즈 1세대 선생님들의 건강 악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어 그 점이 큰 안타까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재즈 1세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이 일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요.

Q 공유워크숍에서 “이걸 진작 해야 했다’는 간절함, 절박함, 당위성 등으로 인해 다음 기획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구체적으로는 1세대 원로분들이 건강 악화로, 또 연로하셔서 이야기를 남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드셨는데요. 개개인의 삶을 세세히 들여다보며 남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OR 선생님들의 음악을 대하는 태도와 동료 음악인을 칭찬하고

세워주시는 모습이 인상에 남아요. 마치 ‘겸손’이라는 말이 이분들의 삶을 통해 살아있는 듯했어요. 요행을 바라거나 유명세를 타고 잘나가기를 원하기보다, 어제 한 것을 오늘하고 오늘 한 연습을 내일 또 하는... 어쩌면 지겨울 법도 한 지난한 연습 그 자체를 음악, 곧 그분들의 삶의 한 부분이라 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고 존경스러웠어요.

Q 음악은 때로 언어를 초월해 통한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1세대 원로들의 이야기를 남기는 과정에서 언어가 아니라 음악으로 통했던 순간이 있나요?

OR 강태환 선생님 인터뷰를

위해 자택 지하에 있는 연습실로 찾아뵈는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인터뷰 전까지 걱정이 많으셨대요. ‘나는 나팔쟁이인데 인터뷰할 내용이나 있을까’, ‘나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등의 이유예요. 그래서 인터뷰보다는 ‘내가 하는 음악을 들려주면 되겠다’ 하고 생각하셨대요. 선생님은 프리재즈를 하신 분이예요. 악기 테스트 겸 새로운 악기를 가지고 오셔서 기존에 소지하고 계신 악기와 음색을 비교하며 설명을 더해 주셨어요. 인터뷰가 순조롭게 잘 된 건 물론이고, 말씀도 아주 완벽히 잘해주셨죠. 더불어 선생님이 준비하신 색소폰 연주까지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영광까지 얻었어요. 공연장 1열에서 감상하는 듯한 호사를 누렸답니다(웃음).

Q 재즈를 마주한 대중이 어렵다, 난해하다, 낯설다고 느낀다고 보고, 접하기 쉽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마니아들의 음악이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보셨죠.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이나 영화 OST, 광고 음악, 재즈바 등 재즈가 일상에서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향유할 콘텐츠가 적고 쉬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영역을 비출 ‘빛’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즈라는 장르가 대중과 가까워지려면 우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OR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이긴 한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동네 재즈>예요. 아쉽게도 재즈 공연장은 우리의 생활반경으로부터 먼 곳에 있어요. 재즈페스티벌도 공연일로부터 한참 전에 시간과 돈을 계획하고 큰맘 먹어야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동네 재즈>예요. 동네마다 재즈밴드가 있고, 동네마다

결과물을 창출해보려고 합니다.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OR 탐색한 내용을 확장해서 2022년에는 실행지원 트랙으로 지원해보고자 해요. 그러려면 일단 «생활을 바꾸는 예술» 자체가 사라지지 않아야겠죠. 단편적인 사업이 되지 않고 지속하는 사업,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 잡아 가시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OR «생활을 바꾸는 예술»은 생활이 곧 예술이고 예술이 곧 생활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바꾼다는 것은 보이는 무언가의 변화뿐 아니라,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듯하고요. 그 생각의 변화는 관심이 생기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처럼 작은 관심 하나가 중요하겠죠. 예술이라는 단어가 무언가를 규정하고 선을 긋고 제한한다는 느낌이 있다 보니 ‘내가 무슨 예술을~’ 하는 인상을 지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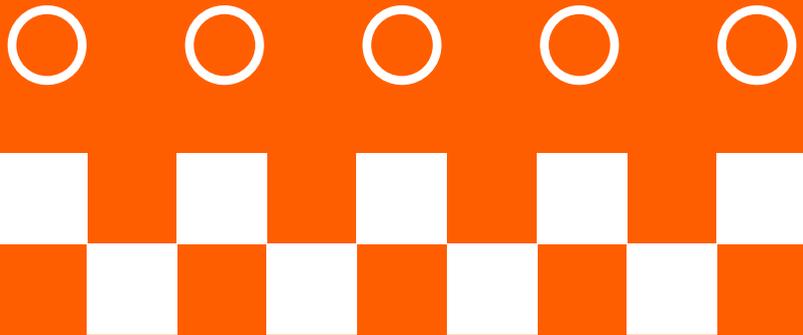
어려운 면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예술은 생활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생활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미래에는 예술이라는 단어가 재구성될 수도 있겠네요.

Q 오선지와 음표들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ALL 특정한 사람에게 국한된 프로젝트가 아니어서요. 누구에게나 열린 프로젝트가 되면 좋겠어요. 특히 케이팝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요즘, 대중음악의 뿌리가 된 재즈 1세대의 삶은 재조명되고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은 빠르지만, 과거를 돌아보는 눈은 조금 느리고 어두운 듯해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유튜브나 TV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주변엔 살아있는 음악이 많아요. 그분들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생을 다하신다 해도 그분들의 음악은 영원할 거예요. 기억해주세요, 재즈 1세대.



GROUP 2



사람의 유전자에는 더불어 살아가는 감각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 더 발달하거나 덜 발달할 따름이지요. 구체적으로 접근하자면 어떤 존재와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반려인에 이성 말고도 다양한 성 정체성이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일, 반려동물이나 식물처럼 다양한 생명을 상상하는 일, 이 모두와 공생하는 자연, 삶을 영위하는 지구를 망각하지 않는 일처럼 말입니다. 그 범위가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다고 말하기 전에, 바로 곁에 있는 존재들을 세세히 뜯어보면 어떤 게 보일까요?

〈세상에 나쁜 푸푸는 없다〉는 반려견의 배설물을 매개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입장 차를 좁힐 방법을 궁리하고, 〈파키우기〉는 기후 위기로 인해 나타난 현상인 파테크를 시작으로 한국의 대표 향신채인 깻잎이 독일이라는 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들여다보며, 〈유랑정원〉은 식물을 집안에 들여 가꾸는 행위에서 자연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본능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소통할 언어는 부족하지만 교신할 방법은 끝내,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 나쁜 푸푸는 없다

그때그때

- 그때그때는 사람과 사람, 환경 그리고 동물과의 삶을 이야기하려 박정경, 신소영, 정예진이 만나 구성한 팀입니다.

Q 펫티켓, 비반려인과 반려인의 입장 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개똥’이라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고요. 개똥보다 ‘푸푸’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을까요?

ALL 우리는 흔히 반려견의 배설물을 보고 강아지똥 혹은 개똥으로 표현하는데요. 반려견의 배설물을 향한 불편한 인식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기보다, 순화되고 재미있는 표현을 찾아 ‘푸푸’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됐어요. 사실 푸푸라는 단어는 배변패드, 배변 봉투 등 이미 꽤 많은 반려견 용품에 사용되고 있거든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람에겐 친숙한

단어이리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푸푸는 개똥에 대한 시선을 바꾸기 위해 선택한 표현은 아니에요. 개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에게 유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개똥을 초점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덜 가면서도 위트 있게 접근하고자 한 거죠. 더불어 ‘강아지똥’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여 강아지만을 지칭하고 싶지 않았어요. 강아지는 개의 어린 개체를 이르는 말이기엔 대상을 한정 짓는 부분이 있거든요. 푸푸가 개똥을 부르는 애칭이 된다면, 유쾌하지는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친근한 느낌을 조금은 주지 않을까 기대해 봐요. 친하지 않던 사람도 애칭으로 부르다 보면 심리적인 거리감이 줄어드는 것처럼요.





Q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게 만들기 위해 ‘불편한’ 실험과 탐색을 한다고 설명하셨는데요. ‘세상에 나쁜 푸푸는 없다’에서 말하고자 하는 ‘불편함’은 어떤 부분인가요?

ALL 이 프로젝트는 불편과 불편함, 그리고 불편한 프로젝트예요. 먼저 개똥은 우리 모두에게 어디선가 만나면 불편한 존재죠.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존재를 수거함에 따로 모으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실험일 거예요. 프로젝트 참여자에게는 배변 봉투를 제거한 반려견의 똥만을 수거함에 넣어달라 요청하기 때문에 불편한 실험이고요. 매일 수거함에 모이는 반려견의 똥을 관리해야 하기에

진행하는 저희 또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해요. 무엇보다 실험 기간 내 모인 똥에 쓸모를 찾아주기 위해 거름으로 만드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죠. 이 모든 과정이 저희 프로젝트의 불편함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이런 ‘불편한’ 실험에 과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고, ‘우리의 실험이 누군가에게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 하는 궁금함이 이 ‘불편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Q 애니메이션 <강아지똥>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거름이 된다는 결말이에요. 그때그때는 이로 인해 거리에 똥을 치우지 않는 오류를 범하는 게 아닌지 질문을 던져요. 실제로 개똥은 영양이 없어서 퇴비가 되기 힘들지만, 거름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삼은 데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고요. 그 고민은 현재 어떻게 뻗어가고 있나요?

ALL ‘왜 사람들은 길에 개똥을 버려두면 자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찾던 강아지똥이 민들레에 자신을 내어주면서 자신의 쓸모를 찾게 되는 애니메이션의

결말처럼, ‘개똥을 거름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는 고민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개똥의 쓸모를 찾는 방향에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좋은 거름은 영양분이 많아요. 그렇기에 식물이 잘 자란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개똥에는 영양분이 없어서 거름에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양질의 거름을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영양을 더하여 양질의 올바른 거름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 보기 시작했죠. 개똥을 거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질소(개똥)와 탄소(툽밥, 쌀겨)가 풍부한 물질, 물, 미생물(EM)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실험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과연 개똥이 거름이 될 수 있는지 이론은 있었지만, 실현 가능한지 고민이 많았어요. 수거함을 설치해 진행한 실험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희망을 발견하면서, 개똥의 쓸모를 찾아 줄 수 있다는 기대를 부풀리며 활동을 진행했어요. 게다가 ‘푸푸 수거함’에 관한 보이지 않는 관심이 넘쳐나고 있음에 뿌듯함을 느끼는 동시에 거름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기대하고 있어요.

Q 그때그때 팀원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시지요.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이 있나요?
 SY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은 온탕과 냉탕의 반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좋을 때는 너무 좋다가도, 서로 곤란하거나 싫은 행동, 상황을 마주하면 미워지는 극과 극의 반복이라고나 할까요? 막연하게 아주 좋다고 말할 수도,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반려동물이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누군가의 삶을 책임지고 서로에게 맞추어가며 살아가는 일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실수투성이죠.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 더불어 지내는 삶에 서로 익숙해지고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해, 반려동물과 저는 한 몸처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전후를 더듬기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살았는데요. 반려동물 친구들과 함께하는 삶은 배려와 양보, 다툼과 화해, 행복과 슬픔 등 인생극장의 날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ing 극장’이에요. 어느 날은 생각지 못한 감동으로 가슴 뭉클하게 하고, 어느 날은 실수를 가장한 고의라고 생각되는 행동들로 약을 올리고, 실컷 약을 올리고선 미안함과 무안함에 화해의 눈빛을 보내기도 하는, 누가 주인공인지 알 수 없는 영화를 매일 촬영하는 모습이에요. 아직 주인공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그때의 상황을 되짚어보는

주체에 따라 주인공과 상황에 따른 해석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JK 이제 딱 2살 된 반려견과 지내고 있어요. 반려견과 살기 전과 지금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모든 생활의 중심이 반려견에 맞춰진 점이겠죠. 주말의 휴식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요. 푸푸와 관련된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저희 반려견은 집에서 불일을 보지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책 나가야 하죠(웃음).
 YJ 음, 참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요. 12월이면 반려견과 함께한 지 2년 즈음 돼요. 이제 가족 채팅방은 반려견 ‘구름이’ 사진과 이야기로 온통 가득하답니다. 대화 주제가 자연스럽게 사랑스러운 반려견 중심으로 모이는 걸 보면, 가족의 공통 관심사가 생긴 거죠. 반려견 공부를 하고 대화도 자주 하면서 힘을 모아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곤 해요. 때론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하는 게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그만큼 더 웃게 되고 보람되고 즐거워서 힘든 것보다 행복한 일이 더 많아졌어요. 아침, 푸푸는 반려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방법 하나라고 해요. 푸푸 상태를 관찰하고 공유하면서 때론 걱정도, 안심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제게 푸푸 소식은

더 이상 눈살을 찌푸리는 더러운 이야기가 아닌, 계속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에요(웃음).

Q 최근 반려동물과의 삶과 죽음을 고민하는 이야기들을 접하곤 해요. 반려인들과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주민 커뮤니티가 생기길 기대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야기 나누어 봤으면 하는 주제를 귀땀해주시래요?

ALL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반려 생활’이에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행복한 삶으로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죠. 나아가 ‘올바른 반려 문화’인데요.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 모두가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봐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려 문화는 사람이 주제로 고민하고 방안을 찾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찾은 방안들이 과연 삶을 함께하는 반려동물들을 고려한 방안들일까?’ 하는 고민이 생겼거든요. 이제 반려 문화를 고민하고 실험하고 탐색하는 첫발을 떤 상황에서, 주어진 문제에 관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답을 찾는 중이에요. 저희의 작은 움직임과 궁금증이 퍼져나가 많은 사람과 올바른 반려 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ALL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이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참여자들 덕에 개똥을 모을 수 있었던 건,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도 반려견과 산책 나가야 하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반려 문화’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팀원 모두 반려인이라 진행이 어렵지는 않을 거로 판단했어요. 오히려 어려움으로 다가온 부분은, ‘개똥에 대한 불쾌한 인식이 있고, 사람들이 그걸 모으는 행위에 선뜻 참여해줄까?’ ‘어떻게 반려인에게 불쾌함을 줄이면서 위트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었어요.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ALL 첫 번째 변화는 팀의 활동 영역 확장이예요. 작업실에서 이야기하고 구상만 하던 것을 밖으로 나와 실행해 본 것, 그게 가장 큰 변화죠. 두 번째 변화는 활동 내내



재미있고 웃픈¹ 에피소드가 하루하루 늘어나는 개똥이에요. 사람들이 관심의 눈길은 주겠지만 '개똥을 넣어줄까?', '쓰레기를 넣어주면 어떡하지?', '수거함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무색하게, 쓰레기는 커녕 축축한 개똥이 하나씩 적립되는 상황을 보고서 좋아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때 깊은 고찰에 빠졌죠. '개똥이 많아지는 건 좋은데 과연 이 똥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수거함을 관리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소리가 나면 흠칫하고 놀라는 모습에 '나는 똥 도둑은 못 되겠다'고 생각하곤 했어요(웃음).

이번 실험은 사람들의 참여로 모은 개똥을 거름으로 완성하며 활동을 마무리 지어요. 거름이 되는 과정은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업 기간이 끝난 후에 완성될 예정이에요. 이후에는 참여자들과 함께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해보는 희망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봤어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ALL «생활을 바꾸는 예술»을 통해서 막연한 상상 속에 있던 푸푸의 씨앗을 가능성이 있다는 싹으로 틔우는 시간이었어요. 개똥을 주제로

¹ 웃기면서 슬프다는 의미의 신조어

하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실험에 지원받은 후로, 점점 현실에서 구체화 되고 실행될 때, '어? 어?! 어?!!!!' 하는 놀람과 신기함의 연속이었거든요. 불편한 프로젝트지만 뭔가 더 해보고 싶고 또 다른 꿈을 상상하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해봤고, 동시에 가능성도 보았어요. 이 경험이 저희 팀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듯해요. 다른 사업들과 달랐던 점은 탐색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완벽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부분이에요. '실험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부담을 덜어 주어 조금은 이상한 상상을 해볼 수 있었어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ALL 앞으로도 저희처럼 엉뚱하면서도 황당한 프로젝트들을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사업명처럼 생활을 바꾸기 위한 예술은, 생각보다 삶에 아주 가깝고 별것 아닌 지점이 약간의 변화를 가질 때 더 큰 변화로 인식되기 때문이죠. 물론 막연한 상상만 그치는 기획은 거를 필요가 있겠죠. 생활 속 예술이라는 게 어찌 보면 정해진 답이 없는 경우겠지만,

상상과 뜬구름 같은 기획들은 잘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탐색지원에 적절한 워크숍도 있었으면 해요. 대부분 시작하는 경우일 텐데, 공유워크숍에서는 의도와 달리 완성된 결과물에 관한 질문이 주었다고 느꼈어요.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ALL 중형견의 경우 1마리당 연간 180kg 정도의 배설물을 생산한다고 해요. 평생에 걸쳐 대략 1t 정도를 생산한다고 볼 때,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천만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고민을 시작할 계기가 되길 바라요. 친환경 생분해 봉투에 담겨 일반 쓰레기와 같이 소각되는 아이러니한 처리 과정, '개똥은 흙이나 풀 근처에 두면 알아서 거름이 될 거야' 하는 오류들이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생활 속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구나 한 번쯤 길 위에서 만났을 개똥을 어떻게 마주하고 보내주어야 할지 작은 고민의 싹을 틔우는 예술 활동이 되길 바라요.

Q 그때그때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ALL 모든 사람이 프로젝트를 만났으면 해요. 언뜻 반려인과 반려동물들이 접해야 하는 활동으로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언제 어떤 계기로 반려인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미 반려인인 분도 있겠지만, 우연한 계기로 혹은 깊은 고민과 준비를 통해 반려인이 되는 분도 계시고, 어떤 계기로 절대로 반려인이 되지 않겠다는 분도 계시거예요.

반려인이신 분은 개똥의 처리 과정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해요. 친환경 재생 봉투에 넣어서 버린 개똥은 다른 일반 쓰레기들과 같이 소각되거나 매립돼요. 이 말은 친환경 재생 봉투를 사용한다고 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에 환원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친환경 재생 봉투를 사용하니까 관심을 거라는 생각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친환경에 부합하는 건지, 친환경 봉투 혹은 일반 봉투에 휴지나 물티슈로 짙은 똥을 같이 버린 것이 자연 분해되어 자연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시길 바라요.

또 비반려인이신 분이려면 주변의 반려인에게 개똥의 처리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친환경, 탄소중립 등 환경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더 나은 환경을 위한 고민을 반려인이 되새겨 볼 수 있게 물어봐 주세요. 반려동물과의 삶은 종속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반려 관계예요. 사람의 편익에 의해 키우기보다 서로 함께 하는 삶을 모두가 알아가면 좋겠어요.

파키우기

갈무리

● 갈무리는 도시 역사를 공부하는 홍남명, 근대 도시 형성 과정에서 보던 이야기에 관심 있는 시각예술인 차예림이 꾸린 연구모임이자 팀입니다.

pakiuki.com

Q 올해 초, 파 수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파를 직접 가꿔먹는 사람들을 두고 파로 재테크하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이득이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이를 표현하는 신조어가 '파테크'였지요. 갈무리는 이 현상을 보면서 '파키우기'를 구체화했다고요. 최근 양상추 또한 비슷한 양상으로 가시화되면서 기후 위기를 많이들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평소 일상에서 기후 위기를 실감한 경험이 있나요?

NM 지난봄엔 눈이 왔어요. 갑자기 해가 뜨다가 비가 오다가 다시 눈이 오고 돌풍이 불고 비가 쏟아지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독일은 해양성 기후여서 날씨가 잔잔할 거로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극단적인 날씨에 감기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기후 위기를 체감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감기 때문에 열이 오르고 목이 붓는 상황은 너무나도 끔찍한 경험이에요. HR 최근 양배추 부족 현상 외에도, 중남미의 이상기후로 인해 생두 가격이 올라서 저가형 카페에서 원두를 수급할 때 가격 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1달 만에 원두 1kg 이상 소비할 만큼 커피로 아침을 시작하는 일이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판매처는 원두 가격을 갑자기 올릴 수 없으니 블렌드 함량을 달라해 맛이 계속 바뀌거나, 결국에는 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맛있는 커피를 마시겠다는 의욕이 크지 않은데도, 생필품 수준으로 구비하기 때문에 먼 나라의 이상기후나 현 시국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크게 와 닿았어요.

Q 말씀하셨듯 기후 위기는 이제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해양생태계에서 사라지는 어종은 물론, 해조류인 미역도 수급이 어려워진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매 계절 이상기후가 관측되며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먹거리 문제는 이와도 밀접하게 연관돼있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국내(서울)에서는 파를, 해외(베를린)에서는 깻잎을 고르신 이유가 궁금해요.

HR 저희가 다루는 파와 깻잎 모두 음식에서 한식 느낌이 확 나게 만드는 향신채예요. 프로젝트에서 주목한 건 파 자체라기보다는 작년년부터 시작된 파테크 현상이었는데요.

파를 키우는 일은 물과 햇볕, 식물 뿌리라는 자연 자본으로 시작하여, 작물의 축적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국에 넣어서 소비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 지점에서 흥남명 연구원님과 저는 파테크가 유통과정 상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작은 정원을 만드는 등 경제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이라고 봤어요. 파 키우기가 반짝 유행이 아니라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능성으로 보여서 조사와 기록을 시작하게 됐죠.

NM 깻잎에 주목한 이유는 해외 한인 사회와 깻잎의 관계가 특수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저는 베를린에 거주한 지 5년이 넘었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요리할 때면 여러 슈퍼에서 재료를 구매하는데, 깻잎은 정말 구하기 어려워요. 독일

자생 채소가 아니고 식재료로도 생소하니까요. 이런 상황이니 해외 한인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먹거리가 깻잎이 될 수밖에요. 깻잎은 잘 못 키우면 잎이 부족하지만, 한번 잘 키우기 시작하면 이파리가 정말 많이 나가거든요. 묘목이 시들거나 겨울이 되어서 이파리가 얼기 전에, 내가 먹고도 넘치는 분량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거죠. 거기서 한국 음식이라는 공통의 향수를 가진 사람들에게 깻잎 나눔이 시작돼요.

Q <파키우기>는 “한국인에게 익숙한 식물을 통해서 개인이 기후 위기를 더 구체적으로 느끼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기게 하는 데 목표를 두었어요. 개인 텃밭 가꾸기가 취미 영역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환경운동이기도 하다는 의미인데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급자족 방식을 제안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NM 독일에서는 아주 많은 종류의 식물을 마트에서 팔아요. 바질이나 파슬리 화분이 참 많이 보이죠. 허브 종류는 향기도 좋으면서 요리에 곁들이기 제격이라, 파스타를 좋아한다면 허브류를 들여 가꾸는 게



좋은 자급자족 방식일 거예요.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진행한 파 역시도 실은 향신채인데, 생장점 위쪽을 계속 잘라서 먹는다면 거의 무한한 파 공급원을 얻게 될 거예요.

HR 흥남명 연구원님이 깻잎을 키우기 시작하자 베란다와 거실이 식물로 꽉 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원룸이거나 베란다가 없는 공간에서는 확실히 화분에 키우는 일 이상의 식물 재배를 상상하기 쉽지 않잖아요. 주말 텃밭도 운전면허 정도는 있어야 접근성이 좋은 면이 있고요. 소소하나마 초등학교 때 해보던 고구마 싹 틔우기나 양파 키우기 등이 재밌다 싶어요. 내가 먹을 거니까 웃자라도, 중간에 시들어도 그만이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신경 쓰는 만큼 조금씩 자라주는 식재료들을 응원하게 되죠. 성미산

텃밭 일지를 쓰면서 산자락과 거주지 사이의 수많은 텃밭과 빌라 틈새의 작은 정원을 발견했어요. 이런 환경은 산이 주변에 있다는 특수성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빌라나 옛집이 많은 동네여서 마당까지는 아니지만, 스티로폼 상자에 깻잎이나 토마토 키우는 분이 많아요. 만약 아파트나 원룸 위주의 건물들이 있었다면, 무언가를 심을 공간이 있는 상황이 흔치 않을 거로 짐작해요. 택배 트럭이나 아파트에 살지 않는 어린이들조차 아파트에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요즘, 같이 쓰는 땅까지 상상하기 쉽지 않으니깐요.

Q 식물과 환경에 관심을 두고 민감하게 인지하는 감수성을 강조하면서, 나아가 공감대를 토대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까지 구상하셨죠.

성미산은 커뮤니티가 활발한 마을공동체로 알고 있는데요. 성미산을 한 축으로 두신 이유에 관해 듣고 싶어요.
 HR 아쉽게도 성미산 마을 운동과는 실질적으로 연계돼있지 않아요. 다만 저는 마포구 토박이여서

마을공동체가 태동할 때 인근 학교에 다니고 봉사 활동하면서, 자치 단체나 풀뿌리 운동, 자립적인 체계가 만들어 낸 환경과 어울려 자랐어요. 학생 때부터 활동가분들이 마련해 주시는 행사, 복지 차원의 혜택을 받았고, 선생님들의 교육관에 분명히



영향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미산 마을 운동이 바라보는 공동체에서 교육과 현장 경험, 특히 아이들을 빼놓을 수 없다고 느껴요. 더구나 마을 협력 체계에서 농산물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생산보다는 우리 먹거리 유통 거점으로서 소비문화를 장려하는 데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보고요. 하지만 저희는 기후 행동으로써 <파키우기>를 통해 탄소 발자국을 지우고자 땅을 경작하는 활동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홍남명 연구원님의 전공과 관련한 도시 문화 중 농업의 측면에서요. 그래서 마을 운동의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실제 도시 안의 녹지, 농지에 대해 다루시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나 은평 전환 마을 운동에 프로젝트의 초점을 맞추게 되었죠.
 NM 덧붙이자면, 식물을 통한 공동체의 가능성을 읽으면서도, 실제로 저희가 구체적인 단체를 구축한 건 아니에요. 다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서울과 베를린에 이미 기후 행동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도시 농업 공동체가 꾸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뛰어넘어서 기후와 식량 위기에 대응하여 지구의 한 개인으로서 노력해오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땅을 돌보며 일상적으로

노출된 피상적인 욕망에서 벗어난 감각을 얻고자 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희 프로젝트가 이러한 느슨하면서도 연대할 수 있는 공동체를 잘 소개하는 데 의의가 있으면 해요. 어쩌면 구체적이고 끈끈한 연대체보다도 일상에 적용하기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Q 파, 깻잎을 가꾸고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구성한다고요.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안하고 싶은 관점은 무엇인가요?
 NM 가이드라인을 통해 식물이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가능성을 찾아봤어요. 기후 위기의 지표인 식물이 우리 일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서울 시민 모두에게 같은 이유가 적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식물은 인스타그램을 위한 것일 수도, 식테크를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식물을 키우면서 '반려'라는 개념을 깨닫게 돼요. 이 식물이 죽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인터뷰 중, 상자 텃밭 품앗이를 통해 소외 계층 어르신을 돌보며 이웃 간의 유대와 관심을 도모하는 지점도 읽을 수 있었어요. 식물이 개인적인 유대관계에서 나아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지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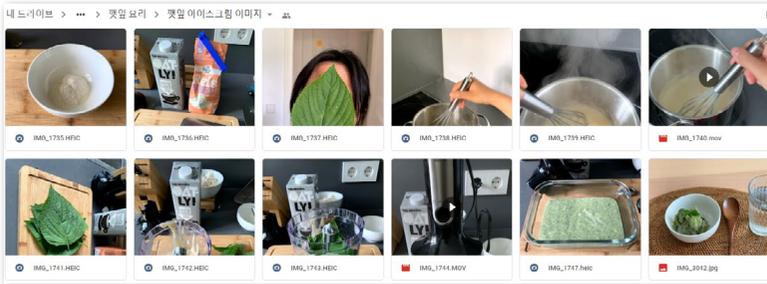
HR 두 번째로 자료 조사를 통해 기후 위기 속에서 사람과 식물의 관계를 제시해보고자 했어요. 먹거리에 대한 위협, 식량 위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저희가 만난 농부님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에 파가 맛있게 자라지 않을까 봐 걱정하셨어요. 수확량이 적어서 파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상품성은 다른 문제인 거죠.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도 슬픈 일이고요.

NM 도시에서 텃밭과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지만, 베란다나 옥상 등의 공간은 날씨와 기후의 영향을 받아요. 농업기술센터 인터뷰를 통해 기후의 영향을 덜 받도록 스마트팜¹을 만든다는 계획을 접했어요. 그렇다면

기후 위기는 기술의 발전과 승리의 매개체일까요? 그러기엔 스마트팜의 식물은 전기와 물을 계속 소비해요. 탄소 발자국을 지우고, 이산화탄소를 다시 땅으로 가져오는 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스마트팜은 인간만을 위한 식물 기르기이자, 식량 생산이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생겨나는 현상을 인간이 겪지 않도록 하는 거죠.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NM 한국 밖에 사는 저는 연결 기회가 이전보다 늘었어요. zoom을 통한 인터뷰가 많아졌고, 사람들이 이 형식에 잘 응하게 되었으니까요.



1 Smart Farm,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최적의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농장



물론 여전히 어려운 점은 있어요. 여럿이 모이기 어려워 인터뷰를 잡기 어렵다거나, 회의하려고 해도 편히 대화 나눌 공공 공간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코로나 시대의 프로젝트 기획은 통속적인 말로 기회와 도전 둘 다였다고 볼 수 있어요.

HR 섭외와 인터뷰가 쉽지 않았지만, 비대면 시대에 공유하는 공통 경험이라고 할까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이 이 시국의 제한적인 환경에서 자신을 소진하지 않으려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현 시국에 사회로부터 더욱 소외되는 계층이나 연령층에 어떻게 다가갈지 실질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며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NM 서울의 식물과 인간 사이 문화를 재조명하여 새로운 연구 지점을 마련하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개업식 때 난을 선물하는 풍습처럼 식물을 주고받는 전통문화가 있어요. 식물을 통해 내 주변과 공동체를 환기하는 문화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과 인간의 특수한 관계죠. 난을 통해서 이웃의 새로운 사업을 축하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문화는 향후 연구 지점으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실내 인테리어로 야자수가 유행하는 상황도 흥미로워요. 한국의 식생과 다른 남쪽 식물이 다시 유입되고

도시의 중요한 식물로 자리 잡는
 상황이에요. 이국적인 식물 이미지는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도시의
 모습을 결정하기도 하죠. 이번
 프로젝트 이후 난과 야자수처럼
 전통적으로, 또 새로이 서울에 등장한
 식물과 인간의 생활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겠다고 예상해요.

HR 이 프로젝트에서 시도해본
 자료 조사, 자문, 섭외와 같은 커다란
 방법론들을 개인 작업에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NM 본격적으로 식물을 키워보는
 기획을 얻었어요. 프로젝트를 핑계로
 무수히 꺾잎을 보고 만지고 가꾸고
 요리하고 선물하는 시간을 가졌죠.
 또 다른 수확은, 일상을 개념적인
 생각과 엮어서 새로운 생각거리를
 얻은 부분이에요. 다른 고민거리를
 얻어가는 것은 고통스러우면서도
 즐거운 일이에요. 이 사업의 장점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일상에서
 시작한다는 점에 있잖아요. 일상을
 관찰하고 비판하며 새로운 일상을
 더 즐기는 것은 단순히
 프로젝트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제
 삶의 작은 기쁨을 가꾸는 부분에서도
 행복감을 줘요.

HR 파를 직접 키우는 일 이외에도
 인터뷰와 문헌 조사 같은 비물질적인
 결과물을 검토하며 이야기 나누고,
 계속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신기하고 즐거웠어요. 생활과
 일상을 다루고자 했으므로 그 시간
 동안 미술 생태계의 어법이나 언어
 바깥에서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데
 해방감을 느꼈고요. 단, 시각예술
 중에서도 물질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여전히 이 프로젝트에서
 공부한 자료를 언어화하여 남긴다는
 게 무섭긴 하지만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NM 이런 기획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다만 중간 단계가 조금
 더 있어서 진척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었으면 해요. 다른 바람은
pdf 파일로도 자료를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HR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온라인 경험이 대부분인 탓인지,
 진척에 관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서 긴장감에 시달렸어요.
 본업과는 다른 형태의 연구 설계에
 집중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까지 혼란해서 더욱

불안했죠. 공유워크숍에서 먹거리를
 다루는 다른 창작자분들의 사례도
 접하고,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도
 생각을 개진하면서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어요. 공유워크숍에서
 시끄러워진 저를 발견하며 많이
 외롭고 불안해서 뭐든 확인받고
 싶었구나, 새삼 느꼈어요.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NM 주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흥미로운 통찰을 얻곤 했어요.
 실제 생활을 바라보면서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곱씹어보는
 작업이었죠. 여러 이야기가
 뒤섞이면서 새로운 이야기와 생각을
 엮어나가는 것은 어쩌면 산문에
 가까운 듯해요. 다만 이 산문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함께 연대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감각에 기인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HR 저희가 추진한 방식은
 상상력과 사유의 영역보다는
 실증적인 부분에 기대고 있는데요.
 양적 조사도 아니다 보니 이것이
 예술의 영역에서 다루어진다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텐데 아직은
 모르겠네요. 목혀두었다가 다시
 들춰보면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겠죠?

Q 갈무리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NM 우리가 식물과 가까워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싶었어요.
 이 행동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큰 목소리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식물을 단순히
 바라보는 일보다는 기후 변화가 더
 큰 문제인데, 우리의 경각심이 부족한
 것인지, 식물은 기후 위기의 지표에서
 나아가 자급자족하는 삶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지,
 식물 키우기는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제대로 가둘 수 있을지, 우리는 기후
 위기에 더 급진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이 쉽게 해소되지 않겠지만, 계속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미 일부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되어도 지구가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에 우울감을 느낀다고
 해요. 어른 입장에서 식물 관련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후 행동을
 고민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선뜻 답이 나오지 않아요. 작게 하면
 된다고 스스로 달래는 동안에도
 무기력하고 회의적인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이 우울감에 대해서도 다시
 객관적으로 고찰하고 새로이 연구할
 필요를 느껴요.

HR 최근 일상 수준에서
 이상기후가 체감되면서 광범위한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적어도 환경 운동에 대한 존중이 생겨났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새로운 정보를 전달한다기보다, 서로 배우는 관점에서 기후 문제의 복잡함을 조금이라도 가시화하고자 했어요. 생계 측면의 타협이나 부채감 같은 현재 상황을 냉정히 받아들이고 자신을 일깨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유랑정원

김형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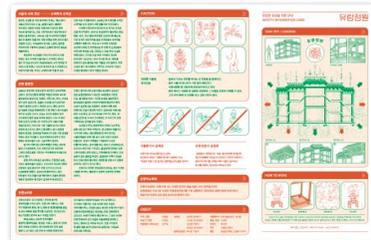
● 설치와 평면작업을 오가며 작업하는 동시에, 아빠로서 어떤 교육과 만남을 만들어줄지 고민하는 아빠, 예술가, 정원사 김형관입니다.
 @intersegsyeon

Q ‘유랑정원’을 처음 보았을 때 멋진 표현이라 호기심이 있었어요. 정원은 한 곳에 조성된 것인데 유랑한다니! “식물과 그 사람이 한 공간 안에 있을 때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조건이 되지만 공간으로 나오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다른 의미를 가지는 사물이자 의미가 생성되어 진다”는 의미를 담으셨죠. 여러 사물 가운데 식물에 포인트를 두신 계기가 있나요?

HG 식물은 뿌리를 묻고 한 자리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시들고 땅으로 사라지죠. 계절과 절기, 도시 생태계 속에서 나름에 흐름과 차이를 가지고 성장하고 변화해요. 평소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나누어서 생명을 구분 짓고는 하는데, 무슨

· 차이가 있는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식물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길가에 핀 잡초 때문인데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서 홀로 꽃을 피우고 살아가는 식물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들이 유랑하는 기운이고 시발점일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된 거죠. 막 씨앗을 뿌리고 향기를 퍼뜨리는 서양 민들레라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골목 그늘에 가만히 침잠해서 깊은 생각에 몰두하는 듯 보이는 털독말풀 같은 식물들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들은 사람들이 키우는 화초하고 무척이나 다른 존재이고 그것을 아마 동물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Q 애니미즘, 동양학과 명리학(신은경 작가) 등 긴 역사를 가진 동양적인 키워드부터 낯선 춤과 움직임(모지민 작가), 실시간으로 송출하여 관계망을 형성(옥정호 작가), 시각적인 것으로 공간을 새롭게 변모한다(이지영





작가)는 현대를 담은 키워드까지, 시공간을 넓게 펼쳤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의미를 만들어내는 공간과 사람을 강조하는 지점은,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나 없구나’ 하는 깨달음을 떠올리게 해요. ‘유랑정원’은 실내에 머물렀던 식물들을 싣고 야외를 유랑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조우했죠. ‘유랑정원’을 통해 말하고 싶은 ‘공간’ 이야기를 들려주실래요?

HG 다들 그렇듯 사실 내가 사는 동네를 잘 몰라요. 저도 그랬고요.

워, 잠자고 장보고 가까운데 편의점 있으면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작년에 은평에 있는 작가들을 만나 놀면서 은평구 여기저기의 사람들과 공간들을 탐방했고, 많은 것을 배우면서 신기한 것들을 체험했어요. 재밌고 흥미로운 이 공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시각화시켜서 사람들과 만나고 흥이 나게 할지 생각하면서 작가들과 쉴을 풀었죠. 예를 들어 은평구 ‘수색역’은 은평지역에서도 가장 먼 마포구 옆에 붙어있어요, 수색이 물과 연관된 ‘물치’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가장 큰 역사가 수색역이라고 하고 대장간이 아직도 있는 등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대장간 투어’라고, 불과 관련된 공간들과 처음에 시작을 이곳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Q “모든 생명체에는 의식을 넘어선 각자의 우주가 내포되어 사람들과 독특한 관계가 맺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씨앗과 열매를 먹으며 사는 인간들이 어떠한 의미에서 식물과 사람의 어떠한 위성이자 안테나, 분신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을 그리워하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대안적으로 자연의 기운을 받기 위해 화분이라는 인위적인 형식을 부여해서 식물을 심고 키웠던 것이죠.” 애니메이션 관점에서 시작한 이 이야기에 시선이 멈췄어요. 생명의 관점에서 식물과 인간이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한다는 데서 내 반경을 돌아보게 하는데요. 구체적인 장소로 ‘은평구’를 꼽으신 이유가 궁금해요.

HG 지금 제가 사는 곳이라 잘 안다는 이유가 가장 커요. 앞서 말씀드렸듯 은평구는 서울에서 조금 변두리라고 여겨지는 동네예요. 산이 둘러싸고 있고 물류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공장이나 큰 회사도 없고 산업의 역군들이 일하는 환경이 잘 조성되지 못했어요. 다행히 주택들이 산기슭과 불광천 인근으로 지어졌고, 집장사들이 대규모 집들을 짓고 문화예술계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켜 살게 했다는 이야기를 책으로 전해 들었어요. 최근에 은평구 한 조사에 따르면 평일 낮에 가장 조용한 지역이 은평구래요.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이 되어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서울에서 노년층이 가장 많이 거주한다는 통계자료도 있더라고요. 평소 산책을 자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나 화분을 밖에 내놓았어요. 그걸 보고 자연의 기운, 안테나, 분신이란 표현을



생각했고, 내가 없는 이 시간과 장소를 내가 관계 맺은 사물이 나에게 전해준다는 믿음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Q 식물의 관점에서 ‘유랑정원’을 본다면, 식물에 일종의 이동권을 보장해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하고 식물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판을 펼쳤다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걸 나에게로 집중된, 인간에게 집중된 시야를 더 확장하도록 제시한 프로젝트 덕분이기도 한데요. 형관 님과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유랑식물단이 말하고자 한 ‘낯선 지점’을 소개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HG 사실 ‘유랑정원’ 속 유랑식물단을 기획하면서 ‘식물통역사’라는 의미를 떠올렸고, 식물의 마음을 읽어 사람과 연결해주는 것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진단서처럼 형식도 만들고, 식물전문가를 불러 식물의 상태와 앞으로 관리 체크할 지점들을 기록하게 하고, 유랑식물단의 이야기거리를 넓혀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유랑식물단의 활동들은 적극적이

못하고 홍보도 미흡했어요. 그렇지만 ‘유랑정원’에 놓인 화초들이 유랑기구에 놓여서 수색역과 불광천변, 한옥마을을 유랑하면서 그야말로 낯선 지점들을 연출해서 다행이에요.

Q ‘낯설다는 감각’은 새로움을 주는 동시에 거부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거리감을 인지하면서 나와 타인, 사물, 사회를 보게 하고 비슷한 부류와 무리를 짓죠. 이 감각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혐오, 차별과도 맞닿은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낯설다는



감각이 일깨울 수 있는 면, 이로써 확장해볼 변화 지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HG ‘작품감상이란 작품 너머의 관념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풍경에 동참하고 뛰어드는 것이 진정한 작품의 이해’라는 말을 깊게 새기고 있어요. 동물과 식물이라는 관념, 여자와 남자라는 편견, 공간과 시간을 넘나드는 인식과 만남이야말로 ‘유랑정원’이 꿈꾸는 변화의 지점이고 변화의 시작이에요.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HG 유랑식물단 모집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초반에 애를 먹었어요. 사실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는 화초를 잘 알지도 못하는 단체에 맡기기에 꺼림직했죠. 하지만 이런 시기에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에 뿌듯했어요.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HG 유랑식물단의 활동들을 더 부각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키우는 식물들에 대한 애정은 다들 제각각이지만, 그 식물들을 키우는 각자만의 생각과 느낌들, 감정들을 더 깊숙이 더 알차게 나누고 공유하는 방법론들이 있을 거예요. ‘유랑정원’과 별개로 전개되어 보다 알차고 풍부한 볼거리가 있는 프로젝트로 커나가고자 구상 중이에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HG 실행에 자율성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함께 ‘유랑정원’을 진행한 작가들이 자신을 한층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다시금 작가들을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유랑정원’을 상시로, 더 정기적으로 지역과 공간을 구분해서 행사를 만들면 어떨까 꿈꿔보기도 하고요. 작가들과 어떤 프로젝트 연계가 가능할지 꿈꿔보는 계기였어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HG ‘유랑정원’ 불광천변에 김월식 작가님이 오셔서 ‘유랑정원’에 대한

소회를 글로 써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었어요.
«생활을 바꾸는 예술»은 이런
예술가들의 활동을 다양한 루트와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준다면
좋겠어요.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HG 식물이 산책이 필요해!?

Q 형관 님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HG 문화 관련 행사나 참여를

·해보지 못한 직장인들과 일반인들이
·«유랑정원»을 참여하고 접하길
·바랐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자신의 틀을 깨고, 새로운
·운명의 기운을 받고, 자신을 변화시킬
·사람들이 기운을 받기를 꿈꿔봤어요.



활동할 때는 성별이 크게 좌우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아닌 활발하게 해오던 작가로서의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엄마가 된다는 이유로 작업을 쉬어가기보다, 스스로의 위치에서 주변을 참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기록하고 공유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전해주신 걸 보면 말이에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임신·출산·육아와 예술 활동을 병행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YW 입덧이 심했던 임신 초기를 제외하고, 점점 무거워지는 몸의 변화를 비교적 가볍게 여기며 이곳저곳 많이 걸어 다녔어요. 하지만 출산 후에는 몸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하나의 몸이 두 사람의 몫으로 분리된 듯했죠. 당장 작업실에 가고, 전시를 보며,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해낼 수 없게 되었거든요. 출산한 지 두 달 되었을 즈음 미리 참여하기로 했던 기획 전시 ‘뭇 GREAT COMFORT’에서 새로운 작업을 시도하게 되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쯤을 통해 회의에 참석하고, 아기가 잠들 때면 노트북을 열어 태동 소리를

모아 만든 사운드 작업 ‘몸속의 몸’을 제작해 보았어요. 무사히 일이 시작되고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도움을 적극적으로 나누어준 딸을 비롯해 가족들과 동료들 덕분이었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선명하게 공감되는 요즘이에요.

Q 책 <디어 퓨처>는 아파트 입구에 위치한 오래된 절미타사와 낮은 산 사이에 위치한 집에서 매일 같이 마주하는 풍경을 픽션을 통해 기록한다고 하셨죠. 프로젝트 타이틀에는 ‘미래’가 들어가 있지만, 역설적으로 과거를 붙든다는 인상을 받아요.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킨 장소로 고른 이유가 있나요?

YW 임신·출산의 과정 자체가 먼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딸과 함께하는, 엄마가 된 제 미래를 상상했을 때, 나의 과거를 넘어 엄마의 과거를 떠올리게 되었죠. 딸과 엄마, 그리고 여성의 삶에 관해 생각하던 무렵, 새로 이사한 집 바로 옆에 있는 오래된 절 ‘미타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888년 통일신라 시대에 지어진 비구니 사찰이더라고요.

천년을 넘어 현존하는 그곳에 과거가 있고, 또 미래가 있다고 여기게 됐죠.

Q 미래 세대는 환경 이슈에 민감하다고 해요.제로웨이스트나 재활용, 가치에 기반한 소비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달리 말하면 미래를 좌우하는 이슈가 환경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세대 역시 그 이슈에서 무관할 수는 없을 텐데요. 윤원 님이 미래 세대를 위해 관심을 기울이는 이슈는 무엇이고, 이를 위해 실천하는 소소한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YW 미래의 생태 환경 걱정뿐 아니라, 당장 사회적 환경에서 마주하는 문제에 대해 자주 생각해요. 먼저 일상에서의 차별이 없어졌으면 해요. 크고 작은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서로 다름의 간극을 예민하게 인식하고 공부하려 노력해요. 암스테르담에서 함께 수학한 국적, 성 정체성, 나이 등 배경이 다른 네 명의 동료 미술가들과 꾸준히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하며 서로의 작업과 글을 나누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을 오가는 만남은 잠시 중단되었으나, 한편으로 다섯 명 중

세 명이 처음 엄마가 된다는 유대감은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어요. 임신 중인 친구들이 서로에게 전송한 태아 초음파 사진은 전부 흑백이어서 장애나 성별, 인종, 성 정체성 등 차이를 구분 지을 수 없었어요. 인간이라는 생명체로서의 본질은 결국 동일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진 어떤 편견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저 자신을 들여다보곤 해요.

Q 엄마 세대(과거)-나(현재)-아이(미래) 3세대를 조망하는 점도 눈에 띄어요. 시기를 구분 짓긴 했지만, 모두가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인터뷰를 통해 과거를 세세히 들여다보고, 이로써 미래를 고민해보는 일이 내게 준 변화라면 무엇일까요?

YW 인터뷰 질문을 준비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일상의 재난을 비롯해 온갖 험한 뉴스들을 접할 때면, 내가 초대한 아기가 이 세상에 머물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친구 어머님이 인터뷰에서 들려주신 이야기에 걱정의 초점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거칠고 못났기 때문에 그만큼 지난 세상보다 더 나은,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죠. 그런 시야로, 우리의 미래가 나아지길 바라요.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YW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를 섭외하고 인터뷰를 시도하는 일이 조심스럽고 죄송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친구의 어머님들께서는 오랜만에 맞이하는 손님인 저를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맞이해주셨어요. 일상의 재난 속에서 지난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함께 상상할

기회가 되어 은근 힘이 났답니다.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YW 프로젝트를 통해 어머니 세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가족의 세계에 초대받는 일이 특별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죠. 스스로 누군가를 초대하고 환대하는 삶을 살고 싶어졌어요. 이후 친구 어머니들과 나눈 대화를 정리해 책으로 엮고 싶어요. 더불어 엄마가 된 관점에서 제 지난 작업을 정리하고

개인전을 준비하며, 우정과 환대 그리고 미래의 풍경에 둔 관심을 더욱 확장해보고 싶네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YW 탐색지원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없이 과정에 집중할 수 있어 좋았어요. 프로젝트 결과에 부담이 적어 유연하고 실험적인 시도가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또한 공유워크숍을 통해 다른 참가자들과 과정과 결과에 관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어 도움 됐어요. 이 부분은 개개인의 사업을 결과

중심으로 선보이는 다른 지원사업과 차별화되는 긍정적인 점이었어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됐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YW 탐색, 실행이라고 구분해 신청하는 부분과 두 분야의 지원자가 함께하는 공유워크숍이 앞으로도 유지되길 바라요. 만약 일회적 만남이 아닌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 형태의 워크숍이 있었다면 참여자의 서로 다른 탐색과 실행이 더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YW 어떤 큰 성과를 위한 예술보다, 평소 해보지 않던 작은 일을 시도해 보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의미 있는 기록이 되지 않을까요.

Q 윤원 님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YW <퓨처차일드>는 만삭의 몸으로 친구들의 엄마를 찾아가 딸과 엄마의 관계, 임신·출산·육아, 그리고 미래에 대해 대화 나누는 프로젝트예요. 인터뷰 내내 뱃속에서 함께 했던 딸이 언젠가 이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좋겠어요. 나아가 미래의 내가, 인터뷰이인 친구 어머님들의 나이가 됐을 때, 그분들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지금의 내 나이가 되었을 딸 또는 딸의 친구들과 함께 같은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 보고도 싶어요.

자아, 예술가, 아빠

김다운

● 전시, 워크숍 등을 기획하는
다단조의 멤버이자 문화기획자
김다운입니다.

📧 @self.artist.motherhood

Q <자아, 예술가, 아빠>는 전작인 <자아, 예술가, 엄마>를 진행하며 축적된 아이디어에 기반해요. ‘엄마됨’도 그렇지만 ‘아빠됨’에 대한 논의나 이를 다루는 예술 작품은 본 적이 없었고, 부모가 된 상태가 예술적 삶과 어떤 식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부분이죠. 여기서 역할로서 ‘아빠’가 아니라 행위인 ‘아빠됨(Fatherhood)’이라는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DE 필요에 의한 구분이라기보다는, 고정된 정체성으로서의 ‘아빠’보다 계속 변화하는 상태로서의 ‘아빠됨’에 주목하려는 시도예요. 이미 사회 안에서 아빠, 엄마, 부모라는 정체성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타인, 그리고



자기조차 납작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이를 포함한 사회의 다양한 정체성을 틀에 박힌 모습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삶의 부분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에요.

Q 다운 님의 삶에 존재한 두 명의 예술가 아빠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서양화가인 아빠, 그리고 내 아이의 아빠인 미디어 사운드 작가 남편이 그 주인공이죠. 가까이서 두 예술가 아빠를 바라보며 느낀 점이 있다면요?

DE 어찌 보면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예술가 아빠를 곁에 두고 살아가는데요. 나의 예술가 아빠 덕분에 아이의 예술가 아빠를 이해하고, 또 반대의 경우에도 공감하는 데 도움 됐어요. 나의 아빠가 젊은 예술가던 시절에 저를 키우면서 마주했을 상황과 감정을 남편을 통해 알게 되고, 또 그런 아빠를 꼭 봐왔기에 제 남편의 앞으로의 삶이 어렵듯이 그려지기도 하고요.

Q 사회에서는 엄마, 아빠처럼 가정 내 역할에 관한 논의가 제법 되는 편이지만, 예술가의 가정 내 역할은 주목받지 않았다는 점이 놀라워요.

예술가의 이야기는 작업 중심이라 일상이 거의 비치지 않는다는 방증 같기도 하고요. 일상이 매년 조명될 필요는 없더라도 예술가의 일상을 통해 다양한 정체성을 살펴본다면 새로운 지평이 드러나지 않을까 짐작해봐요. 예술가 아빠들을 인터뷰할 때 공통으로 답한 부분이 무엇이었던지 살짝 귀뜸해주실 수 있을까요?

DE 아이를 낳았다면 돌보고 키우는 일을 누군가 꼭 해야 해요. 그 누군가는 주로 아이의 엄마, 아빠, 또는 조부모인 경우가 많죠. 개인의, 사적인, 일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돌봄노동이에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책임과 의무가 양육자에게 있기에 예술가 아빠들도 이를 행하고 있고요.

제가 엄마가 되고 나니 이 사회가 과연 아기, 어린이, 청소년이 자라나기 좋은 환경인지, 예술계에서 부모가 되겠다는 선택이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예술가 아빠들 역시 육아와 예술을 병행하며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에 자주 봉착하는데, 개인의 영역에서만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많이 얘기했어요.

Q 현재 육아의 영역을 분담해줄 수 있는 레지던시가 전무하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아예 이 부분을 고려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요. 장기적으로는 ‘예술육아소셜클럽’을 통해 예술/육아 레지던시의 가능성을 보고 싶다고 하셨죠. 이 부분에 관해 좀 더 설명해주실래요?

DE ‘직장 어린이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직장 다니는 주변 친구들은 아이와 같이 출근해서 같이 퇴근하며, 시간과 이동 거리가 자연스럽게 최소화된 구조였어요. 복지 차원으로 제공되는 혜택이겠죠.

그렇다면 예술가의 복지는 어디 있을까요? 예술계 내 부모가 몇 퍼센트인지, 예술가들이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 등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대강의 통계도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기에 일단 레지던시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달려있거나 그 지역에 연계된 그림을 상상해 본 거죠. 예술가 부모의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예술계는 더 풍성해지고, 가정은 조금 더 평화롭지 않을까요?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과 나누려고 해요. :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
 달라고 소문내는 중이에요. :

Q 책 <자아, 예술가, :
 아빠(Selfhood, :
 Artishood, :
 Fatherhood)>는 인터뷰와 :
 에세이를 통해 예술과 삶 :
 속의 아빠됨을 기록한다고요. :
 3040 아빠를 조명하는 잡지 :
 <볼드저널>이 떠올랐어요. :
 아빠의 일과 삶, 육아, 가족과 :
 관계 맺기에 집중하기에 :

교집합도 있는 듯해요. 발간 :
 이후 아티스트 토크, 북토크 :
 등을 진행하실 계획인데, :
 이밖에 시도해보고 싶은 :
 작업이 있나요?

DE <볼드저널>이 아빠를 타깃으로 :
 하면서도 다양한 삶의 모습과 태도를 :
 보여주는 잡지라는 점이 좋았어요. :
 누구나 읽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
 ‘대안교육 편’을 추천해요!
 <자아, 예술가, 엄마>와 <자아, 예술가, :
 아빠>를 작업하는 과정에서 책의 :
 안팎으로 만난 사람들 가운데 아빠, :
 엄마 모두 예술계에 종사하는 이들이



생활을 바꾸는 36가지 방법

많았어요. 저 역시 그중 하나고요. :
 예술가 부모들이 모여서 우리의 :
 현 위치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 싶어요. :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
 있다면요?

DE 국내외 구분 없이 해외에 :
 거주하는 예술가들도 이 프로젝트를 :
 함께하길 바랐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
 이동과 운영이 쉽지 않았어요. :
 그래서 <자아, 예술가, 아빠>는 국내에 :
 거주하는 작가들로 한정했어요. :
 어려움이라기보다 아쉬움인데, 또 :
 기회가 생기겠죠?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
 있나요?

DE 엄마와 아빠는 각자 여성과 :
 남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기도 :
 하죠. 여자인 엄마와 남자인 :
 아빠에게 향하는 우리 사회에 :
 만연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관해 더 :
 깊이 생각해보게 됐어요. 살아온 :
 배경이 다른 예술가 엄마와 예술가 :
 아빠들이 자주 모여 이야기 나눌 :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근원적인

문제와 원인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
 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
 하는 방향을 그릴 수 있을 테니까요. :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
 메리트가 있었나요?

DE 엄마나 아빠, 부모의 :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사업이라 :
 좋았어요. 예술계 내에서 참여한 :
 여러 공식 행사와 만남이 있었으나, :
 공유워크숍에서 진행자와 참여자 :
 전체 인원 중 과반수가 엄마였던 :
 경우는 처음 겪는 상황이라 놀랍기도 :
 했습니다.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
 있다면요.

DE 사업 내 정말 다양한 :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업 중에는 :
 알기 어려웠어요. 선정된 프로젝트, :
 참가자 간의 네트워킹이 온라인상에 :
 느슨하게라도 있어서 정보가 서로 :
 공유되면 좋겠어요.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DE 엄마가 되었다는 지극히

자아, 예술가, 아빠

권기린

개인적인 상황에서 발현한 생각이 기획으로 다듬어졌어요. 그저 예술계 내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증으로 시작된 첫 책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위와 같은 답변을 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죠. 사소한 생각이 씨앗이 됐어요. 이후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와 만남, 그들이 공유해준 이야기가 거름이 되어,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와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점점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중이에요. 이 과정이야말로 저의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아닐까요.

- Q** 다른 님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DE 프로젝트의 제목부터 엄마와 아빠를 전면에 드러내기에 엄마와 아빠들이 가장 환대하겠죠? 제목 때문에 타깃 폭이 좁아질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세운 이유는, 책 속 사람들처럼 다양한 엄마와 아빠가 존재한다는 걸, 그들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서사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라는 단어에 다양한 이미지가 쌓이길 바라는 마음이 컸고, 그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요. 더불어 책에 담긴 이야기들은 당신의 친구, 동료, 이웃, 가족 그리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의 삶이기도 해요.

그렇기에 책들이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을 거로 예상해요(웃음).

만성탈수 간병하기

이성직

● 공연(적인 순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성직입니다.

- Q** 프로젝트가 어머니의 무릎 수술에서 비롯되었다고요. 가족이 돌아가며 어머니를 간병했고, 공교롭게 어머니가 간병인이셔서 이후에 돌봄에 대해 연습시켜야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덧붙여주셨어요. 사전에 따르면 '간병'이란 앓는 사람이나 다친 사람의 곁에서 돌보고 시중을 드는 일이에요. 정의는 간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성직 님이 크게 느낀 점은 무엇이었나요?
SJ 부연하자면,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관리직으로 오랜 기간 일하셨어요. 지금은 퇴임하셨는데요. 무릎 수술로 인해 가족들이 돌아가며 간병할 때, 정작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간병한 두 사람(아빠, 동생)의 흉을 보시며 “간병을 이렇게 못해서야, 간병 교육 좀 받아야겠다”라는 맥락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왜인지 모르게 어머니의 말에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며, 본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 Q** ‘만성탈수 간병하기’는 ‘간병’, 나아가 ‘돌봄’을 구체적인 행위로 보고, 여기서 소외된 것을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앓과 함의 괴리, 모두가 돌봄의 주체이자 대상임에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각자의 물 마시기를 체크하고 돌봄을 경험한다는 데서 이를 체득할 수 있겠다고 파악하셨어요. 실제로 참여자들과 함께해보니 어떻던가요?
SJ 1대 1로 연결해 진행되다 보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각 그룹이 어떤 내용으로 서로를 돌봤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순 없었어요. 마지막에 ‘만성탈수 회복을 축하하는 축하연’에 참석한 몇몇 참석자가 감상과 의견을 전해주었는데요. 개인이 느낀 점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으로 ‘누군지 모르는 낯선 타인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준다는 사실이 그리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을 짚었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며, 물 마시기를 체크하는 일. 그러니까 일종의 안부 묻기가 일상에서 아주

일수였어요.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돌봄 노동이 여전한 사회에서, 누군가가 전담하는 돌봄, 누군가를 향한 행위로서 돌봄보다, 각자가 나를 돌보는 행위로서 돌봄을 바라보면 어떨지 궁금해져요. 그럴 때 개인에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SJ ‘돌봄(Care)’이라는 단어의 방향성이 애초에 바깥을 향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나아가 인정하기에 스스로 돌보는 ‘자기 돌봄’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지 않나 생각해요. 자기 돌봄에 필요한 개인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타인의 돌봄 부재로 스스로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래요. 그렇지만 현실은 갑자기, 확산이되거나 그렇지 않으니 각자가 스스로 돌본다면, 이기적인 마음?



자신의 돌봄 몫을 과소평가하며, 자신이 행한 돌봄 행위에 대해 과대평가하기?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마음가짐 역시 자기 돌봄이 불가피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가혹하다 싶지만요.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SJ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19를 맥락 삼아 만들어졌어요. 보통 돌봄은 대면이 기본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돌봄도 가능할까?’ 하는 질문이 생겨나면서 실험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려움보단 하나의 질문을 품게 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듯해요. 물론 어려움이 없진 않았어요. 대면보다 비대면의 감각이 그 강도, 영향력, 지속성 면에서 아직은 얕은 것 같아요. 비대면의 감각을 기본으로 진행하면서 ‘이게 과연 참여자들에게 어떤 감응을 만들어내고 있나?’ 하는 어려움이랄까, 그런 질문이 사진 워크숍을 하면서 계속 맴돌았어요.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SJ 이번 프로젝트가 어떤 핵심적인 말을 가진다면 그중 하나는 “돌봄의 행위는 가치 있다!”일 거예요. 그걸 아주 직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모든 참여자에게 참여도·성과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만성간병수당’을 지급했어요. 사진 워크숍에서는 따로 안내하지 않고 마지막 대면 자리에서 서프라이즈 선물처럼 현금으로 드렸는데요. ‘돈을 왜 줄까? 내가 뭘 했길래 돈을 주는 거지?’라는 질문이 생기는 장치로 수당을 드렸는데, 갑작스러운 현금의 등장으로 놀라움만 남았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실행에서는 돈을 실물로 드러내지 않고, 계약서를 통해 만성간병수당을 지급하려

해요. 계약서 내용을 통해 ‘당신의 성과와는 관계없이 돌봄의 행위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를 질문하고, 같이 상상해보게 되면 좋을 듯해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 보고 싶은 포인트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참여자들과 처음 만나 OT를 진행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다 완료하고 나서야 생각해볼게 될 것 같아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SJ 공유워크숍에서 느꼈던 건데요. «생활을 바꾸는 예술»의 메리트는 어느 예술의 ‘장르’로 귀결시키기 애매모호한 창작 작업이

선정되는 면에 있는 듯해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SJ 공유워크숍에서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데 필요한 요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사회적 의제를 다루거나, 문서적으로 명료히 정리되어 전달될 수 있는 콘텐츠 등이죠. «생활을 바꾸는 예술»은 폭넓은 창작 활동에 지원한다고 느꼈어요. 이런 심지(!)를 꾸준히 유지하면 좋겠어요.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SJ 글썬요. 참여자들에게 남길 작은 흔적은 잘 모르겠고요. 그저 이 프로젝트가 돌봄의 작은 연습이 되었기를, 돌봄의 감각에 자기 자신을 참여시키는 작은 실천이 되었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같이 구성하시는 분들(공동구성 서현성, 신재욱 님)이 계세요. 함께 준비하며 돌봄에 비추어 각자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대화들을 나눴어요. 이때 나눈 대화들이 진행자들의 일상에 어떤 식으로든 작은 흔적이 되어 남게 되면 좋겠어요.

Q 성직 님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SJ 제가 돌봄을 연습하고 싶어 시작한 프로젝트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는 건 없어요. 그래도 돌봄의 경험이 적고, 연습이 더 필요한 사람이 접한다면 좋겠죠. 돌봄, 같이 연습해 보는 게 어때요?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최재연

● 죽음을 그리는, 퍼플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다원예술가 최재연입니다.

☞ purpleartist.modoo.at

☞ page.stibee.com/archives/136040

(《10th MUSE》뉴스레터 아카이브)

☞ @purpleartist_drawdeath

Q 재연 님은 '죽음을 그리는, 퍼플아티스트'라고 하셨죠. 공유워크숍에 보라색 코트를 입고 오셔서 기억에 남아요. 퍼플아티스트에 관해 소개해주실래요?

JY 초등학교 때 사용한 스케치북을 성인이 된 후 우연히 펼쳐본 적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변에 소개하는 시간이었나 봐요. '좋아하는 색은?'이라는 질문에 '보라색'이라고 적어두었다고요. 방과 후 수업으로 들었던 미술 시간에 그린 자화상 배경을 보라색 파스텔로 칠한 순간도 또렷이

기억에 남아있고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보라색을 좋아하고 있답니다. 보라색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 계기는 여럿인데, 최초로 가까운 순간은 5~6살 즈음 동요 교실에서 배운 노래 가사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빛으로 만든 세상'(김종철 작사, 정윤환 작곡)이라는 동요예요.

빨강 주황빛으로 가을 들판을/
노랑 초록 색깔은 산을 꾸미고/
파랑과 남색 빛으로 바다를
꾸며요/ 끝까지 보라색은 감추어
두었다가/ 내 꿈을 펼칠 때 살짝
뿌릴 거예요/ 보랏빛 고운 세상
만들어 갈래요

그리고 퍼플아티스트라는 말 앞에는 항상 '죽음을 그리는'이라는 수식어를 넣어요. '죽음'을 키워드로,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작업해나가는 저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해주는 이름이라 생각하거든요.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따라 글, 그림, 영상, 라디오 등 매체를 선택해서 작업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다'라는 동사가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Q 개인적인 신념으로, 자아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솔하게 죽음을 마주했다고 하셨어요.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개인에서 확장해 타인, 사회와 소통하는 키워드로 잡은 계기를 알고 싶어요.

JY 2017년도에 활동을 시작하고서 2~3년 정도는 ‘나를 위한 작업’이라는 마음이 컸어요.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자리했던 ‘죽음을 주제로 한 소통(죽음소통)’에 결핍과 갈망이 여전했기 때문이죠. 2020년도에 제가 대표로 있는 죽음학교로 정부 지원사업을 준비할 즈음이었어요. 서류 준비 과정이 순탄치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근처 공원으로 산책하러 나갔는데, 마주 보는 방향에서 걸어오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유치원 다닐 나이대의 아이와 보호자 두 분이 걸어오다가 아이 손을 하나씩 잡고 슈웅~ 하면서 그네 태워주는 순간을 정면에서 본 거죠. 정말 우연히요. 그때 떠오르던 아이의 미소가 지금도 생생해요. 티끌 하나 없이 맑고 순수하고 즐거운 미소였어요. 이상하게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한참 울다가 ‘저 아이가 저런 미소를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로 생각이 뻗어갔어요. 그

순간 씨앗이 싹을 틔운 듯해요. ‘삶을 이야기하며 죽음을 떠올리지 말고, 차라리 죽음을 이야기하며 삶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발전된 생각으로 지금은 ‘편하고 다채로운 죽음 소통 문화 형성’을 비전 삼아 향해가고 있습니다.

Q 최근 자살, 고독사 같은 사회 이슈로 죽음을 자주 접하곤 해요. 장례사에 국한됐던 직업도 유품정리사, 특수청소사로 저변이 넓어지고 있고 웰다잉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느껴요. 재연 님은 죽음을 주제로 아카이브, DB를 구축하고 작품 및 콘텐츠를 제작, 나아가 죽음학교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싶다고 하셨죠. 죽음과 사업이 만날 때는 경건해야 한다는 인식을 기저에 깔고 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보면서 어떤 지점을 발견하셨나요?

JY 죽음이라는 키워드는 필히 섬세하게, 존중을 기반으로 소통해가야 하는 주제임이 분명해요. 경건해야 한다는 인식을 말씀해주신 것도 죽음이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이야기이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알아주셨기 때문이겠죠. 저 또한 공감하고, 고민을 거듭해가는 지점이에요. 퍼플아트스트로 4년, 죽음학교 대표로서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죽음과 사업을 애정 어린 눈으로 관찰했어요. 그때 발견한 중요 지점들을 ‘존중’, ‘용기’, ‘자유’ 3가지 키워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 있지’ 등 다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는 죽음을 소통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약속이라는 점이에요. 만약 이런 태도를 약속할 수 없다면, 1대 1 인터뷰라면 모를까, 다른 누군가와 함께 죽음을 주제로 소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남녀노소 1090 분들과 죽음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차근차근, 분명하게 이 지점을 설명해드렸을 때 약속을 하지 못하겠다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존중하려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그때 알았죠. 설령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았을지라도 그래야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모습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두 번째로 죽음소통에 있어 중요한 지점은 ‘용기’예요.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질문을 꺼내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용기’가 필요한 단 걸 죽음소통하며 발견했어요. 구체적으로, 질문자에게는 경험 여부, 공부 여부보다 ‘당신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과 관련해 어떤 생각, 경험, 감상을 가지고 계신가요?’라고 질문할 용기가,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깊이 생각해봤는지, 죽음에 관심이 있었는지보다 ‘지금 제 느낌은’, ‘방금 떠오른 제 생각인데’ 하고 말문을 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조심하되 꺼내야 하고, 정중하되 소통해야 하는 주제이자, 소통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마지막은 ‘자유’예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기 시작했다면,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해가더라고요. 죽음에서 시작한 대화이지만, 키워드에 국한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상상하고 생각하고 소통하면서요. 죽음소통을 할 때는 경직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죽음’을 마주해야 하는 사람은 오직 ‘나’이기에 더욱 솔직하되 편안해야 하고, 꾸밈없되 온화해야 한다고 봐요. 오롯이 내가 나와 문답하며 소통해가야 하는 문제이니깐요. 떠오르는 틀,



고정관념은 미뤄두고 자기 자신 혹은 타인과 자유로이 소통해가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그런 자유로움을 다루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

Q 죽음을 대할 때 편하고, 다채롭게 소통할 수 있게끔 가이드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 과정이 다른 세대보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JY 네, 저는 편안하고 다채로운 죽음 소통 문화 형성을 비전으로 향해가는 가이드이자, 친구이자, '이런 사람도 있대'라는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죽음소통은 다른 세대보다 청년들에게 더 필요하다기보다, 모든 세대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가장 소외되고 있는 계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죽음을 주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나이, 직업, 장소에 있어 다소 편중되어 있거든요. 또래 청년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지, 얼마나 솔하게 자살을 시도하고 사고 나는지, 관련 자료를 볼 때마다 애석한 마음이 들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그 감정과 선택들이 뼈아프게 공감되곤 하고요. 그래서 제가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가장 먼저, 거듭 전하고 싶은 세대는 바로 청년세대예요.

물론 죽음은 자살, 자해와 동의어가 아니고 우울, 불안의 감정만이 함께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장, 해소, 수용, 희망, 사랑, 용서 같은 단어와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도 있죠. 삶을 이야기하며 죽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음을 이야기하며 삶을 떠올릴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싶어요. 또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가치들과 죽음을 연결 지어보며 결국 '삶'을 재정립해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분명 이와 관련하여 듣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청년들이 대다수일 것임을 알아요. 제가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국내에 죽음교육 혹은 죽음소통 관련 문화는 역사가 깊지 않기에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죽음과 관련된 움직임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한국죽음학회, 한국죽음교육학회 등 여러 학회, 각당복지재단,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우리나라의 죽음 문화 형성을 위해 정말 힘써주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존경하고 믿기에 저는 제가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청년 계층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Q 삶과 죽음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붙어있는 양면이라고 봐요. 재연 님이 죽음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삶'이란 어떤 모습인가요?

JY 제가 죽음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삶'이란 '죽음과 연관된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잘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순간들'이에요. 지금까지의 제 삶에서 죽음은 총

3번에 걸쳐 그 의미가 변화해왔어요. 2017년, 처음 정의 내린 죽음은 '한 손에는 삶을 잡고, 다른 손에는 행복을 잡은 채, 내가 준비되건 아니건 마음대로 찾아오는 친구'였어요. 2021년 6월, 두 번째로 정의 내린 죽음은 '제멋대로 뿌리내린 삶의 중심지이자 친구'였어요. 마지막으로 2021년 10월, 세 번째로 정의 내린 죽음은 '모든 것을 꿰뚫는 단 하나의 평범함'이에요. 죽음을 한참 생각하다 문득, 남녀노소 모든 조건과 상황을 불문하고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이보다 더 평범할



게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죽음은 너무도 분명하고 정해진 결말이기에,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살아낸 삶, 누구든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삶이 그토록 특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죽음에 대한 정의가 바뀐다는 것은 삶에 대한 정의도 바뀐다는 것을 의미해요. 개인적인 정의와 신념을 아울러 답하자면 2021년 지금 세계 ‘삶’이란, 죽음과 관련된 어떤 생각이 들더라도 ‘잘’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순간들이에요.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JY 다양한 콘텐츠로 표현되고 있는 죽음을 탐색하는 동안 제 내면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죽음을 주제로 소통하는 데 존중, 용기, 자유라는 키워드를 기본으로 한다면, 어떠한 자격도 경험도 필수적이지 않음을 깨닫게 된 거죠.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전문적인 자격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면 자격보다는 죽음과 죽음소통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훨씬 우선되어야 함을 느꼈어요. «생활을 바꾸는 예술»을 통해 죽음을 소통해갈 때 더 자유롭게 사고하고

작업해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후 실행으로 확장해보고 싶은 부분은 모임과 워크숍 진행인데요. 코로나 영향으로 처음 기획을 수정해야 했던 상황들이 못내 아쉬움이 남아요. 그리고 다원예술가로 활동하는 만큼 글, 그림, 구독 콘텐츠 이외에 죽음들을 표현해갈 방법을 찾고 표현해가는 ‘죽음 표현’의 영역으로 집중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나아가 ‘죽음에서 시작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죽음학교의 사업 확장과 ‘예술과 친환경이라는 키워드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작품’들에 대한 연구도 이어가고 싶어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JY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을 통해 죽음을 키워드로 한 콘텐츠 큐레이션 기획이 뉴스leter 형태로 틈워질 수 있었어요. 또한 시제품 제작 기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종이에 관심이 더해지며 예술과 환경의 조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싹을 틔워갈 수 있었답니다.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JY 죽음이 생활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주제임을, 표현할 수 있는 주제임을, 무엇보다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일상 어딘가에서 다원예술의 형태로 함께하는 모습이기를 진심으로 그려봐요.

Q 재연 님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들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JY 어떤 이유, 어떤 상황, 어떤 경험에서든 죽음을 떠올렸는데 그 생각과 느낌을 삶과 화합시키지 못한 사람, 혹은 화합시키고 싶은 사람이 접했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감상하고, 사색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삶과 죽음이 화합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그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늘 하나예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느꼈다고 덧붙이셨는데요. <KOOO>에서 말하고 싶은 ‘요리’란 기존에 통용되는 것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채영 님에게 ‘요리’란 어떤 의미인가요?

CY 생활에서 변화를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은 ‘식(食)’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음식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자각한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요리를 해주면서 ‘내가 저 사람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깨닫기도 하고, 며칠간 굶고 크게 아파 보면서 ‘아, 내가 힘들었구나’ 깨닫기도 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거나 반대로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으면서 그 ‘시기’를 지나려고 해요. 저는 요리가 그런 상태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리는 내가 아닌 것을 직접 만지고 느끼면서 감각을 깨우고, 매 순간 작은 결정과 실행을 반복해 무언가를 만든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내 안으로 들이는 경험이 세상을 전보다 넓게 인식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Q 미각, 시각뿐 아니라 현대인은 다양한 감각을 스스로 잠재우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이동하는 중에는 이어폰으로 청각을 차단하고

일상에서 접촉하는 것 외에 다른 촉각에는 소극적으로 되는 등 교감하는 일이 적은데요. 그런 점에서 <KOOO>은 시각, 촉각, 청각, 나아가 미각에까지 이른다는데 특징이에요. 새로이 제시하는 ‘식(食)’과 관계 맺기는 어떤 모습인가요?

CY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각뿐 아니라 시각, 청각, 촉각 등을 경험하는 범위가 점점 제한되어가고 있어요. 기술의 발달이 대면 방식의 삶을 비대면으로 바꾸었고, 코로나라는 팬데믹은 그 속도를 가속화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ASMR, 먹방 등 감각의 확장을 담보한 것으로 보이는 문화들의 유행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 중 특히 ‘식(食)’과 관련된 것은 더 빨리, 더 자극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과정은 삭제되고 결과는 엄청나게 부풀려지고 복제되죠. 말도 안 되는 양의 음식을 입에 구겨 넣는 방송을 보면서 문득 ‘이런 흐름 속에서 인간들은 어떻게 변해갈까?’ 하는 걱정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나 자신이 그런 흐름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자 프로젝트를 기획했어요. <KOOO>은 내부가 3단으로 나뉘어

· 각각 식재료, 요리와 관련한 동사, 숫자로 이루어진 구조의 책이에요. · 독자가 페이지의 층과 겹 사이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무작위로 도출된 문장들을 골라 새로운 레시피를 구성해볼 수 있도록 기획했어요. · 이를 통해 냉장고에 잠들어 있던 재료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거나, 재료 사이의 낯선 조합을 통해 전에 없는 미각적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요. 또 그 안에서 나만의 요리, 나만의 레시피를 발견하고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겠죠. 무언가 새롭게 시도할 때 사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투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책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익숙한 감각과 새로운 감각이 충돌하는 지점을 만나고, 결국 새로운 감각이 익숙함을 초월하는 순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미각뿐만 아니라 후각, 촉각, 시각 전반적으로요.

Q 3단 구성으로 각각 다른 식재료, 행위 등을 무작위로 골라 요리를 실험처럼 대하게끔 한다는 의도가 재미나요. 실제로 그걸 바탕으로 나만의 요리를 시도해볼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예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니요. 오브제로 ‘책’을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CY 평소 책을 좋아하는 저의 기호가 반영되었어요. 애독가라 할 순 없지만 항상 책 주변을 맴돌면서 지냈거든요. 중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교내도서관이나 마을도서관 사서로 꾸준히 활동해왔어요. 이유 없이 책이 좋고, 책을 품은 공간이 좋아서요. 대학에 와서는 관심이 더 깊어졌어요. 예술대학 특성상 텍스트 중심의 책뿐만 아니라 이미지 중심의 아트북이나 도록 등을 많이 접할 수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언리미티드에디션’이나 ‘도쿄아트북페어’ 같은 행사를 알게 되면서 예술 출판에 관심이 커졌어요. 책과 인쇄물을 기반으로 한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막연하게나마 아름다운 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죠. 그래서 북 바인딩과 독립출판을 배웠어요.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떤 책을 만들까 고민했고, 평소 관심있는 요리를 주제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가볍게 시작한 프로젝트였음에도 진행하면서 ‘왜 책인가’, ‘왜 책이 좋은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쉽게 휘발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책이라는 매체는 그 자체로 영원히 남을 것만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어떤 내용을 담더라도



견고하게 붙드는 힘이 있어요. 실험요리라는 소재가 확장성이 커서 한정된 공간을 통해 다루지 않고 서는 이야기가 산으로 갈 수 있겠더라고요(웃음). 창작자로서 책이라는 매체의 능력을 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식(食)’에 대한 중장기 프로젝트로 이어질 예정이에요. 이 책이 앞으로의 활동들에 앞서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유행인 메뉴, 달고 짜고 매운 것처럼 자극적인 맛을 좇는 요즘, 채영 님이 제안하고 싶은 메뉴나 맛이 있나요?

CY 일단 <KOOC>을 한 권 사서 요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웃음)! 뻘한 홍보 같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감각들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몇 개만 꼽아

추천하기 어렵네요. 출간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이 책에서 꼽은 레시피들을 차근차근 소개해 나갈 예정이에요. 저의 제안은 이 계정에서 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의 제안보다는 이 책을 통해 분류에 들지 않는 자신만의 요리와 맛을 직접 찾길 바라요.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CY 코로나로 인해 생긴 여러 제약으로 어려움이 따라서인지 사람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해졌어요. 내향인이라 소통하는 부분에 소극적인 편이거든요. 평소에는 조용히 활동하고 작품을 보여줄 기회와도 멀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는 얼굴을 마주하고 소통할 날만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지금의 시기가 안으로만 향하던 에너지를 바깥으로 돌릴 수 있게 된 계기가 됐어요.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CY 이번 프로젝트에서 만든 책을

시작으로 비대면, 대면 이벤트로 프로젝트를 확장해나가려고 해요. 가장 먼저는 이번 책을 통해 구성된 레시피를 소개하는 SNS 계정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KOOC>은 친절한 요리책이 아니라서 독자가 직접 생각하고 움직여야 요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다소 난해한 이 책이 잘 쓰일 수 있도록 SNS 계정을 통해 만들 수 있는 레시피와 요리들을 설명하고 싶어요. 또 프로젝트 안에서 음식을 소재로 한 작업을 다양한 매체로 풀어나가고 싶어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CY 올 상반기는 저에게 굉장히 힘든 시기였고 불안한 제 상황을 가라앉혀줄 무언가가 절실한 상황이었어요. 창작 활동을 이어



간간 지 얼마 되지 않아도 흥미나 열정을 부담감과 두려움이 따라잡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 스스로 조금씩 벽을 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창작자로서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은 창작 의지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어요. 다른 지원사업에 지원한 경험은 없지만 본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다면 무엇보다 작은 이야기도 완성도 있게 풀어볼 수 있다는 점이네요.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지만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은 생활, 일상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도 지원금의 규모가 작지 않아서 앞으로의 작업에 기반이 될 활동들을 구체화할 수 있었어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됐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CY 코로나로 인해 공유워크숍이 한 번으로 그친 게 아쉬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관심사가 통하는 창작자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몇 번 더 나났다면 서로의 프로젝트에 보다 유효한 피드백이나 협업의 기회가 생겼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동료들 만나는 것이었거든요.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모이는 자리가 있다면

작은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실행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난다면 좋겠어요. 변경신청, 교부신청 등의 기간을 거치니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간은 4개월 정도로 빠듯하더라고요. 지원금의 여유만큼 시간도 더 주어진다면 여유를 가지고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CY 부엌 한편에 이 책을 두고 별난 요리를 해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봐요. 책이라는 매체의 장점이 언제 어디서든 닿아있는 거잖아요. 매 끼니를 해 먹기는 어려워도 가끔이나마 이 책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이벤트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요리를 나눠 먹으면서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Q 채영 님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CY 마음이 공허하고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저 '지금'을 견뎌내느라 많은 부분을 놓쳐 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극적인 음식



콘텐츠에 열광하는 것도 공허하고 무기력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환기의 중요성에 대한 글을 봤어요. 도시에서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환기를 해주지 않으면 실내에 이산화탄소나 자연 방사성 물질 등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신체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마음 건강에 대입해서 읽어봐도 좋겠어요. 마음이 공허하고 무기력할 때는 창문을 여는 것처럼 새로운 감각을 만나게 해줄 무언가가 꼭 필요해요. 꼭 요리가 아니더라도, 익숙한 것들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환기가

되거든요. 그저 지금을 견디기보다 소박하게라도 다른 방식으로 감각 해보는 시도를 해보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권호진

- **삶에 달라붙는 주제를 호기심과 재미를 담아 요리조리 다루는 문화예술기획자 권호진입니다.**
- ☞ @kirukk
- ☞ @som_press(출판사 계정)
- ☞ tosompres@gmail.com

Q ‘먹고’ 사는 문제’는 단순히 다이어트 차원이 아닌, 정치, 종교, 철학, 건강 등의 복합적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유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반가워요. ‘건강’과 ‘먹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소속한 그룹과 ‘다른 식으로 먹을 때’ 이상한 눈으로 보는 분위기가 존재하니까요. ‘유난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나요?

HJ 2017년에 출산한 아이가 올해 5살이에요. 아마 출산과 육아를 경험한 모든 엄마가 그러할 텐데요, 육아 기간 내 저의 ‘먹기’의 질은

· 굉장히 낮아졌어요. ‘아이를 잘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졌죠. 어느 순간 먹지 않거나, 아이가 남긴 게 아까워서 먹거나, 허기만 면하려고 대충 무얼 먹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때, 먹는 것과 사는 것을 합쳐 ‘먹고’ 사는 문제를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아이가 다섯 살, 소위 헬욕아¹에서 조금 자유로워져 약간 정신이 든 때였거든요. 저 스스로 모성애가 끓어오르는 어머니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낳은 생명체와 서로 정들고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나서야 비로소, 어머니된 자가 가지는 사랑이란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됐는데요. ‘아이 밥 차릴 때 같이 차려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 ‘아이도 하나면서 육아가 뭐 그리 힘들어서 잘 먹지 못한다고 유난 떠는 것인가?’, ‘나처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삶이 육아에 찌든 엄마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인가?’ 같은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남들은 어떻게 먹고사는지 궁금해졌고요. 시작은 먹는 시간과 질의 결핍에서 시작하 자기 발견이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자신의 가치관을 능동적으로 투영하는 사람들이 먹는 이야기가

1 육아의 고된 상황을 지옥이라는 표현 ‘Hell’로 비유하는 신조어



궁금한 데서 비롯되었어요.

Q 선택할 수 있는 메뉴부터 먹는 방식까지 식생활은 점차 다양해져요. 단적으로 더는 한식, 집밥 위주의 생활이 아닌데요. 폭넓은 연령과 계층, 가족 형태 등을 다룸으로써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게 눈에 띄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알게 된 새로운 식생활의 면면이 있나요?

HJ 한때 tvN <삼시세끼> 같은 예능이 시리즈로 나오며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가끔 재방송으로 마주칠 때면 오로지 된가를 해 먹기 위해 재료를 구하고, 만들어 먹는 일에 하루를 모두 투자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음식을 하는 사람을 ‘주부’라고 부르는데, 주부라는 역할을 맡은 여성은 어째서 가정에서 삼시세끼를 책임지는 몫을 끌어안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졌어요. 저는 모범 주부가 아니라서 외식이나 반조리 식품에 기대는 부분이 많음에도, ‘가족급식’²에 에 책임이 있다는

부담감은 여전히 안고 있거든요. ‘요리하는 남성’이 자상한 취미, 대견한 행위, 혹은 전문 영역에 있다면, ‘요리하는 여성’은 포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업을 떠안은 듯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부장제 이래 주부가 가정에서 밥하는 역할을 어떻게 도맡게 되었는지 리서치를 진행했어요. 리서치 결과는 앞으로 나올 매거진을 통해 확인해주세요(웃음)!

Q 식사 측면 외에, 먹지 않는 일로 간헐적 단식, 더 먹는 일로 대표되는 영양제로 건강을 다양하게 접근하신다고요. 주기적으로 디톡스한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고, 과거와 달리 전 연령을 통틀어 영양제가 일상적인 식품으로 자리 잡았어요. 식생활을 넓은 측면에서 다루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궁금해요.

HJ 처음에는 간헐적 단식³이 단순히 하루 먹고 하루 굶는 거로 생각했어요. 키토제닉⁴ 라이프스타일

2 집에서 가족에게 식사를 만들어준다는 뜻으로, 단체급식이나 학교급식처럼 가족 단위에 급식을 더한 신조어
3 일정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단식법
4 Ketogenic Diet, 지방 섭취를 늘리고 탄수화물·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식이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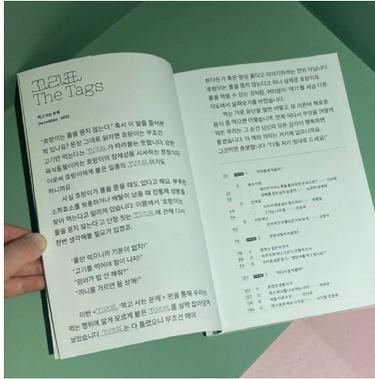
관련 인터뷰를 만나 간헐적 단식의 실천 종류와 주의점에 대해 들으며 길을 발견할 수 있었죠. 또 100인의 영양제 통계를 담은 이유는, 기운이 좀 달린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영양제라도 먹어”였거든요. 식단 자체를 바꾸거나 운동하는 방법보다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소소한 건강 실천이니까요. 그 역시 먹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거진 내용에 딱 달라붙는다고 싶었어요. 제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목차 안과 구상 내용을 잡았지만, 인터뷰이의 풍부한 이야기를 만나면서 다음 인터뷰가 더욱 풍성해지는 문이 열린다고 느꼈어요. 매거진은 인터뷰가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개인의 식생활을 조명하는 방식에서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 측면으로 접근하니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Q 내 일상을 적극적으로 꾸리는 방식의 일환으로 요리나 적절한 식단을 구성하는 게 주목받는 요즘, 효진 님이 일상에서 신경 쓰는 식생활이 있다면 알려주실래요?

HJ 일주일에 2번 교박교박 필라테스 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우스갯소리로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지만 살려고 운동한다고

할 만큼, 운동하면서 얻는 활력이 커요. 사이즈 자체도 줄어들었죠. 숫자에 연연하는 편은 아니지만, 근육량과 체지방률의 변화가 너무 없기에 왜 그런지 생각해보니, 단백질 섭취량이 꽤 부족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기로 결심하고 단백질 셰이크와 삶은 달걀 등을 잘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달걀 같은 경우는 채식 지향하는 분들과 인터뷰한 뒤로 조금 비싸더라도 동물복지 달걀로 구매하려 해요. 닭들의 삶이 조금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첫째, 스트레스받은 닭이 낳은 달걀을 먹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둘째예요. 하지만 아직 근육량의 극적인 변화는 못 봤답니다(웃음). 그리고 소극적이지만 쉬운 방법인 영양제 먹기를 실천하죠. 모니터 볼 일이 많아 눈이 침침하니 루테인, 눈 밀이 떨리기에 마그네슘, 햇빛을 잘 보지 못하니 비타민D, 만병통치약 같은 유산균 등을 골고루 먹고 있어요.

Q 다양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매거진을 제작하고 독립서점 중심으로 판매하신다고요.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가진 독립서점이 지역 문화에 기능하고 있는 점을 상기할 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HJ 매거진 이름을 야무지게 지었어요. 바로 <고리표>예요. 피, 땀, 눈물이 뻔 매거진 <고리표>를 입고해주시는 독립서점계 미리 한 번, 두 번, 세 번 감사드려요.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서울 주요 독립서점에는 모두 입고 문의를 드릴 예정이고, 이 기회를 빌려 혹시 입고를 희망하시는 전국의 독립 운영자분이 계신다면 언제나 환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께 책을 만들고 있는

출판사 슌프레스 인스타그램으로 문의 주세요!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HJ 아무리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이 훌륭해도, 인터뷰는 대면 방식의 밀도감을 따라 올 수가 없어요. 만약 인터뷰가 불편해한다면 온라인이나 전화로 진행할 것도 각오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모두 대면 인터뷰에 오케이 해주셨어요. 덕분에 좋은 사진과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었어요. 팀원들도 기꺼이 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찬성해주었고, 아무리 불편해도 인터뷰이를 제외한 모두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면서 진행했답니다.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HJ 이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식생활과 그에 연관된 삶의 태도를 조명하고자 했어요. 또 손에 잡히는 매거진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기울였죠. 기획과 인터뷰는 혼자

해낼 수 있더라도 완성도 있는 결과물 만들기란 혼자서 불가능했을 거예요. 비주얼, 포토, 에디팅, 그래픽디자인 영역의 협업자들과 각 영역에서 최대한 시도해보고 싶은 부분을 반영하며 긴밀하게 작업을 이어나간 부분이 굉장한 동력이었어요. 제가 너무 나갔나 싶은 아이디어를 내놓아도 다들 물개박수를 쳐주어서 어리둥절하다가, 그에 힘입어 더 반짝이는 구성을 해낼 수 있도록 해준 동료들이 소중한 감사했죠. 꼭 먹는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생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삶의 의미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거든요. 매거진 <고리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룬 1호에 이어 다양한 대주제를 다루며 매년 계속 발간할 계획이에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HJ 도시재생의 마을만들기나 마을 공동체 사업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다고 하지만, 주민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공공미술 관련 지원사업은 미술에 특화된 특정 예술인들이 일시, 장기적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다소 개념적, 추상적인 주민 점점 활동을 하는

것 같아 애매모호하게 느껴졌죠. <생활을 바꾸는 예술>은 동이나 구로 금을 그어놓고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나라는 강요가 없어서 제일 좋았어요. 물리적인 선을 그어버리면 기획이 굉장히 제약되고 그러다 보면 실천이 위축되거든요. 공연장, 전시장처럼 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무얼 할 때마다 참 아쉬웠어요. 그걸 헛헛함이라고 하죠? 어쩐지 지면은 그 마음이 덜할 것 같았어요. 종이 위에 '박제'되니까 만드는 우리가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 같았고요. <생활을 바꾸는 예술>을 통해 언젠가 꼭 해보아지 했던 기획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절대적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기획자로서 '해볼까?' 하는 마음이 '할 수 있어!'가 되었고, 곧 '해냈어!'가 될 거예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HJ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의 많은 공모 사업이 프로젝트 기획자 단독으로 신청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생활을 바꾸는 예술>은 '기획' 자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주어 좋았어요. 시각예술 큐레이터나 연극 연출자가 아니라면, 결과물을 만드는 아티스트에 기대어 지원사업을

신청해야만 했던 창작지원보다 지원의 폭이 훨씬 넓어진 것 같아요. 기획자로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도해보고 싶다는 자극을 받기도 했어요. 탐색과 실행으로 나뉘진 면도 좋았어요. 더해서 생활을 바꾸는 것은 한 번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어, 연속 지원도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공연에도 중장기 지원이 있듯 말이에요. 기획이 된다면 매거진 연계 프로젝트 진행과 2호 발간을 «생활을 바꾸는 예술»과 계속 도전하고 싶어요.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HJ ‘뉴노멀’⁵이라는 표현처럼, 평범한 일상의 형태가 순식간에 변해버렸어요. 그 전의 생활은 어땠는지, 앞으로의 새로운 일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했죠. ‘먹고’ 사는 문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자기 생활을 들여다보고, 거기 비친 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먹는다’라는 어쩌면 단순한 행위에서 나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먹는지 레이어를 한 겹 두 겹 쌓다 보면

5 New Normal,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이 나타난 세계 경제의 특징을 통칭하는 말로,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

행위의 주체인 자신의 정체성 윤곽이 조금 드러난달까요.

Q 효진 님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HJ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특정 식생활의 ‘유난스러움’ 이면이 궁금한 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특히 수행자 같은 비건, 단백질에 집착해서 닭가슴살을 주식으로 삼는 근육맨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 전체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물론 인터뷰이들이 해당 식생활의 대표성을 띄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각자 먹는 면을 통해 자신만의 신념, 가치관,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는 게 읽히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당신이 먹는 것, 그게 곧 당신입니다 You are what you eat

정안영

- 일상의 공간에서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연극과 무용공연을 만드는 연출가 정안영입니다.

☞ @projectwae facebook

☞ @anyay.j Instagram

Q 프로젝트 타이틀 ‘당신이 먹는 것, 그게 곧 당신입니다 (You are what you eat)’는 일종의 선언처럼 들리기도 해요. 먹는 게 곧 그 존재를 규정한다는 말이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경험으로 어렵פות이 알고 있지만 믿고 싶지 않은(?) 부분을 타이틀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AY 작업의 제목을 정할 때는 언제나 가장 직접적이고 단순하게 지으려고 해요. 이번 제목도 그렇게 정하게 된 거고요. 2019~20년, 1년간 편의점에 근무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편의점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게 됐고 몸이 나빠지는 걸 체감했어요. 음식과 몸의 상관관계, 환경에 관한 생각 등이 변하면서 저 자신에게 되뇌던 문장이 ‘선언’처럼 연결된 듯해요.

Q 진행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서울시민 50~100명을 만나 식생활, 몸, 음식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인터뷰를 진행하셨는데요. 진행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AY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죠. 처음에는 인터뷰이 4명이 무조건 인터뷰이 25명씩 말아서 100명을 채우는 게 목표였어요. 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상반기 공연 일정들이 거의 후반기로 몰리면서



연기와 취소가 반복됐어요. 동시에 가을에는 예술 활동도 많고, 코로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각자 분담한 인터뷰양을 다 못 채우겠다고 15명으로 낮추자고 해서, 1인당 10~20명 사이로 목표치를 낮췄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62명의 인터뷰를 완료했는데요. 비록 초반에 설정한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주어진

조건 아래 최대한 노력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데 주력했어요.

Q “배달 음식의 포장, 간편식품 섭취 등으로 인한 플라스틱 용기 사용의 증가를 다시 내 몸과 환경까지 생각하는 건강한 문화 확산에 자신의 인식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요. : Q
 가깝게는 내 몸의 변화를 :
 위해, 확장해서는 환경과 :
 문화 변화를 위해 ‘실천’하는 :
 일이 반가워요. 인터뷰이들이 :
 해온 실천에는 뭐가 있었는지 :
 소개해주실래요?

AY 인터뷰 질문들이 환경과 :
 기후변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
 않았어요. 그 이유는, 질문을 그렇게 :
 이끌어가면 질문에 맞춰 거짓된 :
 답변을 할까 염려스럽기도 하고, 좀 :
 더 일상을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
 의도가 있었거든요. 식생활에 관한 :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동안 그런 :
 답변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생활 :
 속에서 식문화 또는 환경변화를 :
 실천하기 위해 배달 음식을 전혀 :
 먹지 않고, 마트보다는 재래시장을 :
 이용하고, 환경에 관한 책이나 :
 다큐멘터리를 본 이후로는 :
 채식하거나 참치와 문어, 육류를 먹지 :
 않는 경우죠. 분리수거나 재활용에도 :
 신경 쓰면서 산다고 느꼈어요. :
 특히 타이틀인 ‘당신이 먹는 것, 그게 :
 곧 당신입니다’라는 문장에 공감하는 :
 채식주의자 인터뷰이가 기억에 :
 남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채식으로 :
 드러내는 타이틀 문장에 적극적으로 :
 공감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귀 :
 기울여 들어줘서 감사하다고 마음을 :
 전하더라고요.

건강한 식생활은 경제, 시간상 :
 여유로운 사람이 누릴 수 :
 있는 영역으로 바뀌어 가고 :
 있다는 데서 안타까워요. 밥을 :
 차려 먹는 일, 그 전에 건강한 :
 식재료를 장 보는 일, 그 전에 :
 내 손으로 식재료를 가꾸는 :
 일까지 넓혀본다면 말이지요. :
 이런 상황에서 ‘건강’이란 :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
 국한되기 쉬워요. 인터뷰를 :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강한 :
 식생활’, ‘건강한 일상’이란 :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AY 저는 건강한 식생활이 경제적, :
 시간적 여유와 비례한다고 생각지 :
 않아요. 인터뷰하면서 더욱 굳혀진 :
 생각인데요. 7080 인터뷰이들의 :
 답변으로 대변하자면, 어르신들의 :
 어린 시절에는 간식거리라면 감자 :
 또는 고구마 같은 작물을 삶아 먹고, :
 명절에 전 부쳐 먹는 게 특식이었다고 :
 해요. 요즘은 과자나 인스턴트식품을 :
 과도하게 생산하는 것 같다고요. :
 공장에서 대량으로 가공된 :
 불량식품이나, 과자, 라면 등의 :
 인스턴트식품을 생산·유통·소비하는 :
 시스템, 먹방 및 배달 앱의 사용을 :
 권장하는 광고 시스템이 우리를 :
 건강한 생활과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
 생각하는 건강한 식생활은 자신의

몸 상태를 예민하게 인지하고,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고르게 잘 섭취하고, 섭취한 칼로리를 올바르게 소비하는 생활이에요. 각자 자기 몸을 먼저 잘 들여다보는 일이 우선되어야, 건강한 식생활과 건강한 일상이 유지된다고 봐요.

Q 안영 님은 일상 공간에서 작업하고, 현대인의 삶을 장소특정형 공연으로 연결해오는 등 일상, 삶에 주목해 예술 작업을 해오셨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이 인터뷰, 연구, 책자를 바탕으로 공연을 준비할 계획이라고요. 인터뷰에서 나아가 공연이 보여줄 수 있는 일상의 다른 지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Y 기존에는 일상의 주체를 항상 ‘자신’이라고 여기는 데서 그쳤다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이’의 일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 듯해요.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은 언제나 공연에 중요한 영감을 제공하고 창작과정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거든요. 여러 인터뷰이의 일상이 공연을 통해 수많은 관객의 일상에도 공감과 깨달음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AY 대면으로 인터뷰이들을 만나 개인적인 식생활을 중점으로 두고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든 기획인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을 꺼리기도 하고, 인터뷰 시간을 맞추는 게 힘들었어요. 일 마치고 만나야 할 경우, 저녁 6시나 8시 이후 집합 금지 등의 이유로 전화 또는 줌으로 만나 급하게 인터뷰를 진행하는 상황이 왕왕 있어서 조금 아쉬워요. 또 전문가를 초청해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유로 개최가 힘든



상황이어서 책자 발행으로 대체하는 등, 프로젝트 내용이 바뀌는 상황들이 어려운 점이었어요.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AY 탐색한 영역은 개인적인 식생활인데요. 그게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식생활도 사실은 공장의 대량생산 시스템이 장악하고 있고, 인스턴트를 넘어 이제 밀키트의 시대로 시스템이 변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 시스템 아래 많은 플라스틱 제조 및 기후변화에 일조하는 상황이 안타까웠는데, 그 부분을 재조명하고 확장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AY 각자의 일상생활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내길 희망하는 점, 특히 예술 활동이 그에 일조하는 지원사업의 취지가 좋아 지원했어요. 진행하며 많은 이와 심도 있게 만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인 부분이 참 좋았어요. 인터뷰이들이 자신의 식생활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피드백을 해주어서 뿌듯했고요. 빠르지는 않더라도 지속해서 자신의 일상을 되돌아보면서 예술을 통해 일상의 변화를 하나씩 실천해 가길 바라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AY ‘일상 생활밀착형’ 예술사업과 ‘일상의 변화와 실천’을 주제로 진행되는 예술사업이라는 점이 아주 좋아요. 저희가 중점으로 다루는 작업주제가 ‘일상의 변화’라서 더욱 그런 듯해요. 앞으로도 이 점은 꼭 유지해주시면 좋겠어요. 보완할 점이려면 지원비인데요. 탐색지원에는 적절하지만, 실행지원에는 올해보다는 더 많은 금액으로 상향조절되어야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봐요. 좋은 취지의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지원비가 적으면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봤거든요. 이후에는 상향조정되어 좋은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AY 저 또는 인터뷰이들의
식생활이 개선되는 부분이에요. 더불어
자기 몸과 기후변화, 식생활 같은
아주 사소한 일상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예술 활동이길 기대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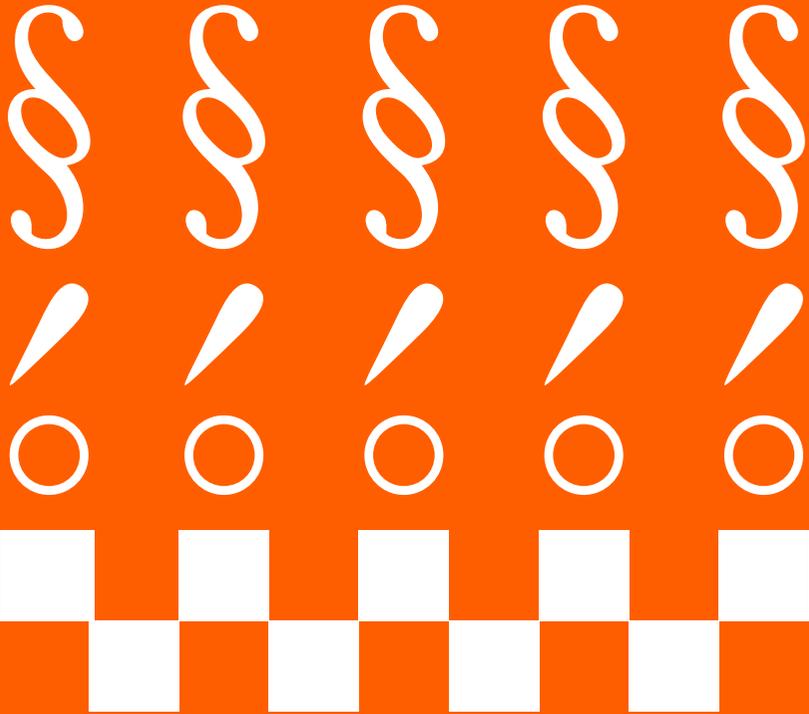
Q 안영 님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AY 특정인은 따로 없어요. 우리
모두 다양한 식생활과 식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좀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식생활이 자신의 몸
상태를 만든다는 생각에 공감하길
바라요. 그러면 식생활에 작든 크든
'꼭' 변화가 올 것이라 믿어요.





GROUP 3



것은 무엇인지,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하고 남이 아닌 나에게로 시선을 돌리려 노력해요. 그래도 자꾸 두리번거리게 된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기도 하고요. 하지도 않을 주식 계좌를 만드는 것처럼요

Q 포모는 온라인 연결망에 의해 더 가속화되는 면이 있죠. SNS를 볼수록 그 공포는 짙어지고 오히려 단절할수록 자유로워진다는 역설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시나요?
YJ 미디어 리터러시²란 결국 일종의 자기 생각 키우기 훈련 같아요. 유행하는 콘텐츠를 바라보며 '재밌다/재미없다'라는 일차원적인 감상만 남기는 것을 넘어, 왜 이런 콘텐츠가 흥행하고 있는지 사회적 흐름 안에서 바라보는 일이죠. 혹시 콘텐츠의 어떤 부분이 누군가에게 적대적이진 않은지, 누군가를 소외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질문하며 감상에서 해석으로 넓혀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타인을 이해하고,



2 Media Literacy, 정보 기술을 이해하고 정보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활용,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세상을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연히 SNS를 통해 본 어떤 게시물, 댓글에 적대감을 느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것인지를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나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맥락 없는 혐오 발언이 넘치고 거짓 정보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여과지 없이 흡수하는 콘텐츠들은 결국 스스로에게도 상처가 되니까요.

Q 작가님들과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죠.

YJ 우선, 예정되었던 케이스 스터디는 진행하지 않았어요.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에게는 주제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고, 자유로운 해석과 관점이 스터디를 통해 달라지는 것을 경계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대신 작가님들이 처음 포모라는 용어와 정의를 듣고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렸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무래도 기획자인 제가 제안한 주제였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 왜 포모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렸죠. 작가님들이 생각하는 포모는 무엇인지, 언제 이런 그림공포감이 심화된다고 느끼는지,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 말이에요. 어떤 이는 SNS와 찍는 행위에 집중했고, 어떤 이는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는 것이 아닌, 자기 안에 갇힐까 봐 두려운 공포감 등으로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어요. 포모라는 단어는 하나이지만 이를 두고 생기는 해석과 감상이 이렇게나 다양하다는 것을 보며 조금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번 «생활을 바꾸는 예술» 프로젝트에서는 포모를 한

가지 정의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선 포모는 단어의 형태로 두고 이를 해석하는 것은 모두 작가들의 몫으로 열어두기로요.

Q 이 고민들을 전시나 공연으로 녹여서 관객에게 전달하셨는데요. 자신을 돌아볼 단초가 되는 메시지를 소개해주시 수 있나요?

YJ 고립공포감을 가속하는 것이 SNS임에도,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SNS를 통해서 모든 걸 진행했어요. 홍보도, 안내도, 접수도 후기를 받는 것도요. 포모를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SNS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찌 보면 타깃이었던 건데요. 관람객들의 후기 또한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게시물로 접했고, 가장 많은 관객이 '뜨끔'했다고 말한 작품을 소개할게요. 납작한 사이의 <잘라라, 그 쥐고 있는 손>이라는 작품이에요. 작가는 블랭킷 증후군³을 중독성이 강한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일상을 감상하고 즐기는 순간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으로 느껴지는 찰나를 포착해요. 손으로 찍은 행위에서

행위의 주체는 사라지고 손만 남는 형태를 기이하게 표현하고자 했죠. 사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팀이지만 이번 작품은 작가 개인이 일상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인쇄하고 그 위에 색을 칠해 그림 그리는 식으로 작업했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휴대폰을 손에 쥐고 사진을 찍는 자신들의 손을 크게 확대, 인쇄하여 그 위에 페인팅했고요. 밥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라는 인사 대신 '너 사진 찍을 거야?' 하고 물으며 인증샷 타임을 마련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매너가 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인지 많은 관객이 작품을 보며 공감하신 것 같아요. 찍는 행위를 멈추지 못하는 자신에게 그 손을 자를 것이냐며 강하게 말하는 작품임에도, 결국은 그 작품을 사진으로 촬영하며 머쓱함과 뜨끔함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작품 앞에서 인증샷을 남기며 관객들은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찍는 행위에 집착하고 있는지 질문해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포모가 보인다면 좋은 작업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YJ 고리타분한 저는 면대면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선호해요.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카페에 앉아 음료를 기다리며 짧게 시간 때우는 순간에도, 그 순간 나누는 시답잖은 말들도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잘 느끼게 해주니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작가님들과는 모두 줌으로 소통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짧은 순간에 우리는 마이크와 카메라를 끄고 서로를 기다리죠. 이번 작업을 진행하며 거의 모든 작가님과 초면이었기 때문에 더 알아가고 싶었어요.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 조금 더 나은 작업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작업 전에 충분히 서로를 탐색하지 못했고, 이것이 작업에 꽤 큰 영향을



3 Blanket Syndrome, 담요처럼 소중한 무언가가 곁에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안전부절못하는 의존증.

미친 것 같아요. 모든 게 마무리된 지금 시점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워요. 제가 더 저돌적으로 했더라면 한 분 한 분 쫓아다니며 열성적으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편리함에 기대버리는 바람에 그러지 못해서 아쉽네요. 다음에는 시간과 노력이 배로 들더라도 웬만하면 면대면으로 찾아뵈어줬다고 다짐했어요.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YJ 꼭 같은 주제인 포모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들의 실체를 쫓아 가보고, 각자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포모에 대해서 관객, 작가 할 거 없이 다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지만 실행하지 못해서 못내 아쉬웠거든요. 친구들과 술 한잔하며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공적인 자리에서 질문의 형태로 꺼내놓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다른 관점과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지속 가능한 대화모임의 형태이면 좋겠다고 판단해서예요. 혼자 하는 고민도 입 밖으로 꺼내놓으면



어떤 재미난 일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잖아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YJ 사업명이 가장 매력적이었어요. 다른 지원사업들을 여러 번 했는데 보통은 사업명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행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은 그들의 목적일 뿐이고 저는 그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그 사업의 목적에 맞아 보이도록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지원서를 썼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게 뭘 위해 하는 것이었는지 까먹는 순간이 오고, 가끔 그런 순간이 올 때면 하고 싶어서 지원했던 사업도 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사업은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다 보니 그 이름을 자꾸 되뇌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걸로 바꾸고 싶은 건 뭘까?’, ‘어떻게 바뀌었으면 하는 걸까?’, ‘그러기 위해선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할까?’를 계속 고민하게 해줬어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까먹을 때가 많았거든요. 덕분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관성처럼 일하는 모습이 거의 없었어요. 처음 지원한 이유를 상기시켜주는 사업명이라서 지원서에 썼던 그

말들을 붙잡으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게 길을 잃지 않도록 잡아주는 데에 큰 도움이 됐어요. 물론 완전히 길을 잃지 않은 건 아니지만(웃음), 이번 경험을 계기로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목표와 목적을 상기시키는 훈련을 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YJ 지원사업을 할 때마다 다른 팀들의 작업이 궁금했어요.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부지런히 찾아보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죠. 부지런하지 못한 저는 거의 찾아보는 법이 없었고 그렇게 놓친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이 마음 한편에 아쉬움으로 남아있었어요. 놀랍게도 «생활을 바꾸는 예술»에서는 모두는 아니더라도 그룹을 묶어 서로 만나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좋았어요. 작업하다 길을 잃는 것 같은 순간이 오면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는 게 꽤 도움이 되잖아요. 좋은 자극을 받거나 힌트도 얻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도 신나는데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도 정리할 수 있죠. 다만 그 타이밍이 저는 사업을 마친 이후여서 중간쯤이었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했어요.

Q 윤정 님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YJ 저와 같은 사람들이요. 어떤 조급함,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포모라는 단어를 접하고 나면 그게 조금 나아지니까요. 남 탓하면 마음은 조금 편하잖아요. ‘아 이건 사회적 문제이고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충분히 나아질 수 있어. 나아지려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가 제가 포모를 접하고 처음 했던 생각이거든요. 우선 문제라고 인식하면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죠. 알아차림이 필요한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당신만 그런 거 아니니까 자책하지 말고 천천히 일상을 바꿔나가자고 말하고 싶어요. 다 즐거워지자고 하는 것들인데 괴로우면 안 되잖아요.

My Little Things!

만석프로젝트

- 만석프로젝트는 김가현, 김연주, 박수인, 정승연, 최도아가 모인 창작·비평 그룹입니다.

☞ project10kstones.com

☞ [@project10kstones](https://www.instagram.com/project10kstones)

Q ‘My Little Things!’는 ‘일상에서 들리지 않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라는 질문을 내세워요. 놀랍게도 시작한 ‘정치적인 프로젝트 하나 해보자’라는 발상이었다고요. 일상에서 들리지 않는 소리를 바라보는 시도를 ‘정치적’이라고 보신 이유가 궁금해요.

ALL 어디에나 들리지 않는 소리는 있을 거예요. 우리 집에도, 학교 교실에도, 회사에도, 거리에도요. 그 소리는 작아서 잘 들리지 않죠. 그런데 작다고 중요하지 않은 소리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1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자율감각 쾌락반응이라는 뜻으로, 청각을 중심으로 뇌를 자극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소리를 일컫는 신조어

더 큰 소리에 가려 들리지 않는 거겠죠. 큰 소리는 잘 들리고 언제나 중심에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큰 소리에 밀려난 주변의 작은 소리를 작정하고 중심으로 끌어와 보자는 생각에서 만들어 본 작업이에요. 그게 정치적인 이유는 명료해요. 사적이고, 밀려난, 주변의 이야기를 공적 발화로 만들어 보는 작업이기 때문이죠.

Q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일상에서 각종 소리에 노출되곤 해요. 어떤 건 듣기 좋은 소리로, 어떤 건 듣기 싫은 소음으로 치부되죠. 그중 ASMR은 백색소음에 집중해 일상의 평범한 소리(먹는 소리, 물건을 사용하는 소리, 자연 소리 등)를 일부러 찾아 듣는다는 점에서 독특한 현상이 아닐까 해요. 이처럼 사람들이 일상에서 귀 기울였으면 하는 소리, 소음이 있다면 소개해주실래요?

ALL 우선 ASMR¹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요즘 사람들이 ASMR을 많이 듣는 현상은 저도 정말 신기해요. 얼마 전 제 지도교수님이 한 학회에서

읽어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Q ‘My Little Things!’를 통해 관객 참여를 유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운드 전시 인터랙티브 인스톨레이션을 시도하시죠. 비일상적인 소리가 마냥 아름답거나 듣기 좋지는 않겠지만, 이로써 귀 기울여 한 번 더 듣는 기회가 될 거로 기대한다는 말을 덧붙이셨어요.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일상적 태도가 있나요?

ALL 관객분들이 전시에 오셔서 참여작가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고민에 한 번 들어왔다 나가는 경험을 해보는 것, 여러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보는 것, 마지막으로 소음이란 정의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구성되는 점들을 전시로 몸소 체험할 수 있다면 이 전시는 100% 성공한 것이라고 봐요. 소음이란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바로 일상적 태도로 직결되는 문제고요. 가령, 우리 회사에 늘 사고만 치는 사고뭉치로 낙인찍힌 직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그 직원이 사고뭉치일까요? 아니면 ‘그 직원은

원래 그래’, ‘그 직원이 늘 문제야’, ‘그 직원은 절대 안 바뀌어’라고 말하고, 한 명의 사람을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그 ‘상황’들이 그 직원을 ‘소음’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아닐까요?

Q 전시를 관람하지 못하는 분들도 새로운 경험해볼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 계획도 있으실까요?

ALL 네. 2021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신촌 1M SPACE에서 열린 ‘My Little Things!’ 전시의 스케치 영상과 음원을 2월 말경 만석프로젝트 홈페이지에 아카이빙 할 계획이에요. 전시에 직접 찾아오지 못해서 아쉬웠던 분들이 계시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시리즈로 계속해서 만들어갈 계획도 있어요. 어떤 작곡가분들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이 프로젝트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거든요. 힘이 닿는 한 매년 만들어갈 계획이니, 기대해 주세요. 저도 기대되네요(웃음).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ALL 모이지 못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거의 매번 줌으로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거든요. 초반에 줌으로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화되다 보니, 후반에 워드 코로나에 접어들면서 모이는 게 가능해질 때조차 줌이 당연해서 모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코로나 시대에 프로젝트 운영에 있어서 힘들었던 점이라면 그게 가장 컸어요. 아니었다더라면 당연히 처음부터 모여서 작업하지 않았을까요? 시간 정하는 데서 유연하고 수월하다는 장점이 분명 있지만, 어쨌든 온라인으로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건 일정 부분 한계가 있으니까요.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ALL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냥 흘려보냈던, 소음으로 여겨졌던 소리에 집중해볼 수 있었어요. 내가 흘려보낸 소리를 들어다보고 팀 구성원들이 소음으로 규정되었던 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죠. 아쉽게도 이 프로젝트에 주변으로 밀려난 소리를 다 담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에 앞으로 더 많은 작가, 관객들을 만나 여러분의 소음은

무엇인지 들어보고, 다시 들어볼 수 있는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려 해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ALL 만석프로젝트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막연하게 정치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생활을 바꾸는 예술» 지원 공고를 보고 생각으로만 남아있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기획해 볼 수 있었고, 선정되어 실제 프로젝트로 실현할 수 있었죠. 정치와 생활은 밀접한 관계이고 정치적인 생각으로 생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들이 예술적인 활동이나 경험으로 생겨나거나 변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여겼고요. «생활을 바꾸는 예술»은 생활과 예술의 거리를 조금이나마 좁혀줄 수 있는 사업이고, 그 점이 다른 지원사업과 구분되는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ALL 올해 처음 해봐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지원사업 일정이 조금 늦게 떠서 전시공간을 대관하는



데 조금 힘들었어요. 할만한 곳은 이미 대관이 다 차버린 터라. 그 부분 말고는 괜찮았습니다. 지난번 공유워크숍 때 담당자 선생님들을 처음 뵈는데, 다들 이 사업에 정말 진심이신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믿음직스럽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ALL 소음은 규정되지 않고 구성됩니다. 누군가가 소음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중요하게 여기는 소리라도 소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목소리들, 어떤 생각들을 소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권력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이 프로젝트를 지나며 구성되는 소음을 예민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고, 앞으로의 생활에서도 소음에 관해, 밀려나는 소리에 관해 생각해 볼 계기가 됐어요. 이 감각들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의 생활이나 예술 활동에도 중요하게 반영하려고요.

Q 만석프로젝트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ALL 말씀드린 것처럼 관객 참여를

유도하는 인터랙티브 작품도 있고요, 영상과 설치물을 활용한 작품들까지 다양하게 준비해서 진지하기보다 유쾌하고 재미있게 풀어내려고 노력 중이에요. 누구나 와서 즐기실 수 있을 거로 예상해요. 많이 와주세요!

泫垂幕(현수막) 프로젝트: 겉게 드리운 막

나광호

● 나광호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리서치 프로젝트를 하며, 내걸린 현수막과 그 내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 blog.naver.com/art369369/222582990996

☞ blog.naver.com/art369369

Q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을 거짓이 난무한, 불법으로 대하시는 게 각별해요. 솔한 현수막 사이에서 힘, 권력, 정책이라는 키워드를 선별해 프로젝트를 기획하셨는데요. 앞서 <현수막(懸垂幕) 프로젝트>를 진행하셨고 후속 작업인 이번 <현수막(泫垂幕) 프로젝트>로 이어졌다고요.

KH 프로젝트나 전시 제목을 정할 때 한자를 자주 사용해요. 같은 음이지만 유연하게 변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유연하고 말이 되는 프로젝트명을 정할 수 있는 듯해요. ‘현수막’은 내걸어 드리운

막이라는 의미인데요, 현재, 먼, 겹다 등의 의미를 달아 ‘현재 드리운 막’, ‘멀리 드리운 막’, ‘겉게 드리운 막’으로 제목을 변형해가며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어요. 빵집, 미용실, 세탁소, 마트 등의 간판은 그 정체성을 반영하는 반면, 현수막은 정체성을 반영하지 않아요. 예전에 진행한 지도 프로젝트에서 지도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얘기를 자주 했어요. 개발, 합목적성에 따른 힘, 정책, 권력이 우선시 되다 보니 실제 그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의 목소리는 담기지도, 들리지도 않는다고 느껴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 내렸고, 프로젝트가 다루어야 할 지점이라고 여겼어요. 그게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죠.

Q “건대에서 구리로 넘어올 때 부동산 불법 현수막이 엄청 많이 날렸다. 그 모습이 재난 영화를 보면 새가 날아가거나 하는 전초처럼 느껴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일상에 균열을 일으킨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 그때 광호님이 느끼신 감정은 어떤 것이었나요?

KH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이었죠. 재난 영화에서도 출연자들이 다들



멋치거나 우왕좌왕하잖아요. 관객만이 속으로 외치죠. “어서, 피해!!!” 그걸 알아챈 시점부터 현수막 내용의 텍스트들을 읽고, 기억하고, 그 이면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 의미를 정확히 짚어 낼 수 있는 분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기 시작했구요.

Q <현수막 프로젝트>는 “기획부동산, 부동산컨설팅, 공인중개사 세 업자를 대상으로 뒤섞인 욕망, 같은 장소 같은 곳을 다르게 바라보는 욕망의 관점과 이를 힘, 권력, 땅, 소유주, 정책을 세밀하게 관찰, 발견하고 기록하여 비판적 관점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고 싶다”는 목표로 시작돼요. 현수막이 드러내는 욕망, 권력의 주체가 누군지, 어떤 방향을 선포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큰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를 들고 부동산에 찾아가면 위협적으로 느끼곤 해서 아이와 같이 가기도 했다는 에피소드도 들려주셨죠.

KH 정답은 잘 몰라도 다양한 관점이 모이다 보면 교집합이 되는 부분을 바라보고 또 다른 관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간척지가 된 섬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실제 섬에서보다는 섬 외곽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주변을 통해 중심이 정의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는 인터뷰어를 만나고 싶어요. 욕을 걸걸하게 잘하시는 어르신도 재미있었고, 현 상황을 직시하고 현수막의 텍스트를 구굴 번역기처럼 들려주시는 부동산 사장님도 재미있었죠. “다 사기꾼이야.,” “다 뺑이야!!!”,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안 돼”,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 걸리는 현수막이 불법이니까 단속



시간 피해서 걸었다가 수거했다가 사람들이 많이 볼 시간에 다시 걸지” 같은 얘기 듣는 것, 다른 생각을 발견하는 것이 모두 에피소드예요. 흥미로워요.

Q 다양한 주거 정책,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부동산은 주거라는 1차적인 목적 외에 재테크 수단으로도 통용되는데요. 프로젝트를 통해 기획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공인중개사 세 업자를 만나셨는데, 이들이 바라보는 부동산은 각각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KH 권력은 자본에 넘어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책과 결과는 어찌면 다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도를 틀 때 온수 쪽으로 레버를 돌려도 따뜻한 물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듯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죠.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했고, 집값이 내릴지 오를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추측할 뿐이지 전문가들도 알 길은 없다고 해요. 공인중개소에서 집값이 계속 내려가니 매매하라고 했을 때 아파트를 팔자마자 다달이 몇천만원씩 오르는 경우를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그분들도 적응하고 주시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밖에요. 부동산 하면 떠오르는 세 개의 단어가 기획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공인중개소예요. 기획부동산은 흔히 뒤통방, 크게 가치가 없는 땅을 허위광고로 부풀려 잘라 팔거나 분양 모델하우스 근처에 가설치 텐트를 쳐놓고 어르신들에게 호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일하던 분이 공인중개소에서 건물이나 아파트 소개하는 실무를 담당해요. 부동산 컨설팅의 경우 지역에서 땅을 소개하고 매매하는데 실제로 자격증 없는 분이 지역주민들과

관계를 맺으며 땅을 소개하고 팔아요. 물론 계약 시에는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로 안내를 하죠. 공교롭게도 배우자나 친인척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운영하는 곳이고요.

공인중개소는 우리가 아파트 단지나 상가,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무실이죠. 사무실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걸려있는데 보통 실장님, 실무를 보는 일은 자격증이 없는 분이 대부분 일을 진행해요.

세 가지 모두 성격이 상이하고 다른 것 같지만 부부, 친인척 관계로 얽히고 과거와 현재 근무하는 곳이 다르지만 실은 소속이 바뀔 뿐 하는 일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마치 살코기와 지방이 마블링처럼 얽혀 구분하거나 분리해내기 쉽지 않은 것과 같죠.

Q 향후 ‘올바른 기획부동산 프로젝트 해프닝’을 벌이고 싶다고도 하셨어요.

KH 말 그대로 정직한 현수막을 만드는 거예요. 불법으로 매달기도 하고요. 과장된 허위 텍스트를 올바른 잡는 작업을 생각 중이에요. 틱톡을 이용한다면, SNS 기능을 활용해

확산시킨다면, ‘좋아요’를 누르게 하는 식이죠. 님비¹, 핼피²에 대한 현상과 인간의 이기심, 욕심, 욕망, 그리고 정치적인 구호들도 멀지 않다고 생각해요.

- ① **화천대유, 돈 번 자가 주인입니다.**
- ② **돈 벌게 해 준 자가 범인입니다.**
- ③ **둘 다 범인입니다.**
- ④ **국가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각기 다른 정당이 내 건 최근 현수막의 문구들인데, 이 현수막을 이용해 쉼터로 빅텐트를 제작할 계획이에요. 대 국민 화합을 저와 제 프로젝트팀이 구현할 거예요. 게릴라성 음원 제작도 고려하고요.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KH 코로나라 달라진 점이 별로 없어요. 아무 상관 없다는 듯이

1 NIMBY, Not in my back yard, 자기중심적 공공정신 결핍 증상
 2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수익성 사업을, 자신의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 이기주의

살아가고 있거든요. 워낙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성격이에요.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많긴 하지만, 우린 워낙 잘 적응하잖아요. 굳이 어려움을 꼽자면, 결과자료집에 사진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진마다 마스크가 주인공으로 비치는 면이 참 답답하고 어려워요.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KH 인터뷰이들에게서 속 시원한, 솔직한 지점을 건드려보라는 피드백이 매우 도움 됐어요. 그리고 탐색지원에서 지금을 그 과정으로 보고, 과정을 연장해보는 것도 마음에 여유를 주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고 여겨요. 내가 바뀌는 것이, 그리고 내 관점이 바뀌는 것이, 내가 활동하고 일하는 서울을 바꾸는 거로 생각하는 계기도 되었죠. 나중에 실행지원에서 시각예술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결과물, 아카이빙, 이미지로서의 오브제를 만들어내고 선보이는 데 집중해보고 싶네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KH 인터뷰 심사도 제 기획을

최대한 성의껏 들어주시고, 많은 것을 끌어내어 가능성의 방향으로 제 역량을 바라봐주는 부분이 참 좋았어요. 지원 서류도 꽤 부드러웠어요. 결과 만능주의가 아닌, 과정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프로그램과 관심, 인터뷰 등이 성의 있고 기획자를 지원해준다는 느낌을 듬뿍 받았죠. 리뷰 프로그램을 통해 방향과 과정을 점검해 주는 지점도 좋았어요. 이번에는 탐색지원인데, 실행지원을 상상하게 하고 지속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생활을 바꾸는 예술»의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KH 탐색에서 실행으로 가고 싶다는 의지를 선물해준 면, 다른 지원 서류와 인터뷰 심사의 분위기, 기획자를 믿어주는 태도가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바예요. 지금의 과정을 바라봐주시고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실행지원에서도 관심 두고 바라봐주길 바라요.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KH 제가 바뀌고 제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거죠. 실행지원에서는 도움을 준 작가들과 함께 즐겁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텐데요. 과정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해요.

가슴 뛰거나 설레는 일이 별로 없는 와중, 프로젝트를 지속해나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해요. 계속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주제로 기획과 프로젝트를 벌이고 싶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제 아이디어가 회자되고 담론화되고 예술로서 흔적을 남기지 않을까요.

Q 광호 님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KH 현수막을 내건 이, 보는 이 모두가 프로젝트를 접하고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집값이 오르면 좋긴 하겠죠. 집이 있는 이, 분양을 받은 이. 분양받으면 “10억 가자, 20억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걸 본 적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분양받았다 해도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마련하지?’ 하는 고민이 시작돼요. 모든 집값이 동시에 오르는 현상이 모두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만약 자녀가 있고 특히 다자녀인 경우엔 나중에 자녀들에게도 집이 필요하잖아요. 평생 직장 생활을 해도 집 장만이

어렵고, 설령 집을 장만해도 대출로 평생 빚에 허덕이는 사회,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사회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 어떻게 상상해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봐요. 10억, 20억, 30억 하는 아파트를 어떻게 자녀들에게 장만해 줄 생각이죠? 일정 부분 책임져야죠.

컬레색

컨템포로컬

● **윤주희, 최성균** **아티스트**
 듀오로 구성된 컨템포로컬은, 로컬을 동시대의 중심으로 가져오자는 취지로 구성된 팀입니다.

☞ @tiger1_artistsrunspace

Q 프로젝트 타이틀 ‘컬레색’을 처음 마주했을 때 컬레의 모양이나 향, 재질은 금방 상상할 수 있었지만, 컬레의 색은 다소 낯설어요. 생소하면서 자극적인(?) 타이틀을 짓게 된 이유를 알고

싶어요.
 ALL 아이랑 놀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이면 뭐가 돼?”
 “보라색.”
 “노란색과 빨간색이 섞이면?”
 “주황색.”

나중에는 재미있으니까 애가 먼저 다른 원색들을 하나씩 가져오더라고요. 그게 다섯, 여섯 개쯤 섞일 즈음엔 무채색만 나올 것 같았어요. 무채색이란 말이 아이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컬레색’이라고 표현했거든요.



▲ 문서진, 맨질맨질하고 딱딱한 삶에 대한, 가구목재, 종이, 가변설치, 2021

들자마자 얼굴을 찡그리는 걸 보면서 어떤 색인지 그 의미가 전달됐다는 걸 알았어요. 프로젝트 기획 초반만 하더라도 색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자극적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요. 자료조사차 포털사이트에 검색했을 때 뜨는 이미지들을 보고 깨달았죠. 하지만 극히 일부가 쓰는 말이자 써서는 안 될 표현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우리가 새로운 의미로 가져가자 해서 고민 끝에 유지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타인을 그렇게 부르면서 자신은 깨끗하다고 규정하거나 자신의 혐오 행위는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지점은, 타자에게 그 자신의 더러움을 분출하는 행위이니 전체 맥락상 맞닿은 부분이 있기도 했고요. 다만 확대될 수 있는 선입견을 고려해 디자인에 신경 썼어요. 이미지 없이 제목에만 의도를 담은 그래픽 요소를 첨가했죠. 실제로 전시에 그런 선입견으로 오시는 분은 소수였어요.

Q '걸레색'을 각종 상황이 섞였을 때 나오는 애매한 상황의 색이라고 보고, 이를 통해 원색이던 각자의 모습이 사회에서 어떻게 오역되고 묵인되는지를 지적해요.

일상적으로 걸레를 드는 주체가 누구인지 주목하자 가정에서는 주로 어머니나 딸인 여성이, 외부에서는 청소용역 직원(이마저도 대개는 중년 이상의 여성이지요)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걸레가 함축하는 사회적 약자에 주목한 계기가 있나요?

ALL 우리가 일부러 보여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관해 말하고자 했어요. 그들은 나름의 색을 가지고 있고 나름의 상황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스스로 낼 수 없거나 그럴 의지가 강하지 않은 이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상황에 대해서요. 이들도 의지가 있거든요. 다만 가시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뿐이죠. 대표적으로 한국사회의 어머니들이 그러하잖아요. 나와는 관련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더러움을 통해 생성된 존재들은 결코 자신의 행동 및 의식과 관련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걸레색' 하면 연상되는 색이 있으나 사실 그 색상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 안에도 그들만의 색이 있음을 인정해야 해요. 가족들에게 헌신적으로 살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작업화한 문서진 작가는, 그 인물을 무조건 타자화하는 방식보단 걸레로 자신의

소중한 공간과 물건들을 쓰다듬는 촉감적 행위를 했던 인물로 기억해 내요. 생전에 좋고 싫은 것을 제대로 내색하지 않았던 할머니를 기억하는 방식이 촉감인 거죠. 피부 질감이나 냄새, 날숨의 느낌 같은 몸의 감각들이요. 할머니가 남긴 유일한 텍스트는 가족 친지들의 전화번호를 몇 년에 한 번씩 확인해 적어 놓은 거예요. 유서일지도 모르는 그 텍스트는 신체 노화에 따라 점점 무너져 내린 서체를 촉각적인 사물로 변환시키면서, 할머니와 함께한 작가의 기억 단편들을 옮겨 쓰는 일을 이번 작업으로 선보였어요. 즉, 우리는 매일매일 쓰다듬은 그녀들의 손길로 귀중한 공간에서 귀중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었던 셈이에요. 이 과정을 걸레라는 매개체로 상기해내고 활자화된 그들의 손길을 오래된 가구에 기념비처럼 새겼어요.

Q 전시 기획 의도는 생활과 밀착해 있어요. "자신이 속한 상황에서 스스로 걸레를 잡고 청소를 한다는 것은 깨끗함에 대한 욕망도 계층화되는 현실을 무너뜨리는 일상 선언으로 우리 아이한테 인식되고 스스로 걸레를 잡았으면" 한다고요. 사회 구성원 가운데 아이, 즉 미래

세대에게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이 눈에 띄어요 ALL 걸레라는 오브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는 아이가 물을 엷지른 상황에서였어요. 자신이 닦을 생각은 하지 않고 집안일하고 있는 제게 닦아달랬어요. 당시 애 아빠가 옆에서 쉬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 상황에 화를 내다가, 이 모순적 상황이 일상이 됐다는 것에 더 화가 났죠. 이 상황은 제가 어릴 적 우리 엄마가 겪었던 상황과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걸레는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건데 현재 누가 그 걸레를 쥐고 있지?', '더럽힌 장본인도 아닌데 왜 대신 닦아야 하지?', '세상 모든 이가 자신의 더러움을 스스로 끌어안는다면 기울어진 세상은 좀 더 평평해지지 않을까?', '우리 아이만이라도 흘린 것을 직접 해결한다면 집안의 묘한 불평등 구조는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네가 왜 직접 닦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해시킬까?' 등으로 질문을 이어가다가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됐어요.

Q 전시장 곳곳에 '까마귀'가 등장하더라고요. 까마귀를 통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ALL 4명의 작가에게 부탁한 건 '우리가 더럽다고 혹은 보기 싫다고

걸레로 닦아버리듯 섞어버려 서로 뒤엉킨 것들을, 개별 색을 볼 수 있게 본래 존재들로 드러내는 작품 참여'였어요. 까마귀는 그런 취지로 참여한 여운혜 작가의 작업이고요. 영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작가는 도시화로 서식지가 사라져서 비둘기처럼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생존하는 까마귀들을



▲ 여운혜, *Substitute - Corvus*, 왁스, 수집한 각종 쓰레기, 목탄가루, 염료, 혼합재료, 9점 부분 설치, 가변크기, 2021

여운혜- *Scavenging - Cybird*, 엑스선 필름 인크젯 프린트, 수집한 액자, 8점 부분 설치, 가변크기, 2021

관찰했다고 해요. '인간이 혐오의 눈길로 까마귀를 바라볼 때, 까마귀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을 그리 보지 않을까?' 먹이를 주고서 까마귀와 거리를 두고 관찰하며, 그들이 뒤지는 쓰레기로 까마귀 상을 만들어 서로 간의 시선에 변화를 주고자 공생 관계를 지향하는 작업이었죠. 자연물이란 인간의 의도로 놓을 수 없듯이 전시에서는 다른 작가와 작업 맥락이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자유롭게 놓고자 했어요. 그래서 지하 전시장 곳곳에서 까마귀를 만나는 형태로 진행된 거예요. 또 까마귀 상은 같이 전시된 엑스레이 사진 작품과 연장선에 있어요. 자신이 만든 작품을 까마귀로 여긴 작가가 동물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받은 결과물인데요. 작가가 수의사를 설득하며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했을 대화와 섭외 노력, 의지 등은 한 장의 사진 그 이상의 감동이 있어요.

Q 걸레에서 시작해 사회적 약자, 버려진 물건, 자연현상, 동물 등으로 확장해가며 각자의 존재성과 의미를 되살리는 작업이네요. 걸레는 원래 수건이었으니까요. 전시를 접한 관객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억나는 모습이나 평이 있다면 공유해주실래요?



▲ 최윤석, *모든 걸레는 수건이었다 Every Rag was A Towel*, 컬러, 스테레오, 단채널 비디오(16:9 HD), 5분 28초(반복재생), 2021

ALL 마침 언급하신 '모든 걸레는 수건이었다'라는 최윤석 작가 작품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작가는 자신의 공간에서 언제부터 함께했는지도 모를 여러 물건을 발견했는데요. 그중 헤어용품으로 만든 퍼포먼스 기록 영상이에요. 작가는 버리는 것조차 잊었던 혹은 버리길 망설여서 지금까지 함께 하게 된 유통기한 지난 헤어 로션, 젤, 스프레이, 컬러 왁스 등을 나름의 순서대로 머리에 발라요. 거의 한 통씩을 비우며

쓰니, '바른다'는 표현보다 덕지덕지 '쳐바른다'는 표현이 적당하죠. 당연히 스며들기는커녕 석고를 바른 듯 머리는 허영계 굳어지고요. 작가는 이걸 물로 씻어내면서 '세상의 모든 더러운 걸레는 새하얀 수건이었지'를 연상해냈고 그게 제목이 됐어요. 퍼포먼스 기록을 본 관객 중에는 '저 모든 것을 해야지 패션의 완성이던 때가 있었는데'라고 과거를 기억해 내는 분도 있었고, 유통기한이라는 건 인간에게 최적화된 기간을 설정해둔 것임에도 그걸 지켜내지 못해서 항상 생애가 그 과오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에 반성하는 퍼포먼스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었고, '설마' 하며 못 본 척 눈감고 버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하얗게 굳어지게 하는 공격행위가 될 수 있음이 직관적으로 느껴졌다는 분도 있었어요. 반면 신현정 작가의 추상화하는 감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환경적 상황을 오래된 물감을 가지고 여러 방식으로 표현한 회화 작업이에요. 작가는 날씨나 계절처럼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에 반응하는 촉각적 감각을 색의 표면에 입히고자 했어요. 온도나 습도, 공기의 밀도 등에 따라 표면의 두께와 물감의 농도, 그리고 색을 입히는 방법이 정해지고, 순간을 고요하게 마주하며 자연스럽게

흐르거나 서로 번져 이접되는 등 추상적 표현이 펼쳐지도록 허용하는 방식이죠. 수평적으로 만들어진 표면들은 아름다움과 더러움, 가치와 쓸모없음 등 이분법적 구분이 어려움을 드러내요. 작가는 이번 작업을 위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쓰지 못했던 물감들을 주재료로 사용했는데요. 바로 이 물질들은 작가가 마주한 계절과 온도를 모두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래간만에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하얀 캔버스에 변화된 물감의 상태를 최적화하는 방식의 작업을 구현했어요.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

ALL 공연이나 행사에 비하면 전시는 그나마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2020년 겪어낸 경험치가 있어서 특별히 힘든 지점은 없었어요. 다만 코로나19는 주제 면에서, 인간에게 직관적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생태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위생이 중요한 이슈가 됐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혐오가 커지는 상황이 저희 전시와 맞닿아 있었어요.

팬데믹이 특정 지역, 특정 동물, 특정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동에서 비롯됐음을 연상하길 바랐어요. 인간이라면, 이 상황에 대한 피해자가 아니라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것어요. 그리고 이번 전시는 금천문화재단의 관심으로 금천구 공립 유치원 및 학교에 전시 관련 공문을 보내주셨어요. 단체 관람은 사실 단점이 많지만, 새로운 공간과 전시를 집중적으로 선보이고, 수줍은 관객을 찾아내고, 단체관람객들의 대화 주제가 될 공통의 경험치를 제공하는 일은 장점이었죠. 특히 이들이 현대미술의 첫 경험으로, 대형 미술관에서의 고압적인 분위기보다 다양한 생각들을 수월하게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체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테고요. 능동적으로 현대미술에 다가가는 두 번째의 경험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단체관람으로 연결되지 못한 지점은 못내 아쉬워요.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ALL '걸레색'이란 단어를 두고 초반에는 고민했으나 사실 생활과 아주 밀착된 언어였어요.

범일운수종점Tiger1 공간 앞에 포스터를 붙이자 지역 내에 많은 호기심을 불러왔고, 덕분에 이게 무엇인지 들어와서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죠. 덕분에 저희 공간과 단체에 관해 알게 된 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특히 공간 바로 앞에 있는 경찰관분들의 관람이 기억에 남아요. 지역 내 모든 공간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에 5년간 지켜보며 저 공간은 뭘까, 궁금증이 커져도 차마 들어올 엄두가 나지 않았대요. 버스회사 노조 사무실인가, 매번 인테리어가 바뀌는 걸 보니 인테리어 사무실인가 등 온갖 추측을 하다

제목은 보고 궁금해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방문하셨더라고요(웃음). 전시도 전시지만 저희 존재에 더 당황해하셨어요. 돈도 안 되는 전시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여해 정해진 시간마다 열고, 파는 물건도 없이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뭔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그러면서도 세상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신선하다고. 민망하게 경외심을 느낀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네요. 전시를 설명할 때마다 시작하는 말은 "우리 아이가 물을 엮질렀었어요"였어요. 미술



▲ 신현영, 파도의 틈새, 설치, 오일, 스프레이, 염료, 실크, 캔버스 천, 앵글, 135 × 100 × 180 cm, 2021

제도권에서 오신 분들은 <걸레색>이라는 제목에서 나름의 예상을 하고 온 터라 전혀 예상치 못한 첫 문장에 신선해 했고, 반대로 지역주민들은 오늘도 내가 겪은 이야기로 시작한 문장에 긴장한 마음이 누그러지며 귀 기울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인 우리 아이는 전시 기간 내내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주었던가 봐요. 한 달간의 전시가 끝나고 텅 비워진 전시장을 보고 많이 속상해했거든요. 우리 공간, 우리 전시라고 입에 달고 다니다 보니 작품도 우리 것으로 생각한 거죠. “작가님들이 우리 전시를 위해서 특별히 빌려주셨던 거야”라고 설명하자 아이는 “시시해”라고 답했어요. 마음에 안 들 때 시시하다고 표현하거든요. 이렇듯 이번 전시를 통해서 앞으로도 일상의 작은 사건들을 증폭 시켜 보고 싶다고 생각해 보게 됐어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ALL 생활의 순간들이 그저 날아가지 않고 예술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인지한 사업 같아요. 이전까지만 해도 예술인의 정체성은 생활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어요. 이전 예술이 동시대의

여러 상황을 주제로 가져오면서, 예술가의 다양한 상황들도 예술 영역으로 가져올 명분이 생겼어요. 컨템포로컬은 한 아이를 키우는 예술가 부모이기도 한데요. 예술창작, 양육, 생계가 시공간이나 역할로 분명한 경계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고군분투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만이 가져올 수 있는 창작의 원천으로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생활을 바꾸는 예술»은 저희의 상황 그리고 동시대 예술가의 상황, 모두가 주인공인 동시대 예술에 최적화된 사업이 아니었나 싶어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ALL 공유워크숍은 예상외로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요. 섬세한 기준으로 나는 그룹도 좋았고 서로 간의 깊은 이해와 더불어 비슷한 지점을 바라보는 팀들을 만날 수 있어서 미래의 동지를 만난 듯했어요.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었기에 코로나 상황임에도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추진한 것으로 알아요. 다만 결과자료집은 한 분이 36팀을 서면 인터뷰해야 하는 상황이라 생생함이

지속되기 어렵고, 밀도 높은 이야기가 오가기 어려운 상황인 게 아쉬워요. 공유워크숍처럼 결과자료집에서도 특화된 모더레이터가 그룹별로 배정되어 집중도 있는 문답이 온라인으로나마 이루어져 결과를 선보이는 방식에도 현장성을 담으면 좋겠어요. 각 프로젝트를 방문해 리뷰를 맡은 심의위원이 그 역할을 겸해도 좋겠고요. «생활을 바꾸는 예술»은 프로젝트 현장에 함께 했는지가 중요한 공감 기준이 아닐까 해요.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ALL 우리 아이가 걸레를 잡았던 순간이요. 그렇게 특별하지도 거대하지도 않은 순간이지만 그간의 노력이 유의미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공교롭게도 아직 애 아빠는 걸레를 잡지 않았어요(웃음). 애 아빠가, 제 아빠가, 그 이전의 아빠가 걸레를 잡지 않는 일이 일상처럼 수없이 되풀이되더라도, 저와 다른 세대의 저 같은 존재들은 그 상황에 절대 무뎌질 수 없고 무뎌져서도 안 된다는 메시지가 전달된 예술이었으면 해요.

Q 컨템포로컬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ALL 걸레를 단 한 번도 잡지 않은 이들이 접하길 바라요. 아마 자신은 더러운 상황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며 자신의 더러움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이일 경우가 다분하거든요. 어떤 분은 몰티슈로 하느라 걸레를 잡아본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이런 분 또한 결국 더러운 것이 싫어서 직언할 수 없는 생태에 썩지 않는 더러움을 넘기는 것이라 큰 맥락에선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제발 당신의 더러움을 다른 존재에게 넘기지 마세요. 또한 더럽다는 존재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께 섞어서 몰아넣지 마세요. 그들은 각자 고유의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장종말론: 입문편

제너럴리스트

- 전문 배우가 없는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를 만드는 제너럴리스트, 이해형입니다.

☞ @generalkunst Instagram

☞ @generalkunst Facebook

☞ generalkunst.com/aeot

Q <극장종말론: 입문편>은 '극장이 종말한다'는 극단적인 상상에서 출발해요. 터무니없어 보이면서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 접어들며 가장 먼저 접근이 차단된 곳이 예술공연계이기 때문이죠. 극장이 종말한다는 가정을 해보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HR 작업자로서 극장 바깥에서 주로 작품을 선보여요. 공원이거나 낡은 여관, 골목길, 기차역에서 공연했죠. 그러나 관객으로서는

전통적인 무대 예술에 오랫동안 빠져있었고, 극장을 제집 드나들듯 해왔어요. 장소특정형 작품을 만들고 거리예술공연을 즐겨 찾는 동안, 제가 극장을 '떠났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우연한 계기로 프로시니엄 극장 무대에서 공연을 만들게 되었는데, 첫째 아이가 3살이라 육아와 작업이 여러모로 겹쳐진 생활 중일 때예요. 극장 작품을 준비해보니 극장밖에서는 느끼지 못한 규범들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장 큰 계기는 극장이 '노키즈존'¹이라는 자각이었어요. 제가 만든 공연을 아이가 볼 수 없는 상황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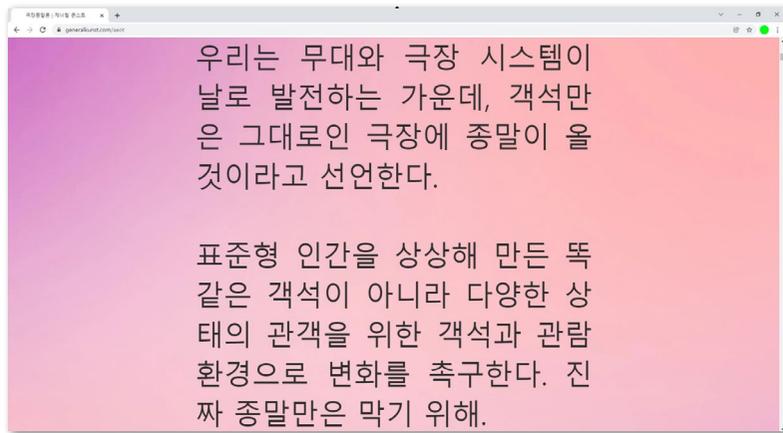
1 No Kids Zone, 영유아와 어린이가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을 가리키는 신조어

아이러니하게도 객석에 들어올 수 없는 아이가 무대에 서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낯설게, 정확히는 양면적이라고 느꼈어요. 이런 차별적인 공간 설정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에 분노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제가 사실은 극장에서 '쫓겨났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노키즈존은 결국 가장 만만한 약자의 출입을 금한다는 점에서, 극장을 바탕으로 차별이 가시화되는 시스템을 드러내 보이고 싶다고 마음먹었어요. 극장이 7세나 12세 이상 관람가라고 설정한 것이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시끄럽고 약한 자들을 막는 것이라면, 극장은 망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Q 만약 극장이 종말한다면 관객이 0이 되는 순간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극장종말론>은 극장이라는 장소에 주로 접근하는 사람과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작업을 진행해요. 전자는 2030 여성 관객, 후자는 영유아, 어린이, 야간 노동자, 외국인, 발달장애인, 그리고 보호자로 드러나는데요. 각각 시간이 흐르며 세대교체가 된다는 점, 과거부터 현재까지 줄곧 고정되어 왔다는 점에 집중해요. 지금은 사라진 2030 여성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어떤 점이 두드러졌는지 궁금해요.

HR 우선, 사라진 2030 여성에 관한 인식은, 그게 곧 저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잡은 후 줄곧



기대되는 부분이었어요. 인터뷰는 각자가 보낸 어떤 시절을 돌아보며 지금의 상황을 말하게 되는, 즐겁고 격렬한 대화 자리이기도 했죠. 인터뷰가 좋아하는 공연 장르, 시기에 따라 다루게 되는 이야기는 제각각이지만, 중심이 되는 감정은 분노였던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여성들은 뭐든 다 할 수 있고 능력을 펼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여성에게 부과되는 차별적인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에 비하면 극복 가능한 정도라고 여기는 듯해요. 그렇게 나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오다가, 결혼이나 출산, 육아의 상황에서 자신이 정확하게 약자의 위치에 놓인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죠. 노키즈존이 그 예예요. 아이가 우는 것은 당연한데, 아이가 울면 '엄마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그렇다'라거나, '저런 상황에서 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느냐', '맘충이다' 같은 시선을 받아요. 너무 일상적인 부분이라 감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한때 자신들이 가장 사랑했던 장소인 극장으로 옮겨보면, 공기처럼 떠돌던 차별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듯해요. 극장에 갈 수 있던 과거의 나와 극장에 갈 수 없는 지금의 나. 처음에는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는 곳으로 극장에 집중했다면, 인터뷰

과정을 거치며 극장과 나의 관계를 들여다보고서, 극장에 갈 수 있는 몸이 결국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을 의미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어요. 세상에는 그게 불가능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시간을 제때 맞출 수 없고 시끄럽고 뭔가 부족하다 여겨져서 이른바 '교양있는 관객'이 될 수 없는 거죠. 남은 기간 이 부분에 주목해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고 싶어요.

Q 사회학자 김홍중의 개념인 '파상력'을 차용해, 관객을 수익 창출을 위한 덩어리로 뭉뚱그리는 대신 왜 특정 층만이 주관객으로 자리 잡는지, 보이지 않는 관객들은 어떤 이유에서 극장에서 비켜나 있는지 하나씩 분해해서 질문해보요. 이렇게 하나씩 파괴해본 뒤에 무엇이 남고, 또 무엇이 생길 거로 예상하시나요?

HR 이번 작업에 글을 써주기도 한 조기현 작가가 초기에 제 아이디어를 듣고 김홍중 선생님의 책을 추천해줬어요. 책에서는 '상상력이 허구적인 대상을 발생시키는 능력이라면 파상력은 생생이 아니라 파괴의 형태로 발현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극장을 이렇게 저렇게

바뀌 새로운 극장을 상상해보자고 하는 것과 이르면 극장은 망하고 폐허만 남을 것 같다고 상상하는 것의 차이랄까요. 둘 다 같은 지점을 다룸에도 차이가 있어요. 책에서는 단단한 이미지가 깨지고 흩어져 폐허로 붕괴될 때 현실이 드러나는 충격이 파상력을 통해 가능하다고 해요. 정말 <극장종말론>의 기획과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죠.

극장의 접근성에 관해 최근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런 것까지 해줘야 하나’라는 식의 태도가 남아 있다고 봐요. 지금의 객석이 익숙하니까 극장을 바꾼다는 게 당장 하나도 급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로 극장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하고, 급히 온라인 상영을 해보지만 이미 다양한 플랫폼들이 영화나 드라마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보였어요. 실제로 위기가 느껴지니까 뭔가 바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고, 포럼이나 관련 연구, 작업도 생기고요. 그걸 보면서 관객 접근성이 해결되지 않을 때 생겨나는 위기에 대해 말해보고 싶었고, 그게 종말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거예요. 만약 극장이 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일 수 있겠지만, 결국 관객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곧 극장이

망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애초 올 수 없는 관객에 대해 말하지 않을 때 진짜 망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지금 객석 규범이 가진 한계가 조금이나마 드러나리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Q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배리어프리’를 활발하게 이야기해요. 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인 장벽을 허물자는 내용인데요. “아이를 비롯한 약자를 위해 새로운 자리를 마련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데서 교집합이 보여요. 문화누리카드 같은 경제적인 접근 외에 적극적으로 변화를 꾀해야 하는 영역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HR 아직도 한참 모자라지만, 수어 통역과 문자 통역 등이 진행되고, 그 한계와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는 등 극장 접근성에 관한 논의가 꽤 활발해지고 있다고 느껴요. ‘터치 투어’ 형식으로, 시각 장애인이 공연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무대에 올라가 오브제나 장치를 만져보고 설명 듣는 것을 진행하는 팀들도 있고요. 휠체어 접근성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휠체어석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최선인가의 문제까지 얘기하는 극장과 공연단체도 볼 수 있는 시대니까요. 지금까지는 주로 장애인 접근성 중심인데요. 논의가 확대되면 결국 아이들도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거로 예상해요. 다만 저는 아이들 차원에서도 접근성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끄럽고 연약한 존재인 어린이의 보호자로서 겪은 불편과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그렇게 다양한 차원의 접근성 논의가 만나게 될 때 또 다른 힘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 계기가 있는데요. 우선,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서울의 지하철을 이용하며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이동 구간이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게끔 디자인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알고 보니 장애인들이 목숨 내걸며 치열하게 이동권을 투쟁한 결과물이더라고요. 그 수혜자가 나라는 걸 깨닫고, 유아차를 가지고 다니면서는 언젠가 갇아야 할 뉘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는, ‘장애인영화제’에 아이와 함께 갔던 경험이에요. 동료의 영화를 보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장애인영화제 사무국에 전화했어요. 보통 아이 관련 문의에는 매뉴얼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답을 기다리는 동안 내가 괜한 걸 요구했나 싶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그런데 장애인영화제는, ‘15개월 아이와 함께 유아차를 끌고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냐’는 물음에 단번에 물론이라고 답했어요. 안전한 관계이자 공간을 만난 그때의 기본은 잊을 수 없어요. 그렇기에 제가 선 자리에서 고민할 것을 찾게 됐다고 보는 거죠. 적극적으로 변화를 요구해야 할 부분에 관해 많이 고민했어요. 작업 계획 초기에는 연극 관람 규범이나 관람 태도가 여유로워지는 게 필요하다는 식으로 접근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과정에서 다소 나이브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이 우선 같지만, 실은 장소가 먼저가 아닐까 싶은 거죠. 장애인 주차 공간이 확보된 지금의 주차장을 보면서요. 확실히 주차할 곳이 있다고 생각해야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아니라면 가도 될지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더라고요. 이 고민을 극장으로 옮겨보면, 먼저 이들을 위한 자리-객석이 극장에 확보되어 있어야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리 벽으로 분리된 공간이든, 조금 넓은 자리든, 이동이 편한 형태의 객석이든, 다양성이 반영된 자리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복지할인과

같은 혜택이 경제적인 허들을 낮출 수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할인을 받아도 극장에 가서 앉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제가 만난 분 중에는 “할인을 받지 않더라도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해주신 분도 계세요. 복지할인은 동등한 좌석을 저렴하게 제공 받는 게 아니라, 그 할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열악한 자리만을 제공 받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휠체어석의 경우 좌석 위치를 선택할 권한이 현저히 적고 휠체어석을 예약하는 과정도 일반석보다 복잡하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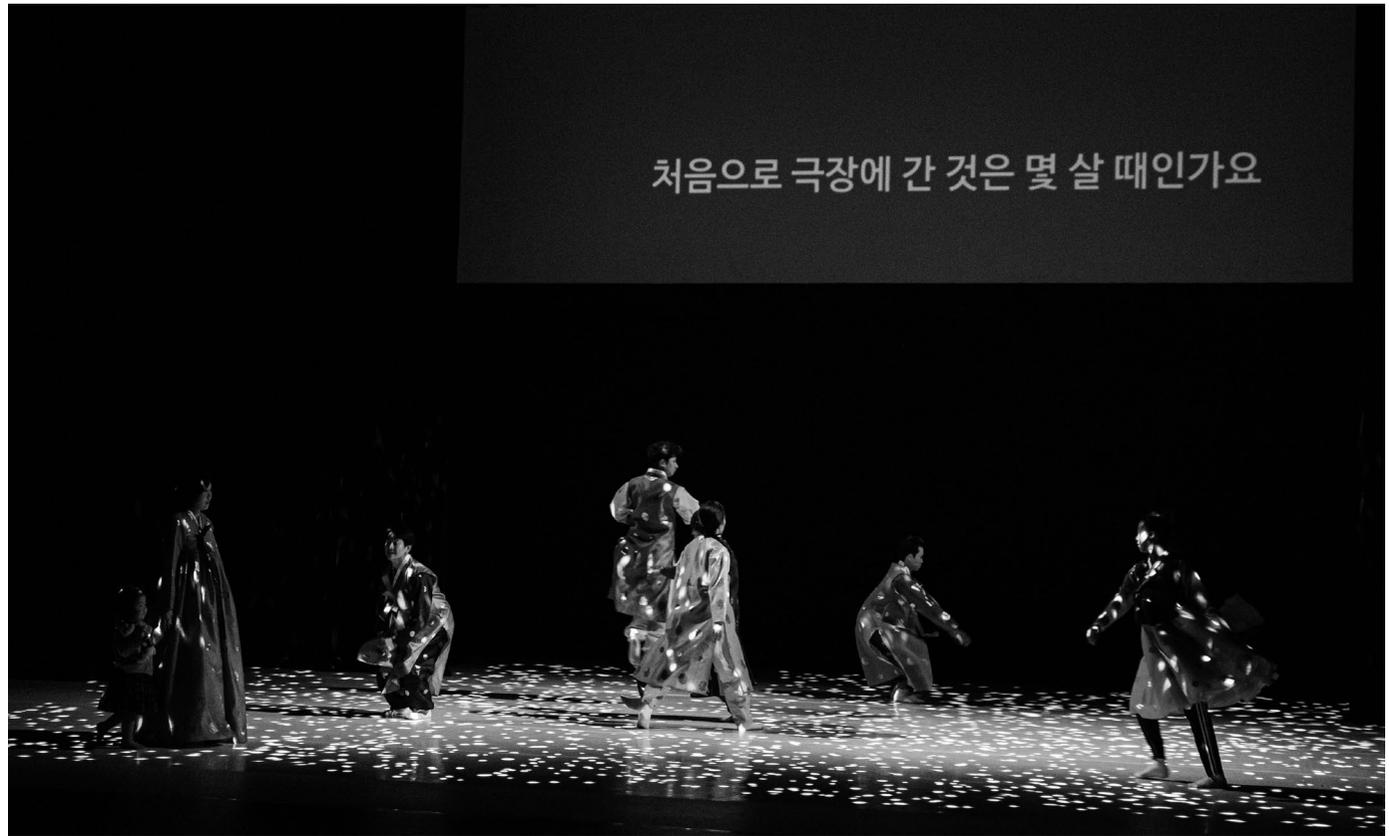
Q 변화가 필요한 공간으로 극장을 바라볼 때의 한계도 뚜렷하다고 보셨죠. 공연예술생태계에서 극장은 다수가 공공극장이고, 재원은 정부 예산이기에 극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요. 편지쓰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내용을 편집해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공극장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보낸다는 실천이 반가워요.

HR 우선 정부 예산이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게 보편적이지만, 반대로 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극장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요. 객석을 바꾸는 게 정말로 어려운지 반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객석 수를 늘리는 형태의 공사를 했던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결국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가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방향을 만들잖아요. 당장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에 주목하지 않고 장기적인 시야로, 다양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극장의 시설을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여겨요. 이 작업이 단지 물리적인 시설 개선의 차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편지라는 형식이 중요했어요. 극장 시설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코

의도하거나 작정하고 배제하는 게 아닌데, 극장에 갈 수 없는 이들이 많아요. 그 풍경을 우선 공유하고, 의식 차원에서 이 미묘한 규범들이 실제로 어떻게 거대한 차별의 벽처럼 느껴지는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 보고서나 이미지보다는 편지와 어울린다고 판단했지요. 특히 두 번째 편지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노년 여성 노동자인 윤옥순과 윤수부 두 분의 인터뷰를 통해 극장에 가지 않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짐작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공연 정보를 접하는 것부터 예매하고 극장에서 예절을 지키는 과정 전체가 노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들이 공연을 싫어하나?’ ‘낯설고 새로운 연극을 꺼리나?’ 하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갈 수 없어서 안 가고, 보는 법을 몰라서 못 보는 것뿐이었어요. 극장은 결국 사회 시스템과 무척 비슷해요. 극장을 통해 사회 시스템이 가진 차별적인 문제를 편지 속 이야기로 담아내고 싶어요.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HR 코로나19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지만 드러내는 다른 문제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극장에 가고 그 경험을 토대로 인터뷰하고 리서치하는 게 더 원활하면야 좋겠지만, 상황상 다 같이 모여 극장에 가는 형태의 워크숍은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외했어요. 그건 코로나로 인한 한계나 어려움 중 하나였을 거예요. 역설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극장이 멈춰기 때문에 위기감이 발현되는 것을 목격했고, 제가 이 기획을 꺼낼 수 있었어요. 아무 탈 없이 돌아간다면 아무도 극장의 종말을 의심할 리 없었을 거예요. 극장이 위기라는 인식에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극장 접근성이 큰 문제이고, 이것이 극장의 다른 위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게 어떤 풍경일지 함께 이야기해보자고 말할 수 있었어요.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HR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는 자리로 ‘익명의 극장종말론자 모임’을 만들었어요. 관객이 객석에 있을 때 보장받는 익명성에 착안해,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 극장의 면면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관객 모임이에요. 지금은 모집단계고 조만간 줌으로 모임 예정이에요. 지원서 내용만 읽어도 흥미로워서 나중에는 모임을 키워보고 싶기도 해요. 또 전통적인 붉은색 시트의 객석에 어울리지 않거나 들어가 앉을 수 없었던 다양한 몸을 가진 관객들이 객석을 점유하는 동명의 퍼포먼스도 해보고 싶어요. 좋은 공연이 있다면 회차를 하나 통째로 구매해서 새로운 축제처럼

단체관람을 해보는 거죠. 재미있을 것 같아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HR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기획한 작업이지만 실행해볼 만한 알맞은 계기를 만나지 못했어요. 완전히 예술 작업도 아니고, 반대로 사회참여 운동이기만 한 것도 아니라서 위치성이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생활을 바꾸는 예술»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 애매함을 부정적으로 치부하지 않고 풍성하게 해석해보는 기회를 가졌던 듯해요. 싹을 틔운 부분이 있다면,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관객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수집해 웹사이트를 구축한 부분이예요. 국회의원부터 작가, 주부, 시민활동가, 초등학교 교사 등 다양한 분들이 ‘극장종말론’에 동의하고 이야기 나눠주셨어요. 웹페이지를 디자인할 때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졌어도 극장에 앉으면 똑같은 관객이고, 누구든 그런 동등한 권한을 가진 관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는데, 형식적으로도 담아낼 수 있었던 듯해요. 개별 서사를 드러내는 방식에서도, 그 인물이 누구인지보다는 어떤 관객인지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했다는 게 의미 있는 기록물을 남기는 데 도움을 줬어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HR 지금 이대로도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안 바뀌면 좋겠어요!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HR 참여자 대부분이 당연시되던 극장 규범에 문제를 제기해보고 의심해보는 과정이 즐겁고 뜻깊었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이전에는 예술이 가진 권위 때문에 관객으로서의 개인은 아주 작게 느껴졌는데, 자신도 이야기해볼 수 있는 주체이고 예술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라고 인식하는 계기였다는 점도 짚어주셨죠. 극장 규범을 의심해보는 경험 덕분에, 일상 속에서도 당연하고 편리하게만 여겼던 점들이 누군가에게는 차별이나 배제의 기제로 작동하는 것은 아닐지, 다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또한 이 작업이 남긴 좋은 흔적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요.

Q 제너럴쿤스트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HR 타깃 그룹은 둘로, 하나는 극장에서 어떤 불편함을 느꼈는데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반 관객들이고, 다른 하나는 극장 관계자분들이에요. 관객들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을 텐데, 그들에게 마이크가 쥐어진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관객이 공연을 완성한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만 관객을 인식해온 건 아닐까 싶어요. ‘정말 관객이 중요하다면 관객을 위한 노력이 무언가 있지 않았을까?’ 영화나 스포츠 경기가 관객에게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를 제시하는 데 비해, 공연예술은 그렇지 않거든요. 공연예술의 관객이 영화나 스포츠 관객과 크게 다른 것도 없고요. 반대로 공적 지원을 받는다면 지금보다 정확하게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극장 관계자분들이에요. 관객을 무시하거나 객석에 관심이 없어서 다양한 관객들을 고려한 변화가 생겨나지 않은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분들이 일궈온 시스템이 있기에 극장이 돌아가고 무대에 공연이 오를 수 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공공극장은 워낙 행정적인 업무나 그 밖에 신경

써야 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놓인 곳이라는 점도 고려해요. 하지만 극장이 멈춰고 위기라는 인식이 있다면, 기존과 다른 방식의 개선이나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고, 제 작업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생기리라 믿어요. 관객들도, 극장 관계자분들도, 그리고 저 또한 극장이 망하는 것은 바라지 않으니까요.

모던 그로테스크 타임스 Modern Grotesk Times

Caligolite

- 콜렉티브 칼리고라이트 (Caligolite)는 소설을 쓰고 번역하는 한아임, 전시를 만들고 글 쓰는 이혜원, 프랑스 철학을 전공한 웹개발자 이민경의 연구 모임입니다.
- ☞ @m_g_times
- ☞ moderngrotesquetimes.com

Q ‘모던 그로테스크 타임스 Modern Grotesque Times’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혐오와 폭력의 기저에 존재하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관찰하고, 이를 다채로운 방식으로 탐구하여, ‘정상성’ 의미를 확장해 보고자 시도”해요. 미래를 유연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의 ‘정상’을, 그리고 ‘일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셨죠. 내 일상이 누군가에게 침해받고, 일상의 평안함이 유지되지 않는 순간 정상/비정상, 호의/혐오, 확대/폭력의 구분이 뚜렷해지는 듯한데요. 프로젝트를 통해 관찰한 틈에 관해 소개해드릴까요?

ALL 일상에서의 ‘틈’은 산재해 있는데요. 특히 ‘모던 그로테스크 타임스’ 프로젝트에서 이야기하는 틈이란, 대개 사회문화적으로 ‘정상’으로 일컬어지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낙차와 그런 것들로부터 느껴지는 기묘한 감각을 말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로테스크(Grotesque)’라는 개념으로 포착하면서, 평소 깊게 살펴보고 싶었던 틈들을 ‘모던 그로테스크 타임스’를 통해 탐구했어요. 먼저, 개념적인 토대가 되는 연구로 이혜원과 한아임은 공동 번역



프로젝트를 통해 <괴물성: 시각 문화에서의 인간 괴물>(2021)이라는 번역서를 출간하면서 고대부터 현재까지 서양 문화에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용인될 수 없는 존재들을 시각적으로 재해해 온 역사를 살펴봤어요. 이를 통해 '정상적인 인간' 내지는 '정상성'의 이미지라는 것이야말로 수많은 '틈'의 집합체라는 역설을 확인했죠. 더불어, 한아임은 '동시대 서울'이라는 시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초자연적인 판타지 소설 <유랑 화가: 심상의 그놈>을 연재하면서, 오늘날 지금, 여기에서 '현실'과 '가상'의 흐릿한 경계에서 일어나는 그로테스크한 지점들을 이야기로 풀어내요. 이해원은 그러한 틈이 증폭된다고 여겨지는 네 가지 키워드, '샤머니즘', '가족', '북한', '장소'를 선정하여 이를 동시대 시각 예술가 4명과 함께 작품으로 발전 시켜, 전시로 엮어내고요.

Q 최근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갈등과 논리를 보며 정상성이 얼마나 공고한지 느끼곤 해요. 내가 소수자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모습에서는 확고함이 놀랍기까지 한데요. 이렇듯 정상성은 사회의 분위기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어느 순간 나와 타인을 검열하기에 이르러요. 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사고와 삶의 방식에서 유연함을 갖는 것'으로 두셨더라고요. 저는 그 유연함의 첫 발걸음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태도가 아닐까 해요. 칼리고라이트가 보시는 유연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ALL 한마디로 '견고함을 통한 유연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프랑스 작가 볼테르(Voltaire)가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의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말을 할 권리를 지킬 수 있다면 목숨도 걸겠다.’

그 말이 무엇이든, 어떤 쪽이든, 말을 못 하게 하면 민주주의가 끝난 거라고 봐야죠. 다만 말, 그리고 그것에 담긴

이상이 무엇이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행할 에너지를 남겨두는 쪽의 말이 현실이 될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흠어지거나 삭제되는 일 없이 유연해질 수 있으려면, 타인에게 과도한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생각과 말에 따라 견고히 살아야 한다고 봐요. 타인은 타인대로 두고요. 이것이 '견고함을 통한 유연함'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흠어지거나 사라진 것을 유연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Q 프로젝트와 동명의 홈페이지도 개설하셨죠. 매달 주제를 가지고 전시와 소설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샤머니즘, 가족, 북한, 장소처럼 일상에 아주 찰싹 붙은 주제에 기괴함을 느낀다는 건, 무채색과 원색으로만 존재하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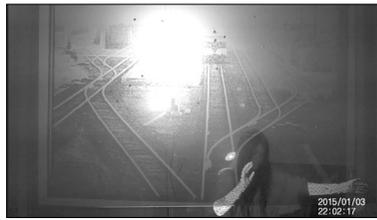
세계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는 일이 아닐까 해요. 칼리고라이트가 일상에서 그로테스크, 기괴함을 발견한 기억이 있다면, 몇 가지만 나눠주실래요? 혐오와 폭력을 마주한 순간을 나눠달라는 말이기도 해요.

ALL 일상에서의 '그로테스크함과 기괴함을 발견한 기억'이 꼭 '혐오와 폭력을 마주한 순간'으로 등치 될 수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그로테스크함과 기괴함'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태도가 많은 경우 혐오와 폭력을 수반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로테스크함을 느끼는 감정과 인식의 기저에는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사회문화적 가치 체계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 가치 체계가 권력관계 내에서



기술어진 방식으로 활성화될 때, 혐오와 폭력은 그 문어적 용어에서 느껴지는 생경함과 달리, 우리의 일상 안에서 일상적으로 발현되기 때문이에요. '동시대 서울'이라는 시공간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저는 몇 가지 '서울-특정적'인 키워드를 마주할 때, 이러한 그로테스크함과 혐오/폭력의 기묘한 상관관계를 발견하는데요. 우리 삶의 일부이면서 다른 세계의 것인 '샤머니즘'이 그러하고, 나와 일상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 가장 촘촘하고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는 존재인 '가족'이 그러하죠. 반대로 내 일상에, 내 세계에 시스템상 존재하지 않지만(혹은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엄연하게 내 삶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북한'의 존재가 그러하고, 분명히 물리적으로 굳건히 존재하지만, 그 실체에 접근할 수 없는 특정한 서울의 '장소'가 그러해요.

Q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닥치자 혐오와 차별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체감해요. 타인을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 없이 쉽게 판단, 차별, 혐오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ALL 첫 번째는 나와 다른 타인의 가치관이나 행동을 마주했을 때,



그것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을 유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어' 정도로 말이지요. 그것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요. 두 번째는 나와 다른 타인의 가치관이나 행동을 '그럴 수도 있어'라고 인정하는 일이 결코 타인의 의견과 가치관에 동조하거나 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태도예요. 그저 나와는 다른 생각을 도출하게 된 그 조건과 상황을 중립적으로 이해해보려는 시도니까요. 이해가 꼭 긍정과 동의는 아니예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일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도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일에 대하여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분노하는 것을 봐요. 하지만 이는 나에게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앗아가는 일이지요. 가치평가와 이해가

꼭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을까요. 이 태도를 견지하면 훨씬 자유로워지지 않을까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간접 경험할 수 있게 되니까요. 분명 더 크고, 넓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ALL 코로나 팬데믹이 보편화한 디지털 비대면 의사소통 방식을 차용하여, 그것이 '대면 소통방식의 차선책의 지위를 넘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또한 가능하다면 '대면 방식이 건져 올리지 못한 것을 비대면이 성취해낼 수 있는지' 등을 실험했어요. 팬데믹 이후를 상상해 보고자 하는 부분 또한 프로젝트가 생성하는 주요한 의미 중 하나였다고 짚고 싶어요. 특히 본 프로젝트는 온라인 미디어를 단순히 매체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프로젝트가 수행하고자 하는 형식적 실험의 주요 대상으로서 온라인 미디어를 다뤄요. 온·오프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인 '모던 그로테스크 타임스' 프로젝트 기획의 모든 소통·의사결정은 기획자 이해원(한국)과 한아임(미국)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SNS,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고요. 이제 비대면 소통은 대면 소통의 아류나 보조 수단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독립된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대면 소통방식만이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분명 있겠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그에 못지않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더욱 섬세한 조율과 배려가 필요했고, 그랬기에 결과적으로 더욱더 촘촘하고 정교한 소통이 이루어졌던 듯해요. 그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ALL 길티 플레저(Guilty pleasure)라는 말이 있죠. 이상하다고 느끼거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끌리고 만족감을 주는 대상을 의미해요. 제게는 비정상적인 것, 기묘한 것에 관심을 두는 일이 그랬어요. 프로젝트 시작 전, 솔직한 저의 심정은 '왠지 관심 가지면 안 될 것 같은 기괴하고 기묘한 대상들을 이제는 공식적으로(나랏돈으로) 실컷 탐구해보자!'라는 사적 호기심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번역과 전시를 통해 사회문화적으로 비정상이라고 여기는 것, 기괴함 같은 것들이 우리가 정상 혹은 일상적이라고 여기는 것들과 동전의 양면처럼 근접한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이러한 주제의 연구서를 번역하면서, 가벼웠던 사적 호기심이 심도 있는 지적 호기심으로 변모한 것이 무엇보다 큰 변화예요. 해서 이러한 지적 호기심을 유익한 학문적 결과물로 연결 지을 수 있도록, 관련된 주제의 외국 연구 자료를 번역하는 일을 지속하고 싶어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ALL «생활을 바꾸는 예술»은 무엇보다 새로 시작하는 예술가와 기획자들에게 문턱이 높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기획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서 타 지원사업보다 장점이 있어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ALL 유지했으면 하는 면은 지금처럼 이제 막 시작하는 초심자들에게 열려있고 자유로운

자원사업의 성격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보완하면 좋은 면은 선정된 프로젝트들에 대한 홍보 지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는 부분이에요. 홍보는 프로젝트 진행자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재단이 가지고 있는 채널이나 방법 혹은 연계될 수 있는 홍보의 지점들을 함께 고민해서 공공의 재정으로 진행된 예술 프로젝트가 더 많은 사람에게 가 닿을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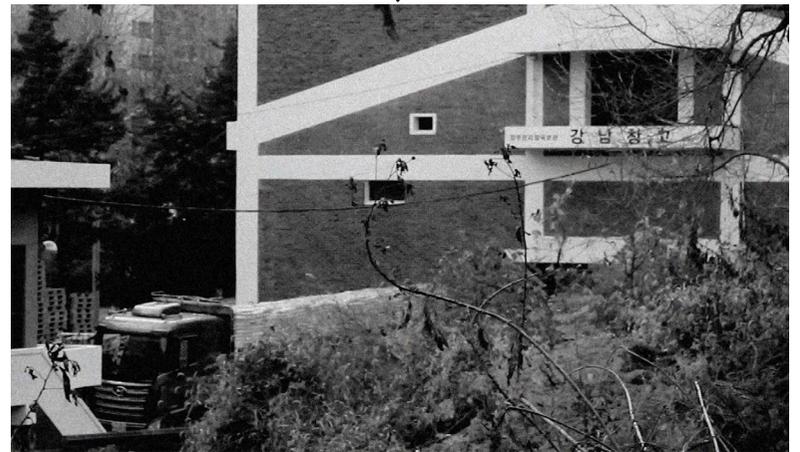
HW 제게 예술은 다양한 의미에서 ‘꿈’이었어요. 개인적인 의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큐레이터로서 이름을 내건 전시를 만들었고, 번역가로서 이름을 올린 책을 출간하게 되었어요. <모던 그로테스크 타임스>는 기획자이자 번역가의 꿈을 꾸어 온 저의 커리어에 단단한 첫 뿌리를 내려 결코 작지 않은 흔적을 남겼어요. 동시에 예술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시각 예술가들과 협업하면서, 예술 기획자로서 평생 고민하고 발전 시켜 나갈 질문과 키워드를 얻게 된 것이

가장 큰 흔적이예요.

AI 무엇보다 창작자 자신의 고유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실감했어요. 그 고유성과 고유성을 알리는 행위를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는 시대 같고요. 이 시대가 주는

도구, 특히 기술을 적절히,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예술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Q 칼리고라이트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ALL 자신의 존재 여부가 의심되는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본다면, ‘나’의 바깥을 구성하는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던, 자신에게 고유한 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존재가 공고해지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너무 다양해서 마치 ‘나’라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는 것 같은 나’조차 나의 일부라는 점을 체감하는 데에는 ‘평소’라고 생각했던 것에 사실은 기괴한 면이 있음을 관찰하는 게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해요.

예술의 가장자리: 예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신수연

●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저만의 방식으로 풀어내고 싶은 문화기획자 신수연입니다.

Q ‘예술의 가장자리: 예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에서 ‘가장자리’라는 표현이 걸렸어요. 수연 님이 앞서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를 체감하셨나 하는 짐작이 드는데요. 가장자리에 주목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SY 2020년 청년정책네트워크 문화예술분과 모임에서 들었던, 한 청년 도예가의 말을 인용할게요.

“나는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졸업까지 7년을 도예만 공부했고 할 줄 아는 게 이거뿐인데, 국가는 나를 도예 예술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아 ‘예술활동증명제도’를 찾아보게 됐어요. 저는 문학 전공자인데요. 문학 분야는 등단과 출판으로 정해진 길이 있어요. 특히 등단은 문단이라는 비정형화 기득권에 기대야지만 문학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제겐 그 사실이 꽤 충격이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장르들은 어떻게 하는 공금증에 리서치하다 보니, 제가 파악한 것들보다 다양한 문제를 알게 됐어요.

Q 예술활동증명의 사각지대를 알리고 비주류 예술인들에 대한 기회 제공 방식을 찾는 탐구를 지속해보겠다고 하셨죠. 여기서 얘기하는 ‘비주류 예술인’이란 어떤 분들인가요?

SY 기본적으로 ‘예술활동증명제도’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얘기해요. 예술활동증명은 국가라는 거대 집단이 개인을 예술인으로 인정한다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국가는 무슨 권리로 예술인을 정의하고, 특정 인물을 예술인으로 명명하는 걸까요? 물론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해 제도를 만들었고, 혜택을 받는 이들도 존재하겠죠. 하지만 선한 의도가 무조건 선한 결과를 낳지 않듯이,

이 제도 속에서도 소외되는 이들이 발생했어요. 절대다수의 행복을 말하는 구시대적 공리주의의 폐해를 우리의 정치 공동체가 범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꼈고,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어요.

Q 생활고에 시달리다 명을 달리한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종종 접하곤 해요.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에 따르면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라고 하는데요. 예술활동증명 제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예술인이 발생하는 이유를 무엇이라 도출하시나요?

SY 우선 1순위로 행정의 편리가 큰 요인이라 생각해요. 문제가 대두되어 지원은 해야겠는데, 뭘 어떻게 지원할지 당사자 입장에서 고민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술인들과 소통도 있었겠지만, 원로한 예술인들이겠죠. 말씀하신 생활고로 명을 달리한 예술인은 “청년 예술인”이었어요. 2순위로 홍보 부족을 문제 삼고 싶어요. 홍보가 안 되니, 각자의 예술 영역에서만 활동하는 사람들은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뒤늦게 신청하려 해도 지금껏 해오지

않았던 행정적인 증빙들이 벽처럼 서 있는 거죠. 실례로, 공연 포스터에 본명이 아닌 닉네임을 썼다는 이유로, 그 닉네임이 당신의 본명과 동일하다는 걸 예술인 복지재단은 알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진과 얼굴이 같거나, 해당 공연 영상이 있다고 해도 그들이 받겠다는 증빙자료가 아니라며 거절해요. 이런 문제는 너무 심각해요. 또, 전시를 진행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리플릿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술활동증명이 거절되기도 했어요. 예술인 복지재단 입장은, 증빙을 위한 매뉴얼이 있고 그것을 지켜야지 나중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 절차와 상황은 알겠으나, 예술인 개개인에게 요구하는 정도가 과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Q 비주류 예술인을 찾아 네트워크를 형성, 정보를 공유하고 동료로 확인하는 부분까지 목표로 삼으셨는데요. 비주류 예술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SY 만나본 예술인들은 각자 다양한 어려움을 안고 있었어요. 그중 몇 가지만 나열할게요. 가장 많이 언급한 이야기는 ‘돈 걱정 없이 예술을 하고 싶다’였어요.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에서 예술은 정말 자본의 논리와 먼 활동이니까요. 그리고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에게만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봤을 때 느끼는 차별 해소, 법률지원, 예술 활동(전시, 공연, 시연, 연습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협업할 예술인을 찾을 네트워크의 부족 등 다양한 필요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Q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허용되는 예술’의 경계를 더듬는 과정에서 남은 것이 있다면요?

SY 예술의 가장자리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분명 실재한다는 것, 국가는 이들의 존재를 외면해서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남았다고 하기에 힘들지만, 이렇게 형성된 인프라가

언젠가는 함께 무언가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요.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이 나오기 전부터 «예술의 가장자리»를 탐색하기 위해 리서치하며, ‘나의 질문이 잘못된 건가?’ 하는 고민도 했어요. 예술활동증명을 한 사람들은, 그걸 왜 못하느냐, 그것도 못 하면서 무슨 예술인이나, 지원받는데 그 정도 기준은 맞춰야 하는 거 아니냐는 등 반대되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게다가 «생활을 바꾸는 예술» 심의위원 중에서도 ‘예술활동증명이 요즘 얼마나 쉬워졌는데 그걸 못하면 예술을 한다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냐’고도 하셨고요. 그런 의문이 남음에도 제 프로젝트의 가치를 믿고 선택해주신 심의위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SY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프로젝트 출발이 1달 정도 늦어졌어요. 지금 책 출판을 위한 원고 작업도 기한 내에 마칠 수 있을지 간담간담해요. 이를 제외하면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1대 1 인터뷰로 진행하다 보니 거리두기에 해당하지 않았어요. 굳이 어려움을 말하자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문체부, 예술인 복지재단 모두가 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개인의 힘이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SY 예술활동증명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예술활동증명제도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예술인 복지재단 등의 기관에 지속적인 건의와 요구의 목소리를 내고도 싶어요. 하지만 이 모든 활동의 궁극적 목표인 예술인들이 예술만 집중해도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싶어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SY 정말 고마운 사업이에요.

개인의 질문을 해소하는 데



지원해준다는 건 자칫 공공성과 멀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극히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질문들이 공공에 이바지할 것이란 믿음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시는 담당자분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덕분에 작년 말부터 고민하던 예술활동증명제도에 대한 질문을 «생활을 바꾸는 예술»과 함께 탐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질문드리면 늘 친절하게 잘 답변해주신 강민혜 주임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사업의 성과는 자칫 뒷사람들에게 집중되기 쉬운데, 정작 옆에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챙겨주신 분들의 노고가 잊히지 않길 바라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SY 저는 만족도가 아주 높아서, 보완할 점은 딱히 찾기 힘들어요. 굳이 더해주길 바란다면, 참여자들끼리의 네트워킹 또는 심의위원들이 멘토까지 연계되면 어떨까 생각해봐요. 이렇든 저렇든, 지금처럼 시민들이 함께 나눌 질문들에 지원해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인간 존재적 가치를 찾는 서울을 만드는 데

이바지해 주시길 기대해요.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SY «생활을 바꾸는 예술» 선정을 통해, «예술의 가장자리»뿐 아니라 앞으로도 사회를 향한 제 질문이 충분히 가치 있을 거란 걸 알게 됐어요. 한 사람이라도 제 질문에 동조한다면, 함께 묻고 그 답을 듣기 위한 노력을 서슴지 않겠어요. 고맙습니다.

Q 수연 님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SY 크게는 사회 전체에게, 작게 시작하자면 이 문제에 소홀한 예술인들, 조금 더 나아가 문체부, 예술인 복지재단의 직원들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말해 이 제도를 변화시키고 싶어요. 우리가 함부로 외면해버린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하나의 제도가 개개인의 삶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요. 무엇보다 예술인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졌다면, 더 낮은 이곳에도 불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이에요.

차칫, 틈을 메워야 하는 곳이라고 여기기 쉬우나, 틈은 멈춤을 선택한 이만 발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가만히 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또는 그 너머에 실재한 세계가 있습니다. 공고한 벽을 두드려 균열을 만든 이도 물론 있고요. 한 번 틈이 생긴 벽은 충격을 조금만 가해도 수많은 균열이 뒹따릅니다. 충격을 주는 게 고작 맨손이라도 말입니다. 틈은 일차적으로 본인의 숨통을 틔우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차적으로는 벽 너머의 세계와 조우할 수 있겠지요. 여기, 틈새를 발견하고 손을 넣어 비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術)내려온다〉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 모여든 4060 여성들이 예술과 만나 달라지는 광경을 목도하고, 〈언니의 발견〉은 6070 여성들이 목적 없는 여행을 통해 주체성을 회복하도록 장려하며, 〈마실이 타고 이야기 한 다발-!!〉은 섬마을처럼 외따로 떨어진 마을의 어르신을 찾아가 개개인의 삶을 연극으로 보여줍니다. 이슈가 생겨야 겨우 호명되던 이들이 예술 안에서 저마다의 내러티브를 풀어놓을 때, 인류가 오랜 세월이 걸쳐 예술을 추구한 이유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술(術) 내려온다

아차산아래

- 아차산아래는 김순천, 김여숙, 박선주, 송수경, 윤미선, 이지인이 복합 문화예술 활동하는 작은 공동체, 사립 어린이 작은 도서관입니다.

☎ @achasanarenolja

☎ cafe.naver.com/
achasanarenolja

☎ 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놀자
(네이버밴드)

Q 아차산아래는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팀이지요. 도서관에 주로 방문하는 이를 파악해본 결과 어린이, 여성 비중이 크고 특히 여성의 경우 가정을 꾸린 후 경력단절, 육아, 개인보다는 역할로 호명되는 삶에 놓인다고 보셨어요. 도서관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동안 육아맘으로 불리는 여성에게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ALL 1030 여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4060 여성들, 혹은 그보다

앞선 세대 여성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부족해요. 그들의 다양한 서사도 조금 더 드러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부분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거나 노후를 염려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4060 여성들은 생각보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욕구와 이야기를 품고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사회가 요구한 역할을 교육받으며 자라왔지만, 성인이 되면서 여성주의적 관점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과도기적 경험을 지닌 세대이기도 하고요. 이들이 자신의 욕구와 서사를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기까지는



1030 여성들보다 조금 더 많은 기회와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2030 여성들도 육아와 경력단절, 사회로 진출하는 데 있어 다양한 장벽이 존재하는 현실 등 비슷한 연령이라 해도 처한 상황에 따라 관심사와 관점이 상당히 달라요. 이들은 어릴 때부터 성평등 교육을 받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들의 경우, 많은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있기도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혼자 가지고 있지 않도록, 비슷한 고민을 품은 여성들이 만나고 안전한 공간에서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작은 도서관’이 여성들이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 모습을 직면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성들에게는 스스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간, 욕구를 비탄받지 않고 안전하게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문화적 장치가 더 필요하니까요.

Q “기록하고 표현하면서 의미를 부여할 때 사소한 개인의 일상은 비로소 힘과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데서 시작해, 일상을 ‘낮설게’ 보는 눈으로 예술에 접근하신 게 인상적이에요. 방법 면에서 사진, 그림, 글을 택하셨죠. 표현방식은 다르되 자신의 관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은 같아요. 팀원들이 이미 이런 과정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경험을



권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네요.

ALL 맞아요. 좋은 것을 권하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자연스러운 문화잖아요. 나의 언어로 내 생활과 생각을 표현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방식은, 나에게 질문하고 직접 답하는 것과 같아요. 내 감정과 생각을 들여본다는 것은 ‘내 삶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 같은 사유로 이어지거든요.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에 대해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알아갈 기회를 제공했고, 우리의 욕구를 전보다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예술이 될 수 있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어요.

Q “자신의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서로를 관심 있게 바라봄으로써 나를 탐험하며 동시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여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것이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도 하셨죠.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소수이자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 과정은 성별, 세대 간에

서로를 알아가고 존중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여겨요. 구체적으로 ‘여성 존중’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ALL 각자의 고유함과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쟁 구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안전한 환경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해요. 여성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지지받거나 응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금전적으로도 드러나요.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쓰는 일이 여의치가 않거든요. 가족들에게 쓰이는 항목은 당연하면서도 자기에게 쓰이는 것은 영 불편해요. 물리적인 환경이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여성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시간과 돈을 쓰는 일을 주저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여성 존중은 구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성들이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쓸 수 있는 구조와 자긍심이랄지, 마음가짐이 생길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고 봐요. 가족에게 베풀고 자신에게 인색한 것이 전업주부의 역할이라면 부당하지 않나요? 이를 위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동안 몇 가지 원칙을 공유했어요. ‘서로의 작업이나 행동, 말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기, '서로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기', '문제 제기를 받게 되면 정중히 사과하기' 등으로요.

Q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가장 먼저 사라진 게 예술, 공연 행사인 거로 알아요. 달리 말하면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 때라야 예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참가자들의 모습을 통해 느낀 점이 많으시리라 짐작해요. 일상에 예술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LL 자신에게 내재해있는 다양한 감각을 깨우고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상 속의 예술사업은 더없이 좋은 체험이었어요. 있는지도 몰랐던 나만이 가진 예술적인 감각을 만났다가, 예술이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더라도 일상의 모든 일을 다른 시점으로 보면 이미 예술적인 행위와 연관 있었다는 참여자들의 소감을 보면 더욱 그래요. 우리는 고등교육을 받았고 충분조건의 사람인데 말이에요. 예술이 나와 관계없는 영역이 아니라 나를 내가 조명하는 방식,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 된 것도 커다란 수확이에요.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후 연극이나 디자인이나 드로잉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찾아 경험하면서 또 다른 흥미와 재능을 느낀 참여자도 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했고요. 예술을 특정 사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여기며 나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했던 데서 발전한 셈이죠.

Q 장기적으로는 사립 작은 도서관과 도서관 활동가들이 이 활동을 더 많은 도서관으로, 더 많은 여성과 만날 수 있게 지속해서 연결하고 싶다는 포부도 알려주셨어요. 단순히 책을 읽고 대어하는 공간으로 머물지 않고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여성에게 도서관이 필요한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주실래요?

ALL 공공도서관과 달리 작은 도서관인 사립도서관은 그보다 작은 단위의 지역주민들과 밀착된 관계를 형성해요. 그 때문에 사립 작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고 대어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서로 정보와 도움을 주고받고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관계의 넘나들,



느슨한 연대가 가능한 곳이에요.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사립 작은 도서관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 기혼자라는 점인데요.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층이 여성 기혼자로 특정돼요. 주로 '엄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도서관을 방문하지만, 다양한 만남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서 엄마들은 '여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세상을 바라볼 기회를 만나요.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 시켜

가기도 하죠. 육아와 교육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면서 지역사회로 시야를 확장하게 되고, 나와 사회를 연결하는 지점을 찾아갈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도서관이니까요. 가정 안에 한정되었던 여성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확장하고 자신을 독립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는 장이라는 점에서, 7년 차 사립 어린이 작은 도서관인 아차산아래가 문화예술 분야로 관심을 더 넓혀 가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봐요.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도서관이다

아차산아래



있다면요?

ALL 코로나19로 대면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모집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무언가 생각하고 표현한 흔적을 남기고 기록할 수 있다는 건 예술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일이었어요. 함께 만나서 예술적인 경험을 하고 나누는 과정이 주는 안도감과 감정의 교류로 참여자들 모두가 치유되는 힘을 느꼈다는 소감을 나누어주었어요. 역설적으로 소수의 사람이 예술적인 경험을 함께하며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이기도 했어요. 형식과 틀에 맞춘 발표회나 공연 같은 과정을 생략하고 참여자들에게 더 집중하는 시간이 예술의 본질과 가까울 테고요. 느슨한 연대 의식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 나를 꺼내놓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것, 예술적인 경험을 함께 즐기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매개하는 것은 성과를 떠나 마음이 꽂힌다는 의미를 지녔어요.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ALL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여성들의 삶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어요. 프로젝트를 통해 미세하게나마 각자의 삶에 그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스스로가 느꼈던 감정은 무엇인지,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은 어떻게 다른지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스스로



어떤 시간이었는지, 나를 표현하고 들어보는 데에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이전까지 모호하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관찰은 일'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셈이에요. 이를 하나의 장벽을 허문 일이라고도 간주할 수 있을 거예요. 여성들은 자신의 영역이 오랜 시간 가정으로 축소되면서 나의 가능성에 한계를 갖는 일들이 많거든요. 이후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면, 예술적인 경험을 통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 나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에 도전하고, 장벽을 스스로 허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보고 싶어요. 예술은 자신의 한계에 경계 없이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는 도구이자 마음을 열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확신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소득이에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ALL 작은 도서관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실로 다양해요. 도서관, 공동체 공간, 마을 학교, 실험 창작실 등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의 생활문화예술 거점으로 기능하는 면이에요. 너무나 일상적이고, 예술의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예술적 경험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했어요. 그것을 나누는 경험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고 공동작업으로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술적인 경험을 함께 나누는 일을 더 확장할 수 있겠다고 확신하게 됐어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ALL 예술적인 경험을 통해 일상의 즐거움과 일상이 가지는 힘을 발견하고, 그 힘으로 일상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사업의 의도가 좋았어요. 가능하다면 1년 단위가 아닌 2~3년 단위의 연속적인 사업 진행도 할 수 있는 지원 부문도 있으면 해요. 1년의 사업 진행으로 얻은 성과를 조금 더 확장하고 발전시켜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ALL 예술을 대하는 장벽이 낮아졌고 조금 실수하거나 부족해도 예술 안에서 가벼워질 수 있었다는 점이 이 프로젝트가 남긴 가장 큰 흔적이네요. 예술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 자체라는 것을 상기하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일은 결과보다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흔적들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니까요. 그 모든 과정이 아름다워요. 그림이든 사진이든 글이든, 나를 표현했던 기록인 동시에 결과물을 내기까지 모든 행위가 예술의 범주 안에 포함되죠. 예술적인 경험과 사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일은 어쩌면 '좋은 흔들림'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알지 못했던 나를 들여다보는 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보는 일, 필요 없다고 여겼던 일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다른 사람이 이미 해놓은 결과물을 관망하거나 누군가의 설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주체가 되어 표현하고 창작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과정을 보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미세한 변화인 거죠. 이 프로젝트가 '과정으로의 예술'을 실천한 시간, 참여자들에게 '기분 좋은 떨림'을 느끼게 한 시도가

· 되었으면 해요.

Q 아차산아래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ALL 꽤 오랜 시간 생활에 파묻혀서 나를 돌아볼 겨를 없이 열심히 바쁘게 살아오면서, 여성인 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거나, 내가 어떤 욕구를 품고 있는지 알고 싶은 모든 여성에게 권하고 싶어요. 예술이란 멀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특히 여성들이 누군가를 돌보고 만들어 내고 일상을 가꾸는 모든 일이라는 것. 예술이나 아니냐를 따지고 싶다면 예술 아닌 게 무엇이나고 되물어 보기를 권해요. 예술 아닌 것은 의도가 없거나 우연히 발생한 것들에 불과할 테니까요.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그림이 그 예시예요. 작가주의적 관점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가정을 이끌고 삶을 윤택하게 꾸리는 우리 각자 개인 모두에게 말이죠.

언니의 발견

콜렉티브 도래

● 김도화, 정소민이 모인 콜렉티브 도래는 노년 여성의 나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장하고자 질문하고 포착에 기록합니다.

☞ @unnie_vacance

☞ @mangowa.us

Q <언니의 발견>은 노년 여성이 주체적으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고, 어르신이 아니라 개인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죠. 최근 '언니'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음에도 노년 여성은 배제돼있다고 느끼곤 해요. 60대 이상의 노년 여성까지를 '언니'로 호명하는 일이 눈에 띄는데, 이 표현으로 부르게 된 배경을 소개해주실래요?

ALL 우리 사회가 여성을 보는 관점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2030이 열광하는 레퍼런스로서 4050은 참 멋진데, 그 이상 연령대 여성들은 왜 더 언급되지 않을까?' '왜 인지도와 화제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존재하지 않는 듯 느껴질까?' '멋지다고 환호할만한 누군가에 포함되기에 6070+ 여성들은 나이가 많은가?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가려지거나 서서히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기에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전히 반짝이는 사람들이지 않은가?' 하는 의문들이요. 모두가 청년을 들여다보고 이야기할 때, 저희는 노년을 보게 된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충분히 잘 왔는데, 앞으로 다가올 삶은 어떻게 생각하면 막연하고 두려웠던 개인의 경험도 들어갔고요. 물론 유명한 분들의 멋진 서사가 많으니 그 이야기에 공감하고 동경하면서 메시지와 에너지를 얻지만, 내 삶과 정확히 연동되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어요.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러고 싶은 보통 여성들의 이야기가 궁금했고, 구체적으로 노년 여성이었어요. 회한이나 반성이 아니라 내 삶에 건강한 의문과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고요. 노인을 대상화하는 시선에 가려져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 분명히 우리 곁에 있을 분들이요. 엄마, 아내, 아주머니, 할머니, 어르신 등 역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선명한 존재감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언니'로 호명하는 일이 어색하거나 낯설게 느껴지지 않고 자연스러웠어요.

Q 오래전, 할머니가 아는 언니를 부를 때 ‘형님’이라고 부르는 모습이 의아했어요. 살펴보면 여성 간에도 연령대별로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다른 듯해요.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는 ‘자기’라는 표현이, 청년 여성들 사이에서는 ‘언니’라는 표현이 익숙하다 싶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노년 여성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느낀 지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SM 청년 세대가 청년으로 호명되기를 불편해하는 것처럼, 노년의 어떤 특징을 잡는 것은 어렵고 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언니의 발견’ 프로젝트는 그동안 막연하게 아줌마, 할머니 이렇게 지칭해온 한명 한명의 언니 개인을 새롭게 발견하고, 만나려는 시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여성들과의 경험을 노년 여성의 문화는 이렇하다고 단언하는 행위가 어떤 테두리를 만들고 안팎을 구분하는 일이 될까 우려되어요.

DH 저희가 그분들을 규정하는 건 불가능해요. 프로그램 이전부터 가장 조심하고 싶었던 지점이고요. 개개인을 들여다보고 촘촘히 알기도 전에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하고 구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문화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참여자들을 만나 발견하게 된 개인의 이야기를 독립적으로 담아두고 기억하는 게 맞는 방향 같아요. ‘가을방학’ OT까지는 ‘6070 여성’이라는 기준점이 전부였다면, 한 분씩 만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서부터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됐어요. 참여자 한 분의 따님과 소통하면서 딸이 아는 엄마와 제삼자인 제가 보는 언니의 모습이 다른 지점을 발견할 때 재밌기도 했고요. 관계에 기반한 시선에서는 고정관념이 불가피했어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욕구가 강해도 막상 혼자만의 시간, 무엇이든 해볼 수 있는 자유가 생기면 한 걸음 내딛는 데 어려움을 겪어요.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과 준비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들 사이에 간극이 있다 보니 그 상황을 만들고 경험하는 방식이 저마다 달랐어요. 개인의 욕구에 기반하지 않고 일반화한 계획이나 준비가 가 닿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요. 낯선 기회에 자신을 더 많이 노출해본 분일수록 새로운 것에 적극적인 태도가 형성되기 쉽다고 느꼈어요. 동시에 내가 서 있는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내딛어볼 용기는 작은 순간을 계기로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Q 노년을 바라보는 시선은 돌봄이 필요한 존재에 머물러 있어요. 체력 저하, 질병의 측면이 있지만, 주체적으로 발화하는 경우는 자주 보기 힘든 게 현실이죠. 이 프로젝트는 구술 생애사적 접근으로 인터뷰 방식을 택해 이야기를 축적하시는데요. 참여자들과 마주할 때 새로이 보이는 모습이 있나요.

DH ‘가을방학’ 전 과정을 통해 언니들을 새롭게 만났어요. 한 분이 신청 후에도 걱정이 많으셔서 초반에 포기하려고 하셨죠. 그 이유가 뭔지 확신했기에 설득했어요. ‘보여주기 위한 부담보다는 그냥 편히 즐기는 게 중요하니 저희는 돕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요. 차츰 유연해지면서 두려움이 없어졌고, 나중엔 영상 촬영도 신나게 즐기셨어요. 그렇게 알게 된 언니는 나만의 자유를 즐기는데 거리낌이 없는 혼밥의 강자이고, 매일 수영으로 다져진 엄청난 체력의 소유자이며, 혼자만의 시간을 앞으로 더 잘 준비해가고 싶은 내면의 열망이 강한 분이예요. 또 한 분은 연세가 조금 많으셨지만 신청할 때부터 강한 의지를 표현하신 게 인상적이었어요. 마음이 있다면 나이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시길 기대했었고요. 초반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설렘이 묻어났어요. 의견을 내고 본인의 역할이 필요하면 요청해달라며 촬영에도 개방적이셨죠. 가볍게 나는 얘기를 주의 깊게 듣고 준비해오시기도 했고요. 여행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거예요. 이 언니는 웰다잉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상황 판단이 뛰어난 데다 유머 감각도 쏙쏙. 관계 맺는 과정에서 언니들을 재발견하고 ‘가을방학’의 진짜 의미를 짚어보게 됐어요. 인터뷰는 나 홀로 여행의 의미를 기억하도록 각자에게 질문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Q “건강한 개인은 건강한 관계를 맺고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고 보고, ‘나이듦’에 접근하시지요. 주체적 자아가 단단할수록, 나이듦을 정확하게 인지할수록 개인의 삶이 나아진다고 믿는다고요.

SM 노년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삶이라는 건 끝없는 욕망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욕망을 끌려가거나 욕망을 이기는 수많은 순간의 집합인데요. 그 욕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단단한 기준을 가진 사람은, 자기객관화를 거쳐



나를 인지한 사람이라고 봐요. 이 사회에서 외부 시선이나 타인의 평가가 휘몰아칠 때 같이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으려면, 내가 더는 젊지 않다는 사실 말고, '나' 든 지금의 '나'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사회가 주입한 욕망 앞에서 모든 연령대가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좀 더 단단하게 살 수 있겠죠.

DH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내 삶의 중심축을 유지하고 방향을 설정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생애를 통틀어 그 과정을 연습, 달성해가며 관점을 확장해가는 걸 성장이라 본다면 그 단계는 누구에게나 필수예요. 나이들 또한 모두에게 다가오는 전환기잖아요. '나이들=노화'라고 여기거나 회피해야 할 시기로 보지 않고 내가 맞이해야 할 인생의 단계로 바라보는 사람은 분명 다른 삶을 살겠죠. 그런 태도를 지닌 개인과 개인이 만나고 연결되는 사회와 문화 또한 다를 테고요.

Q 노년 여성의 이야기는 시니어 모델이라는 형태로 보이거나 커리어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제하면 만나기

힘들어요. 나이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볼 때, 청년, 청소년 이하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겠단 싶어요. 브이로그, 그림책 제작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그걸 염두에 두신 건지 궁금해요.

SM 청년들에게 선입견을 버리고 새롭게 인식해달라고 요청하기보다, 노년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과 또래 문화의 인식을 바꿀 계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자신을 어떻게 호명하고 의미 부여하는지에 대해 다른 세대, 다른 존재들의 인정이 필요할까?' 하는 질문을 계속 던져보고 있어요. 유명한 노년 인플루언서로 박막례 할머니와 밀라논나가 있잖아요. 나의 몇십 년 후 삶을 지금과 단절된 형태로 멀리 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레퍼런스로 찾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노년의 삶을 긍정하고,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좋고요.

DH 이 사회에 나이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획일적이고 단조롭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해지면 좋겠다고 한 게 시작이었어요. 나이들에 대한 대화가 빈곤하니까 미디어에서 노년을 다루는 방식에



의존하게 되고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청년이 무언가를 즐기고 해내는 모습은 다양하게,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그려지는 데 반해 6070+ 세대의 그런 모습은 왜 찾아보기 힘들고 특정한 결론만을 향해 가는 건지 의문을 가져본 거죠. 그런 사회에서는 실제 내가 살아보고 싶은 삶, 도달해보고 싶은 나의 미래도 덩달아 쪼그라드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문학, 영화, 연극 등 지적, 예술적 경험을 통해 상상력이 확장되고 성장하면서 목표지점이나 삶의 반경이 넓어지잖아요. 내가 접하는 미디어, 문화적 환경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수록 개인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자유롭고 활발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언니들의 여행과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았어요.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SM 정말 힘들었어요. <전화데이트>가 비대면이기는 하나,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거든요. 모두가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시대에 사회가 가진 기본적인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고, 경계심은 더욱 높아졌음을 체감했어요. 예로 <전화데이트>를 알리고 참여자를 모집할 때 온라인 홍보만 하긴 했지만, 사실은 길거리에서 동네 언니들에게 전단지 직접 나누고 대화하며 같이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마주치거나 다가설 때의 거리감과 경계심에 지레 겁을 먹곤 하는 모습에서, 길 가다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거는 일이 예전엔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던 것 같다 싶었어요.

DH 모든 과정과 순간에 방역과 감염 위험을 우선 고려해야 하다 보니 생각이나 실행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려고 했어요. 반면 준비모임은 애초에 비대면을 계획했으나 참여자 특성상 대면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주변에서 모임은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않냐고들 쉽게 말했지만, 그건 참여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접근이라고 봤어요. 모든 것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소외되거나 불편해지는 상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안전 우선'이라는 이유로 간과하기 쉬우니까요.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ALL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모양을 찾아내고 그러한 개인의 이야기를 담아보자는 의미가 때문에, 사례와 이야기는 구체적일수록 값지고 중요해요. 비혼 6070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도 궁금해서, 만나고 연결되는 방식을 새롭게 고민해 보고 싶어요. 여행이 충분히 효과적인 접근임을 깨달았지만, 방식은 시간과 공간,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컸어요. 여행뿐 아니라 회고 인터뷰와 기록의 행위까지 더 촘촘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가고 싶어요.

또 <전화데이트>의 경우 후퇴하는 방식처럼 느껴졌는지 왜 전화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무엇이든 가능케 하는 기술을 발전이라고 여기잖아요. 진행하는 동안, 언니들이 새로 배우거나 노력하지 않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비대면 수단이 전화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디지털 디바이드¹라고 부르는 종류의 문제, 사회의 소통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배제하며 만들어지는지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전화를 중심으로 계속

· 사업을 실행하고 싶고, 그게 오래된 미래처럼 보이더라도 노력해보고 싶어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SM 가능성 있다고 생각한 아이디어를 «생활을 바꾸는 예술»을 통해 일의 형태로 기획하고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좋았고, 다음 스텝을 지속할 동력을 얻었어요. 메리트로는 소위 행정에 의해 ‘관리’된다는 느낌보다 재단과 좋은 파트너십을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다가왔어요. 또 규정과 관행을 앞세우며 사업 가능성을 축소하거나 소극적으로 세팅하지 않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덕분에 사업이 가진 잠재력과 시너지를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DH 이전부터 노년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큰 목표가 있었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지점에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요. 분명한 건 연령대와 성별이 전부고, 현재 혹은 미래의 삶에서 주체성, 독립성, 개인의 욕구, 자유로움을 키워드로 삼은 노년의 언니들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

1 Digital Divide,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에 발생하는, 정보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의 격차



· 풀어낼 건지 막연했어요. 그러다 나 홀로 여행이라는 콘셉트를 떠올렸고 «생활을 바꾸는 예술»의 방향성과도 잘 맞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고민해가는 방식과 우리의 태도, 시도하는 과정에 집중할 수 있겠더라고요. 덕분에 가능성을 실험하며, 작은 규모로나마 언니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ALL 전반적인 기초를 유지하되, 슬랙 같은 커뮤니티 채널을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참여자들이 서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각 팀의 프로젝트를 통해 교류한다거나 느슨한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을 듯해요. 이번에 선정된 다른 팀들도 궁금했고, 기간 내에 산발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가 펼쳐졌는데 공통 채널에서 연결되지 않으니 정보가 없어 방문하지 못한 게 아쉬웠어요. 팀 간의 관계 맺기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연결의 기회는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해요.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SM 지원서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고 답하면서 프로젝트를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생활예술은 세계 문화 민주주의의 다른 표현이에요. 문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는 누구나 문화의 소비자가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 내는 주체가 되고, 모두가 평등한 권리(접근권, 발언권, 생산권 등)를 가지고 있죠. 언니들은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런 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갖게 되고, ‘내 이야기를 적는다니 제대로 들려주마’ 하는 태도를 갖추게 되는 것이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방향이에요.

내 삶의 내러티브를 발화하겠다는 의지가 궁극적인 예술의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DH 처음에는 참여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모호하거나 짧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점점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을방학>이라는 작은 아이디어가 언니들과 만나면서 큰 의미를 달성하게 된 거예요. 언니들이 그 감정과 의미를 느꼈던 순간, 그걸 저희에게 전달하고 표현해주신



순간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여행 한 번으로 언니들의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어렵겠지만, 이 경험이 어떤 종류건 시작점이 되리라 기대해요. 저에게도 언니들의 작은 변화를 포착한 순간들이 소중한게 쌓여있는데, 그 기억이 앞으로 이 작업을 해나가는 핵심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리라 확신하게 됐어요.

Q 콜렉티브 도래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SM 당연히 '언니'들과 만나고 싶어요! 언니들과 함께 사는 자녀, 그런 언니들을 사랑하는 손주 모두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언니들의 삶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나눠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코로나 이후 익숙해진 온라인 환경을 벗어나 다가가는 일이 힘들기도 했거든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온라인에 있다 보니 자녀나 손주를 대상으로 첫 번째 홍보 이벤트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언니를 직접 만나는 일에 대해서 고민의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DH 우리가 만난 언니들을 비롯해 이 세상의 더 많은 언니요! 처음에는 나에게 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건지 의아해하셨던 분들이, 점차 자신을 드러내고 내 이야기를 하는 데 익숙해질 기회를 앞으로 더 만들어보고 싶거든요. 자기 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말해본 적이 없더라도 이 과정이 재밌는 경험이자 도전이라는 걸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나는 별것 없는데, 손사래 치는 분들의 평범한 일상과 말 한마디가 각자의 행위이자 흔적으로써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함께 발견하고 지켜보고 기록해가는 프로젝트이길 바라요. 동참해주실 언니들을 더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더불어 나의 20~30년 후를 마음껏 상상해보고 싶은 세대들도요.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를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으로도 좋고, 미처 귀 기울여보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궁금한 분들이 찾아보셔도 좋을 거예요.

마실이 타고 이야기 한 다발~!!

달다방프로젝트

● 예술가와 관객이 소통 가능한 공연 모델을 개발하고자 배우 김동훈, 김정아, 김하영, 김희성, 신진하, 안재민, 이지은, 이한희, 이훈희, 조예연이 모인 달다방프로젝트입니다.
 @cafehue Facebook

Q '마실이 타고 이야기 한 다발~!!'은 역동적인 분위기가 감지돼요. 참여자는 몸이 불편하여 대중교통조차도 이용하기 힘든 어른들이지요. 실제로 '마실이(의자 겸용)'를 타고 지역 어르신들과 만나 관객이 직접 공연을 만들어간다는 내용인데요. 기획하신 계기를 알려주세요.

JA «생활을 바꾸는 예술» 타이틀을 보면서 제 일상에 관심과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현재 '당신의 인생이 선물입니다'라는 기치 아래 어른들의 삶을 바라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껏 섬마을을 돌아다니며 섬에서 살아내신 어른들의 생활에 관해 질문하고, 살아내신 시간에

감사함을 공연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정작 제 어머니에겐 그걸 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허리가 나빠지고 관절이 당신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어머니는 4년째 원거리 이동이 힘든 상황인데요. 주변 동료들이 그런 어머니를 걱정해주며, 어머니를 위한 마실이 프로젝트를 한번 기획해보자고 수다 떨던 중 이번 지원사업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비롯해 제 생활권의 어른들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어요.

Q 관객이 공연을 찾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연이 관객을 찾는다는 발상의 전환이 반가워요. 이미 관객 참여형 공연이 있지만 이조차 기본이 갖춰진 상황에서 결말이 달라지는 방식이곤 하더라고요. 달다방프로젝트는 관객을 발굴하고,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관객이 원하는 극을 만든다고요. 극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DH 들여다보면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들로 공부한 다음에

극을 구성하잖아요.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어른들을 직접 만나고, 그 어른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삶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 극을 구성하기 위해 자료나 책을 찾는 것과 아주 흡사하죠. 다만 우리가 관객 참여형으로 만들되 극적 구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달라요. 그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긴 해도 극화되면서 어떤 감정을 극대화하거나, 확장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축소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 이야기 그대로 배우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극적 구성없이 그저 배우를 통해서 전달하는 일이에요. 완벽한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객은 이 극을 하나의 극으로 바라볼 수도, 이야기책처럼 바라볼 수도 있는 지점이 생기죠.

JE 공연 당일 풍경이 떠올라요. 주민들이 나와서 액자를 같이 진열하고, “이런 날은 풍선이 있어야 해”라시며 골목에 직접 공수한 풍선을 설치하고, 골목에 사는 부부



가수는 리허설하면서 관객들과 안부를 나누고, 서로가 나누고 싶은 음료 하나, 먹거리 하나씩 내와서 나누고... 이런 공연장에서 볼 수 없던 모습이에요. 배우로서 어떻게 정서를 잘 전달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저는, 당신의 이야기가 들린다는 기대감으로 객석에 앉아계신 어른들이 벌써 준비하신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어떤 역할에서도 느낄 수 없던 동의를 얻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자주 하고 싶어졌어요.

Q 문화생활이란 경제적, 시간적 여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관객이 특정 층으로 좁아지는 면이 있어요. 달다방프로젝트는 더 많은 관객과 교감하는 방법으로 공연장을 골목으로, 공원으로 두는 상상에 착안해 지역으로 찾아가시죠. “문화예술은 거창한 것이 아닌 일상에서의 작은 참여”라는 걸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에 관해 좀 더 설명해주시실 수 있나요?

JA 섬마을을 돌아다니는 경험으로 알게 된 건데요. 어른들은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들을 때보다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훨씬



활력이 넘치세요. 사실은 누구나가 그렇죠(웃음). 요즘 교육환경은 아이 때부터의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자신을 표현해 볼 기회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반면 어머니 세대 이상 어른들은 자녀를 키워내시느라, 먹고사는 것부터 해결하시느라, 그런 교육이나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지금을 맞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공연 한 편 보는 것도 낯설고 그 낯선 공간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배우들의 목소리로 들리고 전시의 주제가 되고 시가 되는 경험을 통해, 직접 공연을,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긍심도 생기고 예술가, 창작자와 살아가는 데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으리라

짐작해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손을 뻗어서 마주 잡고, 어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마당을 깔고, 그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전하고 싶은 거고요. 그 과정에서 문화를 만드는 주체가 ‘나’라는 걸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Q “생애 한 번도 연극을, 무대를 보지 못한 일상을 사는 주인공을 발견”하면서 느낀 점을 나눠주세요.

JA 예술 생태계라는 말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썼어요. 이 생태계는 사실 예술을 하는, 창작 영역 안에 있는 직업군만의 이야기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연극의 3대 요소는 배우, 무대, 관객이에요. 관객의 존재는 중요하죠. 이 관객의 생태계를 살펴보면서 ‘관객들은 어떤 것을

연극으로 보고 싶은가?’ ‘연극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연극을 어떻게 접하고 싶은가?’ 등으로 관심이 더 필요해요. 저는 예술이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창작자나 예술가들이 사회적으로 해야 할 일은 어떤 어떤 사건, 상황, 사람을 깊이 있게 바라봐 주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해요. 다만 깊이 있게 봐야 하니까 굉장히 피곤한 일이기도 하죠. 어차피 저희는 이 피곤한 일을 하는 직업이니까! 앞으로도 이걸 해나갈 거고요!!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행위가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인식의 기초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지지받을 테고 제가 생각하는 연극의 방향처럼 행위 하는 예술로 자리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골목형 연극, 골목형 문화예술 축제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이분들이 직접 생태계를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이에요. 내 이야기로, 내 이웃의 이야기로 연극을 시작해보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내 주변의 이야기가 곧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죠. 창작 주체가 창작자나 예술가들이라는 데서 확장해 이를 즐기고 있는 나 자신임을 느끼는 과정이고요. 객석에 앉은 분들이야말로 공연의 진짜 주인공이 되는 과정에서 다음 공연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경험을 드리고 싶어요. 그 걸음에 오늘의 발견은 아주 든직한 경험이라고 봐요.
 YH 예술을, 공연하는 사람으로서 드라마나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하며 작업해왔지만, 그들을 만나면서 주는 게 아니라 되려 돌려받은 느낌이었어요. 관객이 주체가 되는 장이 열리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작업을 시작할 때보다 필요성을 더 알아가게 되었고요. 예술은 우리 주변에 있어요. 무대 주인공이 관객이기도 하고 이걸 바라보는 관객이 주인공이기도 했어요. 그 주인공들이 없었다면 ‘마실이 타고 이야기 한 다발~!!’은 완성되지 않을 거예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복해하는 관객들을 보며 ‘아... 앞으로 더 들여다보고 거동이 힘든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라고 여겼어요.
 Q 극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과 진득하게 소통하는 과정이리라 짐작해요. 이 과정을 통해 마주한 관객의 반응은 어떠한지, 관객이 변화한 면이 있는지 궁금해요.
 YH 동네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는 시간이 꼭 필요했어요.



대화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 자신의 이야기를 잘하는 분도 계셨지만,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분도 계셨죠. ‘편하게’라는 말이 그분들에게는 낯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이야기부터 시작할 때도 많았어요. 그렇게

모인 동네 사람들의 엮서 사연과 인터뷰 내용을 공연 안에 배우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했는데요. 사연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인터뷰한 분과 눈이 마주쳤고, 서로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시점부터 관객과 함께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소통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JA 음... 저는 동네에서 행동거지가 조심스러워졌어요(웃음).
 이젠 동네 어른들이 저를 다 알아보시거든요. 여러모로 도움 주신 통장님께선 “내년엔 구청에 예산을 달라고 해서 이 사업을 이어가자”고 하세요. 시립대로 4길에서뿐 아니라 우리 동네 골목 곳곳에서 이뤄지면 좋겠다고요. 부디 이 경험이 오래 지속되어 그다음을 엮어갈 수 있길 빌어요.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DH 만나면 하루 안에 끝나는 일들이, 직접 만날 수 없으니 여러 날을 거쳐야 서면화라도 겨우 되는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비대면 회의도 처음으로 오랜 시간 해봤고요. 팀원들이 각자 역할을 수행하며 웹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만나는 일을 해보게 된 거예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이런 시스템이 팀원들 개개인에게 책임감을 갖추게 해준 듯해요. 그가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웃음).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HH 눈이 침침하고 무료한 어르신들께 따뜻하고 미소 짓게 할 이야기(소설, 시 등)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공연이 끝나도 치우지 않았던 골목 소통 노란 우체통에 어르신들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쌓이길 기다리고 있어요.

JA 기다림. 다가감. 설렘. 그리고 다시. 인터뷰를 마치고 “이 인터뷰가 낭독극이 돼서 다시 이 골목에서 이뤄지는 어느 멋진 날을 만들 거예요”라면서 날짜를 알려드렸어요. 그걸 자꾸 까먹는 어머니들께서 저를 골목에서 만나면 “그날이 언제됐지?”라며 말을 걸어오시고 다시 한번 공연 날을 확인하셨죠. 공연 날 동네 다른 친구분들을 초대하신 걸 봤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낭독되고 전시된다는 이 시간을 기다리고 설레한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너무나 감사했죠. 그래서 노랑 우체통은 아직도 설치돼 있어요. 앞으로도 이 골목의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HH ‘내가 서는 연극 무대가 꼭 극장이 아닌 어느 곳이어도 좋다’라는 마음을 갖게 해주었어요. 공연을 준비, 실행하면서 점차 마음을 열고 변화하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제 마음이 일렁였죠. 늘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떠올랐어요. 가끔 경비실 앞에서 멍하니 바람을 쐬는 할아버지께 이런 프로그램을 접하게 해드린다면, 허전한 그 시간이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겠다 싶어요. 더불어 한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조금씩 넓어져 가는 세상이 조금 더 풍성해지는 방법을 찾아가게 하는 시작점이 되었어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ALL «생활을 바꾸는 예술»은 결과 중심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과정 중심이라고 느꼈어요. 창작자가 생활에서 발견한 것을 통해 주변의 관심 폭을 넓어지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한 번의 지원이 아닌 지속 지원, 연속지원을 통해 쪽! 이 영향력이 뻗어 나갈 시간을 주시길 희망해요. 그리고 공유워크숍에서도 말씀드렸듯, 교부신청서의 양식을 조금 더 간소화하거나 공문서의 단어가 아닌 실생활의 단어들로

바꿔주시길 간곡히 바라요.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JA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이전에 행위 하는 예술로서 한 걸음 나아간 모습이요.

YH 문은 어디든 닫혀있어요. 운 좋게 열려있는 문도 있죠. 그건 어디까지나 운이 좋아서이거나 우연이거나... 하지만 관심에서 시작된 ‘노크’가 문을 열게 하는 소통으로 이어진다면 생활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생활 속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HH 미래에 어른이 될 제 아이에게 이야기를 남기는 거죠. 아이에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살아갈 미래에도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 소중한단 이야기로 전달되길 바라요.

HY 일상에서 느낀 어른들의 예술이 부재한 부분을 조금은 채워드릴 수 있었던 경험이에요. 관객들이 빠져들 수 있는 이야기로 접근하면서 관객과 배우라는 관계를 확장할 수 있었어요.

DH 흔적에 여러 기억과 공간을 새기기에 지속될 수 있다고 여겨요. 그 지속이 삶이고 연극이라면 가장 인간다워야 가능하겠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우리를 성찰하면서 가꾸는 것, 변화하는 것. 흔적은 지속될 거예요.
 JM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담을 허물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자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보였어요. 어쩌면 담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가두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저도 조금씩 담을 허무는 노력을 해보려고요. 우선, 시작은 ‘안녕하세요’ 한마디부터요.

JE 내 이웃, 내 옆 사람들을 들여다보며, 살아내고 있는 자체가 예술일 수 있겠다고 느꼈어요. 나를 바라봐 주길, 예술을 바라봐 주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바라보면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Q 달다방프로젝트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JA ‘당신의 일상이 선물입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낸 우리가 관심으로 서로의 일상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멋스러움을 발견하길 바라요. 그 멋진 일상이 잘나에 분명히 있었음을 확인하길.

JE 달다방프로젝트는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기 힘든 섬이나, 우리 주변에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로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 해왔어요. 우리 삶이 곧 예술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예술가들이 들여다보는 관심이 «생활을 바꾸는 예술»을 바라보는 관객들의 관심으로 되돌아오기를 기원해요.



[9] 새 몸짓으로 탐험하다

미지의 영역을 나서는 탐험가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건 알고 싶다는 본능입니다. 본능이 이끄는 곳에서 만나는 우연은 매번 새로운 것을 담보하고 있으니까요. 비단 세상에 없던 무언가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었으나 보이지 않던 게 눈에 들 때, 의미를 몰랐으나 몸으로 체득할 때 역시 새롭다고 할 수 있겠지요. 기존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 소통하는 데 애먹곤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슬한 구상 끝에 새로운 몸짓을 터득하는 일이 의미 있는 것 아닐까요?

〈유영하는 손〉은 수어를 계기로 제스처에 착안, 감각과 감정의 관계를 돌아보고, 〈공장달리기〉는 공장지대였던 용산을 거점으로 잡아 달리기로 지역을 탐구하며, 〈들숨날숨보따리와 춤을〉은 비인간존재인 거리조형물을 주축으로 접촉과 숨에 관해 살펴봅니다. 사람이 말로 뱉는 언어 말고도 몸으로 짓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 이런 데서 유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접촉이 두려운 팬데믹 시대에 역설적으로 이를 갈망하게 된다면, 다른 방식을 찾아 나가는 일이 필연적일 테니까요.

유영하는 손

액체괴물

- 김지현, 심연정, 전보경, 정지혜로 구성된 액체괴물은, 인간의 제스처 분석을 통해 내면을 탐구하는 팀입니다

Q 〈유영하는 손〉은 인간의 감정과 감각에 집중해 제스처를 분석해요. “감각의 결과물인 감정은 교육될 수 있는가? 감정을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감각은 더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고

확장될 수 있을까? 인간의 제스처란 감정을 얘기하는 것인가? 감각을 얘기하는 것인가?”로 질문이 뿔어가는 과정이 눈에 띄는데요. 감정, 감각, 제스처라는 키워드를 연결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LL 코로나 시대, 비대면 기술이 확장되면서 이 세상에서 신체가 발생시키거나, 신체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집중하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시각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감각들은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같은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물질적 감각 없이 허공에서 조정하는 키보드 같은 하이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사용자에게 특정 움직임, 제스처를



#타이핑고교사리지 #세정스 #타이핑고교사리지 #타이핑고교사리지 #타이핑고교사리지 #타이핑고교사리지 #타이핑고교사리지 #타이핑고교사리지 #타이핑고교사리지 #타이핑고교사리지



교육하기도 해요. '이러한 과정으로 교육된 제스처는 감각이나 감정과 연결된 무의식의 제스처라고 이해될 수 있을까?' '감정은 배우고 표현될 수 있을까?' '제스처는 또 다른 언어로서 서로의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일까?' 바로 다음 질문의 답과 연결됐죠. 이 모든 키워드와 질문들이 의도적, 개별적으로 발생했다기보다 유기적인 관계로써 자연적으로 생긴 것 같아요.

Q 비언어 표현인 제스처에 집중하게 된 계기는 팀 구성과도 연결된 듯 보여요. 공유워크숍에서 장애-비장애 워크숍에서 만나 팀을 꾸리게 되었다고 알려주셨죠.

ALL 다양한 레지던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신청해서 팀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장애-비장애 공동 창작 워크숍'은, 금천 예술공장의 시각예술가 전보경, 서울무용센터의 공연예술가 정지혜, 잠실 창작스튜디오 시각예술가 김은설이 한 팀을 꾸렸어요. 저희는 다르게 감각하는 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여러 감각 중에 특히 청각을 촉각, 시각, 공감각화하는 것에 집중했어요. 바로 사운드에 대한 워크숍이죠. 들리지 않는 소리, 보이는 소리, 느껴지는 진동으로서

소리 연구를 시도했고 각자의 해석을 더해 '공기는 귀가 되고, 귀는 눈이 된다'라는 3가지 작업으로 발표한 바 있어요.

Q '엘레멘타리 탄츠(Elementar Tanz)'라는 방법론을 적용해 워크숍을 진행하신다고요. '탄츠(Tanz)'를 찾았더니 독일어로 춤, 무용이라는 의미라고 해요. 엘레멘타리 탄츠는 생소한 내용이라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건지 소개해주실래요?

ALL '엘레멘타리 탄츠'는 말 그대로, 움직임의 기본적인 요소부터 쪼개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걷는 동작을 생각하면, 한 가지 걷는 모양만 떠올리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의 걷는 법을 찾아보는 거죠. 동작에 제한도 없고 옹고 그림도 없어서 열린 방식으로 움직임을 찾아볼 수 있어요. 생각나지 않아도 계속 시도해보는 것과 길다 싶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한계에 부딪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가 또 다른 새로운 방식이 떠오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다름에서 느껴지는 동작의 퀄리티에

관해 생각도 하게 되죠.

Q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비대면, 온라인으로 만나기 시작하자 제스처, 몸짓 언어의 부재를 실감하곤 해요. 소통할 때 몸짓 언어로 이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을 상기하는 동시에 음성, 문자 언어 외에 몸짓 언어가 가진 힘을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일상에서 몸짓 언어의 힘을 느낀 경험이 있나요?

ALL 저희는 말할 때 몸을 많이 쓰는 편 같아요. 원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싶는데 그것이 언어만으로는 부족하거나 표현 방법이 없을 때 유난히 손짓, 발짓하죠. 최근에 수어를 조금 배웠어요. 물론 체계적인 원리로 만들어졌으면서도 매우 직관적이고

표현적이예요. 아, 글이라 어떤 방식인지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웃음). 만약 수어를 모르는 분이더라도 그 제스처를 보면 무슨 뜻인지 충분히 눈치챌 수 있는 움직임이에요. 또 움직임 워크숍을 해보면 굳이 말로 하지 않고 상대의 움직임만 봐도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성격 등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 처음 만나서 하는 것이기에 '접촉즉흥' 같은 요소들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무용수들끼리는 모르는 사이더라도 접촉즉흥을 먼저 해보거나 몸을 마주하면서 상대를 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대하는 힘을 조절하기도 하고 무언의 약속을 하기도 하죠. 이런 감각이나 정보들은 음성, 문자 언어로는 느끼기 힘든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Q '유영하는 손'은 개인의



표현법이라는 측면에서 제스처를 탐구하고, 나아가 기술 발전에 따라 신체, 감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연결 지어본다고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삶을 편하게, 빠르게 만들어주는 기기(핸드폰부터 컴퓨터, 각종 생활가전 등)가 등장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감각은 축소되었어요. 그저 패드를 터치하거나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말이에요. 요즘 영유아는 핸드폰 화면이 익숙해 온, 오프라인을 통틀어 이미지를 보면 확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고 해요. 액체괴물은 변화하는 신체, 감각을 통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ALL 저희는 이러한 기술 문명이 새로운 종류의 제스처를 만들어 낸 부분을 인지하는 동시에, 이런 과정에서 소멸하는 제스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인간의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몇 개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나요? 기술 발달로 인해 지능의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있는데 꼭 긍정적인 방향만은 아닌 듯해요. 이미 저장되어 있으니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한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개를 동시에 틀어놓죠.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미 기술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고,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한 생활의 변화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를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과 모른 채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신체, 자기표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제스처는 어떨까요? 앞으로 제스처는 인간 고유의 것일까요?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언어보다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제스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언어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또 질문이 꼬리를 무네요.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ALL 일단 한 공간에 모일 수 있는 인원수가 한정되었었고, 움직임 워크숍이 가능한 공간을 섭외하는 부분이 너무 어려웠어요. 많은 공간이 이런 워크숍을 진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데다 기관들의 참여를 얻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다행히 서초구립반포도서관이 협력해줘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요. 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하면 서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인원 제한 상황, 대면을 두려워하는 등 저희가 목표로 한 10~2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기 어려웠어요.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ALL 워크숍 참여자들의 태도 변화요. 워크숍을 듣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자신의 걸음걸이를 관찰하게 되었다는 피드백도 들었고,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걸음에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있고 그에 관해 생각해볼 수 있어서 놀랐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일단 신체를 인식하는 감각에 틈을 벌린 부분에 충분한 의의가 있었다고 봐요. 제스처를 자신의 표현이라고 봤을 때 이후에는 이번 워크숍 결과물, 제스처 분석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해보고 싶은 생각이예요. '신체와 자기표현 제스처의 확장 실행'이라고 해두면 되겠네요. 또 연령대를 초등학생 정도로 낮춰서 진행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이번에 어른들을 분석해본 결과 자신의 직업, 관심사에 따라 제스처의 빈도나 종류가 다르다고 느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은 사회의 틀과는 다른 제스처가 나올 것 같다는 짐작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제스처 연습을 하나의 놀이 형식으로 만들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신체에 대한 재인식의 경험을 제공해 보면 흥미로울 듯해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ALL 공유워크숍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팀의 이야기를 다 들어볼 수는 없었지만,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잘 알 수 있었어요.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실천적인 프로젝트들도 많았고, 저희 프로젝트에도 영감이 됐어요. 평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관심을 두고 조금씩 바꾸려고 하는 의지들이, 예술이란 형식을 통해 실천, 확장되는 점이 놀라웠어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ALL 예술이 생활을 바꾼다는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재밌어요. 세상 버릇이 여든 가는데, 5~6개월 만에 생활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떠 있는 언어가 아니라, 예술이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녹아드는지 관찰할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면 좋을 거예요.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ALL 앞서 말했듯이, 매일 반복하는 움직임에 대한 생각의

틈이요.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에 따라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Q 액체괴물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ALL 일상에서 신체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싶어요.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신도 모르게 감정을 억누르고 살고 있는데, 사실 내가 어떤 감정인지 모르고 산다면 어느 순간 폭발해 버릴지도 모르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겠네요(웃음).

공장달리기 (신용산)

김재민이

● 공장 터를 달리기로 여행하고 지난 역사를 신체 경험으로 기록하는 김재민입니다.

☞ yongsanrun.space

Q 프로젝트 타이틀이 «공장달리기(신용산)»이에요. 선뜻 붙지 않는 두 가지, ‘공장’과 ‘달리기’가 한 데 있어 호기심이 일어요. 신용산 일대 근대 산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실제 공간이 있었던 공간을 달리기라는 방법으로 탐구하고 아카이빙하는 작업이죠. “시간의 층을 살펴보고 지난 산업의 현장을 뛰는 몸으로 가능해본다”는 설명을 보았는데, 지역의 역사와 공장에 관심 가진 계기는 무엇인가요?

GMI 어릴 때 경기 부천과 인천 부평 중간에 살았어요. 주변에 점점 작은 공장들이 생기기 시작하자 냄새와 소음이 발생해서 싫었어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쇠락해버린

공장지대를 다니는 취미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싫었던 풍경이 친숙하게 변한 건, 조용한 공장이 눈에 들어온 이후예요. 아마 불 꺼지고 기능하지 않는 거대한 공공 같은 공장이 많아져서, 측은한 마음 같은 게 들어서 그런가 봐요.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공장이 있던 자리에 들어선 평범한 아파트 단지들을 지나도 과거 모습이나 여기서 있었던 일을 상상하게 돼요. 그럴 때 여행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이 여행을 서울 용산에서도 하게 됐어요. 기사에 용산에 8곳이나 되는 제과 공장들이 있었다는 내용만으로 소소하게 시작했는데, 찾아보니 50여소 꽤 큰 공장들의 기록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용산은 공단이었구나!’ 싶었죠.

Q 촬영 장비를 들고 EDM, 테크노를 들으며 밤에 달린다고요. 음악의 비트가 꼭 공장 돌아가는 반복적인 소리와도 비슷하다는 설명이 기억나요. 촬영하신 영상을 통해 현장감을 느낄 때 조금은 섬뜩하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밤에는 평소 안 보이던 틈이 보인다는 얘기도 전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 더 듣고 싶어요.





GMI 일제강점기에 서울 외곽 공단이었던 용산은 해방 후에는 중심에 포함되었고, 아시다시피 폭발한 서울 인구수와 더불어 급하게 형성된 그 시절 거주지들은 이제 재개발이 끝났거나 한창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대규모 개발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그대로 자투리처럼 남아있어요. 물론 거기서 노년을 보내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도시에서 일하는 비교적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들은 새벽이나 밤에 출퇴근이 편한 현재 보금자리에 머물기를 원하고, 그 상태로 반세기 넘게 버티고 있는 주거지 등이 틈새라고 생각했어요. 일식 가옥은 개보수한 전면에선 안 보여도 후면을 보면 놀랄 만큼 많이 보였어요. 제가 자리 잡은 용문시장 주변도 그렇고요. 기회를 찾아 식민지 조선 땅에 온 '보통'의 일본 창업인, 공원, 유곽

노동자들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죠. '보통'이라 말씀드린 건 일본 중심에서 잘나가던 사람들이 아닌, 덜 부유한 바다 건너 동네에서 기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기록에 많이 나와서요. 주상복합단지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적합한 부지는 아무래도 큰 공장이 있던 곳일 거예요. 안에 거주하던 사람도 거의 없지, 테두리도 분명하지, 아무래도 통으로 개발하기 수월하리라 생각해요. 영등포나 당산 쪽 아파트 단지들처럼 삼각지 부근 주상복합단지 대부분도 옛 지도에서 보니, 용산에서는 꽤나 중심적인 철공, 주물공장 클러스터였더라고요. 보상과 이주 문제에서도 비껴있으니 선호될 만하겠죠. '세계의 중심, 용산(!)'의 한 풍경을 말씀드려 봤어요. 밤에는 한 덩어리로 보이고, 지금은 돌아가지 않는 공장을 상상하기도

좋고, 주상복합의 불빛도 더 빛나 보여요. 아직 100년 전 모습이 가득하고, 새 도시의 그림자도 짙고. 부유하듯 시간여행을 하다 보면, 용산이 여러 의미로 어마어마한 곳이구나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테크노음악이라 통쳐서 말씀드렸지만, 달릴 때 즐겨듣는 쪽은 지속음이 나오는 앰비언트나 뽕뽕 소리가 자주 나오는 애시드 테크노 장르예요. 이런 음악을 듣고 뛰면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건조하고 기계적으로 밤의 도시를 여행할 수 있어서 좋아하는 편이에요.

Q '공장'이란 근대 산업 발달의 거점이었지만 이제는 생활권 내에서 보이지 않아요. 노동력이 저렴한 해외로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재민이 남은 "도시 변두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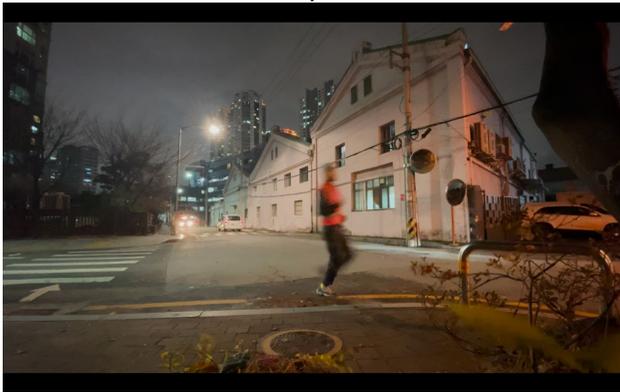
더욱 교외로, 그리고 외국으로 밀려 나간 공장을 쫓고, 구성원들의 삶을 따라가 본다"는 목표로 프로젝트에 접근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공간, 거기 머물렀지만 사라진 사람들과 그 이야기가 왜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GMI 과거의 이야기지만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고, 앞으로 닥칠 미래라 생각해서 흥미로웠어요. 과학 발전으로 소음과 분진 없는 제조업이 늘어나고 있긴 해도, 내 삶의 공간 옆 '혐오 시설'을 치워버리려는 시도와 산업시설의 충돌은 계속될 것 같아요. 또 외국으로 나간 시설들도 자주 그 영향을 느껴요. 당장 중국에서 오는 먼지도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요? 공장이 그때보다 좀 멀어지긴 했어도 용산에서 일어났던 충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소음과 냄새는 못
참아요! 어쨌든 저는 제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누가 여기서 살다
이동했는지, 어디로 이동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궁금해요.
호기롭게 '구성원의 삶을 따라가
본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어요. 팬데믹 상황도 있고
공장 다닌 경험이 그리 자랑스러운

· 혼장 같은 일은 아니라 여기서는
· 분이 많아서요. 이번엔 남겨진 기록과
· 제 신체 경험을 통해 100년 전부터
· 시작된 용산 공장 시대의 '사이즈'를
· 그려보려 했어요.

Q 과거 공장이었던 터를 찾아
기록으로 남기고 현재
달리는 행위로 루트를 만드는



· 과정이 낯설고 흥미로워요.
· 순수예술가로 몸 쓸 일이
· 한정적이라 건강을 위해
· 달리는 동안 에너지가
· 좋아지는 경험을 했다고요.
· 이 과정은 머리로 알고 있는
· 지역과 이야기를 내 몸으로
· 소화하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 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 발견한 내 몸의 변화가
· 있을까요?

GMI '몸으로 소화한다'니 멋진
말씀이네요, 적어놓으려고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차 타고 다니면 지루한
거리로 보일 수 있는 동네지만, 걸으면
재미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용산
곳곳처럼 공장이 많았던 곳은 걸어도
지루하더라고요. 한참 지나야 뭐가
나오고 해서요. 영등포나 구로가
그랬듯 용산에서도, 뭐든 속도가
있어서 금방금방 뭐가 나오고 더
재미있어요. 킥보든나 자전거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
심장이 뛰는 경험을 선호해서 뛰게
돼요! 움직이는 몸이 주는 쾌감,
반복된 행위, 밤의 공장(터), 그리고
테크노 음악 등등은 실질적으로도,
비유적으로도 심장과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느껴보려 합니다. 참, 주변에도
말씀드리는데요. 우울감에는 뛰는
행위가 좋은 약인 듯 해요. 몇 개월간

· 우울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Q 재민이 님의 접근법에서
소위 덕후의 집념이 보여요.
역사 덕후이자 기록
덕후의 면모랄까요(웃음)?
'공장달리기'에서 변화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점에 눈에 띄었어요.
누군가의 의도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어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확장되는
방식도 있으니까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연결,
확장의 지점을 고민해보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해요.

GMI 남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거나
모르는 이야기를 발견하는 덕후의
기쁨도 물론 크죠. '나만 재미있나?
나만 재미있으면 되지!'에서 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이에요. 다만 목적지가 있긴
해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유라시아 세계의 공장 집결지로
가보고 싶기도 하고, 사회주의
나라들의 집단 생산 시설이나 그
흔적을 찾아 다녀보고 싶어요. 용산은
제게 그냥 샘플의 하나라는 의미보다
훨씬 커요. 여기엔 공장을 밀어내고
도시화에 성공한 기록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크고 작은 사건 소식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찾아 구성할 수 있었거든요. 프랙탈 이론¹같이. 이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 다른 지방의 이야기들,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어요.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GMI 집에서 자료 조사하고, 현장은 밤에 돌아다니고 해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나름 용산의 중심지 효창공원 근처 오피스장에 작업실을 단기로 얻은 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함께하는 기획자 강상훈 씨와 함께 걷고, 두서없는 생각을 쏟아내고, 조언을 얻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생각할 수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종종 급발진해서 망상에 휩싸일 때 잡아주는 분이 있다는 건 행운이라 생각해요.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GMI 실행으로 확장할 만큼 정리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리서치 과정에 취해서 조금만 더, 더, 하고 있어요. 좀 더 세세한 부분, 이를테면 협업자와 새로 만들 음악이라던가, 더 맘에 드는 지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나서 실행에 착수하던가, 아니면 그 노력 자체를 실행으로 확장하고 싶네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GMI 소통이 잘 되어 좋았어요. 리서치하는 데 큰 힘이 되었고요. 심사위원분들, 재단분들 모두 열정적으로 임해주시고 피드백 주셔서 힘이 났어요.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GMI 공유워크숍 참 좋았어요! 위에서 말씀해 주신대로, 덕후 성격의 프로젝트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힘이 났어요. 시발점은 언뜻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프로젝트라도,

해보면 가치가 여러 군데로 뻗어가는 듯해요. 그러니 앞으로도 뜬금없어 보이는 다른 분들의 프로젝트에 관심 보여 주시기를 희망해보요. 시작이 재미있는 일이면 과정도 그렇고, 결과는 또 예상 못 한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해요. 그야말로 시작도 전에 각이 나와버리는 일이라면 끌고 나갈 동력이 중간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엉뚱하고 참신한 이야기를 더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GMI 터전을 밀어내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 그 터전을 밀어내고 새로 들어올 사람들, 새로운 주거지 틈새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경험하지도 않은 시간의 층을 마치 주마등처럼 상상하며 밤의 공간 사이를 뛰어다니면요, 내가 사는 도시는 더 이상 공간이 아닌 몸의 감각으로 기록돼요. ‘예술에는 사는 게 그냥 한바탕 꿈이란 걸 생각하게 해 준다는 측면이 있다’고 주위들었는데요. 저의 ‘공장달리기’도 그 한 부분이 되고 싶어요.

Q 재민이님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GMI 비싼 서울 땅에서 흑시 표류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으시다면,



1 Fractal,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구조

시시콜콜한 용산 이야기 한 번 들어주세요. '용리단길'에서 즐겁게 소비하다가도 바로 뒷골목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무척 재미있답니다. 또 팬데믹 상황이 안정되면요, 제안하는 코스로 가볍게 한번 조깅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용산 전자상가 뒷길에서 오리온 공장까지, 삼각지 열정도 길을 뚫고 남영역을 지나 후암동 골목까지, 이야깃거리가 그득한 곳이에요. 그 많은 공장은 불에 탔는지, 폭격을 맞아 없어졌는지, 공원들 숙소가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해지죠. 그러고 나면 서울의 다른 동네에서도 자꾸 뒷골목을 헤매게 되실지도 몰라요!

들숨날숨보따리와 춤

전하경

● 물질의 피부를 통해 경계와 접촉을 탐사하는 전하경입니다.

☞ @hakyhaky0

☞ hakyungjun.art

Q '들숨날숨보따리와 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HK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숨을 쉬며 살고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어요. '보따리'는 언제든지 푸르고 다시 싸매어 이동할 수 있는, 해체되었다가 뭉쳐질 수 있는 입체물이잖아요. 들숨과 날숨을 품은 보따리들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고, 함께 관계 맺는다는 내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제목이에요.

Q 거리조형물은 이름 그대로 거리 곳곳에 존재하며 도시를 구성하고 있어요. 어쩌면 인간이나 동물, 자연과 별반 다르지 않은 셈인데요. 존재하나 보이지 않는 존재인 '비인간 존재들'에 관심 두게

된 계기가 있나요?
HK 평소 물질들의 피부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표면을 자주 관찰하곤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무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요. 모두 색과 모양, 질감으로 보이거든요. 또 다른 이유는, 거기 깃들어 있는 생명력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인데요. 에너지를 품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무생물로 분류되기에 크게 고려되지 않잖아요. 중간지대에 끼어버린 존재들에게 동등하게 초점을 맞춰보고 싶었어요.

Q "비인간 존재들의 '몸'을 관찰하고 이와 교감하기"를 목표로 삼아 관찰, 기록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거리조형물의 서사를 상상하고 움직임의 고안한다고요. 언어를 초월한 소통 방식이라 눈에 띄어요. 특히 이 과정을 '왈츠'로 표현하셨더라고요. 댄스스포츠 사전에 따르면 왈츠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거나 축하할 때 등 인생의 행복한 순간들을 낭만적인 감정의 세계로 승화하는 매력이 있다고 해요. 비인간 존재들과 왈츠를 추는 과정에서 벌어진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HK 다양한 거리조형물을 방문하고 조사하는 과정에 제가 10년 전에 살았던 아파트에 방문하게 됐어요. 아파트 단지 가운데 위치한 공터 조형물과 입구의 비석을 만나러 갔죠. 찬찬히 관찰하고 기록을 마치고 나니 그간 한 번도 여기 멈춰서서 관찰해본 적이 없었구나 싶더라고요. 꽤 오래 살았던 곳인데 말이에요. 그 순간 납작한 배경이던 아파트 단지가 10년이라는 시간이 얹힌 복잡한 구조로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도 모든 시간을 겪었어’라고 말해주는 듯하고요.
 실험 워크숍에서는 앞서 진행한 관찰 방법을 공유한 뒤,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경험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후 이것을 우리 몸으로 표현해보는 움직임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로가 조형물이 되었다가 다시 사람이 되었다가 하면서 경계가 풀어지는 순간을 발견했어요. 춤을 함께 추면서 호흡의 속도가 비슷해지고, 마치 같은 숨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Q 이 ‘알츠’가 여전히 인간 중심의 일방적인 방식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비인간 존재들과 함께, 쌍방이 어우러지는 움직임이 되려면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HK 저도 계속 고민했던 지점인데요, 관계를 맺기 위해 인간의 관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른 존재를 통제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 프로젝트도 처음에는 비인간 존재들을 관찰한 내용에 상상력을 더해 이야기를 만들어보자는 기획이었는데, 진행해나가면서 현재의 체형과 감각에 더 초점을 맞춰야 소통의 가능성이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Q 코로나19로 인해 접촉과 교감에 불안감을 공유하게 됐다고 인지, ‘들숨날숨보따리와 춤을’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셨죠.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생물이라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비인간 존재의 한계이기도 한 특성이 프로젝트에서는 장점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이를 통해 ‘공동체’라는 인식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기대하시는데, 하경 님에게 공동체란 어떤 의미인가요?
 HK 저는 공동체를 아주 유연하고 탄성 있는 부드러운 막으로 상상하곤 해요. 특정 기준을 통해 단단하게 확정된 집단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감각’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느슨한 연결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몸이 가까이 있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느낌이에요. 춤춤하게 얽혀있는 이 유대감을 느낀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일 수 없지 않을까요?

Q 배경, 사물에 머물렀던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교감하는 과정은 결국 나를 위해 의미 있는 게 아닐까 짐작해봐요. 그런 태도로 접근한다면 어떤 존재건 편견 없이 맞이할 수 있을 테고, 나아가 내

주변을, 내 일상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꾸려갈 수 있을
듯하거든요. 혹시 하경 님의
일상에 그러한 지점이 있다면
나눠주시겠어요?

HK 가깝게는 저와 밀착된
생활공간을 사랑하고 가꾸는 것,
멀게는 낯선 곳에 방문했을 때
마주치는 것들을 편견 없이 보려고
하는 자세가 있겠네요. 제게 흐르는
시간이 다른 이들에게도 똑같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며
애정으로 바라보려 노력해요. 여전히
어려운 일이지만요.

Q 코로나 시대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견한
의미,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HK 함께 모이고 접촉하는 상황에
관한 생각이 저마다 다르다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기획과 진행을
맡은 입장에서 그 정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니 보수적으로 활동을
구성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일상을
보내면서도 조심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Q 이 프로젝트로 만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후 살려서
진행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HK 참여자분들과 6주간에 걸쳐
대화를 나누면서 다양한 관점을
얻게 된 게 가장 큰 변화 같아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거리조형물을
중점적으로 다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있는 존재들, 구체적으로
공간, 사람, 사물과 함께 관계 맺는
방법들을 차차 탐구해보려고요.
거리조형물을 관찰한 경험을 나누다
보니 그 지역을 공유하는 사람들과도
맥락이 생기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저는 이방인인데,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장소에 얽힌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준대거나 그곳의
역사를 알게 된대거나 하는 것들이요.
또 주변 장소들에 얽힌 사건들이나
시간의 흐름을 모아볼 수 있다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앞으로 어떤 공간을
단순히 지역이나 건물로서가 아닌,
다른 관점을 적용해서 탐사하는
방법도 시도해보려고 해요.

Q 2021년 첫선을 보인 «생활을
바꾸는 예술» 사업만의

메리트가 있었나요?
HK 이번이 첫
지원사업이었는데요. 우선
워크숍이라는 형식을 실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혼자서
완성할 수 없는 이런 기획들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지나치게 커지거나 작아지곤 해요.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많이 다듬어진
듯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하고, 움직임을 지도해주시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멀게만
느껴졌던 분야로의 확장이 즐겁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제를 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나눠서 확장하고 싶습니다.

Q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하는
면과 보완하면 좋을 면이
있다면요.

HG 다른 팀들과 각자의 프로젝트
과정을 나누는 공유워크숍이 정말
좋았어요. 또 '생활'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만큼 일상성이 느껴지는
소재들이 많을 텐데, 그걸 많은
사람에게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싶어요.

Q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참여자의
생활에 작은 흔적을 남길
예술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HK 타인과 접촉하거나, 곁에
있기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와 숨을 공유한
시간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 거리를
걸으면서도 나와 세계가 연결되는
지점에 대해 떠올릴 수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Q 하경 님의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꼭 접했으면 하나요?

HK 고립감을 느낀다거나 대상들
간의 경계에 관해 자주 생각하는
분들이요.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들을
넘나들고, 글과 몸을 넘나드는 활동을
통해서 유연해지고 싶은 분들도
좋아요. 평소 일상 속에서 떠올리는
자유로운 생각들이 관점을 바꾸는

· 실마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더욱
· 그런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 이야기를 건네고 싶어요.



REVIEW



유랑정원

유랑(流浪)이라 함은 본디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님을 말한다. 그런데 유랑정원이라니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정원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말을 들어본 바 없으니 이를 기획한 기획자(김형관 작가)와, 함께하는 예술가들의 상상력이 황당하고 기이할 수밖에.

일본의 애니메이션인 <천공의 섬 라퓨타>처럼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영토를 닮은 '은평이슈회의'의 <유랑정원>은 그 생태적 상상력과 수행력은 만화를 찢고 나온 실제 하는 움직이는 영토를 만들어 내었다. 붉은색, 정확하게 말하면 단청의 색을 또한 닮은 주홍빛과 녹회색 빛(닮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완전히 똑같지 아니하고 단청의 그 분위기만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는 키치함이 목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의 각목 위에 기와처럼 얹혀있는 지붕은 분명 상업적으로 양산된 개집의 지붕을 가져다 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체적인 모습은 유원지 한 자락의 어느 정자 같기도 하고 중국 지방의 어느 오래된 가옥같기도 하는 족보도 없는 것 같고, 정체도 모르지만 어딘가 익숙한 듯한 그런 건축양식을 추종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하여간 이 정원은 이 건축물에 여러 이유와 사연으로 모인 화분들을 싣고 여기저기를 다닌다. 식물에게도 이동권을 보장하고 식물에게도 햇빛에 대한 조망권을 보장하고 식물에게도 유랑권과 오락권을 보장하는 <유랑정원>은 지극하게 생태적이다. 더욱 가끔은 이 식물들을 담고 있는 화분들은 유랑도중 타인에게 즉흥적으로 분양이 되기도 하니 이 플랫폼에서는 유랑과 정주의 불확정적인 인과성이라는 것이 부동산적이거나 투기적이지 않은 윤리적 선택과 바람을 암암리에 조장하고 있다.

추운 날(하필) <유랑정원>에는 유랑을 함께하며 춤추는 발레리노가 있었다. 이점도 기이하다. 증산천변을 유랑하는 정원과 바들바들 추워서 떨며 춤추는 발레리노는 여장을 연기하는 드랙퀸(Drag Queen)같아 보이기도 했다. 날씨가 비장함을 만들었지만 댄서는 애써 웃었다. 이 댄서의 춤은 몸에 장착된 자동 기술적 언어였다. 살갓에 드러나는 소름까지가 춤인 이 유랑은 초현실주의자들의 우연한 조우의 통로에서 이상한 나라 엘리스의 토끼굴로 자꾸 미끄러진다.





천변을 운동 삼아 지나다니는 시민들 너머로 발레리노가 춤을 추고, 그 너머로 유랑하는 정원의 키치한 위세가 자꾸 말을 건네고 또 그 너머로 조악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풍악의 대열이 바람과 같이 흩어지고, 또 그 너머로 뻘뻘하게 햇볕을 찌는 화분들이 다시 고개를 쳐드는 이곳은 분명 삶의 무대이면서 초현실적인 극장이기도 하다. 그 극장 주위로 사람이 모이면 누구는 춤을 추고 누구는 응대를 하면서 이머시브(Immersive)한 마당이 된다. 삶이 극이고 무대며 누구나 그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서사의 호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뻘뻘한 드라마로는 그런 신파로는 이제 그 누구의 눈물 한 방울도 짜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예술은 예술일 뿐. 층층이 켜켜이 쌓이는 너머 너머의 레이어로 관람을 하는 것은 플랫폼한 한 장면으로 이 유랑을 기억해낼 수 없는, 기억하지 말라는 이 예술가 집단의 가오다.

나는 어떻게 이 풍경으로 활생(活生)을 논할지 막막하다. 전환(轉換)은 더욱 막막하다. 그래서 결국 예술이라는 변죽만 조금 울릴 뿐이다.



● 동대문 시대여관에서

동대문의 좁은 뒷골목, 낡은 모텔과 쪽방이 모여 있는 그 길 끝 낡은 한옥. 다소 어둡고, 고립된 듯 한 골목길 분위기와는 다르게 동대문 시대여관의 내부는 생각보다 힙한 공간이었다. ‘포모(FOMO_Fear of Missing Out: 흐름을 놓치거나 집단에서 제외,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고립공포’라는 주제로 퍼포먼스와 전시를 진행하기에 묘한 어울림이 있는 장소로 느껴졌다. 작은 쪽문을 지나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구옥의 중정이 나온다. 빈집으로 철근과 콘크리트 파벽돌이 그대로 보이는 낡것의 공간에서 드로잉, 퍼포먼스, 사운드, 미디어 설치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고립공포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시된다.

사실 ‘포모(FOMO)’는 마케팅 용어이다. (나 또한 MBA 브랜드 경영 시간에 들었던 개념이었다.) 홈쇼핑과 같이 한정수량, 매진임박과 같이 마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조급함을 통해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은 이제는 일상을 파고드는 하나의 증후군으로 누구든 한 번 짚은 경험해 보았을 증상이 되었다.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에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더욱 선명해지고,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간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소외라는 존재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특히 팬데믹으로

포모(FOMO)





오프라인 활동들이 제약을 받던 올 초 클럽하우스에서 이 현상은 대표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졌다. 아이폰 유저만 사용 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인싸들과 함께 대화 할 수 있다는 점,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폐쇄성은 그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유저들에게 우월감을 준다. 그래서 괜히 ‘클럽하우스’에 들어갔다는 것과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또 다른 본인의 SNS에 공유하며 자신의 ‘인싸력’을 과시한다.

페스트 만신창이의 기획자 박윤정 또한 음성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으나, 어느 샌가 본인도 클럽하우스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보다 포모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페스트만신창이는 이번 ‘포모(FOMO)’ 프로젝트로 참여 작가들과 관객들이 고립 공포에 대해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자신들의 일상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삶을 바꾸는 예술’에서 베이스인 일상, 생활에서 소외, 불안을 느꼈다면 그것에 대해 사유할 시간과 함께 서로의 불안을 공유하고 우리가 포모를 어떻게 마주할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소셜 네트워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본다. 실제 ‘포모(FOMO)’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6팀의 아티스트들이 느끼는 고립공포의 정의도 모두 달랐다고 한다. 온라인의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불안, 교류라는 근본적인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소외, 스스로가 만들어낸 강박적 움직임까지 다양한 관점의 고립, 소외 속 불안함에 대한 이야기들은 관객으로 하여금 인지하지 못했던 우리 일상에서의 포모를 떠올리게 한다.

그렇다면 이 ‘포모(FOMO)’ 프로젝트에 참여한 6팀의 아티스트의 생활, 일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선 모든 작가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진 못했지만, 기획자와의 대화에서 무언가를 바꾸기 위한 화두가 아닌 그냥 그 화두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 하면서 인정해 보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한다. 관객으로서 내가 바라본 프로젝트의 다양한 단상들에서 고립 공포를 알지 못하는 공포, 불안이 아닌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인정을 통해 조금 더 우리의 생활 속 소외, 고립이 주는 약간의 해방감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hue letter(휴레터) — 일상 속 고민을 나누는 사진레터

경기도 광주에서 출발해서 도착한 망원동의 어느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서서 문서진과 김선영을 처음 만났다. 나는 당일 그 카페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사뭇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냥 ‘약속다방’ 같은 만남의 대명사가 필요했을 뿐 우리의 만남은 강남이어서 좋고 종로이어서 좋고 사당이어서 좋았을, 어찌 보면 경기도였어도 무방할 그런 공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다만 문서진과 김선영의 마스크 너머의 나이를 짐작해보니 망원동의 어느 카페가 그들에게 더 어울릴법하기는 했다. 그녀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아이패드와 노트북, 주변 손님들이 일인지 여가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펼쳐놓은 테이블 위의 퍼스널한 컴퓨터 기기와 그 기기에 집중하는 에너지로 보아서는 삶과 일의 경계 짓기가 오히려 무색한 동시대 청년들의 일상의 장소로 들어섰음을 알 수 있었다.

여러 컷의 이미지로 생산되고 소비 되는 것 같은 풍경이 즉물적으로 인식의 언저리에 자리 잡았다. 결국 이 즉물적 느낌이 이들의 프로젝트와 무관하지 않음을 곧 알게 되니 그날은 ‘자리를 깔아도 되는’ 그런 정도의 ‘신빨’이 날리는 날이었다. 찍는 속도와 찍히는 속도가 빠르고 또 비슷비슷하고 지워지거나 선택되어지는 속도도 비슷한 일상의 이미지를 유독 소비적으로 다루고 이 소비적 소모가 윤리적인 선택과는 무관하다는 태도의 망원동의 한 카페가 나에게 있어서 그날의 ‘hue letter(휴레터) - 일상 속 고민을 나누는 사진레터’의 첫 컷이었다.

문서진과 김선영은 창작자로서의 소통과 그 출구, 매체적 고민의 결과가 ‘hue letter(휴레터)’라고 이야기했다. 갑자기 과거 대학 사진학과에서 강의하던 시절이 기억이 났다. 근 7여 년 동안 나는 사진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보는 것’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사진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진학과의 수업에 학생들은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았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진전공자들의 고민이 타자와의 소통, 매체적 특수성이 갖는 판타지성, 보여주는 방식 등을 고민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따금 보는 것에 대한 타자적 관심에 시큰둥하며 자기 내면의 자신과 지속적으로 마주하며 자기 삶에 질문을 던지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런 암묵지의 자신을 호명하여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는 학생들을 만나면 선생으로서 별로 해줄 역할이 없어 그냥 멀리서 고개만 끄떡여 주었던 것 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왜 창작자들은 자신이 보는 것으로 타자와 소통하려할까?
 그것이 자신의 존재증명이며 끊임없이 그 소통이 사회 속의 나와 내 자아를
 확인해주는 일종의 알리바이가 되는 것일까? 왜 외부의 응대가 중요할까?
 지속적으로 소비되는 온 세상 매체 속의 이미지와 텍스트와 질문 안에서 내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미지와 텍스트, 질문은 어떤 개별성과, 독자성, 고유성의
 영토를 차지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나는 왜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소통가가 되고 싶은가? 나의 소통의 매개인 이미지와 질문은 정말 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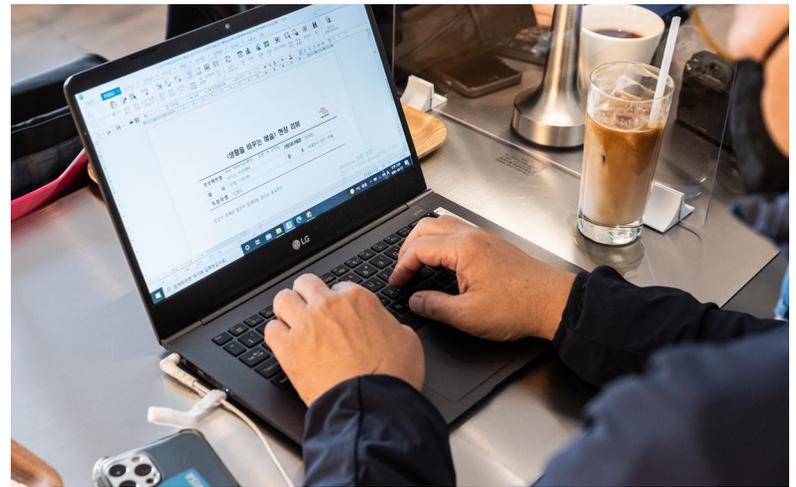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문서진과 김선영에게 위의
 질문을 하지 못했다. 오늘의 자리는 그냥 모니터링의 자리였고, 주제넘은
 질문과 오지랴를 부려 이 나른하고 댄디한 풍경을 흐트리는 깡패가 되기는
 싫었다.

문서진과 김선영은 지원사업이 처음이어서 궁금한 것도 많은 듯 했고
 그 궁금함을 내게 질문도 했지만 이 또한 내가 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회의를 곁에서 지켜보며 ‘hue letter(휴레터)’의
 사이트에 접속해 그(녀)들이 쌓아 놓은 ‘hue letter(휴레터)’의 이미지와
 텍스트(질문)과 여러 피드백들을 보았다. 대체로 내가 그려보았던 ‘hue
 letter(휴레터)’와 많이 다르지 않은, 예측을 벗어나는 일은 없었다. 그(녀)들은
 처음 이 카페 속의 풍경처럼 댄디한 컨템포러리의 삶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듯,
 사람들은 늘 안전한 다수의 보편적 풍경 안에서 숨을 쉬기 마련인가 보다.

결국 생활을 바꾸는 예술만큼 중요한 것은 자신이 생활이라고 설정해
 놓은 인식의 테두리를 정의하는 방식, 그리고 나의 생활이 바라보고 있는
 지점, 소통하는 주변 인물들과의 동질성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회와의 인과적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읽어내는 것이다.

그 날 난, 그것이 나에게만 중요한 것인지 문서진과 김선영에게도
 중요한 것인지를 끝내 암시하지 못하고 난 그 카페를 나섰다.



걸레색

‘지역(Local)은 더 이상 도시의 하위개념이 아니고 동시대적이다’라는 의미의 컨템포컬(Contempolocal)은 공공미술과 개념미술을 좋아하는 작가 두 명이 결혼하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단체다. 이들의 활동은 결혼과 출산, 그리고 예술가 부부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것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결혼 후 신혼집과 가까운 곳에 작업실을 찾다보니 버스 종점에 있는 공간을 발견했고, 문화예술의 불모지인 금천구에서 개인 작업만 하며 공간 낭비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뭐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는 작은 이유에서 금천에 ‘범일운수종점Tiger1’이라는 전시공간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걸레색〉 프로젝트 또한 이들의 활동과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 ‘걸레색’은 모든 색이 다 섞이게 되는 순간 마치 걸레같이 어느 색도 아닌 어두운 탁한 색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자 윤주희는 인터뷰에서 이번 전시는 «생활을 바꾸는 예술» 지원사업 공고 이전에 이미 진행된 프로젝트라 했다. 코로나19 이후 의료인만큼이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가장 고통 받는 그룹에 속하는 엄마 윤주희는, 이전보다 철저한 위생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 그 의무를 대부분 엄마가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걸레를 통해 느끼게 되었다. 아이가 물을 엮질렀을 때 가족 모두가 당연하게 걸레를 잡고 치우는 사람을 엄마라고 여기는 상황을 겪은 기획자는 아주 작은 일상의 경험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이 순간의 감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버려진 물건 등 평가절하되는 것들의 이야기를 모아 예술가들과 교감하며 전시까지 연결하고자 했다.

기획자의 전시의도를 충분히 공감하는 4명-문서진, 여운혜, 신현정, 최윤석-의 작가들과 한 달에 한번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 각자 삶의 ‘걸레색’을 찾아 신작 제작을 함께 논의하고 전시를 만들었다. 문서진 작가는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가 남긴 전화번호부를 전시하였다. 수첩 페이지에 빼곡히 적혀있던 많은 지인의 전화번호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7~8명쯤으로 줄어들고 글씨체는 점점 무너져 내려 읽히지 않는다. 작가는 할머니의 존재를 목할자로 만들고, 흐트러진 글씨가 촉감으로 느껴지도록 표현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여운혜 작가는 도시의 까마귀가 점점 도시 쓰레기를 먹으며 비둘기처럼 생활 방식이 변하는 것을 목격하고 쓰레기로 꽂 채워진 까마귀

조각과 이들의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인류가 만든 생태위기를 보여주고자 했다.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 일상적 감각을 회화라는 수단을 통해 기록하는 신현정 작가는 습관적으로 잘 쓰지 않는 굳어버린 물감 튜브를 모아 두드리고 뿌리며 그 물감으로 그림을 완성했다. 최윤석 작가는 몇 년간 쓰지도 않고 집에 남아있는 뷰티용품들을 모두 모아 자신의 머리에 묻혀 마치 걸레처럼 만든 뒤 다시 세척하여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영상을 마치 종교화같이 근엄한 앵글로 포착하여 보여준다.

이들 모두 걸레처럼 당연하게 지나치거나 하찮은 것에 대한 관심을 시작으로 작품을 만들었다. 얼핏 보면 일반 전시와 비슷할 수 있는 형식이지만, 기존 지원사업에서 찾기 힘든 아주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것에서 시작했고, 거대 담론으로 선블리 결론 내려 하지 않았다는 점과 기획자도 예술가도 모두 자기검열 없이 작업과 생각을 확장시켰다는 것이 특징이다.

컨템포럴은 사업에 2년간 참여한 팀이다. 그들의 거주지 금천구에서 부동산 가치를 올려주는 역세권 개념처럼 공원과 가까워 집값이 높은 ‘슈세권’을 주제로 공공자산인 공원과 자연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부동산



자산이 된다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생활을 바꾸는 예술»과 «서울을 바꾸는 예술»에 모두 참여한 기획자에게 두 사업의 차이점을 물었을 때, 사회비판적인 작업도 의미 있고 재미있는 활동이었지만 «생활을 바꾸는 예술»에서는 습관처럼 거대 담론으로 결론 맺거나 사회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사적이고 개인적인 주제를 옹기 있게 밀어붙일 수 있던 것이 좋았다고 했다. 만약 컨템포럴이 기존 전시 지원사업으로 ‘걸레색’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면 여성의 가사노동을 통한 젠더문제, 사용되지 않는 물건과 쓰레기를 통한 환경문제로 성급히 결론 맺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운영한지 5년이 된 ‘범일운수중점Tiger1’은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인정받으며 금천문화재단과 ‘금천 네트워크 데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전시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었고, 덕분에 평균보다 많은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한다. 많아진 지역의 관심에는 재단의 도움도 있겠지만, ‘걸레색’이라는 독특한 제목이 더욱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온 듯하다. 지난 5년간 그럴듯한 제목의 ‘전시스러운’ 포스터를 붙였을 때는 주변 주민들이 쉽게 공간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단어인 ‘걸레색’이 지금까지 ‘범일운수중점Tiger1’ 역사상 가장 많은 불특정 다수의 지역 주민에게 문턱을 넘게 했다. 아마도 «생활을 바꾸는 예술» 지원사업이 기획자와 참여 작가에게 준 자유와 용기가 전시 제목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되고, 전시 제목처럼 느껴지지 않는 ‘걸레색’ 글씨는 사람들의 일상에 있는 어떤 부분을 관통한 듯하다. 이런 시도가 반복된다면 언젠가 금천구 주민들의 생활에 작은 변화를 주는 예술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 일단 2021년에는 윤주희 기획자의 아이와 남편이 걸레를 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들숨날숨보따리와 춤

〈들숨날숨 보따리와 춤을〉 프로젝트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기획자와 참여자들이 함께 ‘도시’라는 정의할 수 없는 공간과 교감하는 과정을 표현하고 기록하는 일종의 ‘예술적 리서치’라고 할 수 있다. 기획자 전하경은 ‘서울, 도시’라는 거대한 덩어리 중 누구나 쉽게 일상과 삶 속에서 계획하지 않고도 만날 수 있는 공공미술 혹은 거리 조형물을 관찰 주제로 선택하였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기획자 스스로 아카이빙을 먼저 시작했다. (1단계 : 관찰과 기록). 그리고 모집된 참여자 5인과 함께 그 자료를 공유하고 6회의 워크숍을 통해 도시의 공공미술의 이야기를 만든 뒤, 몸짓 언어로 다시 표현한다. (2단계 : 사연을 상상하고 접촉하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정리한 아카이빙 출판물을 만들며 총 3단계의 과정이 마무리된다.

1단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을 조사하며 아카이빙 했다. 공공미술포털(www.publicart.or.kr)에 기록된 작품을 검색하고 실제로 찾아가 그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얼마나 도시 맥락과 떨어진 채 미술품이 설치된 뒤, 방치되고 천천히 훼손되고 있는지 제3자의 시선으로 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은다. 그리고 등록된 공공 미술작품은 아니지만 비전공자 시민들이 충분히 공공미술로 오인할 수 있는 홍보용 조형물, 개인 건축물, 혹은 행사의 잔여물 등 방치된 채 도시의 풍경을 이루는 형태들까지 포함하여 조사 대상을 넓힘으로써 모집한 참여자들이 공공미술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유롭게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2단계는 SNS 홍보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최종 모집된 5인은 무용, 디자인, 미디어 등 예술 전공자들로 평소 색다른 시각적 경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워크숍 초반에는 기획자가 그 동안 아카이빙한 공공미술 자료를 함께 공유하며 단순히 조형물을 비판, 비평하지 않고 각 사물에 감정이입하여 새로운 시선으로 사물과의 관계 맺기를 연습한다. 그리고 워크숍이 이루어진 서교실험예술센터 근처 및 참여자들의 생활 반경에서 볼 수 있는 조형물들과 교감한 이야기와 움직임을 만들어 공동 퍼포먼스를 만들며 마무리된다.

〈들숨날숨 보따리와 춤을〉은 기존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접근 방식도 결과도 완전히 다른 독특한 시각을 보여준다. 기획자는 랜드마크가 되지 못하고 방치된 조형물도 도시의 엄연한 멤버로 인정하고 그들의 존재 방식에 대해 아주 섬세하게 관찰한다. 예를 들어 상업지구에 설치된 조형물은 주 중에는 업무 중이고, 주말은 휴일이라 주변에 사람이 없어 휴식을 취한다고 표현한다. 반대로 대형 아파트 단지에 있는 조형물은 주말이 가장 바쁜 업무시간이라 표현한다. 이런 시선은 기존 공공미술의 학문적 혹은 정책적인 연구 리서치와도 다르며, 커뮤니티아트를 포함한 공공미술을 기획하고 만들어보는 실천적 접근과도 확연히 다르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공공미술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부각하여 변화를 촉구하기보다는 시민으로서의 한명 한명이 도시 속에서 공공미술과의 물리적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시각과 인식을 만들어 내는 단계’로서의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말한다. 참여자 5인의 기록 노트를 봐도 접근법이 색다르다. 매일 지나가던 길이고 매일 바라보던 도시 풍경이었는데, 미처 모르고 있다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조형물들의 형태와 존재를 발견했고, 오랜 기간 함께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이였지만 지금에서야 알아챈 비인간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방치된 조형물들에 대해 도시환경개선의 차원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보다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비인간 사이에 관계를 형성하여 인식의 변화가 만들어진다면 언젠가 더 크고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상상해본다.

기획자 전하경에게는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생애 첫 지원사업으로, 기획자 개인의 관심사와 대중적 문제의식 사이의 균형, 그리고 참여자들의 자율성과 기획자의 개입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많이 노력했다고 한다. 그녀의 역할 뿐 아니라 프로젝트의 결과 역시 리서치도 아니고 공연을 위한 워크숍도 아닌, 그리고 출판을 위한 과정도 전시도 연구도 퍼포먼스도 다원예술도 아닌 그녀의 애매모호한 첫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자들과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섬세해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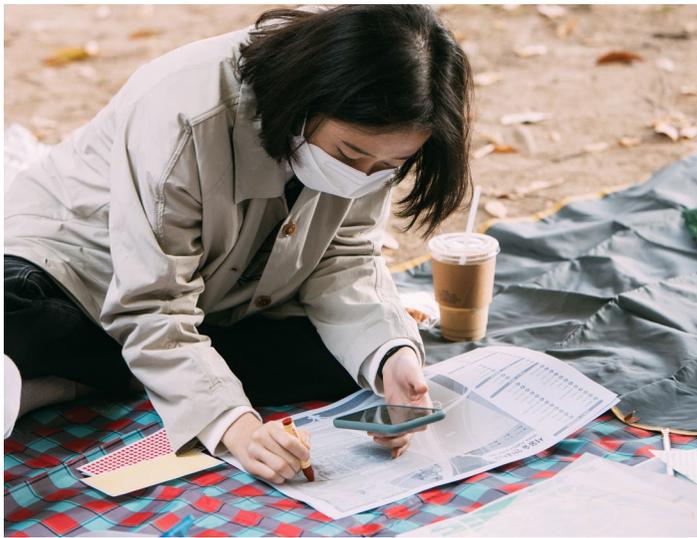


페이스타임 (Pace Time)

가을 낮, ‘쌀롱섬’이 주최하는 예술 걷기 워크숍 ‘페이스타임’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숲 공원으로 향했다. 단풍이 최고조로 아름다운 가을 날을 만끽하러 공원에 나온 사람들이 무척 많아, 워크숍 멤버들을 찾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 작은 팻말을 발견하고 가까이 가니 돛자리를 여러 개 깔아놓고 기다리는 쌀롱섬 멤버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날 진행된 예술 걷기 워크숍 ‘페이스타임’은 쌀롱섬 팀원 세 명과, 외부인원 대여섯 명이 참여하는 소규모 워크숍이었다. 외부 참여자는 SNS와 당근마켓을 통해 모집했다고 했는데, 당근마켓이 이런 예술 워크숍을 홍보하는데 쓰이는 줄은 이날 처음 알게 됐다. 당근마켓을 통해 워크숍에 참석한 멤버에 따르면 평소 산책 메이트를 찾는 글이나 원데이 클래스 참여 모집 글도 당근마켓에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고 한다.

‘페이스타임’은 특정 러닝 앱을 다운받는 것으로 시작했다. 첫 번째 미션은 정해진 시간 안에 서울숲 안에서 원을 그리며 걷는 것이었다. 러닝 앱은 이용자가 걸거나 뛰면, 자동으로 그 동선을 기록하고 러닝을 마친 뒤 다시 볼 수 있었다. 보통 동선은 길의 모양을 따라 그려지지만, ‘예술 걷기’라 칭한 ‘페이스타임’ 워크숍에서는 동선의 결과가 원형이 되는 것이 목표였다. 참석자는 걷는 동안 핸드폰을 보지 말고, 자신의 감각으로 커다란 원을 그려나가며 걸어야 했다. 평소 머릿속에 지도를 넣고 어딘가를 찾아가는 경험은 해보았지만, 특정한 형태를 그리며 걷는 건 처음이라 설레는 마음도 들었다. 당일 만들어진 워크숍 참석자용 단체 카톡방은 미션을 수행하는 동안 남은 시간을 알려주거나 다음 미션을 전달하는 등, 최소한으로만 사용됐다.

산책로가 정해져있는 공원에서 커다란 원을 그리며 걷기 위해선 길이 아닌 곳으로도 가야했다. 길이 없는 곳을 조심스럽게 지나고, 어떤 경우엔 풀쩍 뛰기도 하며 머릿속으로는 온통 마지막에 완성될 원을 떠올렸다. 핸드폰을 보지 않고 걸으니, 공원에 나온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더욱 잘 들리고 보이는 것도 신기했다. 분주히 흘러보내던 일상을 코앞까지 가깝게 끌어다 놓는 경험이었다. 산책이 끝난 뒤, 참석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각자가 완성한 다양한 원을 구경했다. 단체 카톡방에 러닝 앱의 결과 화면을 올리면, 쌀롱섬 멤버들이 즉석에서 사진으로 인화해 나눠주었다. 서울숲 지도 위에 트레이싱지를 겹친 뒤 그 위에 내가 걸으며 완성한 원형 길을 따라 그리며 방금



걸은 길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여러가지 스티커, 색연필, 마커 등으로 원을 꾸며 각각 한 장의 그림을 완성했다.

이 워크숍을 기획한 쌀롱섬 멤버 세 명은 거주지역과 생활패턴, 작업의 접점이 없었으나 같은 러닝 앱을 사용해 각자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능동적으로 '예술 걷기'를 실행, 그 결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아카이빙 해오고 있다. 이번 «생활을 바꾸는 예술» 지원사업을 통해 외부 참석자들도 워크숍에 참여해, 쌀롱섬 멤버들이 꾸준히 해 온 활동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재미난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든다. 이날 워크숍은 현장에서 모두와 함께 했지만 쌀롱섬 멤버들이 서로 만나지 않고도 꾸준히 각자의 자리에서 예술 걷기를 실행해 온 것처럼, 감염병 시대에 단절되고 고립된 누군가와 일상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연결되기 좋은 방법을 알게 돼 기뻐다. 쌀롱섬의 아카이빙이 꾸준히 계속 되어, 예술 걷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아차산아래 작은 도서관 놀자에서

술(術)내려온다

아침 10시면 누군가에게는 이른 시간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는 이제 막 개인적 시간을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8시에서 9시 반 사이, 어린이집이나 학교로 아이를 보내고 편한 복장으로 문밖을 나서기 좋은 시각.

오랜만에 가을비가 내린 아침 10시, 그렇게 대여섯 명의 엄마들이 동네 책방에 모였다. 서울에서 꽤 먼 곳에서 새벽에 출발한 나도, 이제 아들이 2교시를 시작하겠구나, 남편이 아침밥은 뭘 해줬을까 생각을 하며 그녀들 곁에 자리를 잡았다. 책방에 모인 엄마들은 아차산아래 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거나 단체의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다. 단체 구성원들은 평소에도 역할을 나누어 활동을 해온 것처럼 자리를 정리하고 오늘의 활동을 시작했다. 두 명의 참여자와 한 명의 단체 구성원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에게 유아나 청소년 자녀를 둔 엄마들의 대화는 익숙하다. 나 역시 출산 후 엄마들의 삶을 듣고 수집하는 작업을 했었고, 그런 대화 기록을 이어가는 많은 엄마이자 활동가 혹은 예술가들을 만나왔기 때문이다. 엄마들은 바로 자신으로서 이야기하며 지난 시간과 현재를 들여다보는 과정에 관심을 기울인다. 나의 오늘과 옆 사람의 어제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반복적이었던 하루하루가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는 것에 힘을 얻기도 한다. 서로가 많이 다른 줄 알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서 그 사이에서 나만의 모습과 감정을 읽어내려고 더욱 깊숙이 자신을 살피기도 한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차산아래의 그동안 활동도 그러한 과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쯤 어딘가에 예술이 있었을 텐데 그 예술의 모양이나 뉘앙스가 얼추 그려지기도 했다.





엄마들에게 이러한 과정이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는 전제는 아차산아래 외에도 여러 작업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하는 주체이자 만나고자 하는 상대방도 엄마들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이런 활동은 어떤 단체의 사업이라기보다 엄마들의 서로 간 만남이자 대화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번 작업은 누구의 생활을 바꾸려는 시도였을까. 아차산아래가 다른 엄마들을 초대하고 예술적 경험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엄마들 각자가 예술행위를 매개로 만나 생활을 되돌아보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생활의 특히 어느 부분, 어떤 순간을 얼마나 들여다보고자 했을까. 그와 관련된 주변의 인식, 관점, 사람 등을 어디까지 생각해봤을까. 엄마들 간의 대화 작업이 여러 현장에서 이어지는 요즘, 아차산아래만의 질문이 조금 다른 위치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일지 궁금했다. 서로의 삶에 깊숙이 귀를 갖다 대면 그만큼 듣고 마음 쓰는 것도 버거울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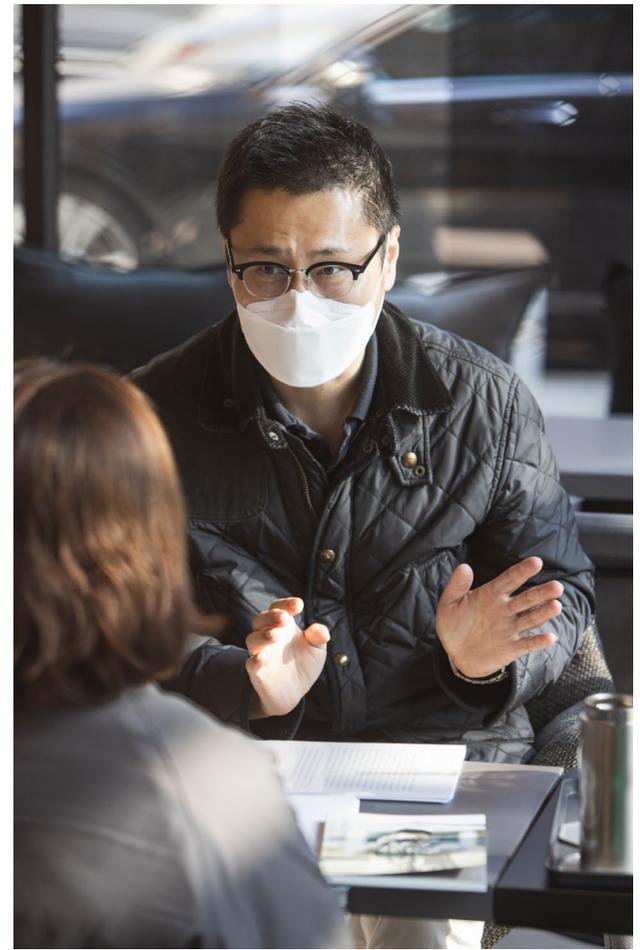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 부리나케 엄마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그녀들이 이번 작업을 사업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는 시간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玄垂幕(현수막) 프로젝트: 검게 드리운 막

내가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를 온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수도권에서 30년 넘게 살다가 읍내 근처 산촌으로 이사를 결정한 것은 삶의 환경을 바꾸고 싶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도시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 나의 작은 집이 어딘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때마다 길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저렴한 실입주금, 신축빌라, 당신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구호가 붉게 혹은 퍼렇게 나에게 말을 걸곤 했다. 정말 저런 집이 있는 걸까 바로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관련 정보를 검색해보기도 했다. 그 순간에는 현수막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내 눈앞에 등장했다는 사실보다 나도 현수막 속 집에 입주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는 것이 더 중요했다. 치솟는 집값과 멀어지는 나의 자리가 삶의 중심 고민이 되는 순간, 보이는 것은 전부가 되기도 했다.

나광호 작가 역시 가족과의 보금자리를 알아보다 서울에서 그 해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달콤한 멘트들로 도배된 불법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고 그 안에 담긴 거짓 정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현수막 관련 작업이 프로젝트의 형태로 지속되면서 작가는 주거 관련 현수막의 내용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玄垂幕(현수막) 프로젝트 : 검게 드리운 막〉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그리고 «생활을 바꾸는 예술» 지원사업에서 '탐색지원' 트랙을 통해 프로젝트의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모색 중이다. 그 과정에는 작가의 주변인들이 참여한다. 미술대학 졸업을 앞 둔 학생들이자 협업 창작자들, 그리고 현수막 디자이너인 친구 등 여러 지역에서 현수막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던 그동안의 프로젝트처럼 작가는 이번에도 주거와 관련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 프로젝트 후반부는 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기획 부동산 등을 찾아가 보다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는 도시의 주거 이슈나 사회문제로 확대 해석하기 전에 작가의 삶과 연결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사를 해야 했고 가족과 안정적으로 살아갈 집이 필요했던 한 사람에게 불법 현수막은 주거 문제를 보여주는 단순 오브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생활의 안전함을 고민할 때 사람은 지나치던 무언가를 자신의 고민과 연결하게 되기도 한다. 작가 역시 생활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를 살피고 있었을 것이다. 현수막 외에도 여러 이야기나 이미지, 현장이 삶의 질문으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는 현수막이라는 오브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시리즈 작품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 집이나 부동산에 대한 거짓된 정보, 개인의 욕망, 사회적 부조리함은 단지 현수막에만 담겨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현수막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해온 작가라면 다른 이야기의 표면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대선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이 언제나 부동산 안정인 이 나라에서 작가가 쫓을 이야기들은 차고 넘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여러 레이어로 겹치거나 꼬여버려 제도도 정책도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가는 자신의 삶, 그 어느 부분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지 생각해본다. 1년 단위 지원사업이 내놓는 질문들에 답변하는 프로젝트를 넘어 작가의 일상적 고민이 집 혹은 주거에 대한 솔직하고 긴 질문으로 이어지길 바라본다



● ZOOM(온라인)에서

빈칸살롱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예술교육자로 오랜 기간 활동했던 신현지는 2017년부터 '비어있는 시간'이라는 키워드로 꾸준히 작업한 <채집망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2021년 온라인으로 <빈칸살롱>을 진행했다. <채집망 프로젝트>에서 신현지는 낮에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밤의 쉬는 시간에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가처럼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도 비어 있는 시간에 '창작의 순간'이 활성화된다고 믿었다. 그들의 '창작의 순간'을 마치 어린아이가 채집망을 들고 곤충을 잡듯 작은 일상들을 잡아내 웹사이트 공간 <채집망 프로젝트>에 모은다. 생산을 위한 (돈을 벌기위한) 시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밤 시간에 정기적으로 모여 시를 쓰며 자신이 가진 비생산의 시간들을 가시화 하고, 작가는 이를 재구성하여 영상을 만든다. 이 영상을 워크숍 참여자들 공동의 작업이자 동시에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품으로서 전시한다.



〈빈칸살롱〉은 비어있는 시간을 활용한 시 창작 워크숍이라는 기본 개념은 동일하지만, 여기에 비대면으로 차를 함께 마시며 능동적으로 시간을 비우는 단계를 추가한다. 참여자는 돈을 내고 워크숍을 등록하고 ‘빈칸키트’를 추가로 구매한 뒤 줌(Zoom)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워크숍에 참여한다. ‘빈칸키트’는 1인이 차를 마실 수 있도록 개완과 찻잔, 찻잔 받침, 찻잎 2가지, 그리고 시를 쓸 수 있는 빈 노트와 연필로 구성되어있다. 워크숍 시작 전 미리 뜨거운 물로 찻잔을 소독한 뒤 줌 링크가 도착하면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열고 키트를 앞에 놓으며 시작한다. 다도에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를 위한 각 기구의 설명과 찻잎의 설명을 들으며 직접 차를 우려 마신다. 마시면서 그 차의 유래, 재배방식, 맛과 향의 특징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천천히 낯선 참여자들 사이의 어색함을 줄인다. 한 시간 정도 두 가지 찻잎을 우려 마시며 선조들이 창작했던 다시(茶詩)를 함께 읽고, 자신의 이야기를 끌어내기 시작한다. 갑자기 시를 짓는 행위가 어색하지 않도록 요즘 근황에서 키워드를 6개 정도 발굴한 뒤 그 키워드를 조합하여 자신만의 짧은 시를 완성하도록 한다. 돌아가며 시 낭독 후 감상을 공유하며 워크숍은 마무리된다. 참여자들의 시는 온라인에 게시하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작가는 대학 졸업 후 다도를 배우며 자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매료되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작가가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일로 예술교사 활동을 한다. 교육의 특성에 따라 참여자 혹은 학생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오래 반복될수록 예술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회의가 생기는데, 신현지도 ‘생산적인 일’ 이후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비생산의 시간, 빈 시간, 창작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 경험을 주변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리고 기존의 예술교육이나 예술활동과 약간 거리를 두며 공적 지원 이외에도 작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분리하였다.

«생활을 바꾸는 예술»은 그동안 그녀가 지속해온 공공적 작업으로의 ‘채집망 프로젝트’에서 발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게 도와주었다. 깔끔한 로고와 패키지 디자인, 쉽게 카드 구매가 가능한 기능까지 소비자는 빈칸살롱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서비스를 이해하고 소비할 수 있다. 예술 지원이 아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녀가 그 동안 공공지원사업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를 주며 자신을 소진했다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변화를 주는 첫 시작을 지원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아마도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 창업과 예술, 중간 모호한 지점에서 그 역할이 있을 듯하다.

공장달리기(신용산)

그는 달리는 사람이에요.

L에게.

안녕하세요.

산책하러 나갔다 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추워서 조금 더 걸었지요. 당신은 종종 뒷산에 오른다고 했지요? 땅이 딱딱하게 굳는 계절이니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산책하듯 걷는 게 좋아요. 걷다 보면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고 비어 있는 생각이 채워지기도 하거든요. 당신의 뒷산 오르기도 그럴까요? 아무튼 동네를 목적 없이 이리저리 걸었어요. 발걸음을 집으로 틀었는데, 한 남자의 가쁜 숨소리가 저 뒤에서부터 빠르게 쫓아와 이내 저를 앞질렀습니다. 소실점을 향해 사라지는 그 남자의 등을 보며 “약속 시간에 늦었나?”하고 중얼거렸죠. 그 순간 얼마 전에 만난 K가 떠올랐어요.

그는 달리는 사람이에요. 쓰고 보니 육상 선수를 떠올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심지어) 취미로 달리는 아마추어 러너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취미 혹은 그 이상이라면 달리기는 일상생활에 포함된 루틴이겠지만 그의 달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일회성 이벤트도 아니고 깜빡이는 신호등을 보고 재빠르게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한 뒤통잡질도 아닙니다.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가 달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비정기적으로 꾸준히 달리고 또 달리려고 해요. 루틴과 이벤트 사이 어딘가에 그의 달리기가 걸쳐 있어요. 저는 이 점이 이상하면서도 재미있답니다.

당신의 등산이 대개 아침에 저의 산책이 주로 낮에 이뤄진다면, 그의 달리기는 밤에 벌어집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늦은 밤과 이른 새벽 사이에 달린다고 해요. 거의 모든 것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지요. 아침의 달리기가 하루를 맞이하기 위함이라면 밤의 달리기는 오늘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그렇다면 늦은 밤과 이른 새벽 사이의 달리기는 어떨까요? 적어도 그는 거리의 우연한 마주침을 피하려는 듯 보였어요. 아마도 자기 자신과 만나기 위해서, 좀 더 선명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한 선택 같아요. 늦은 밤은 안으로 파고드는 시간이니까요. 숨죽인 도시 속에서 홀로 달리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봤답니다. 그건 자신과 만나는 시간인 동시에 도시라는 거대한



복합 생명체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의 달리기가 특이한 점은 공장 혹은 한때 공장이었던 장소를 거점 삼아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어 보였지만 확실한 건 그가 공장이란 건축물에 매료되었다는 겁니다. 거대한 덩치의 건물, 그 건물 안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와 사람, 그리고 그들이 내는 반복적인 소리 같은 것이 그를 끌어당기는 듯해요. 이때 공장은 도시를 움직이게 하는 장치로 변신해요. 그의 일정한 보폭과 숨소리가 공장의 규칙적인 움직임, 소음과 겹치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의 공장 달리기는 그 거대한 공장/장치와 하나가 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공장이었던 장소, 지금은 다른 건물이 들어선 곳 주변을 달리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일종의 곳으로 보이더라고요. 사라진 공장의 기운을 끌어오기 위한 의식일까요?

그는 자신의 달리기를 영상으로 기록하기도 해요.¹ 달리기 영상은 우리가 늦은 밤 이른 새벽 사이에 그와 함께 달리지 않는 한 - 하지만 그는 함께 달리는 것을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 그의 달리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같아요. 달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는 건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 같지만, 그의 달리기 영상은 재미와 궁금증을 불러냅니다. 카메라의 출력이는 시선은 FPS(1인칭 슈팅

1 <https://www.youtube.com/user/qingwenyixia/videos>

게임)를 떠올리게 하고, 달리기 장소가 가동을 멈춘 공장 안이거나 잠든 도시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으스스한 분위기가 납니다. 마치 디스토피아나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무대처럼 말이죠. 영상 뒤로 흐르는 인더스트리얼 테크노 계열의 음악은 이 같은 분위기를 증폭시킵니다. 쿵쿵거리는 비트는 공장 혹은 도시의 맥박처럼 들리기도, 때론 그의 보폭과 호흡처럼 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음악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더 많이 합니다. 텅 빈 공장을 달릴 때 울리는 발걸음 소리, 잠든 도시를 가르는 거친 숨소리가 더 듣고 싶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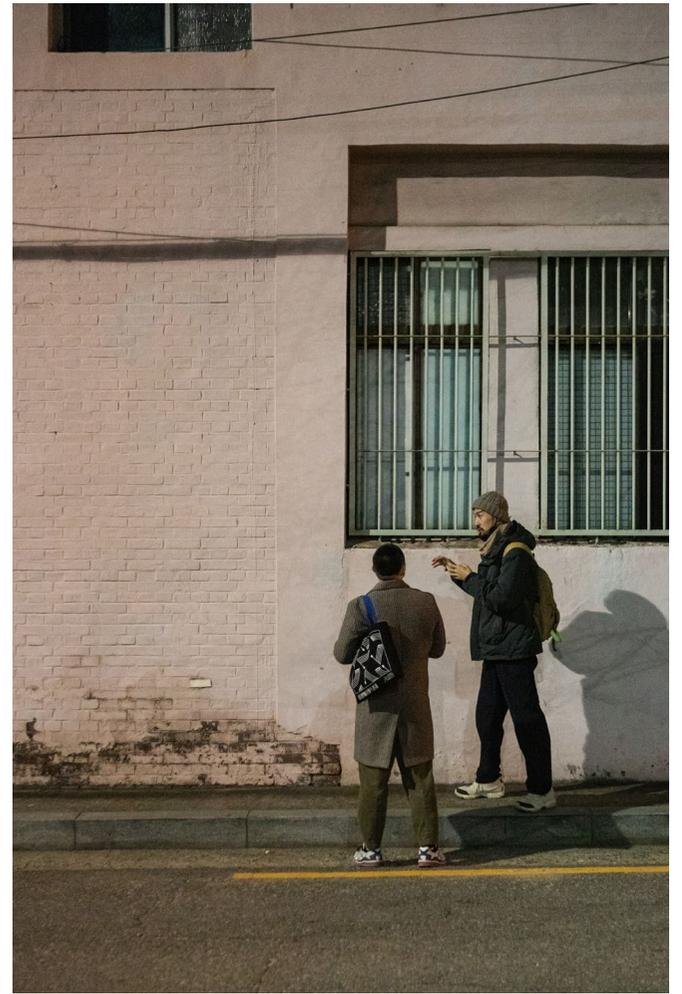
K를 만난 저녁, 우리는 용산 일대를 걸었어요. 과거에 공장이었던 장소, 건물, 흔적들을 알려 주었고, 공장에 얽힌 역사에 관해 들려주었어요. 그는 역사학자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부동산학자처럼 보일 때도 있었어요. 저는 그와 걸으며 걷기와 달리기에 관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조사한 것을 더 찬찬히 들여다보려면 걷기가 더 좋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이걸 제가 달리기보다 걷기를 좋아해서겠죠? 정말로 그는 옛 공장과 현재 건물 사이, 자신이 조사한 역사와 자신이 감각하는 지금 사이의 시간적-물리적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 달리는 걸지도 몰라요. 마치 리처드 도너 감독의 <슈퍼맨>(1978)에서 슈퍼맨이 지구 주위를 빠르게 날면서 시간을 되돌리는 장면처럼 말이죠. 물론 그것은 현실에서 이뤄질 수 없는 일이지만.

그와 헤어지기 전 용산역 구름다리에서 크고 텅 빈 땅을 보았습니다.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컴컴한 땅이 빈 그릇처럼 느껴졌어요. 문득 그의 달리기에서 공장을 지우고, 그 자리에 공장이 아닌 다른 무엇 혹은 다른 이야기를 넣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개인적이고 내밀한 이야기를 장소에 심어서 달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전혀 다른 모양의 달리기가 되겠지요. 그가 공장 달리기를 할 때 누군가는 다른 방식으로 달리는 모습을 그려봐요. 아니, 달리지 않고 걸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럿이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각자의 호흡으로 달리거나 걷는 모습을 떠올려 봐요. 거리 곳곳에서 만났다가 헤어지는 숨소리와 발걸음이 도시를 가득 채우는 풍경을 상상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326



327



● 플랫폼 팜파에서

만성탈수 간병하기

0.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진실은 인간이란 돌봄과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고, 개인의 희생이 아닌 협력적 공공의 개입을 통해 돌봄이 이뤄질 때 가장 공평하다는 것이다.¹

1.

그들은 전망 좋은 이층집에 모입니다. 서로 모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분위기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짝지를 찾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가 누구인지 몰라야 하는 자리입니다. 모르는 누군가를 돌보는 것은 이 모임의 중요한 규칙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모두 본명을 잠시 지우고 별명을 입습니다. 서글프게도 팬데믹이 강요한 마스크가 서로를 알아보기 어렵도록 보탬니다. 어느 모임과 다를 바 없이 자기 자신을 어색하고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서로를 향한 짧은 인사가 끝나자 설문조사가 시작됩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니 [만성탈수 간병하기 문진표]라고 적힌 그것은 어딘가 조금 혈령해 보입니다. 하지만 모두 조용히 자기 몸을 곰곰이 돌아보며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이층집은 병원이 됩니다. 그것도 잠시, 병원이란 무대는 의식(儀式)의 장소로 바뀝니다. 그들은 컵 하나에 물을 조금씩 나누고 그 물을 다시 모아 휴대용 가습기에 연결합니다. 나누고 모았던 물은 수증기가 되어 그들의 들숨과 섞입니다.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의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휴대용 가습기를 마이크 삼아 서로 돌아가며 자신이 품고 있는 기대와 의지를 공유합니다. 서로의 몸에 손을 대고 마음을 모아 서약서를 낭독합니다. 서약식의 마법은 이상한 일과 함께 끝납니다. 모두에게 계약서가 쥐어진 것입니다. 문진표를 작성할 때와는 다른 분위기의 차분함과 어리둥절함이 느껴집니다. 의식의 장소는 어느새 사무실이 됩니다. 작성된 계약서가 책상 위에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한 명씩 이층집을

¹ 김현미, 「코로나19와 재난의 불평등」, 『코로나시대의 페미니즘』, 김은실 엮음 (휴머니스트, 2020), 79쪽

떠납니다. 그들이 떠난 사무실은 다시 전망 좋은 이층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층집에서 병원으로, 병원에서 의식의 장소로, 의식의 장소에서 사무실로, 그리고 다시 이층집으로 변신하는 과정의 매끄러움은 신기하고 이상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공간이 한 자리에서 접혔다가 펼쳐지는 모습은 돌봄의 복합성을 대신하여 보여주는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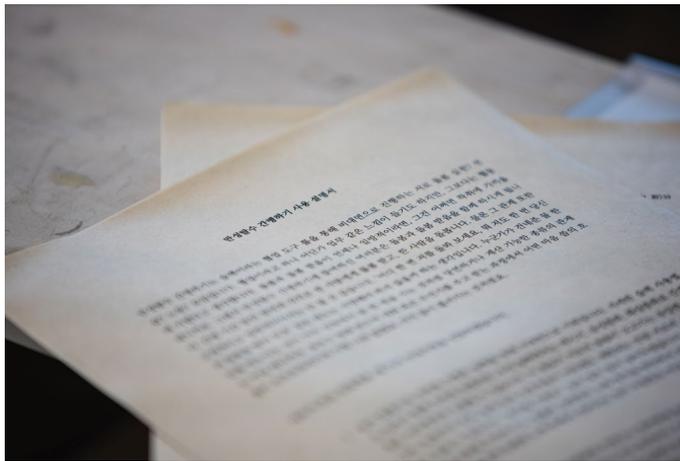
2.

모임에 참여한 A는 이제 간병인이자 환우가 될 겁니다. 그는 비대면 상태에서 누군가를 돌볼 것이며 동시에 다른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을 것입니다. A는 B의 간병인이 될 것입니다. A는 어제 대충 훑은 B의 문진표를 다시 볼 것입니다. 또박또박 쓰인 글씨들을 천천히 따라가며 B를 상상할 것입니다. A는 B가 자신보다 건강할 거라고 결론지을 것입니다. ‘내가 해줄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순간, 모임에서 받은 [만성탈수 간병 교육] 페이지에 적힌 덕목 중 ‘기꺼이’란 단어가 생각날 것입니다.² ‘일단 인사를 해야겠지?’ 그는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기에 한동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기만 할 것입니다. 그때 A를 간병하기로 한 C의 메시지 알림이 그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짧고 반가운 인사말과 물 한 잔 마시라는 권유와 함께 덧붙인

2 “굳이’의 생각이 들 때 ‘기꺼이’로 대체하기” (만성탈수 간병교육을 위한 배부 자료 중 ‘기꺼이’ 항목)

이모티콘. 신기한 듯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 볼 것입니다. A는 냉장고를 열어 탄산수 300ml 페트병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아침에 끓인 옥수수보리차를 투명한 컵에 한가득 따를 것입니다. 한 모금 마시자마자 그는 아차차- 소리를 내며 마신 만큼 다시 채울 것입니다. A는 맑은 진노랑색 옥수수보리차가 가득 찬 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숨에 컵을 비울 것입니다. 흐뭇하게 웃으며 A는 빈 컵을 다시 스마트폰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그는 가득 찬 컵 사진과 빈 컵 사진을 왔다갔다 여러 번 번갈아 보며, ‘만성탈수 간병하기’에 신청했을 때를 생각할 것입니다. A는 처음 모집 공고를 보았을 때 빼박한 표정을 지었다는 걸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만성탈수’와 ‘간병하기’는 붙어 있기에 어딘가 어색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계절 상관없이 물을 곧잘 마시기에 이 모임에 참여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참여 신청 메일을 보낸 까닭은 막연한 호기심만큼이나 ‘돌봄’이란 단어 때문임을 떠올릴 것입니다. A는 팬데믹 이후 자기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진 느낌을 줄곧 받아 왔음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자신과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에 한동안 서로 잡혀 왔음을 생각할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손에 잡히지 않아 가우뚱했던 경험을 떠올릴 것입니다.





ZOOM 회의를 마치고 텅 빈 화면과 작은 방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아직 남아 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은 외로움과는 다른 종류의 단절임을 확신했던 날을 상기할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이 습관처럼 말하는 각자도생에 진절머리 찼던 경험을 생각할 것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오늘에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다시 찾고 싶어 했음을 떠올릴 것입니다. A는 읽던 책에서 ‘돌봄’이란 단어를 보고 ‘상호의존성’을 떠올렸던 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층집에서의 첫 대면 만남과 그때 경험한 마법 같았던 순간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는 ‘만성탈수 간병하기’가 거대한 맥거핀일거라고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상호의존성을 되살리기 위한 빈 자리 같은 것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만지지 않고 어루만지는 과정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며 아직 C에게 답하지 않고 있었음을 깨닫고 멧쩍게 웃을 것입니다. 그는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C님. 반갑습니다.
사진 두 장 보낼게요.
C님 덕분에 기분 좋게 물 한 잔 마셨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님. 반갑습니다.
우리 물 한 잔 마실까요?
저는 조금 전에 한 잔 마셨지만, 물 마시는 거 좋아해서
B님과 함께 한 잔 더 마시려고요. 어때요?”

* A, B, C는 필자가 ‘만성탈수 간병하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뒤 만든 가상의 인물임을 밝힙니다.

모던 그로테스크 타임스

Modern Grotesque Times

폭설이 내린 날, 스페이스XX에(문래동) 도착하니 전시장 한 가운데 천장에 매달린 커다란 돌덩이 아래 찌부러져 식사를 하고 있는 4인 가족의 모습이 눈에 강렬하게 들어왔다.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을 주제로 한 오선영(SUN OH) 작가의 퍼포먼스였다. 잘 차려진 밥상에서 네 사람이 식탁과 돌덩이 사이에 얼굴을 비집어 넣고 무표정한 얼굴로 밥과 반찬을 입에 쑤서 넣고 있었다. 보기만 해도 입안에 모래알이 굴러다니는 것처럼 불편한 광경이었다. 오선영 작가는 때려야 뭉 수 없는 가족 문제에 대해 무척 직관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사용해, 수련하듯 퍼포먼스를 펼친다. 약 15분가량 네 사람의 일그러진 가족 식사 퍼포먼스를 관람한 뒤 천천히 전시장을 둘러보았다. 동시대의 사회, 문화 속 ‘그로테스크(grotesque)’한 것들을 기록하고 탐구하는 네 명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 중이었다.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백도(Pakdo) 작가 작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OS) ‘붉은별’에서 쓰이는 이미지를 조합하고 재구성해 하나의 디지털 시각 이미지로 만든 것이다. 가짜 무궁화 꽃이 활짝 핀 제단 위에 걸린 커다란 액자 속에는 전시장 한켠에 놓인 컴퓨터를 통해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붉은별’ OS 속 아이콘과 이미지들이 뒤섞여 있었다. 2000년대 초반에 사용했던 MAC OS와 닮은 점도 많았지만, 모든 것이 조선어로 표기된 ‘붉은별’ OS는 확실히 ‘낯선’ 모습을 하고 있었다. 2021년에 살고 있는 남한 디자이너의 눈에는 더욱 ‘그로테스크’ 했으리라 짐작된다.

한국계 미국인 시각 예술가 나미라(DYLAN MIRA)의 작품 ‘밤 시각’은 전시장 가장 안쪽에서 프로젝터를 통해 영사되고 있었다. 가족 중 무속인이 있었던 작가가 무속신앙에 대한 탐구를 이어나가는 중, 카메라의 결합인지 영적인 영향인지 모를 이유로 자신이 찍은 과거와 현재의 푸티지들이 뒤섞여 나타나는 현상을 마주하고 그 결합을 그대로 살려 ‘밤 시각’을 완성한다.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뿌연 화면과 대낮의 거리를 호랑이처럼 기어 다니는 작가의 모습이 앞뒤 없이 섞여 보는 이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 ‘모던 그로테스크 타임스’ 웹페이지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작가는 ‘서양인의 시선에 비친 동양인 육체의 초여성성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한다. 초여성성 안의 괴물성과 비-인간성을 탐구한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수상한 장소, '강남창고'에 대한 디자이너 콜렉티브 스텝 디자인(STUFF DESIGN)의 비디오와 설치작품을 관람했다. 디지털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흘러넘치는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물리적인 가치인 쌀=공공비축미를 보관하는 '강남창고'에 대한 탐구는 흥미로웠다. 공공연한 비밀이 많은 대한민국 안에서 일상적인 공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침탈과 전쟁, 분단국가의 현실'을 마주하는 경험을 우리 모두 한번쯤 해봤으리라. 전시장에 놓인 실제 빵튀기 기계는 일정 시간이 되면 "빵이요!"하고 쌀을 튀겨 한쪽 벽에 거대한 쌀튀밥 산을 만들고 있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전시를개최 중인 <모던 그로테스크 타임스>는 오프라인으로 퍼포먼스와 영상, 설치 작업 등을 관람한 뒤, 무척 모던한 형태로 잘 꾸려진 웹페이지에서 참여 작가들의 인터뷰를 읽으며 작품 세계를 이해해 나가는 재미가 있다. 시대를 가늠하기 어려운 모습의 <모던 그로테스크 타임스> 웹페이지는 '붉은별' OS의 메인폰트인 천리마체로 만들어져 페이지 디자인 자체로 이 프로젝트의 주제인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풍긴다. 웹페이지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원/달러 환율 시세도 그 그로테스크함에 한 몫을 한다. 오프라인 전시장 내부에도 신문 인쇄소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 설명 설치물이 사이사이에 놓여있어 '신문' 형태와 이미지로 온/오프라인 전시를 통일감 있게 꾸린 모습이었다. 프로젝트 기획/총괄을 맡은 연구모임 칼리고라이트의(Caligolite) 기획력, 실행력이 돋보이는 완성도 높은 훌륭한 전시였다.

36 Ways

2021 «생활을 바꾸는 예술»

참여자 36인의 인터뷰집

총괄 문화시민본부장 백승우

기획·운영 생활문화팀 팀장 이주영, 김유리, 강민혜

인터뷰·에디터 장미란

사진 피그리프스튜디오 및 선정자 제공

디자인 브랜드디렉터스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대표이사 이창기

발행일 2022.02.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팀

(0308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승길 122

www.sfac.or.kr

본 자료집에 수록된 글과 이미지의 저작권은 서울문화재단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

